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ISSN 2714-1187

2025년 7월 제12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SN 2714-1187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일반논문

- 005 류명옥 | 구비 설화에 나타난 질병 서사와 여성의 역할
- 027 김남석 |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세대 전환과 문화 충돌
- 061 김 의 |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방안 연구
— 타이완 허우통(猴硐) 고양이 마을 사례 —
- 083 박성은 | 스포츠 관람 커뮤니티의 개별화 현상
— KBO와 e스포츠 비교 분석 —
- 111 박영민 |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
- 135 박정하 | 이동하는 주체, 구성되는 감정
— 조기유학 귀국 청년의 감정 서사와 사회적 맥락 —
- 163 사용진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인식 차이 연구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
- 185 유진영 |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탐색
—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따른 시설 공유 방안 —

- 209 이은희 | 감정의 정치학으로 읽는 K-드라마 가족극
— <폭삭 속았수다>의 서사와 수용의 권력 구조 —
- 235 정종민 | 수의 만들기를 통해 본 삶과 죽음의 창발적 얹힘
— 다알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 267 진소영 | 무리디야 디아스포라의 테랑가(Teranga) 실천에 관한
연구
— 종교적 환대, 의례적 송금,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
- 285 최장미·추주희 | 지역에서 ‘완벽한’ 엄마로 살아가기
— J지역 40대 전업주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서평

- 321 강익혁 |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평화
- 325 ■ 발간 및 투고 규정
- 329 ■ 논문 심사 규정
- 333 ■ 연구 윤리 규정
- 338 ■ 임원 명단

구비 설화에 나타난 질병 서사와 여성의 역할*

류명옥**

목 차

1. 들어가며	3. 질병 치유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의미
2. 설화에 나타난 문동병 질병 서사의 양상	4. 나오며

■ 국문초록

인간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문동병 유형 설화를 통해서 설화 속에서 문동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살펴보면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 문동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 또는 여성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문동병 설화에서 남성이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 남성을 위해 정성껏 병을 간호하는 여성을 ‘열녀’라는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열녀로서의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편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약자라 할 수 있다. 이 유형 설화는 여성의 질병 치유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부부로서 인정받으며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문동병 설화에서 여성이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 여성이 처녀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하룻밤 동침한 남성으로 병이 낫게 된다. 물론 여성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유형도 있지만, 남자의 첫 번째 부인이 돌보아주는 유형도 있다. 이 유형에서는 병에 걸린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이 치유자로 등장한다.

이처럼 문동병 설화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구연되고 있으며,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의리 및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2S1A5B5A17049814)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는 다른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설화, 질병, 문둥병, 전염병, 치병, 치유자, 여성, 가족 공동체

1. 들어가며

질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이며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가볍게 치유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도 있다. 이처럼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질병 이야기는 구비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설화에는 여러 질병 이야기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한센병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비 설화에서 구연자들이 부르는 용어인 문둥병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문둥병은 의서(醫書)에서 악풍(惡風)이나 기해(忌害)해야 할 것에 범촉(犯觸)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았다.¹⁾ 이 병은 사람들이 꺼리는 질병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질병이다.

이처럼 혐오 대상이 되어 온 문둥병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질병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문둥병을 치료한 여성의 열녀로서의 모습에 주목하여 논의되어 왔다. 문둥병이라는 질병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문둥병에 대한 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²⁾ ‘열녀’라는 이데올로기의 실현이 문둥병 설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문둥병 설화에서는 병에 걸린 남성, 남성과 혼인하기로 한 여성은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은 약자들이다. 혐오스러운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남성과 여성, 오직 두 사람만이 문둥병을 치유하게 되고, 문둥병의 치유로 인해 완전한 부부

1) 허원기, 「질병치유이야기의 문제의식과 의미」, 『동화와 번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2) 최원오, 「한국 설화문학에서의 ‘문둥병’에 대한 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 『일본학연구』 제52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열녀’로서의 파격적인 행동이 나타나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한 가족 또는 한 가문에 온전히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와 그러한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열녀’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질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을 외면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질병과 가족의 관계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둥병 유형 설화 중에서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는 유형은 남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와 다른 방향으로 서사화되어 있다.³⁾ 남성이 문둥병에 걸리는 유형의 설화에서는 ‘열행’이 의미화된 아내의 행위가 핵심이라면,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유형의 설화에서는 활인(活人)의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여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의 경우, 병을 치유하는 방법과 치유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남성이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는 설화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문둥병에 대한 인식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병을 치유하는 돌봄의 의미와 함께 돌봄을 시행하는 주체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나병 설화를 대상으로 ‘가족’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⁴⁾ 전근대 설화와 근대 전후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나병환자가 가족이 아니라 병원과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은 가족에게 배제된 존재, 희생을 강요당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질병 서사 안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이다. 전근대 시기의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설화 자료를 통해 한국 나병 설화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에게 배제되고 희생을 강요당한 여성

3) 한유진, 「<문둥이 처녀 거둔 남자>에 나타난 활인(活人)의 양상과 전승 인식」, 『구비 문학연구』 7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4.

4) 한순미, 「한국 한센병과 가족이라는 장치」,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의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질병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둥병 설화에서는 여성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격리되어 남성 역시 가족에게 배제된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족 구성원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둥병 설화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구연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미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우연히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화는 결혼 전에 문둥병에 걸린 남성을 여성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 설화는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남성을 부부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의 모습과는 차별되는 이야기이다. 결국 문둥병 설화는 질병의 혐오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부부관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 남성과 질병을 치유하는 여성이 부부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다양한 가족관계의 맺어짐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애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주는 따뜻한 인간애와 의리, 책임감, 그로 인해 열녀로 평가받는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기반으로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젠더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족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도 희생의 대상이지만 병에 걸린 남성 역시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죽음을 초월하는 부부관계를 긍정하면서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들은 오히려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효행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 질병 서사를 가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병들 가운데 문둥병이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둥병은 어떠한 질병이며,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들은 문둥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둥병 설화에서 문둥병을 치료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가장 혐오스럽고 기피하는 질병을 치유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은 질병에 대처하는 여성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문둥병 질병 설화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질병과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설화에 나타난 문둥병 질병 서사의 양상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문둥병 질병 서사를 통해서 설화 속에서 문둥병이라는 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에 나타나는 문둥병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나는 문둥병 설화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둥병 설화 목록〉

	제 목	제보자 성별	비고
1	남편 문둥병 고친 열녀 괄씨	남	2-4(강원도)
2	남편 문둥병 고친 효부	남	3-2(충청북도)
3	비상(砥霜) 먹여 신랑 소생시킨 열녀	남	4-5(충청남도)
4	남편 문둥병을 고친 열녀	여	7-2(경상북도)
5	문둥병을 치료한 열녀	남	7-2(경상북도)
6	남편 문둥병 고친 괄씨	남	7-3(경상북도)
7	문둥병 걸린 신랑 살린 김정승 딸	여	8-6(경상남도)
8	효성 끝에 복 받은 셋째 딸	여	8-13(경상남도)
9	적선으로 얻은 문둥이 처녀	남	1-1(서울시)
10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남	6-3(전라남도)
11	문둥병 처녀 낮게 한 총각	남	6-8(전라남도)
12	문둥병 고친 이야기	남	7-6(경상북도)
13	과거 군과 문둥이 처녀	남	8-1(경상남도)

위의 제시된 설화들은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가,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 기본 서사 내용이다. 구비 설화에서 질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질병의 증세나 질병을 낮게 하는 방법,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다. 구비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은 뚜렷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나 질병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설화를 전승하는 구연자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상'을 강조하고자 한다.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설화 구연자들에게 질병이라는 병명보다 어떠한 질병도 정성을 다해서 치유하고자 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설화를 구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 제시된 문둥병 설화 목록의 내용을 보면 짧은 이야기로 구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둥병 설화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문둥병이 성별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질병과 질병 치유자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볼 경우, 가족 공동체로 확장되지 못하는 설화들도 있어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설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문둥병 설화는 위의 목록 외에도 여러 설화들이 있지만, 가족 공동체로 확장되지 않는 설화를 제외하면 위에 제시된 설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둥병 설화에서 환자가 남성인 경우, 병이 낮게 되는 방법은 문둥병에 걸린 남성을 본 여성이 비상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남성이 우연히 비상약을 먹고 낮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남성으로 나타나는 설화를 보면 내용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설화 목록에서 남성이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는 설화는 1번~8번까지이다. 그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설화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우연히 남성이 문둥병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2번~8번까지는 문둥병에 걸린 남성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 결혼 후에 문둥병에 걸린 남성이 자신의 남편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문둥병 환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알게 되느냐, 결혼 후에 알게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유형의 설화에서 여성들은 모두 ‘열녀’로 칭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은 여성의 모습 또는 남성을 위해서 정성으로 병을 간호한 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번의 설화에서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이는 열녀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2, 5, 6번에서도 자신의 허벅지를 떼어 남편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1번의 설화에 비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4, 8번의 설화에서는 서당 학동 또는 자신을 좋아하는 총각을 술독에 빠져 죽게 하여 그 술을 남편이 마심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성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먹이거나, 타인을 죽게 함으로써 그 인육 등을 먹는 것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병이 치유된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설화 속의 여성들은 ‘열녀’로 평가받게 된다.

그렇다면 남성의 문둥병을 치유해야 하는 사람이 왜 여성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원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아내인 여성이 치유자로 등장한다. 물론 이러한 설화들은 문둥병이라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이 ‘열녀’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화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 없는 여성이 남성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하고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는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 지식은 필요 없다. 대신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수 있지만,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두려운 질병의 치료 방법이 전문적인 의학이 아닌 ‘정성’으로 치유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자가 출가하기 전에도 옛날 노인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던지 나병 환자 문둥이 병에는 뭐냐하면 인륵고기를 먹으면 낫는다는.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 인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하니까 비상을 섞어서, 그래고서 제 허벅지 살을 칼로 베어 가지고서 어 난도질을 해가지고 비상을 섞어 가지고서 갖다 먹인다 이거여.

“이거 웬 고기냐?”

“소고이요.”

“소고기?”

하여튼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소고기 한 번 이렇게 육회를 해서 갖다 주는걸 못 봤는데 마누라는 달르거든⁵⁾

위의 설화를 보면 아내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문둥병에 걸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는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 설화는 문둥병이라는 질병의 의미보다 여성이 남편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는 행동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나 치유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설화를 ‘열녀’ 또는 ‘이데올로기’에서만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설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유형 설화에서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는 것은 열녀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만, 열녀로서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에게서 시선을 돌려 문둥병에 걸린 남편의 모습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편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 안의 가족 구성원에게 포함되지 못하고 집 밖에 머물게 된다. 남성의 가족들은 문둥병이 다른 가족들에게 옮겨질까 걱정되어 남성을 집 밖의 움막이나 토굴에서 지내도록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에게 받는 차별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⁶⁾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집 밖의

5) <남편의 문둥병 고친 효부>, 『한국구비문화대계(3-2)』, 한국학중앙연구원 50면.

6) 17세기 초 김택룡이 쓴 <조선당일기>의 기록을 보면, 정희생이라는 사람의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상대해 주지 않아 친척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어머니는 목을 매고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일화가 있다. 모두가 기피하고 감염되었을 때 철저히 고립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야 할 수밖에 없다. 전염병으로 피신하고 격리하는 당사자가 분리되면서 품었을 두려움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서경희, 『조선 후기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기억 서술과 의미』, 『어문학』

공간으로 격리되어 가족과 소통이 단절된다. 몇몇 설화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남성이 한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화에서 질병에 걸린 남성의 아픔과 소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문둥병으로 인한 아픔은 아내인 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문둥병으로 몸에 짓물이나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모습으로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다. 남성이 문둥병에 걸려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 문둥병에 걸린 남성에게 직접 찾아가는 가족들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여성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남성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된다. 여성은 남편이 겪는 문둥병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짓물과 종기가 난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는 모습,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 모습 등 문둥병에 걸린 남성의 처참한 모습은 설화 속의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내인 여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문둥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다. 그러나 열녀라는 이데올로기 또는 도덕적 이념에서 벗어나 문둥병에 걸린 환자와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설화를 이해할 때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화에서 남성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에 걸린 남성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소외된 약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역할을 함으로써 열녀라는 도덕적 이념에서 보여주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설화 속의 여성은 혼인한 날 남성을 한 번 잠깐 만난 후, 한 번도 남성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남성의 가족들은 여성에게 집 밖 또는 집 뒤의 움막이나 토굴에 가지 못하게 한다. 여성에게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시켰던 가족들, 병이 전염될까 걱정되어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 주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설화를 ‘열녀이데올로기’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설화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혼인을 한 여성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로 앞의 설화 목록에서 10~13번까지에 해당된다.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는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처녀로 등장한다는 것이 남성 문둥병 설화와 차이를 보인다.

질을 잊어버려서 헤치고 대니는다. 불이 뻥허게 비치거던. 찾아들어가서 잠 좀 자고 가자고 허니께 이쁜 사기내가 나와, 가시내가. 참 좋거던, 잠도 못자구 붙어있지. 이놈의 가시내가 참 비어먹어도 비린내 안나게 생겼어. 그래서 같이 잤단 말이여. 아침에 보니께는 툭툭 터져갖고 순전히 나병자여. 그런디 정승의 딸여, 정승의 딸인데 함막을 쳐놓고, 함막이라고 그 산중이다가 막을 쳐놓고 밥을 날라다 줘. 그러나 이듬해 한해 끌려서 그날 날자로 받아줬어. 서로 그때 만나자고. 그런디 이 여자가 서방님 오면 술 줄라고 술을 좋게 향아리다 해 놓고는 담어놔는다.⁷⁾

문둥병에 걸린 처녀는 정승의 딸로 명문가 집안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은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명문가 집안의 딸이지만 문둥병이라는 전염성 때문에, 산속에 집을 지어 놓고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남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을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를 볼 때, 문둥병의 치유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명예와 권세, 부유함이 있어도 전염성이 강한 질병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화 구연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7) <문둥병 처녀 낮게 한 총각>, 『한국구비문화대계(6-8)』, 한국학중앙연구원, 423면.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질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에서 여성이 처녀로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화 내용을 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여성에게 길을 지나가던 남성이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된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남성은 하룻밤 동침 후에 여성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망가 버린다. 매력적인 성적 대상이었던 여성이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며,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결국 문둥병에 걸려 가족에게 소외되어 고독하게 살아가는 여성은 동침한 남성에게 다시 소외와 차별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이 설화 역시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과 하룻밤 동침한 남성을 여성이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하룻밤 동침한 남성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애정 어린 여성이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과 함께 마실 술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남성에게 문둥병이라는 질병은 중요한 의미가 된다. 문둥병에 걸린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애정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피하고 혐오스러워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 설화는 앞의 설화와 치유 방법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인다. 기다리던 남성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여성은 자신이 만든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병이 낫게 된다. 몇몇 설화에서 여성은 직접 담근 천년 묵은 뱀이나 이무기가 들어 있는 술을 먹고 병이 낫기도 한다. 문둥병에 걸린 여성이 병이 낫게 되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뱀과 이무기를 넣어 만든 술은 약술의 역할을 하지만, 문둥병의 치유 방법이 술이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여성이 문둥병을 치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병을 치유하고 있다는 점과, 술을 먹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이 치유자로 등장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성이 치유자로 등장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둥병의 치유자가 스스로의 치유이거나 타인을 치유하거나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이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의 경우, 하룻밤 동침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화에서는 하룻밤 동침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의 복잡한 심정이 드러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남성에게 대한 배신감과 기다림의 심정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에서 ‘동침’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문둥병의 치유에 ‘동침’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고립되어 살아가는 여성에게 자신을 여성이라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 준 남성은 여성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설화에서 ‘동침’의 의미를 폭력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여성에게 부정적인 의미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성인 문둥병에 걸린 설화 중에서 앞의 설화 목록에서 9번 이야기의 경우 적선(積善)을 하면 명당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연히 문둥병에 걸린 여성과 동침하고 적선을 쌓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일부 인정받아 동침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낯선 남성과의 우연한 하룻밤 동침이 여성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문둥병 설화에서는 폭력성이 약화 되고 존재감을 인정받는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적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의 경우, ‘동침’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 설화에서 등장하는 남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윤리·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설화는 앞의 목록에서 10, 13번에

해당된다. 10번의 설화에서는 길을 가는 여성을 보고 흠모하여 하룻밤 동침하고 난 후, 문둥병에 걸린 여성임을 알게 된다. 남성은 동침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까지 문둥병 설화에서 질병 치유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 유형 설화에서만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장어도 뱀도 아닌 것을 잡아서 먹이면서 돌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 설화에서는 질병 치유 이후에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남성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3번의 설화에서도 과거에 낙방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여성을 만나게 되고 둘은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친해지다가 동침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유형 설화에서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 남성으로 등장한다. 이 유형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침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두 번째 부인으로 함께 생활한다. 그런데 이 유형 설화는 결혼한 후에 여성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으로 설화가 구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주로 ‘동침’한 여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여성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함께 살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이다.

앞서 살펴본 설화에서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두 유형에서 병에 걸리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나지만, 문둥병을 치유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다.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유형인 13번의 설화를 제외하면 여성이 질병의 치유자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각 유형에서 질병 치유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질병 치유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의미

앞서 살펴본 문둥병 설화에서 문둥병 환자가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 문둥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여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공통된 모습이다. 그렇다면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이라는 혐오와 기피되는 질병을 치유

하는 치유자가 여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은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남성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은 전부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아주 귀한 약을 구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둥병이라는 질병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성이 몸보신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음식을 먹고 병이 낫는 치유 과정을 보아도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통해 이면에 담긴 다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문둥병의 고통과 치유 과정에서 남성의 집안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부족한 집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유한 집안의 남성이 문둥병을 치유하게 되는 방법은 여성이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여서 낫게 된다. 특히 설화에서 여성은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인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고기라고만 이야기한다. 남편은 가족들이 한 번도 주지 않은 고기를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모습이 설화에 나타난다. 이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으로 영양 보충하여 병이 낫게 된다. 물론 여성의 허벅지를 떼어 먹이는 것을 단순히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과 동등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둥병에 걸린 남성들은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문둥병에 걸린 남성이 원했던 것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자신에게 향하는 관심과 소통,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은 설화 속에서 가족 구성원에게서 벗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겨진 문제는 남성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문둥병에 걸린 남성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인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이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 혐오

스러운 질병은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시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의리 또는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맛있고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피 주고 돌보아 주는 것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혐오스러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설화에서 의학 지식을 통한 전문적인 치유 방법과 치유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질병 치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따뜻한 애정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병을 치유하는데 있어 의학적 치유 방법도 중요하지만, 설화에서는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환자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가짐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남성이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족 공동체 속에서 질병을 대하는 자세와 질병에 걸린 환자를 이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의 ‘열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소외된 남성이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여성에게 돌봄을 받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녀라는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여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 이데올로기 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의 행동을 보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열녀’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라는 가족 공동체로 확장되는 문둥병 설화에서 남성이 문둥병에 걸리거나 여성이 문둥병에 걸리는 모든 상황에서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양질의 좋은 먹을 것과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돌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격적이고 폭력적인 여성의 행동 이면에 있는 환자와 치유자와의 관계에서 설화를 이해할 때 질병 서사로 설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이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설화 속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성은 남성과 함께 생활한다. 그리고 남성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서 먹인다.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서 남편을 돌보는 것은 ‘열녀’로서의 모습이 충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열녀다운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설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열녀 설화와 달리 문둥병이라는 질병 서사와 열녀 이데올로기가 함께 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에서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이는 행위는 ‘열녀’들이 행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문둥병 설화에서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베는 행위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흔히 문둥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약으로 쓰일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이 문둥병을 고치는 약으로 등장한다. 문둥병 유형 설화에서 남성과 여성 환자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먹는 약으로 대부분 ‘사람고기’와 관련되어 있다. 아내의 허벅지를 베어 먹거나, 술독에 빠져 죽은 사람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는 등 주로 인육(人肉)을 먹는 기이한 방법이 나타난다.⁸⁾

열녀 설화에서 여성이 허벅지를 베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정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둥병 설화에서는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낫다는 민간 의약에 의한 병의 치료로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둥병 설화에서는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남편에게 먹이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남편이 좋은 음식을 먹고 만족해하는 과정을 실제 대화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질병 치유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열녀로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동과는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문둥병의 치료약으로 사람, 특히 아기가 제시되기도 하며 일부 자료에서는 사람고기가 제시되기도 한다. 사람이 문둥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지만, 한국의 민간 사회에서는 종종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원오, 「한국 설화문학에서의 ‘문둥병’에 대한 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 『일본학연구』 제52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74~75면 참조)

또한 문둥병 설화에서 여성의 열녀로서의 모습은 효행담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둥병 설화에서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이 부모 또는 자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모두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효행담 중에서도 부모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먹이는 자식의 모습도 나타난다. 이처럼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효나 열 등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폭력적인 방법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효에서는 자식이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불효로 여기면서도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최고의 효의 실천으로 여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화를 열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효행담에서 자식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문둥병 설화에서 여성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행담에서 자녀가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실천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는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공동체임을 확실히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둥이 설화에서 여성과 남성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이다. 서로 타인인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한다. 남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에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을 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리 또는 책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몇몇 설화에서는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남성의 집에 시집가는 이유로, 자신의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는 이야기도 있다. 여성의 존재가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열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효행담에서는 자식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받는다면, 문둥병 설화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남성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 결정,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한 자신의 신체 훼손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부부가 되고 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여성

의 가족 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에서도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침한 여성을 버리지 않고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의리 또는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여성의 가족 만들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앞서 설화 목록 중에서 9번의 경우 명당을 얻기 위해 문둥이 처녀와 동침하는 것을 적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 여성은 천년 묵은 뱀 또는 이무기가 빠진 술독의 술을 먹고 병이 낫는다. 여기에서 문둥병을 치유하는 사람은 환자인 여성 자신이다. 술을 만들어 놓고 남성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성의 간절한 심정이 설화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유형 설화를 ‘결연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있는 것처럼, 남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성의 복잡한 심정이 나타난다.⁹⁾ 문둥병 설화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맺는 여성과 남성이 등장하는 결연담이 나타나는 것은 서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번의 설화는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와 차별되는 부분이 한 가문의 가족 되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9번의 설화에서 남성은 명당을 찾기 위해서 문둥이 처녀와 하룻밤 동침을 하고 떠나 버린다. 여성은 자신과 동침한 남성을 한없이 기다린다. 그리고 얼마 후 명당 찾는 법을 알려 준 지관이 남성에게 여성을 다시 찾아가라고 한다. 여성을 찾아가는 이유로, 하룻밤 동침으로 여성이 가문의 후손을 임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이 나은 여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침의 행동이, 남성에게는 적선이 되어 명당을 찾고 가문을 잇는 후손이 태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여성은 한 가문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과연 질병 치유자인 여성에게 이러한 결과가 올바른 것인가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여성성에 의해 하룻밤 동침하였다면 남성에

9) 여성이 문둥이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를 유형화하면서 ‘결연담’으로 분류하고, 남성이 문둥이 처녀를 내치지 않는 것을 선행으로 복을 받는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은우, 「문둥이 처녀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5~66면 참조)

게 가해지는 비난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문둥병 설화에서는 가족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약자의 여성에게 동침의 의미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문둥병에 걸린 설화들은 남성들의 행동에 따른 긍정적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의 동침 행위에 대한 설화 구연자들의 다양한 논쟁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유한 여성의 한 가문의 가족 구성원 되기가 문둥병 설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이 문둥병 환자로 등장하는 설화 중에는 질병에 걸린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한다. 앞의 설화 목록에서 13번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과거 시험에 떨어진 남성이 길을 가다가 여성을 만나게 되어 동침하게 된다. 이 유형 이야기에서는 동침할 때에 여성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룻밤 동침한 여성을 책임지기 위해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러나 이 유형의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남성이다. 여성은 두 번째 부인으로 남성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다가 여성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문둥병에 걸린 여성을 돌보는 사람이 첫째 부인이라는 것이다. 같은 여성이 여성의 질병을 돌보는 존재라는 것이다. 첫째 부인은 앞에서 살펴본 치병으로서의 여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문둥병 설화에서는 부부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화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유형 설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국한된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내라는 같은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가족 되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여성이 경제적 형편이 좋아서 집안 살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째 부인이 돌봄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여성은 한 남성의 아내라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가족 되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둥병 설화를 남성이 환자인 경우와 여성이 환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면적으로는 문둥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설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면에서는 질병이라는 경험을 통해 가족 되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질병 치유자로 나타나는 여성이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공동체

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로 문둥병 설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본 연구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문둥병 질병 서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이 질병 치유자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둥병 설화에서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남성 또는 여성인지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설화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문둥병 질병 이야기가 부부관계에 주목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와는 다른 관계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극복하고서도 지켜야 하는 결속력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가족과 격리되어 치유된다는 점에서 가족 서사의 이야기기이면서 가족 서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질병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문둥병 질병 서사는 지금 시대에 질병에 대한 이해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2018), 61~89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79~1990.
- 류명옥(2022), 「설화에 나타난 치병 서사와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 『백록어문교육』 29호, 백록어문교육학회, 97~126면.
- 서경희(2021), 「조선후기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기억 서술과 의미」, 『어문학』 151호, 한국어문학회, 153~185면.
- 이은우(2005), 「문둥이 처녀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오(2017), 「한국 설화문학에서의 ‘문둥병’에 대한 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 『일본학연구』 제52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55~88면.
- 한순미(2014), 「한국 한센병과 가족이라는 장치」,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57~78면.
- 한유진(2024), 「<문둥이 처녀 거둔 남자>에 나타난 활인(活人)의 양상과 전승 인식」, 『구비문학연구』 제7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09~136면.
- 허원기(2013), 「질병치유이야기의 문제의식과 의미」, 『동화와 번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427~458면.

| Abstract |

The role of woman and disease narratives in oral tales

Ryu, Myeongok

Looking at how the leprosy disease is perceived in the narrative through the leprosy disease type narrative,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hatred to humans, it does not simply deal with the problem of disease. Depending on whether the patient with leprosy disease is a male or a female, the method of healing the disease or the healer of the disease appears differently.

When a man appears as a patient in the leprosy disease story, a woman who carefully cares for the man is highly regarded as a ‘virtue women’. Although she shows a bold appearance as a tenacious woman, on the one hand, both men and women can be said to be the weak who are alienated from their families. This type of narrative is that men and women are recognized as couples and can be incorporated into family members due to the healing of women’s diseases.

In the tale of leprosy, when a woman appears as a patient, she appears as a virgin. A woman abandoned by her family becomes a man who slept overnight and gets better. Of course, there are types of women who heal their own diseases, but there are also types that the man’s first wife takes care of. In this type, in addition to the sick woman, another woman appears as a healer.

As such, the story of leprosy is narrated around marital relations, and emphasizes the ‘righteousness’ that is important in marital relations through the most hateful disease. In addition, by showing the process of being recognized as a family member, it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shows a family community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rmed by blood ties.

Key Words: folk tales, disease, Leprosy, infectious diseases, Dental disease, Healer, female, Family community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세대 전환과 문화 충돌

김남석*

목 차

-
1. 서론: 문제 제기과 선행 연구	4. 호프스테드 이론으로 분석한 <사랑이 뭐길래>
2. 문화차원 이론 재조명	5. 결론: <사랑이 뭐길래>의 문화적 함의
3. 두 집안의 충돌로 본 1990년대 세대·성별 문화 갈등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91년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 전환과 문화 충돌 양상을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것이다. <사랑이 뭐길래>는 높은 시청률과 해외 수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효시로 평가되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이 드라마 속 인물 간 갈등, 가족 구조, 생활 방식, 공간 구조, 성 역할 등의 요소를 문화차원별로 세밀하게 해석하고, 권력 거리, 집단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절제 성향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드라마 서사에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사랑이 뭐길래>의 동아시아 공감 형성과 한류적 가치의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수용과 비교문화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랑이 뭐길래>, 호프스테드, 문화차원, 세대 전환, 문화 충돌, 한류, 동아시아, 가족 드라마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사랑이 뭐길래>는 1991년 11월 23일(저녁 8시)에 방영을 시작하여,¹⁾ 이듬해인 1992년 5월 31일에 종영한 55부작 드라마 작품이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해외에 수출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랑이 뭐길래>는 1997년 중국 방영을 계기로 한국 드라마의 해외 수출을 선도적으로 이끈 작품으로 부상하였고, 수출 역사상 괄목할만한 기념비적 성과를 거둔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²⁾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는 매우 소략한 편이며 작품을 분석하는 시각 역시 협소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는 <사랑이 뭐길래>의 핵심 모티프로 제시된 가족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³⁾ 한류를 촉발한 계기에 대한 연구,⁴⁾ 홍콩 드라마와의 비교 연구⁵⁾ 등이 시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랑이 뭐길래>의 열풍 현상을 해명하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지만, 그러한 의도를 차치하면 해당 작품이 지닌 의의와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했다고 해야 한다.

이 현상은 <사랑이 뭐길래>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해외에서 주목받은 요인을 작품성이나 시대적 풍조와 관련지어 분석하려는 시도가 드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랑이 뭐길래>가 유행한 이유를 주 시청자층인 주부층이 시청한 홈드라마의 전형이라는 통념 때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뭐길래>는 주부들이 보기에 무리가 없고 내용이 무난하므로, 각 세대와 시청 주체들이 고루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으나 사회의 문제적 현실에 대한 진단에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상대적 편향이 작

1)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 『한겨레』, 1991년 11월 23일, 16면.

2) 「<사랑이 뭐길래> 중국 안방 점령」, 『한겨레』, 1997년 12월 12일, 8면; 「<사랑이 뭐길래> 연변서 방송」, 『조선일보』, 1997년 9월 7일, 16면.

3)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87~114면.

4) 이상민, 「한류 드라마의 특성과 경쟁력」,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59~84면.

5) 금인숙, 「<사랑이 뭐길래>와 <의부용정>」, 『담론 201』 (4-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36~59면.

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과 꺾히는 적절한 평가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뭐길래>는 전 세대가 두루 시청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이유가 궁극적으로 세대 간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문제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사랑이 뭐길래>는 문화적 할인이 크지 않았다.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하에서 근대화 길을 걷고 있었던 점도 비슷했고,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견해차도 유사했다. <사랑이 뭐길래>는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각 국가 상황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친구 세대의 갈등을 중요한 화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아시아권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대 차이의 문제와 동아시아 환경의 공유점은 이 드라마를 비단 한국의 드라마가 아닌 여러 국가의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 뭐길래>는 1991년 방영된 이후, 1997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류 드라마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작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대 간 갈등과 문화적 충돌, 남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정면으로 다룬 텍스트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남성 중심 문화와 여성 의식의 확대, 전통적 가부장제와 신세대 가치의 충돌 등 다양한 주제와 현실적 시각이 교차하면서,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도를 극명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특징은 세대 갈등과 문화 충돌이라는 거시적 주제를 개별 가족, 나아가 개별 인물의 서사 속에 정밀하게 삽입하여 정리한 점이다. 드라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양가의 가풍, 생활 공간, 대화 양식, 자녀 교육관, 식생활 등 다양한 일상 요소들이 단순한 배경을 넘어 한국 사회의 두 얼굴, 즉 전통과 현대, 권위와 자율, 절제와 해방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이 설명하는 여섯 가지 문화 차원 — 권력 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절제/관용 — 과 근원

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을 대상으로 세대 전환과 문화 충돌의 구현 양상을 서사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문화차원 이론에 접목하여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전환기 문화적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2. 문화차원 이론 재조명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에 의거하면 여섯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 특성을 논구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은 각각 ‘권력 거리’,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자기통제 대 관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⁶⁾

문화차원 이론에서 흔히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개념은 권력 거리(power distance: large vs. small) 개념으로, 이를 지수화하면 ‘권력 거리(간격) 지수 (Power Distance Index, PDI)’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권력 거리는 한 사회 내에서 권력 불평등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종의 척도이다.

그래서 호프스테드는 권력 거리를 “한 국가 내 상대적 약자가 권력의 불평등성을 기대·용인하는 정도”로 규정했다.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나 해당 집단이, 대외 관계에서 불평등한 권력 배분 상태를 허용할수록 권력 거리는 커진다고 해야 한다. 즉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은 사회는 권력 거리가 작은 사회이고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⁷⁾

권력 거리 지수가 높은 문화에서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권력 거리 지수가 낮은 문화(권)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지향되고 권한 위임(현상)이 장려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 문화의 측면에서도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⁸⁾

6) Geert Hofstede·Gert Jan Hofstede·Michael Mink,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참조

7) 최성욱,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7-4), 한국정부학회, 2015, 1013면.

8) 박지원, 「소비에트와 러시아의 기업문화와 경영활동」, 『슬라브학보』 (27-2),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2, 27~57면.

권력 거리를 <사랑이 뭐길래>에 대입하면, 대발의 가족은 권력 거리 지수가 높고, 지은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권력 거리 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 볼 때, 대발의 가족 구성원은 권력 거리 지수가 크기 때문에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경우이고, 반대로 지은의 가족 구성원은 평등한 상황에 가까운 경우이다.

문화차원 이론에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IDV)’의 차원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살피는 주요 척도이다. 이 문화차원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가, 아니면 집단의 조화와 상호 협력이 중시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주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이기보다는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반대로 집합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개인주의는 낮은 집단주의를 뜻하며, 집단주의는 낮은 개인주의를 역시 의미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이며, 가족 제도와 사회 체제에서 개인보다 가족 혹은 조직 내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을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이어지곤 한다.⁹⁾ 이에, 광고 효과 연구에서도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간접적 메시지와 조화 중심적 표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세 번째 차원은 남성성(masculinity)과 이에 대한 대척 성향인 여성성(femininity)의 척도로 나타난다. 이 척도는 남성성과 관련된 ‘강인함의 가치(tough values)’가, 여성성과 관련된 ‘부드러움의 가치(tender values)’를 압도하는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의 차원도 문화차원 이론에서 중시되는 척도이다. 이 문화차원은 성취, 경쟁,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서 남성성과 삶의 질 그리고 협력 혹은 배려를 중시하는 성향으로서 여성성의 척도를 보여 준다. 이 척도에 따르면, 한국은 중간 정도의 남성성을 가진 국

9) 김영욱·양정은, 「The Impact of Cultural Variables and Third-Party Mediation on Conflict Resolution」,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10면.

10) 김유경,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에 나타난 광고거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3-4), 한국언론정보학회, 1999, 12면.

가로 평가되며, 직장에서의 성취 중심적 분위기와 동시에 인간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중적 특성을 내보인다. 이에, 광고를 비롯한 각종 조직 내 의사 결정 구조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¹¹⁾

다만 <사랑이 뭐길래>에서 서사의 전반부와 표면 설정에서는 남성성을 중시하고 그러한 성향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리즈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점차 여성성의 척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나아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는 목표가 조심스럽게 부각되는 성향이 나타난다. 대발의 부친 이범호가 지은의 친정을 방문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성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대발 부자가 지은의 학업을 인정하고 이를 후원하겠다는 다짐이 동일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 MAS)의 차원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변동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문화차원 이론에서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Index)’ 역시 주요 척도로 등장한다. 불확실성 회피 지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과 이를 통제하려는 욕구의 강도를 나타낸다.¹²⁾ 이 작품과 관련하여,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국가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법규, 규정, 절차를 중시하고 모호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장기 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은 문화차원 이론에서 다섯 번째 척도이다. 장기 지향적 문화 현상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절제를 중시하고, 단기 지향적 문화는 현재의 성취와 전통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곤 한다. 한국은 장기 지향성 지수가 높아 교육, 저축,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K-브랜드가 아시아 국가들에서 신뢰를 얻는 배경이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관용 대 절제(Indulgence vs Restraint) 차원은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관용 지수가 높은 문화는 삶의 즐거움을 긍정하며 표현에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절제 지수

11) 정속양·전종우, 「조절초점 광고가 예방적 건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5-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450면.

12) 전승표 외, 「경제적, 산업구조적, 문화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수입액 예측 모형」, 『지능정보연구』 (27-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1, 25~26면.

가 높은 문화는 사회 규범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 한국은 절제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체면이나 관계 유지를 위해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¹³⁾

이처럼 문화차원 이론은 비교문화 틀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사회구조,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효한 분석 도구로 작동한다. 한국은 높은 권력거리, 강한 집단주의, 혼합적 성 역할 가치, 높은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그리고 절제 지향성이라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가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복합적 문화 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3. 두 집안의 충돌로 본 1990년대 세대·성별 문화 갈등

1) 집안 배경과 남녀의 차이

(1) 보수적 사고의 전형, 구시대 남성의 표상

<사랑이 뭐길래>는 첫 회부터 두 집안을 비교한다. 전체 서사의 기반이 될 두 집안은 여러모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사고방식에서 극단적으로 이질적이다. 레지던트 2년 차 ‘이대발’(최민수 분)은 한쪽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이다. 그의 집은 ‘남존여비’로 상징되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발의 부친이자 가장인 ‘이병호’(이순재 분)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철칙을 몸소 실천하는 보수주의자이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아들 이대발은 공공연하게 이 말을 강조하는 남자이다. 전통적 가족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병호-이대발의 집안은 전체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한다.

1991년 당시에도 이병호-이대발의 사고방식과 가족의 풍경은 친숙하기만 한 풍경은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 구세대 한국 남성들의 전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차이를 견지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¹⁴⁾

13) 이명무·김윤희,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으로 살펴본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 한류 영화」, 『국제·지역연구』 (33-1), 국제학연구소, 2024, 65면.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가족 유형과 규범은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족 유연성(flexibility)’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가족 구조가 ‘가부장제’에서 급격하게 벗어나 기존 가족 형태에서 ‘탈표준화’ 경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의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근대적 성별 분업’에 변화가 가해졌다.¹⁴⁾

가부장권을 강조하는 이병호-이대발 부자는 시대의 흐름과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인물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 사회에 이러한 남성 편향적 사고가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대발 집안의 풍경은 현실 추수적 시각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중 이대발은 주목되는 캐릭터이다. 그는 이병호의 가부장 권력과 보수적 사고방식을 승계한 남자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표상되는 남성 중심 가치관과 남성 우월 세계관을 견지하는 청년이었다. 1990년대 시점에서도 그의 가치관은 현실에서 환영받는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큰 키, 잘생긴 얼굴, 당당한 태도, 그리고 매력적인 직업을 갖춘 덕분에, 많은 미혼 여성들에게 선망이 대상이 되었고, 그의 사고방식도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씨 집안에는 두 남성에 억눌려 살아가는 여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여성은 ‘여순자’이고, 다른 여성은 ‘성실’이다. 부잣집 딸이었던 여순자는 학창 시절에는 남 부러운 것 없는 처지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고함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종속된 처지는 여고 동창 한심애를 만난 이후 한심애의 처지와 여러모로 비교되었다. 이러한 비교는 여순자가 한심애에게 열등감을 품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딸 성실은 모델(일)을 선택하는 현대적 여성이지만, 완고한 아버지로 인해 그러한 욕구를 감추고 살고 있다. 하지만 성실은 모델이 되는 꿈을 포기할

14) 1990년대 문화적 동향을 살핀 연구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탐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미현, 「가족이데올로기의 종언」, 『여성문학연구』 (1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37~168면; 채백·강승화·허윤철, 「한국 텔레비전 가족 드라마를 통해 본 1990년대 이후 대인 소통과 관계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235~264면).

15) 이재경,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한국문화연구』 (29), 한국문화연구원, 2015. 283~310면.

수 없었고, 결국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아버지 이병호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남들 앞에 몸을 드러내는 일을 혐오했기 때문에, 성실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다. 이병호는 딸의 은밀한 꿈을 ‘헛바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모델 같은 직업이나 미스코리아 참가는 용인할 수 없는 망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병호의 사고는 집안에서는 절대적 철칙이었기 때문에, 여순자와 이성실은 집안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으로 전락해 있다. 이처럼 <사랑이 뭐길래>의 한 축에는 보수적 사고의 전형이자 구세대 남성의 표상으로, 이대발과 그의 집안이 자리 잡고 있다.

(2) 혁신적 사고의 사례, 신세대 여성의 사고

반면, 이대발의 연인인 지은(하희라 분)의 집안 사정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지은의 아버지 박창규는 항공회사 전무이사로, 평소 남녀평등 사상을 넘어 여성 상위의 가치관을 신봉하며 집안을 건사했다. 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가 가진 생각을 매우 존중했고, 자신의 딸들도 자유롭게 사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남자였다. 이에, 선배이자 사돈인 이병호가 박창규의 여성 존중 태도를 극도로 못마땅해할 정도로, 박창규의 태도는 구세대 남성 중심 가치관과는 상치된다.

딸 지은은 어려서부터 분명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로 남자를 우습게 아는 여성이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를 기어코 넘어서고야 마는 성향을 지닌 독불장군이였다. 극 중 현재에서 그녀는 대학원에 지원하여 법학 박사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으며(석사 졸업), 미모와 재력으로 남자의 권위에 일절 구애받지 않는 전형적 전문직 여성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은의 성격은 모친 한심애로부터 연원했을 수도 있다. 한심애는 박창규와 사랑에 빠져 모친 시집살이를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시어머니와 자매(이모할머니)들을 돌보는 데에 대부분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 평소 한심애는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정도로, 주부의 삶이 아닌 전문직 여성의 삶을 희구하는 여성이었다. 이에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과 남다른 끈기로 모친의 소망을 따르는 듯했으나, 어느 시점 돌변하

여 ‘인생의 항로’를 바꾸기에 이른다.

지은의 돌연한 변화가 <사랑이 뭐길래>의 발단에 해당한다. 지은의 변화는 현대 여성이 지닌 의외의 면모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가려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특히 지은이 사랑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송두리째 포기하려는 남성이 남성우월주의자라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조성한다. 그리고 두 남녀의 이질적 환경과 극단적 차이가 1990년대의 한 단면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 이른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뭐길래>의 초기 20회는 대학원이 아닌 이대발을 선택하여 전문직 여성이 아닌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한 지은과, 갑작스러운 딸의 돌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심애의 대립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오히려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 여성의 바람 대 현세대 여성의 현실 수용이 격한 갈등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결혼 문제를 둘러싼 지은과 이대발의 견해차는 초기 4~5회 차로 거의 종결되는 데에 비해, 혼인 문제를 둘러싼 딸과 어머니의 대결, 친정과 시댁의 마찰(신경전)은 거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현상은 <사랑이 뭐길래> 전체에 통용되는 갈등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초기 6~19회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20회 이후에는 시댁으로 들어간 지은의 적응 과정이 노출되지만, 그 과정은 의외로 시댁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친구 충돌의 문제는 완화되는 인상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성 중심 가치관을 고수하는 이대발의 집안과, 남녀평등 가치관을 우선하는 지은의 집안은 오랫동안 충돌을 일으킨다. 그 원인은 얽히고설킨 두 모친과도 관련이 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현재 가난하다고 믿는 여순자와, 학창 시절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현재는 동기동창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심애는, 사사건건 충돌을 빚는다. 그리고 그 충돌은 자식들의 혼사로 격화되고 결국에는 자존심과 세계관의 격돌로 나타난다.

<사랑이 뭐길래>의 작가는 이대발과 지은이 지닌 가치관의 충돌은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지만, 여순자와 한심애가 견지하는 견해차는 의외로 비중 있게 다루고자 했다. 두 세계의 각기 다른 중심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자신의 세계관을 고수해 온 기성세대의 충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도 때문으로 풀

이된다. 거꾸로 이대발과 지은으로 상정되는 신세대는 과거 세대가 지닌 보수성과 그 한계를 유연하게 극복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대발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아버지 이병호와 상의하여, 결혼 조건으로 달아가면서까지 반대하던 지은의 공부를 계속 시킬 것을 제안하고 의외로 이병호 역시 이에 찬성하면서 아까운 재원을 썩히지 말아야 한다는 아들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병호-이대발이 지닌 남성 중심 가치관과 상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면, 항상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안의 화합을 강조하던 박창규는 이병호에게 자극을 받아, 지은의 혼사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용단을 내린다. 가장이 그 정도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병호의 야유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박창규의 결정은 놀라움과 찬사를 가져온다. 아내 한심애는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놀라고, 자기 아들이자 집안의 가장이 지나치게 아내의 결정에 매달린다고 믿던 시어머니와 그 자매들은 일제히 찬동을 표한다. 모친에게 결정을 양보하고 ‘출장 간 사람’처럼 묵묵히 듣고 있던 부친에 익숙했던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이 역력하다.

남녀평등을 넘어 여권 우선 가치관을 지닌 박씨 집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이지만, 이 변화는 남녀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세대 풍조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남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합의는 결혼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과 이견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수행했고, 결혼 당사자였던 지은과 이대발에게 환영할 만한 결정으로 수용되었다.

두 집안은 각자의 가치를 따르는 정반대의 세상으로 설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었다.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된 이병호의 심경 변화나, 아내에게 직업과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이대발의 미래 계획, 여성의 위상을 존중하지만 집안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한 박창규의 결정은 이러한 충돌이 가져온 일종의 변화이다.

20회 이후 <사랑이 뭐길래>는 완고한 시아버지의 활동 반경으로 들어온 며느리 지은이 완고한 시댁을 변화시키는 서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때에도

두 집안의 가풍과 가치관에 반하는 많은 이들이 벌어진다. 그로 인해 <사랑이 뭐길래>는 두 집안으로 상징되는 두 개의 가치관의 모습과 그 충돌, 이후 상쇄와 보완 과정을 보여 준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990년대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족과의 공존과 대립을 목격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드라마는 유연한 자극과 내면적 일깨움을 전하는 드라마로 남을 수 있었다. 1991~1992년 한국 사회와 그 안에서 그 대립을 지켜보는 신/구세대에게도 이 전언은 유효했고, 1997년 역시 변화의 과정에서 이 드라마를 지켜보아야 했던 중국인들에게 이 전언은 여전히 유효했다.

2) 집의 형상과 권위의 구조

(1) 집의 구조와 방의 역할

<사랑이 뭐길래>의 양가(兩家)는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적, 정서적, 철학적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발의 집은 평면 단층 구조의 한옥이고, 이지은의 집은 2층 구조의 양옥이다. 이대발의 집은 오래된 풍상을 겪은 인상을 주는 낡은 집이고, 이지은의 집은 할아버지가 직접 건축하여 건설한 세련된 인상의 현대적 주택이다.

이층집에는 3세대가 살아가고 있다. 2층에는 박창규의 모친이 기거하는데, 그녀는 수시로 여동생들을 불러들여 남편이 부재하는 외로움을 달래고 남부러운 것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자 한다. 1층 안방에는 박창규와 한심애가 기거하는데, 거실과 2층에서는 시어머니 등쌀에 기를 못 펴는 한심애이지만 안방에서는 ‘여왕’처럼 대우를 받는다. 남편 박창규는 커피를 타고오 마사지를 해주면서, 힘든 아내를 위로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달한다.

반면, 단층 한옥에는 마루와 마당이 있다. 마당은 식구들이 세수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가 남자의 위세로 가득 차 있다. 여자들은 이 공간에서 남자들의 위세를 받아내거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집에서 두 개의 방은 주목된다. 하나는 안방인데, 침대가 없고 기물이 드문 이 방은 남편의 권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식사를 하거나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 공간에서 남성(특히 부친)의 결정은 불가항력의 힘을 가지며, 주로 그 결정의 희생양은 한 집안에 기거하는 여성들이다.

안방의 축소판이 이대밭의 방이다. 대밭의 방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기웃거리는데, 그때 그녀들은 이대밭의 자유분방한 자세와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여동생은 이대밭에게 발로 밀리면서도 이 방에서 오빠의 동태를 엿보려고 하고, 모친은 이대밭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아들 곁에 조금이라도 머물려고 한다. 하지만 두 여성을 대하는 이대밭의 태도는 자못 권위적이다. 아버지의 부름이 있기 전에는 이 방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이는 이대밭이고, 그러한 방의 형상은 안방을 그대로 줄여 놓은 형상이 아닐 수 없다.

이대밭의 방은 지은의 방과 대조를 이룬다. 지은의 방은 화려하고 이대밭의 방은 검소하다. 지은은 침대 문화에 익숙하고 이대밭은 좌식 문화에 적응되어 있다. 지은이 혼수로 침대를 거부하고 자신이 바닥에서 이불을 덮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나타나듯, 결혼 전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지은은 변화된 서구식 침대 문화에, 이대밭은 고유의 좌식 문화에 적응한 상태이다. 그들이 동갑이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엘리트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차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공존하는 분명하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두 방의 차이는 식사의 차이로도 확인된다. 이병호의 집은 안방에 모여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그때 음식상이 부엌에서 안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상을 나르는 일은 주로 여성의 몫인데, 여성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여성들에게는 고역스러운 집안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지은의 집(안)은 안방과 분리된 식사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부엌이 붙어 있어 요리와 이동이 편리하다. 방에 앉는 좌식 문화와는 달리 의자가 딸린 식탁이 구비되어 있어, 침실과 식당이 나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각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심지어 2층에 기거하는 시어머니와 그 자매들은 식사 역시 따로 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결국 안방을 중심으로 집안의 위계가 형성되는 이대밭의 가족과는 달리, 지은의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식사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가장의 진노에 당황하는 대발의 가족들(39회)

-식사 도중 끓어앉아 있는 모습

단란하게 식사하는 지은의 친정(39회)

-동등한 입장으로 식탁에서 식사하는 모습

식사 준비 과정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한심애는 요리할 때, 그 요리의 일부를 자식들에게 보조하도록 지시한다. 가령 지은에게는 냉장된 고기를 꺼내어 해동하도록 지시하고, 정섭에게는 당근과 감자를 다듬도록 지시한다. 만일 똑같은 식사 준비가 이대발 집안에서 일어났다면, 딸인 성실은 당연히 집안 일을 도와야 하겠지만, 아들인 대발은 이를 거절하거나 모친의 도움 요구가 부친 이병호에 이 요구가 제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심애는 아들 정섭이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여순자는 아들 대발이 요리하는 것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 이병호의 눈치 때문에 시킬 수 없는 처지였던 셈이다. 대발의 집안에서는 아들은 부엌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은의 집안에서는 아들도 똑같이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된 사고는 1990년대 현실에서도 엄연하게 통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의외로 정섭의 성격으로 뒷받침된다.

어려서부터 정섭은 여성 존중 사상이 강한 집에서 자라, 잔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돕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 몫의 집안일을 하고 자청해서 모친의 심부름을 하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사회적 인식은 강하게 작용한다. 유순하고 온화한 그이지만, ‘여자 같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성격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표변한다. 정섭을 향한 여성성에 대한 칭찬 혹은 언급은 정섭에게 자긍심을 북돋우기보다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고 긍지를 침해하는 비하 행위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돈인 성실이 그의 집으로 피난 왔을 때 당한 오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여성 친화적 성향을 스스로 교정하기로 마음먹는다. 말투부터 존댓말을 사용하고 경직된 대화만 나누며 이전처럼 여성들의 몫이라고 믿어지는 심부름을 거부한다. 정섭의 변화는 가족들을 크게 당황하도록 만들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근원은 사회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통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존중 가치관과 가풍 하에서 성장한 정섭에게 사회 내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 가치관은 좀처럼 무시할 수 없는 벽이자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좌식 문화와 입식 문화: ‘꿇어앉다’의 의미와 연원

안방 중심 좌식 문화와 식당 위주 입식 문화의 차이는 다양한 차이를 대변한다. 대발이 지은에게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꿇어앉는 것이었고, 대발의 부친도 여순자에게 이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며느리를 맞으면 여순자는 자신에게 이 요구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기까지 한다.

이때 꿇어앉는다는 의미는 좌식 문화에 기반한 발상이다. 좌식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 함께 앉는 이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꿇어앉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가 손윗사람이면, 아무래도 꿇어앉는 자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꿇어앉는 자세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제안된 방식이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의 처신을 알리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일어서서 주로 생활하거나 의자에 앉는 문화적 관습하에서는 꿇어앉는 자세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좌식 문화의 관점에서 꿇어앉는 자세는 일종의 복종과 예속의 표식일 수 있다.

이대발은 정은이 결혼하자고 최초 제안을 할 때, 길거리에서 정은에게 꿇어앉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정은은 이 제안을 수긍하고 실제로 꿇어앉으려고 한 바 있다. 꿇어앉는다는 생각은 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대발의 집안에서는 늘 복종과 예속의 강제로 통용되는 방식이었지만, 입식 문화와 혹은 의자 생활에 익숙했던 정은에게는 충격적인 대면 방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은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까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고, 결국 이러한 정은이 결혼한 후에는 이대발을 꿇어앉히는 역전된 상황을 만들기까지 했다.

<사랑이 뭐길래>에서는 집안 생활에서 유래한 가풍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은근히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성실의 모델 데뷔로 인해 온 집안사람들이 이병호 앞에 꿇어앉을 때 지은이 이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거나 그때까지는 수긍하던 아내 여순자가 결국 반항하는 대목은, 이 꿇어앉는 동작이 가진 명령과 그 복종의 관습이 전파되기도 하고 저항받기도 하면서 집안의 내력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장면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대발이 지은의 모친, 그러니까 장모에게 꿇어앉은 장면도 포함된다. 이대발은 처가에서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장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연출한다. 이 광경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보는 이들을 모두 놀라게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놀란 이는 장모였다. 장모는 할 말을 잊었지만, 그 행동으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꿇어앉고 이를 수용하는 문제는 적어도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복종이나 사죄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침대의 유무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방바닥에서 잘 것인가, 아니면 침대에서 잘 것인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침대가 없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식사 문화나 대화 문화를 결정한다. 이대발의 집에서는 윗목과 아랫목이 있고, 이러한 구분은 밥상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누가 ‘상석’인가 아니면 누가 ‘하석’인가를 넘어서, 누가 누구와 겸상하는가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반면 식사 테이블을 이용하는 식사에서는, 이와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식사 테이블에는 가장의 자리는 결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자리는 편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집안의 손님이 왔을 때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상대와 배치에 따라 좌석을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손님인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양보하거나 적절한 자리에 앉도록 안내될 수 있다.

하지만 식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와 교류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이대발의 집에서 식사 도중 말을 하지 못하는 풍조와는 다르며, 정해진 서열에 따른 엄격한 자리 구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서서 말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대들거나 강하게 맞설 수도 있다. 한심에는 자신이 자식을 평등하게 키

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풍조는 침대와 식탁, 소파와 의자 그리고 이를 대하고 응용하는 문화적 관습에 일정 부분 걸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대발의 집안은 좌식 문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안방을 공유하고 마당에서 생활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했기 때문에, 앉고 서고의 문제가 늘 집안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대발이 지은에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남자가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야 하는 존재라고 세뇌하려 한 배경에도, 이대발 집안의 안방과 좌식 문화가 근간에 깔려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집안의 가풍과 라이프 스타일은 곧 집안 구조와 그 구조 위에 전개된 가치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2층 어른 방에 방문한 이병호(44회)

이병호는 세 번 꿇어앉았는데, 한번은 백부가 느닷없이 상경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야단칠 때이고, 나머지 두 번은 사돈인 박창규 집에 방문했을 때 모친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2층을 방문했을 때이다. 후자의 두 번 중 한번은 일상적인 방문에 따른 문안 인사를 드릴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가출한 성실(딸)을 찾기 위한 방문에 의한 사죄를 드릴 때였다. 위 우측 화면은 일상적인 방문에 따라 문안을 드릴 때의 화면이다.

이병호의 가치관과 어른들의 가치관은 일치한다. 어른을 방문하고 문안을 드려야 한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사돈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른의 거처를 방문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야 한다는 예의범절이 또한 그러하다. 이병호와 달리 박창규는 주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창규가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1층 거실과는 달리 2층 어른 거처에서는 어른들의 질서를 지키고 그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대적 시대 관념을 추수하고 동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가풍 내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다른 세대(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넘어 다른 시대(보수적 가치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루 통용되는 원칙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창규의 딸들도 할머니 방에 무시로 드나들지만, 궁극적으로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선으로 준수되고 있다.

이러한 통용 원칙과 절대 기준은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더욱 나아가면서 변모할 수 있다. 2020년대 시점에서 좌식 문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로 존재하고 있고, 어른들의 거처가 별도로 분리되는 현상 역시 여전히 있다고 해야 하지만, 문안을 드리러 올라가 절을 한다거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풍조는 대거 사라졌다고 해야 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좌식 문화에서 나온 예의범절 혹은 사죄(처벌)의 의미가 점차 시대의 상식과 어긋나 사라져 가는 것도 이러한 풍조 상실과 관련이 깊다고 해야 한다.

(3) 1990년대 한국 문화의 양면성과 공통점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두 개의 중요한 문화적 축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 축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고유한 생활 양식을 전승한 재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다른 한 축은 급격한 서구의 영향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분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대밭의 집안은 재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집안이었고, 지은의 집안은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대로, 두 집안은 각각 안방 대 식당으로 요약되는 서로 기능이 다른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대비될 수 있다. 안방을 중심으로 주로 앉아 대화하고 상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방식 대 주방과 연결된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대비적 구도에서 두 가지 특징이 혼용된 공간도 발견된다. 그것은 박창규의 집 2층에 마련된 시어머니의 공간이다. 시어머니는 오르고 내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처를 1층으로 옮기지 않으려 한다. 그 까닭은 2층이

주는 호젓함과 상층을 점유한다는 만족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2층 방은 좌식 문화가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 방에는 침대가 없고 보료가 존재한다. 방에 보료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는 수면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도 여러 사람(자매)이 함께 자는 습관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대밭의 안방과 거의 유사하다.

이 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상석과 하석으로 나뉘어 방석에 앉아야 한다. 이른바 좌식 문화가 기반을 이루는 공간이고, 주인의 공간(아랫목)과 방문자의 공간(윗목, 문간)이 저절로 나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박창규라는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는 집안 내에도 여전히 안방과, 아랫목과, 방석과, 이불이 존재하는 재래식 생활 방식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1990년대의 현실에서 침대와, 의자와, 식탁과, 독립 공간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주거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이 현대적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때, 2층 공간의 존재는 주류 라이프 스타일의 흐름 속에도 여전히 재래의 공간이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나아가 보완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하나의 주류 공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다른 측면을 보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층의 시어머니가 극 중에서 수행하는 기능과도 관련된다. 한심애가 시집와서 모신 시어머니는 맏아들 창규에게 무조건적인 효도와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어머니는 촌철살인 하는 발언과 해안을 드러낼 때가 있다. 그녀는 시대착오적 인물이고 자기중심적 성격이지만, 오래된 경험과 연륜 그리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태의 본질을 해석하고 사건의 의미를 해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곤 한다.

그녀의 이러한 역할은 마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구식’이자 ‘모순’으로 여겨져 타매와 철폐의 대상이던 전래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니는 이면적 가치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어 현실적인 힘을 잃고 오래된 생각으로 인해 현대의 흐름을 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래된 연륜과 경험의 나이에서 생성되는 지혜는 현대인들과 젊은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때로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어머니와 그 자매들의 역할과 상징적 기능은 궁극적으로 삶의 다양한 기호와 패턴이 하나의 주도적 흐름으로만 휩쓸려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녹아 들어가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공생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박창규 2층 방의 존재는 1990년대 한국 사회가 두 개로 분리되어 서로의 가치를 놓고 각축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 다른 흐름이 상호 공생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해야 한다.

3) 자식 문제와 세대의 충돌 : 세대와 성별의 차이와 이견

(1) 자식(딸)의 소망과 부친의 대응

제20회를 기점으로 이대발과 지은의 결혼 문제는 일단락된다. <사랑이 뭐길래>의 제20회까지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양가가 사돈을 맺으면서 결혼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은 일단 해소된다고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후 대발과 지은의 부부싸움을 중심으로 한 사랑싸움은 <사랑이 뭐길래>의 주요 화두이자 핵심 모티프 중 하나로 이어지지만, 20회 전까지 대발·지은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다소 주변부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대신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충돌 양상은 세대 간의 문제로 번져 간다. 비단 대발·지은의 결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서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의 대결이 이루어지기에 이른다. 이를 외형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위치에 관한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연애를 둘러싼 의견차이다.

여성의 위치에 관한 갈등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발의 여동생 성실과 아버지 이병호의 갈등이다. 성실은 엄격한 부친 밑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영어 학원에 다닌다는 핑계로 모델 수업을 수강했고, 촬영을 위해서 문상을 핑계로 대기도 했다. 그만큼 성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꿈이었고,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모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비단 이병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복사판인 아들 대발을 제외한다고 해도, 어머니 여순자나 올케 이지은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들은 모델이라는 직업이 지닌 험난함을 걱정하기도 했고,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화려한 연예계 세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조나 안정된 삶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실의 의지는 확고했다. 미스 코리아 참가가 아버지로 인해 좌절된 이후, 그녀는 더욱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모델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일거에 바꿀 방법도 모델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자기주장은 아버지와의 거센 충돌을 빚었고 결국 성실이 가출하고 부친이 딸을 부정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지은의 집에서도 부친과 딸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다. 그 양상은 연애 즉 결혼과 관련이 깊은데, 비록 대발의 집과는 그 양상이 다르지만 딸을 걱정하는 부친의 태도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딸의 반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정은은 어려서부터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성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남성에게 관심이 없으며, 그저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였던 철진에 대해서는 친구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빌리면 어떠한 남자와의 연애도 꿈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남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혐오하는 그녀의 신체적·정서적·정신적 반응 때문이었다. 정은의 집안에서는 이러한 정은의 태도를 심각한 것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결정했으며, 그 치료의 일환으로 부친 박창규에 대한 정은의 심각한 집착을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다정하고 친절했던 아버지 박창규는 하루아침에 딸 정은을 멀리하는 고약한 아버지로 변신하고,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여긴 정은은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부모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그녀의 말대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거는 기대와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결혼 결심은 딸 스스로에게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렇게 행복을 담보한 결정은 아

니었다고 해야 한다. 부모의 결혼 권유가 딸인 정은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 권유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정은의 사례는 성실의 사례와는 다르다. 정은은 부모의 강력한 결혼 권유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결혼에 임하게 된 경우이며, 성실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꿈을 확고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모델 일에 매달리게 된 경우이다. 부모의 반대 혹은 강권은 딸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할 시기를 빼앗는다. 아무리 성실이 모델 일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을지라도, 차분하게 그 일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자신의 온전한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정은은 언니 지은이 시집가기 전부터 모친으로부터 결혼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택되어 있었다. 설령 지은이 학업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애를 미룰 수는 있다고 해도, 둘째인 정은은 학업이나 독립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심에는 자식들의 미래를 미리 결정한 경우였으며, 이 결정에 반항하여 첫째 딸 지은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독립적으로 결혼을 결행했고 둘째 딸 정은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정은 역시 부모의 뜻에 따르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확고하게 검토해야 할 결혼과 연애에 대한 주체성을 잃고 만다. 지은 역시 겉으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결정을 확고하게 내린 경우로 보이지만, 실상은 모친과의 힘겨루기를 벗어나려는 의지로 인해 그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다분했다. 같은 사례로 성실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드라마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여성의 성장과 자립이었다. 그 결과 일과 연애, 직장상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이 빈번하고 비중 있게 등장했는데, 이러한 성실과 정은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한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하여 다른 한 여성은 자신의 연애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을 빚고 주변인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이

자 갈등의 상대방은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성실에게 완고하고 보수적인 부친이 문제였다면, 정은에게는 부드럽고 개방적인 부친이 문제였다. 이것은 좁게는 <사랑이 뭐길래>에서 여성의 사랑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부모 세대일 수 있으며, 확대하면 1990년대 전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 기성세대 혹은 주변인과의 견해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여성 의식의 성장과 남성 중심 가치관

<사랑이 뭐길래> 제39회는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는 일화이다. 새로 들어온 텔레비전으로 인해 성실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모델 출연을 자백한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대로하고 분노의 표정으로 바뀐다.

이때 가족들의 반응은 주목된다. 평소 남편에게 기죽어 살던 여순자도 이 순간에는 필사적으로 나서서 딸을 보호하려 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 지은도 나서지만, 애초 돕기로 한 대발은 그만 물러나 관망하고 만다. 가족들의 필사적인 저지로 인해 부친 이병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집을 뛰어나가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봉변을 당하고 일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성실은 집을 싸서 집을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망할 수 없었던 대발은 성실을 나무라기 시작하고, 언쟁 끝에 대발은 여동생을 때리고 만다.

그러자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지은의 항변이 폭발한다. 지은은 집안에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무리 오빠이고 남자지만 여동생을 때릴 수 없다는 논리로 남편을 나무란다. 남편을 나무라는 며느리의 태도에 시어머니 역시 일시적으로 화를 내지만(성실은 맞을 짓을 했다는 논리), 곧 여성들이 핍박받는 현실을 인정하고 아들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든다. 이러한 여순자의 태세 전환과 그에 따라 궁지에 몰리는 대발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전한다.

남성 중심 가풍을 지닌 집안에 시집을 오기는 했지만 지은은 남성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러한 남성 우월 기조에 눌러 살아온 시어머니와의 연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연대에는 시누이 성실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지은은 남편을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마저, 그리고 오랫동안 시대의 질서에 순종해 온 성실과 협동하여, 민중 봉기를 선도한다. 시어머니 여

순자는 아들이지만 남성인 대발을 나무라며, 남성 중심 세계관에 억눌려온 자신의 신세를 깨닫기 시작한다.

이 깨달음은 남성 우월적 사회 질서가 점차 여성 공존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1990년대 현실에서는 사회 일각에서 목격되는 현상이었다. 여성들은 점차 배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사랑이 뭐길래>는 이러한 사회적 동향과 보이지 않는 추세를 작품 내부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가 아들 중심의 사고를 지닌 여순자가 여성 의식 함양과 여권 존중 움직임에 동참하여,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들을 나무라고 여성이라는 동지 의식을 형성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선택으로 표현된 셈이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기쁘게 환영하고 빙그레 웃는 지은의 웃음은 여성의 자각과 남녀평등 사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작은 발걸음을 보여 준다.

이후 드라마의 중대한 갈등 중 하나로 남녀 역할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추가된다. 대발과 지은의 결혼 과정에서 나온 여성의 사회 참여(지은의 대학원 입학과 사회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집안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 혹은 남성 중심 세계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각도에서 피력되기에 이른다.

여순자의 태도 변화 못지않게, 이병호의 의식 변화도 주목된다. 이병호는 성실의 가출을 목격하고 심적인 타격을 입는다. 자신이 고수해 온 가장 위주 남성 중심 가치관이 가족의 행복을 해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뒤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후배이자 사돈인 박창규를 만나, 남녀평등을 넘어 여성 중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홍은동 사돈집을 불시에 방문한다.

물론 이병호는 박창규의 집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비판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충고를 더할 정도로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병호의 눈에는 말 많은 아내, 노출 심한 자식들, 그리고 아내에게 꿈쩍도 못 하는 남편의 처신은 못마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병호는 박창규의 집을 보고 집안 사정을 살피면서, 서서히 변화의 기미를 보인다. 아내에게 하는 말도 전과는 달리 상대의 기분을 고려한 말로 바뀌어 갔으며, 집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여 소위 말하는 양육(‘문화주

택)을 짓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숙고도 이어졌고, 결국 가출한 딸을 용서하고 딸의 결혼관을 존중하는 결단도 내리고 만다.

이병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이병호가 추구한 가치관은 기존 세대의 가치관으로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완고하게 지탱하는 분명한 축으로 작용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병호의 변화는 예고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대발이 그 이전에 변모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작가 김수현의 선택으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선택은 이병호의 맞은편에 있는 박창규의 변화이다. 박창규는 이병호에게는 자신의 여성 존중 가치관이 시대의 대세이고 가족의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막사 이병호의 권위를 잃은 가장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병호와 술자리를 하고 돌아온 이후, 수다스러운 아내에 대한 통명스러운 말투에서 이러한 기미는 드러난다. 박창규는 마치 신경질을 내듯, 자신의 귀가에도 불구하고 통화에만 여념이 없는 아내의 태도를 나무란다. 그리고 아내 한심에는 이러한 남편의 변화가 이병호 때문이라고 직감하며, 내심으로는 경계하고 그 변화의 기미를 경계한다.

사실 박창규의 변화는 이후에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는 통명스러운 대꾸 이후에는 다시 자상하고 다정하고 사람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을 내맡기는 남편으로 회귀했다. 결국 박창규의 변화는 일회성에 불과하며, 박창규의 이후 발언이 봉쇄되면서 그의 생각은 단순한 짜증이나 돌연한 심경 변화 정도로 치부되고 만다.

이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남성 중심 가치관이 여성 존중 가치관을 만나 점차 변화하는 과정이 그려지듯, 남녀평등 가치관이 가장 우선 가치관을 만나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 과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랑이 뭐길래>는 남성 중심 가치관에 대한 궁극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남녀평등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만들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면, 남녀평등 가치관이 시대의 이념이 되어야 하고 남성 중심 가치관이 철폐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궁극적인 결론이자 당위를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랑이 뭐길래>는 동서 생활 양식의 대립, 세대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남성 중심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대 이념의 문제를 골고루 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재래식 환경 대 현대적 환경, 좌식 문화 대 입식 문화, 방 중심 생활 패턴 대 거실 중심 생활 패턴, 완고한 부모 대 평등한 부모, 남성 중심 가치관 대 여성 존중 가치관이라는 다양한 대립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대비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립적 사고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홈드라마이고 가족 서사의 양식을 담고 있지만, 시대 변화와 사회 문제를 함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랑이 뭐길래>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시대 이념이자 가치관의 대립은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대립은 아니었다. 변화의 와중에 휩싸인 중국 역시 신/구, 동/서, 부/자, 남/여 간 차이로 인한 분화와 대립, 그 대립의 심화와 확산이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었다. 1997년 <사랑이 뭐길래>가 그들 이야기로 시청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대한 동질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호프스테드 이론으로 분석한 <사랑이 뭐길래>

1) 여섯 가지 척도로 분석한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문화적 전환 속에서 가족 간 권력관계, 성 역할의 재편, 세대 갈등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 드라마이다. 이 작품에 문화차원 이론을 적용하면, 인물 각자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그리고 갈등 양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이 뭐길래>는 권력거리 차원에서 고지수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병호는 가정 내 권위자 위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을 통해 자녀들의 삶(진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성실(딸)이나 지은(며느리)의 진로 혹은 가치관에 대한 개입은 권위적 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병호의 신념은 한국 사회

가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사회와 같이 중앙집권적 권위체계에 익숙한 문화의 유사성에서도 확인되는 사안이다.¹⁶⁾

둘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측면에서, <사랑이 뭐길래>는 명백하게 집단주의 문화의 맥락 속에 정위된 작품이다. 지은과 대발의 결혼(과정)은 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족의 가치 충돌과 맞닿아 있으며, 가족 대 가족이 내세우는 체면 혹은 혈통 내지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집단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억제되며, 갈등의 조정 방식도 직설적 대립보다 우회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내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가족 중심 메시지나 집단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맥락이나 각종 전략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 뭐길래>의 중심 서사 역시 동일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남성성과 여성성의 측면에서 보면, 성취 중심 남성 문화와 배려 중심 여성 문화가 충돌하며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발은 전문 직업(의사)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반해 지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심애는 자녀에게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처지는 오히려 전통적 며느리 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 여성상은 궁극적으로 여성 주체성의 강화와 문화적 이행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강하게 담보하고 있다.

넷째, 불확실성 회피의 맥락에서 보면, 이병호는 변화와 모호성에 대해 강한 불안을 느끼는 인물이기에, 모든 사안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병호 개인의 성향은, 해당 시기 한국 사회가 법률, 규범, 규칙을 중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성향과 일치한다.¹⁷⁾ 광고와 건강행동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위험 감소 메시지가 효과적이라는 결과와 연계된다.

반면, 지은과 성실은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16) 박지원, 앞의 논문, 29면.

17) 정속양·전종우, 앞의 논문, 452면.

있어, 세대 간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분야를 전공으로 삼는 도전을 시행한 바 있었고, 성실은 집안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영역(모텔)에서 활동하려는 허영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 회피 맥락에서의 차이는 곧 세대 간의 차이와 직결되고 있다.

다섯째,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의 관점에서, 지은은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으나, 사회와 가족의 기대 속에서 결국 단기적 사랑의 실현을 택한다. 반면 성실은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단기적 도전과 성취에 나서는 듯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질서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전통 가치와 현대적 욕망 사이에서 세대가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 감각을 구성하는 방식과 맞닿는다

여섯째, 절제 대 관용의 맥락에서, 인물들은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여순자나 한심애는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체면과 가족의 위신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문화임을 보여 주고 있다.

2) <사랑이 뭐길래>의 세대 변화와 분석 결과

<사랑이 뭐길래>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과 문화적 변화를 대립적으로 보여 주는 텍스트로서, 양식적으로는 기존의 가족 드라마(홈 드라마)의 전통과 외형을 따르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달라진 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다층적 서사를 담보하고 있었다. 특히 이 작품은 1세대(부모 세대)와 2세대(자식 세대), 더 나아가 여성 세대(부인과 딸과 며느리) 간의 의식 차이와 문화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남성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자 남성 중심 사고의 전형인 이병호는 유교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전형적인 가부장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가부장의 위치에서 가족의 질서와 권력의 통제를 강조하는 사유 방식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이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지은의 부친인 박창규는 여성 중심 사상(가치관)을 선구적으로 인정하고, 아내 한심애와의 관계에서 수평적 태도를 유지

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내는 대조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 중심 가족 구도와 남성 위주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두 가장의 딸인 지은과 성실은 대조적인 아버지를 두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다. 그래서 두 여성은 서로 다른 세대의 충돌 지점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상호 대조적인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 우선, 지은은 전공 개발과 직업 선택 그리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율적 여성상을 선취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도 모친 한심애의 기대와 가족의 과도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성실은 서구적 외모나 뛰어난 몸매를 통해 연예계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고, 이를 위해 아버지 이병호의 구속에서부터 도망치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모델 실패와 연예계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반항을 포기하고, 가족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순응하는 태도로 돌아선다. 이들의 반복적 굴절은 세대 전환기 여성의 이중적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여성 인물 간의 입장 변화와 문화적 전환도 부각되고 있다. 여순자는 초기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자율성을 상실한 전통적 여성(아내)으로 등장하지만, 점차 딸과 며느리를 통해 현대적 여성 의식을 본받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 결과 자신의 사회적·가정적·관계적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의식 개혁을 선보인다. 한편 한심애는 이미 여성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2세대 인물로 등장하여, 딸에게 현실에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세대 간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 간의 대화와 충돌은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과 단절의 복합 양상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각 집안의 사고방식을 물리적으로 투영한 집의 공간적 상징성은 극명한 문화 차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대발의 집은 좌식 문화, 종적 위계, 전통 질서를 상징하며, 지은의 집은 입식 구조와 수평적 관계, 개방성을 시사한다. 특히 ‘끓어얹기’, ‘고개 숙이기’ 등의 행위는 상징적으로 위계 구조의 수직성과 명령 복종의 문화 관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가시적 공간 구성과 문화 권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단지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근대화의 흐름 속 가족 해체 의식과 재구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감정적 공감과 문화적 해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성향은 호프스테드 이론이 국가 간 비교와 동시에 동아시아 문화권 내부의 세부 차이를 드러내는 데도 유용함을 보여 준다.¹⁸⁾

결론적으로, <사랑이 뭐길래>는 문화차원과 세대 전환 이론을 교차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사례로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변화 양상을 정밀하게 포착해낸 선구적 드라마로 볼 수 있다. 문화 차원의 교차성, 세대 간의 긴장 관계, 전통과 현대의 공존 구도라는 주제 의식은, 비단 1990년대만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여전히 유효한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6. 결론 : <사랑이 뭐길래>의 문화적 함의

<사랑이 뭐길래>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환기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과 가족 내 권위 구조의 변화를 드라마 서사로 포착한 작품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 작품에 문화차원 이론을 적용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가치관의 충돌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가장 중대한 문화적 함의는, 이 작품이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당시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 구조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은 세분된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이 뭐길래>는 한국 사회의 높은 권력 거리와 집단주의 성향이 어떻게 가족 내 위계질서와 부모의 권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 작품이었다. 이병호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부장 질서(구세대 가족 제도)와, 지은과 성실 등 새로운 세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자율적 삶의 방식(신세대 가치관)은 권력 거리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문화차원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부각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거둔다. 특히 가부장과 어른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가족 안에서 문화 규범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모습은,

18) 이명무·김윤희, 앞의 논문, 65면.

한국 사회의 위계 문화가 일상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둘째, 남성성과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지향성 등의 문화차원은 작품 속 주요 인물의 사고방식과 갈등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성취 가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대발과 이병호의 집안은, 성실이나 지은과 같은 여성 인물들의 자아실현 욕망과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 양상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전통적 성 역할과 현대적 여성 의식 간의 긴장이 서서히 의식과 가치관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도기의 한 단면을 조명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교육과 자기 계발에 대한 강한 신념은 한국 사회의 장기 지향적 성향을 반영하며, 자녀 교육을 둘러싼 부모 세대의 태도에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셋째, <사랑이 뭐길래>는 텔레비전이라는 대중 매체의 특성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문화 차원을 대중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가시화하였고, 그 결과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높은 문화적 수용성을 이루어낸 기념비적 사례였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는 높은 권력 거리, 집단주의 성향, 정서적 절제 같은 문화 요소는 이 작품이 국경을 넘어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차원 이론을 통해 본다면, <사랑이 뭐길래>는 한국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동아시아 문화권 일반의 정서와 가치를 포괄하는 공유 서사를 갖춘 선구적 영상콘텐츠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뭐길래>는 특정 시대의 가족 서사라는 한계를 넘어선 텍스트였으며, 문화차원 이론으로 재조명할 때 다층적이고 보편적인 서사를 간직한 다성성의 영상문화콘텐츠에 해당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족 중심 문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와 세대 간 갈등이라는 보편적 문제의식을 서사 속에 효과적으로 녹여냄으로써 문화 비교 연구와 콘텐츠 연구 모두에 유의미한 자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랑이 뭐길래>는 한류의 시작점에 위치하면서, 문화 간 차이를 넘나드는 공감의 기반이 되었으며, 문화차원 이론이 제공하는 분석 틀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정교하게 조명할 수 있는 전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사랑이 뭐길래> 연변서 방송」, 『조선일보』, 1997년 9월 7일, 16면.
- 「<사랑이 뭐길래> 중국 안방 점령」, 『한겨레』, 1997년 12월 12일, 8면.
-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 『한겨레』, 1991년 11월 23일, 16면.
- 금인숙, 「<사랑이 뭐길래>와 <의부용정>」, 『담론 201』 (4-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36~59면.
- 김미현, 「가족이데올로기의 종언」, 『여성문화연구』 (13), 한국여성문화학회, 2005, 137~168면.
- 김영옥·양정은, 「The Impact of Cultural Variables and Third-Party Mediation on Conflict Resolution」,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10면.
- 김유경,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에 나타난 광고거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3-4), 한국언론정보학회, 1999, 12면.
- 박지원, 「소비에트와 러시아의 기업문화와 경영활동」, 『슬라브학보』 (27-2),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2, 27~57면.
- 이명무·김윤희,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으로 살펴본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 한류 영화」, 『국제·지역연구』 (33-1), 국제학연구소, 2024, 61~93면.
- 이상민, 「한류 드라마의 특성과 경쟁력」, 『비교한국학』 (2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59~84면.
- 이재경,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 한국문화연구원, 2015, 283~310면.
-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87~114면.
- 전승표 외, 「경제적, 산업구조적, 문화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수입액 예측 모형」, 『지능정보연구』 (27-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1, 25~26면.
- 정속양·전종우, 「조절조점 광고가 예방적 건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5-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450~452면.
- 채백·강승화·허윤철, 「한국 텔레비전 가족 드라마를 통해 본 1990년대 이후 대인소통과 관계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235~264면.
- 최성욱,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논집』 (27-4), 한국정부학회, 2015, 1013~1014면.

| Abstract |

Generational Transition and Cultural Conflict in
What Is Love?: An Analysis through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ave

Kim, Namseok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television drama *What is Love?* (1991)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 focusing on intergenerational change and cultur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e drama is widely regarded as a milestone in the early Korean Wave (Hallyu), especially for its unprecedented popularity in Chin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By applying Hofstede's six cultural dimensions — power distance,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masculinity vs. femininity, uncertainty avoidance, long-term orientation, and indulgence vs. restraint — this paper explores how these cultural traits are reflected in the narrative, family structures, spatial dynamics, and gender roles within the drama. Furthermore, the study argues that *What is Love?* succeeded not only as a domestic hit but also as a cross-cultural cultural product that resonated with broader East Asian sensibilities, thu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transnational Korean media success.

Key Words: *What is Love?*, Hofstede, Cultural Dimensions, Generational Shift, Cultural Conflict, Korean Wave, East Asia, Family Drama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방안 연구

— 타이완 허우통(猴硐) 고양이 마을 사례 —

김의*

목 차

1. 머리말	3. 허우통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2. 타이완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사례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타이완 신베이시 허우통(猴硐) 고양이 마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우통 지역은 과거 탄광업으로 번성하였으나 산업 쇠퇴로 인해 폐광촌이 되었고, 이후 지역 주민과 애묘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고양이 마을’로 전환되면서 성공적인 지역 재생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에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형성 과정, 주요 관광 정책, 지역 사회의 참여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허우통 사례는 민간 주도의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도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 상징성 있는 캐릭터 발굴,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인프라 확충, 동물 복지 문제 해결 등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허우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에 영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지역 소멸, 고양이 마을, 허우통, 타이완, 지역 활성화

* 충남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은 이미 경고의 단계를 넘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 중소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생존 전략으로서 필수적이다. 가령 전북 지역은 과거 무주, 진안, 장수 군 정도가 낙후 지역으로 지목되었으나, 최근에는 호남권 인구 3위를 기록하던 익산시마저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지역 소멸 문제가 더 이상 중장기적 비전 제시에 그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편 지방 도시는 결국 개별 마을들의 집합체이며, 각 마을이 활성화되어 소멸을 방지할 때 비로소 전체 도시의 생존도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탑다운식(top-down) 접근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생적(bottom-up)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타이완의 경우, 전체 국토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수준이며 총인구 또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구조 역시 대한민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들 또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중(臺中)시는 낡은 공무원 관사촌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였고, 가오슝(高雄)시는 부두의 폐쇄된 항만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막대한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직접적인 벤치마킹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신베이(新北)시의 ‘허우통(猴硐) 고양이 마을’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폐광 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허우통 지역은 과거 석탄 채굴로 번성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광산 산업의 쇠퇴와 함께 몰락하였다. 하지만 그 후 고양이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현재는 전 세계 고양이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이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적은 비용으로도 성공적인 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국내의 지역 소멸 대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별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서 밝혔듯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가령 익산시의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읍시를 사례로 하여 고용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¹⁾ 또한 장수군의 경우 청년 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²⁾ 한편 완주군 사례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청년 인구 증가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³⁾ 역시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한 강원도의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 철원군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이나 춘천시의 유희 공간 활용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 방안 연구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⁴⁾ 또한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사체 참여를 지방 소멸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 역시 그 저자가 직접 밝혔듯 “아직 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에 없던 참신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⁵⁾

한편 허우통과 유사하게 문화콘텐츠로써 인문 관광, 예술, 공동체 기반 자원 등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의 재생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축제, 문화예술공간, 해양축제, 도시재생 정책, 문화기반 공동체, 외국 사례 비교 등은 각기 다른 접근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김미정과 남아영은 함평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농촌축제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 1) 박맹수,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 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9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543~554면; 김형수·정영훈, 「지방소멸 위기요인과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읍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융복합연구』 7(2), 한국비즈니스학회, 2022, 39~45면.
 - 2) 김상근·강명길,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방안 연구 - 장수군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42(2), 대한부동산학회, 2024, 261~277면.
 - 3) 이경영,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연구: 전북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22, 3297~3314면.
 - 4) 이나영,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유희공간 활용 방안 -춘천시를 사례로-」, 『경관과 지리』 33(4), 한국사진지리학회, 2023, 102~121면; 이나영, 「접경지역의 지역재생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철원군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34(4), 한국사진지리학회, 2024, 256~272면.
 - 5) 송경재, 「지방소멸 시대,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5(2), 한국국회학회, 2023, 65~94면.

하였다. 연구는 전체 축제의 매력이 지역 이미지와 축제 만족도를 매개로 지역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농촌지역이 축제를 통해 소멸 지역의 외연을 확장하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⁶⁾ 다만 개별 변수 중심의 분석에 머무름으로서 기존 연구 대비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대표 사례에 국한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발성 이벤트 중심의 접근과 달리, 박상아 등은 고성군 ‘명파마을’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뿐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명파 아트호텔과 아트 페스타의 사례를 통해 공간의 일회성 소비를 넘은 예술적 상호작용이 지역 재생의 기제로 작용함을 논증하여 농촌축제의 일시성 혹은 외재적 성격을 보완하였다.⁷⁾ 다만 고성군은 최전방이라는 군사적 상징성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전략과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정량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보다는 예술가와 운영 관계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지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의 질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확장 가능성의 제약이 따른다.

한편 최용훈의 연구는 해양축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어촌의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의 대응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 관광과 어촌축제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콘텐츠 구성, 운영 방식, 거버넌스 구축, 안전관리 등 실천적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적 기여도가 높다.⁸⁾ 그러나 사례 분석이나 참여자 기반의 실증자료가 부재한 점, 그리고 제

6) 김미정·남아영, 「인구소멸시대 농촌축제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23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3), 융합관광콘텐츠학회, 2023, 21~36면.

7) 박상아·안성숙·김곡미, 「문화 예술 공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 - 명파 아트호텔과 아트 페스타 사례 분석」, 『상품문화디자인학회』 79,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24, 495~508면.

8) 최용훈·김연수·송승규,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해양축제 활성화 방안」, 『해양관광학연구』 16(2), 한국해양관광학회, 2023, 65~81면.

시된 전략들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난다. 이는 앞선 두 연구와 더불어서 실천과 참여의 연결 고리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구조적 공백을 보여준다. 이에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둔 고용수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홍천군 ‘분홍공장’과 부여군의 ‘생산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가, 기획자, 지역 주민 간의 연대와 교류를 기반으로 한 소멸 위험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적 공간 외에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생활 인구의 흐름과 외부 주체의 유입이 어떻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⁹⁾ 그러나 ‘분홍공장’과 ‘생산소’는 독특한 지역적 배경과 운영 철학을 가진 민간의 자생적 공간으로, 이들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 또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기반은 비교적 잘 정리되었으나, 이를 문화예술 공간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이 부족하다.

지역의 물리적 기반과 행정적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접근도 제안되었다. 임성호와 김한수의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하여 도시재생지역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획일적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멸 위험 수준을 변수로 삼아 지역 간 차별화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¹⁰⁾ 다만 정량적 지표를 통해 정책 타겟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주민 참여나 문화적 요소 등 질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하동현의 연구는 보다 구조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 정책이 형식적 분권의 틀 속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고, 지역 자율성과

9) 고용수, 「문화예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소멸위험 지역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7,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5, 53~78면.

10) 임성호·김한수, 「인구소멸위험수준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화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한국주거학회, 2021, 165~172면.

실질적 주민 참여가 결여된 점을 비판하였다. 이 논의는 앞선 국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한계, 즉 지역 고유 맥락의 반영 부족, 미미한 주민 참여와 주도성, 지속 가능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성찰하며 조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¹¹⁾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역 활성화 전략은 축제나 공간, 정책 혹은 예술과 같은 단일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 기반의 참여형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허우통 고양이 마을 사례는 지역성과 문화적 관광성, 예술성 등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며,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각각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기존 연구가 여전히 개별 사례에 대한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사례를 국내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하거나 직접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적으로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단일 사례 연구로 설계되었다. 허우통 고양이 마을 사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실행 과정 그리고 성과에 이르는 전반적 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국내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은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의 개발, 주민 참여의 구조, 관광 자원화 과정,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 조사, 디지털 아카이브 분석, 현지 조사, 그리고 반구조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타이완 문화부, 신베이시 관광국 등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 학술논문,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이차 자료를 분석하여 허우통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또 고양이 이미지의 브랜드

11) 하동현,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1~27면.

화, 페이스북을 통한 자생적 홍보, 공간구성 및 관광객 동선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현지 조사는 연구자가 허우통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관광시설과 고양이 관련 상징물, 상업 공간 및 전시 공간 등을 관찰하고, 관광객 흐름과 주민·외부인 간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장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양이 마을의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해외 단일 사례에 기반한 질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비롯하여 타이완과 한국의 제도적·문화적 차이 등 맥락적 요인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2. 타이완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사례

1) 허우통 개발의 역사

타이완 신베이시 루이팡구(瑞芳區)에 위치한 허우통 마을은 일제 통치시기에 탄광 도시로 개발되었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주로 소규모 개발업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20세기 초반, 일본인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지룽철도 주식회사(基隆輕鐵株式會社)가 설립되면서 루이팡 광업 지역 간의 철도 연결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대 탄광업계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허우통 지역 또한 기존의 수작업 기반 소규모 채굴 방식에서 기계화된 대량 생산 및 철도 운송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본토 자본이 설립한 루이싼광업회사(瑞三鑛業公司)가 허우통 지역의 탄광 채굴권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¹²⁾

허우통 지역은 타이완의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당시 연간 석탄 생산량은 200만 톤 이상으로 타이완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다. 이에 채굴권을 보유한 루이싼광업회사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직접 고용되었고, 직원 숙소 100여 곳을 비롯해 유치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12) 徐敏雄, 「創辦猴硐礦工文史館 對高齡礦工生命意義轉化之研究」, 『博物館學季刊』, 國立自然科學博物館, 2023, 5~23면.

편의시설이 조성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재차 유입되었다.¹³⁾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타이완 철도의 전철화 선언 이후 석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설비 노후화와 그로 인한 산업 재해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석탄 수입 시장을 개방하였고, 이는 다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결국 타이완의 석탄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1990년 허우통 광산 또한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폐광 이후 허우통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약 100세대의 주민과 폐허가 된 공장·숙소만이 남겨졌다. 한편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인근의 평시(平溪), 지우편(九份), 진과스(金瓜石) 등은 1990년대부터 ‘복고풍 유행’과 ‘체험 관광’의 흐름을 활용하여 광산 박물관, 전시관, 옛 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관광 명소로 발전하였다. 이후 허우통 또한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비원산장(碧雲山莊)’과 같은 산림 레저 시설을 개발하였으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역 활성화는 좌절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역사 유적 보존과 이를 통한 관광 산업 촉진을 계획하였으나, 허우통의 광산 유적은 사기업인 루이싼광업회사와 정부기관인 타이완철도국 등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통합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고 광역자치단체인 타이베이현(臺北縣) 차원에서 도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¹⁴⁾ 또 국립타이완대학에 석탄 역사박물관 및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한 기획을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약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타이베이현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타이완철도국, 루이싼광업회사와 ‘허우통 탄광 생활원 구역(猴硐煤礦生活園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건축물을 복원하고 ‘허우통 탄광박물관(猴硐煤礦博物園區)’을 설립하였다.¹⁵⁾ 해당 박물관은 인근의 지우편 황금박물관(九份黃金博物館)과 연계하여 ‘탄광 광역 관광지구’로 조성될 계획이었으

13) 嶋崎尚子·中澤秀雄·島西智輝·清水拓·張龍龍·笠原良太, 『台湾炭鉱の職場史 鉱工が語るもう一つの台湾』, 東京青弓社, 2024, 33~34면.

14) 타이베이현(臺北縣)은 2010년 12월 25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신베이시(新北市)로 개편되었다.

15) 劉鎮輝·李光中, 「礦業遺產地景變遷與影響因素分析: 以猴硐煤礦博物園區為例」, 『新北市立黃金博物館學刊』, 新北市立黃金博物館, 2021, 1~20면.

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박물관 운영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우펀 황금박물관이 지자체 문화국 소속으로 연구·기획 기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허우통 탄광박물관은 관광 여행국 산하에 속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박물관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의미없는 랜드마크로 전락하게 되었다.

2) 고양이 마을의 형성 과정

연이은 정책 실패 끝에 허우통은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고양이 마을(貓城, Cat Village)’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소멸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007년, 타이완의 고양이 사진작가 간페이링(簡佩玲)이 허우통을 방문하던 중 마을 곳곳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녀는 허우통에서 촬영한 고양이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와 보호 활동의 인식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허우통은 점차 ‘고양이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2009년 10월, 간페이링은 ‘고양이가 있어 가장 아름다운, 허우통과 함께(有貓最美、猴硐相隨)’라는 촬영 행사를 기획하여 다수의 애묘인들과 함께 허우통을 방문하였다. 이 행사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목받아 ‘고양이 마을’이라는 명칭 또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확산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간페이링은 ‘고양이 부인(貓夫人)’이라는 필명으로 여러 권의 고양이 관련 사진집을 출간하며 허우통의 인지도를 높였다.¹⁶⁾

그 결과, 허우통은 기존의 광산 유적 개발사업 대신 고양이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폐광촌이었던 허우통이 관광 명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기업이나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⁷⁾

16) 대표적으로 簡佩玲(貓夫人), 『猴硐 貓城物語』, 貓頭鷹出版社, 2010; 貓夫人, 『台灣這裡有貓』, 腳丫文化出版社, 2011; 貓夫人, 『台灣這裡貓當家』, 木馬文化出版社, 2011; 貓夫人, 『貓散步 Cat Walk』, 凱特文化, 2013 등.

17) 李素馨, 「觀光新紀元－永續發展的選擇」, 『戶外遊憩研究』, 中華民國戶外遊憩學會,

3) 고양이가 마을의 구조

허우통 고양이가 마을은 관광 구역, 상업 구역, 공터 및 주택가 구역으로 구성되며, 주변은 울창한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먼저 관광 구역에는 고양이 벽화(彩繪貓牆)와 고양이 예술 공간(貓藝術空間)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다양한 고양이 관련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상업 구역에는 감성적인 분위기에, 고양이를 테마로 한 디저트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카페가 밀집해 있으며, 고양이 피아노 계단(鋼琴樓梯)과 같은 사진 촬영 명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말에 노점이 열리는 공터 구역과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있으며, 이들 공간 역시 마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¹⁸⁾

이 외에도 고양이가 마을 조성 초기 타이완철도국에서 기부체납한, 간이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고양이 다리’가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내에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과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마을 곳곳에 사무 공간을 겸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광 및 지역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마을의 전반적인 구조는 조금도 상으로 고양이 얼굴을 연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고양이가 마을의 주요 구성원

허우통 고양이가 마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벽화를 제작하고 각종 고양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양이가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광여행국은

1996, 1~17면.

18) 新北市政府, 『新北市政府觀光旅遊局新聞稿』, https://www.ntpc.gov.tw/ch/home.jsp?id=28&parentpath=0,6,27&mcustomize=news_view.jsp&dataserno=201411050004&mserno=201309100001, 2014.

‘고양이 화장실(貓廁所)’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허우통을 경유하는 808번 버스를 ‘고양이 버스(貓公車)’로 개조하여 운행하였으며, 운수회사가 고양이 울음소리로 편곡된 하차 벨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었다.¹⁹⁾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고양이 캐릭터 조형물과 여행 정보 자료를 제작하되,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작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고양이 마을 운영에 기여하는 시민단체로는 ‘319애묘협회(319愛貓協會)’와 ‘허우통 고양이 친구회(猴硐貓友社)’가 대표적이다. ‘319애묘협회’는 마을 조성 초기 단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허우통 고양이 친구회’는 고양이 서식 환경 유지, 급식 및 위생 관리, 관광 및 문화 활동 주최 등 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²⁰⁾

이 외에도 관광 개발을 억제하고 고양이 보호를 우선시하는 ‘허우통 고양이 독립 자원봉사단(猴硐貓咪獨立志工社)’, 지역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허우통 지속발전협회(猴硐地方永續發展協會)’, 그리고 그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고양이 조정위원회(黑煤貓調解委員會)’ 등이 조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의제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한편, 때로는 견제 관계를 형성하며 마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고양이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신베이시 산하 조직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관리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루이팡구청’은 마을의 환경 관리, 치안 유지 및 시설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신베이시 ‘동물보호방역처(動物保護防疫處)’는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아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입양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광여행국은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객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 自由時報, 『貓奴專屬! 猴硐「貓公車」萌樣曝光』, <https://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1200995>, 2015.

20) 王韻琇, 『非營利動物保護團體社會企業化之研究－以台灣319愛貓協會為例』, 『農業經濟學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3, 43~45면.

5) 향후 지속 가능성

현재 허우통 고양ی 마을은 평일 최소 수백 명, 주말에는 평균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3년 CNN이 선정한 ‘세계 6대 고양이 명소’에 포함되면서 그 인기가 더욱 확대되었다.²¹⁾ 이에 단기적 관점에서 관광지로서의 지속 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타이완의 애묘인 뿐만 아니라 해외 고양이 애호가들에게도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아, 일부 관광객은 허우통 방문을 목적으로 타이완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허우통보다 앞서 폐광 지역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진과스 및 스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활성화는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마을의 자연경관과 고양이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관광객 수 제한 및 환경 보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관광객 과포화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동물 복지 문제로, 마을의 유명세가 높아지면서 유기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 확산 및 개체 수 조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허우통이 탄광 마을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순히 ‘고양이 마을’로만 인식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²²⁾

3. 허우통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개 지역(51.8%)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 6곳과 인천 지역 3곳을 제외한 109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한다. 이 같은 소멸

21) Wong, Maggie Hiufu, “Houtong: Taiwan village saved by hundreds of adorable stray cats”, CNN,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taiwan-houtong-cat-village/index.html>, 2019.

22) 邢志航·艾品濤, 「以貓造社」文化元素活化猴硐社區發展之環境改善課題研究, 『物業管理學會論文集』, 台灣物業管理學會, 2014, 284~292면.

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소멸 고위험 또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칭하며, 해당 지표는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2000년 당시 소멸 위험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0년 61곳, 2020년 103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는 118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주지하듯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단기간 내에 대기업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경제 기반을 활성화한다면 지역 소멸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소멸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고양이가 마을로 전화위복에 성공한 허우통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1) 한국판 고양이가 마을 조성 전략

고양이 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입지 선택이 필수적이다. 허우통 마을의 경우, 본래 탄광마을이라는 서사가 존재하였으며, 단독으로 보았을 때 오지에 가깝지만 이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진광스와 스피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국토가 좁은 타이완의 특성상 타이베이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국내에서도 중요한 입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외딴 마을보다는 허우통과 같이 가령 과거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쇠퇴한 탄광촌 등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소멸 위기 지역이 이에 적합하다. 가령 전북의 거점 도시인 전주 또는 KTX 접근성이 뛰어난 익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경우 KTX·ITX 등 철도 접근성이 좋은 춘천과 강릉 또는 그 인접 지역을 후보지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고양이 마을과 다른 주요 관광지의 연계 및 교통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다.²³⁾

허우통의 사례에서 보듯 고양이 마을 조성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를 비

23) 오지나 외딴섬에서 고양이 마을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 부족 및 열악한 교통 접근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못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를 주도할 경우, 지역 선정 및 예산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민간 주도의 소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성공 모델을 구축한 후, 학습을 통해 주변으로 유사한 사례가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러 반려동물 가운데 ‘고양이 마을’ 사례를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애묘인들의 적극성과 활동성 때문이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를 조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각종 재능 기부를 실천할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캣맘 현상’을 고려할 때, 고양이 마을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며, 유관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캣맘’은 단순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²⁵⁾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고양이 마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과 네트워크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양이 마을 조성 시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 단체, 환경 단체 등)과 캣맘 그룹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SNS와 미디어의 영향 또한 고양이 마을의 성공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허우통의 사례에서도 사진작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한 입소문이 초기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온라인 확산 효과는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슈퍼스타 고양이’의 존재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허우통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길고양이 ‘검은코(黑鼻)’는 철도 사고로 사망한 후, 간이역의 ‘명예역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설치되어 현재도 사진

24) 邱于軒, 「為流浪動物奮鬥——動物保護人士之轉化學習歷程」, 『學習科學研究所』, 國立清華大學, 2015, 74~84면.

25) 박희진, 「도심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연구: ‘캣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6, 237~251면.

촬영 명소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허우통의 길고양이들은 QR코드가 부착된 목걸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고양이의 이름, 성격, 특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개별적인 스토리텔링은 특정 고양이에게 특별한 인지도를 부여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SNS 및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상징적 개체의 스토리텔링이 결합될 때, 고양이 마을은 더욱 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허우통 고양이 마을의 방문객 유형은 고양이 마을 구성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허우통을 찾는 관광객들은 크게 ① 가족 단위 방문객 ② 연인 ③ 카메라 애호가 ④ 고양이 애호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허우통 곳곳에 배치된 캐릭터 조형물과 편리한 교통접근성 덕분에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길고양이 자체를 관찰하는 것보다 고양이 테마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카메라 애호가들 역시 중요한 방문객 유형이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미 전문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구도를 모방해 길고양이의 사진을 찍거나, 나아가 허우통의 산림 경관과 폐광 마을 특유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함께 담고자 한다.²⁶⁾ 이러한 경향은 앞서 밝혔듯 고양이 마을이 단순히 ‘고양이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서사를 가진 장소여야 함을 시사한다. 연인 단위 방문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카페 및 기념품 상점 등지에서 주요 소비층을 형성하며 고양이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도 가장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고양이 애호가들의 방문 목적은 앞선 유형과는 다소 상이하다. 이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길고양이들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를 살피거나 현지 고양이 보호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밖에 허우통 방문객 유형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양이 마을 조성 시 너무 로컬화하거나 단순히 고양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사진

26) 葉文琪, 「貓城崛起：新北市猴硐貓觀光地景的形構」, 『建築與城鄉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6, 197~199면.

촬영 명소'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차별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 연인, 사진 애호가,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고양이 마을의 또 다른 장점은 마스코트 개발과 관련 상품 발굴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허우통의 경우에도 고양이 캐릭터 대부분이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형상화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별도의 마스코트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양이와 연관된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쉽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령 '고양이 카페', '고양이 쿠키', '고양이 발바닥 빵'과 같은 상품들은 단순한 컨셉만으로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며 소비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요소는 결국 관광지로서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고양이 마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스타'가 지속적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개체가 유명해져 인기를 끈 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양이가 등장하여 관심을 받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쉽게 퇴색하거나 도태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고양이를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관광 자원으로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경계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 계층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고양이 마을의 장기적인 운영과 흥행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지속 가능한 모델의 구축

고양이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고양이의 존재 그 자체이다. 관광지로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고양이가 단순한 도구로 전략하는 상황을 지양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위생과 영양을 기반으로 한 건강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협력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상주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허우통의 경

우,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양이 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²⁷⁾

또한 고양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혐오감을 가지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갈등 해결도 중요한 과제이다. 고양이는 본래 야행성이며,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 소음이나 무분별한 배설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허우통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결국 ‘경제적 보상’이라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즉 고양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이 이외의 반려동물이 소외되는 문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허우통 고양이 마을 조성 초기에는 그곳에 애완견 등 다른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그 결정이 철회되었다. 이러한 ‘주변화 문제’는 단순히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지역 주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²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허우통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던 것은 민간단체 간의 협력 다툼이다. 한 구역 내 여러 고양이 관련 단체들이 존재하고,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복지 문제,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²⁹⁾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동물 보호 단체, 관련

27) 吳蕙如, 「我輩貓人: 流浪貓保護運動的興起與建構」, 『社會學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0, 48~93면.

28) 이동욱,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주변화된 노인의 위치」, 『황해문화』 64, 새얼문화재단, 2009, 77~95면; 김정하, 「지역의 주변화와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동북아시아 문화학회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63~67면.

29) 가령 저자의 현지 관계자 취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특정 단체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그들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 고양이 마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보호, 지역 주민의 수용성, 관광객 관리 그리고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타이완 허우통 고양이 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소멸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입지 선정이 필수적이며 허우통이 탄광촌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이 마을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갖춰진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존 관광지와 연계할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 주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애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양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복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들의 수용성과 관광객 관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향후 구체적인 지역 선정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簡佩玲(貓夫人), 『猴硐 貓城物語』, 貓頭鷹出版社, 2010.
- 嶋崎尚子·中澤秀雄·島西智輝·清水拓·張龍龍·笠原良太, 『台灣炭鉱の職場史 鉱工が語るもう一つの台湾』, 東京青弓社, 2024.
- 貓夫人, 『台灣這裡有貓』, 腳丫文化出版社, 2011.
- 貓夫人, 『台灣這裡貓當家』, 木馬文化出版社, 2011.
- 貓夫人, 『貓散步 Cat Walk』, 凱特文化, 2013.
- 고용수, 「문화예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소멸위험 지역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7,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5, 53~78면.
- 김미정·남아영, 「인구소멸시대 농촌축제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23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3), 융합관광콘텐츠학회, 2023, 21~36면.
- 김상근·강명길,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방안 연구 - 장수군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42(2), 대한부동산학회, 2024, 261~277면.
- 김정하, 「지역의 주변화와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동북아시아문화학회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63~67면.
- 김형수·정영훈, 「지방소멸 위기요인과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읍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융복합연구』 7(2), 한국비즈니스학회, 2022, 39~45면.
- 박맹수,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 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9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543~554면.
- 박상아·안성숙·김곡미, 「문화 예술 공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 - 명파 아트호텔과 아트 페스타 사례 분석」, 『상품문화디자인연구』 79,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24, 495~508면.
- 박희진, 「도심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연구: ‘캣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6, 237~251면.
- 송경재, 「지방소멸 시대,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5(2), 한국국회학회, 2023, 65~94면.
- 이경영,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연구: 전북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22, 3297~3314면.

- 이나영,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유희공간 활용 방안 - 춘천시를 사례로 -, 『경관과 지리』 33(4), 한국사진지리학회, 2023, 102~121면.
- 이나영, 「접경지역의 지역재생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 철원군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 『경관과 지리』 34(4), 한국사진지리학회, 2024, 256~272면.
- 이동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주변화된 노인의 위치」, 『황해문화』 64, 새얼문화재단, 2009, 77~95면.
- 임성호·김한수, 「인구소멸위험수준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화-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한국주거학회, 2021, 165~172면.
- 최용훈·김연수·송승규,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해양축제 활성화 방안」, 『해양관광학연구』 16(2), 한국해양관광학회, 2023, 65~81면.
- 하동현,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1~27면.
- 邱于軒, 「為流浪動物奮鬥——動物保護人士之轉化學習歷程」, 『學習科學研究所』, 國立清華大學, 2015, 74~84면.
- 徐敏雄, 「創辦猴硐礦工文史館 對高齡礦工生命意義轉化之研究」, 『博物館學季刊』, 國立自然科學博物館, 2023, 5~23면.
- 葉文琪, 「貓城崛起：新北市猴硐貓觀光地景的形構」, 『建築與城鄉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6, 197~199면.
- 吳蕙如, 「我輩貓人：流浪貓保護運動的興起與建構」, 『社會學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0, 48~93면.
- 王韻琇, 「非營利動物保護團體社會企業化之研究 - 以台灣319愛貓協會為例」, 『農業經濟學研究所』, 國立臺灣大學, 2013, 43~45면.
- 劉鎮輝·李光中, 「礦業遺產地景變遷與影響因素分析：以猴硐煤礦博物館區為例」, 『新北市立黃金博物館學刊』, 新北市立黃金博物館, 2021, 1~20면.
- 李素馨, 「觀光新紀元－永續發展的選擇」, 『戶外遊憩研究』, 中華民國戶外遊憩學會, 1996, 1~17면.
- 邢志航·艾品濤, 「「以貓造社」文化元素活化猴硐社區發展之環境改善課題研究」, 『物業管理學會論文集』, 台灣物業管理學會, 2014, 284~292면.

411050004&mserno=201309100001, 2014.

自由時報, 『貓奴專屬! 猴硐「貓公車」萌樣曝光』, <https://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1200995>, 2015.

Wong, Maggie Hiufu, “Houtong: Taiwan village saved by hundreds of adorable stray cats,” CNN,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taiwan-houtong-cat-village/index.html>, 2019.

| Abstract |

A Study on Strategies for Overcoming Regional Decline through Cultural Regeneration — The Case of Houtong Cat Village in Taiwan —

Kim, Euy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revitalizing depopulated and declining region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Houtong(猴硐) Cat Village in New Taipei City, Taiwan. Once a prosperous coal-mining town, Houtong experienced significant decline following industrial collapse. However, through the voluntary efforts of local residents and cat enthusiasts, the area was transformed into a “cat village” and has since become a successful example of community-led cultural regeneration.

The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of Houtong Cat Village, key tourism policie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resulting economic impacts, with a focus on assessing the applicability of its success factors to similar regions in Korea. Findings reveal that the revitalization was achieved with relatively limited resourc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ymbolic character branding, targeted content for diverse tourist demographics, and strategic promotion via social media and digital platform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residents and civic organizations,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the resolution of animal welfare concerns were identified as essential el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Houtong model offers practical and creative implications for local revitalization efforts in Korea’s depopulating areas.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serves as a meaningful reference for future initiatives addressing regional decline.

Key Words: Regional Decline, Cat Village, Houtong, Taiwan, Local Revitalization

스포츠 관람 커뮤니티의 개별화 현상*

— KBO와 e스포츠 비교 분석 —

박성은**

목 차

1. 머리말	3. KBO와 e스포츠 관람문화의 개별화 현상 분석
2. 선행연구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로버트 퍼트남의 ‘볼링 얼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KBO와 e스포츠 관람 문화 개별화 현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영역 모두 관람자 수는 증가했지만 공동체적 경험은 개별화되는 볼링 얼론 현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진행 과정과 속도는 완전히 달랐다. KBO는 1980년대 제한된 미디어 환경에서 3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별화된 반면, e스포츠는 2000년대 ‘미디어 다원화’ 시대에 20여 년 만에 급속하게 개별화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KBO가 경제적 조건에 따른 분화를 경험한 반면, e스포츠는 선호에 따른 자발적 분화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퍼트남의 이론이 한국 스포츠 관람 문화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만, 그 적용에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기술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시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주제어 : 볼링 얼론, 사회적 자본, 관람 문화, 개별화, KBO, e스포츠, 미디어 환경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162)

**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들어가며

최근 스포츠 관람문화에서는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스포츠의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일반적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관람 문화의 개별화와 공동체적 경험의 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프로야구(이하 KBO)와 e스포츠라는 두 스포츠 영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KBO는 1982년 창설 이후 프로축구(1983), 프로농구(1995)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국 프로 스포츠의 출발점 및 기준점 역할을 하였다.¹⁾ 반면 e스포츠는 2000년대 이후 완전히 다른 미디어 환경에서 태생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1980년대 제한된 미디어 환경에서 출발한 KBO와 비교했을 때, 시대적 환경 차이에 따른 관람 문화 변화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대조적 사례이다.

KBO의 경우, 1970년대 고교 야구를 바탕으로 1982년에 창설되었다. 이후 침체기(1996~2005)를 겪었으나, 2006년 제2차 전성기를 맞으면서 여성과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때의 야구장은 단순히 야구 경기만을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복합 여가공간(외식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족 여가문화로 정착되었다²⁾. 이러한 문화는 현재까지 부모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³⁾.

관람 방식은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였다. 1982년 KBO 창설 이전까지는 야구를 보려면 경기장에 직접 가야 했으나, KBO 출범과 함께 공중파(KBS, MBC 등)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정기적으로 중계하게 되면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어디서든 야구를 볼 수 있게 되었다⁴⁾. 그러나 1995년 한국스포

1) 전용배·남중웅, 「한국 프로야구 관중추이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1),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393면.

2) 이주연·이예원, 「한국 야구 관람문화 변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2, 188면.

3) 정선희, 「자녀의 성장에 따른 프로야구 가족팬덤 변화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80,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24, 16면.

4) 설민신·박두웅, 「프로야구 중계방송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대학생의 특성 및 관여도에 따른 시청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3, 312면.

츠 TV(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가 개국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점차 야구 중계권이 기존 공중파에서 유료 케이블 TV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2008년 경기중계 체제가 도입되면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시장 기제는 지불능력이 있는 시청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내며⁵⁾,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⁶⁾.

최근 또 다른 유료화는 2024년 티빙의 KBO 독점 중계이다. 기존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무료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으나, 티빙 독점 체제에서는 실시간 경기 시청을 위해 별도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예매 시스템의 복잡화 등으로 경제적, 기술적 접근 장벽이 다시 높아지면서, 같은 야구 팬이라도 경기장 직접 관람, 케이블 시청, OTT 플랫폼 시청 등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람하게 되었다.

미디어 기술 발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⁷⁾.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진입장벽이 형성되면서 공동체적 관람 문화에 균열을 가져왔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같은 야구 팬이라도 전혀 다른 관람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e스포츠는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게임 문화는 1980년대 오락실에서 이미 공동체적 특성을 보였다. 승자가 계속 플레이하고 도전자들이 들어오는 시스템, 고수의 플레이를 뒤에서 관람하는 문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용돈을 모아 오락실에 가는 것 등은 전형적인 공동체적 게임 문화였다⁸⁾.

이후 1990년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타크래프트, 바람의나라 등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면서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온게임넷과 MBC게임 같은 케이블 채널을 통해 프로경기를 함께 시청하는

-
- 5) 김병권,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생협평론』 33,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8, 15면.
 - 6) 정지규, 「한국프로야구의 TV 콘텐츠 가치에 관한 연구: 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7) 김은식, 「한국야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70년대 야구 대중화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4(2), 한국학중앙연구원, 362면.
 - 8) 강신규·원용진·채다희, 「전자오락 구경부터 인터넷 게임방송 시청까지」, 『한국방송학보』 33(1), 한국방송학회, 2019, 5~43면.

등 공동체적 관람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e스포츠가 본격화된 2000년대는 이미 인터넷, 게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디어 다원화’ 시대였다.⁹⁾ 1인 미디어 게임방송(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치지직 등)의 등장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스트리머(혹은 BJ)를 따라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다. 심지어 같은 경기장에서도 야구의 집단 응원과 다르게 치어폴(개별 응원 도구)¹⁰⁾을 사용하는 등 개인화된 관람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볼링 얼론(Bowling Alone)』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퍼트남은 미국에서 볼링을 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지만 볼링 리그 참여자는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공동체적 경험이 개별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로 이어져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특히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¹¹⁾.

현재 한국의 스포츠 영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퍼트남의 분석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KBO의 경우 야구를 보는 사람의 수는 여전히 많지만, 공동체적 관람 경험은 점차 개별화되고 있다. 반면 e스포츠는 짧은 역사 안에서 1인 미디어 게임방송으로 인해 공동체적 관람에서 개별화된 관람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화가 단순히 기술적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야구 전성기였던 1980~90년대는 제한

9) 1998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도입 이후 인터넷 사용자는 1997년 163만 명에서 1999년 1,000만 명, 2004년 3,000만 명으로 급증하며 인터넷 이용률 70%를 달성했고, 이러한 폭발적 증가는 PC방 확산과 온라인 게임 인기에 힘입은 것이었다(전길남 외, 2012). 2000년대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제작과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한 시대로, 인터넷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으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형성될 정도로 콘텐츠가 다양화되었다(NordVPN, 2023).

10) 개별적인 응원 피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종이에 선수나 팀에 대한 응원 메시지 혹은 개인 메시지 등을 적는다.

11) 이재신·이영수,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2, 62면.

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적 관람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던 반면에, e스포츠가 발전한 2000년대 이후는 무수한 선택지로 인해 ‘집단적 관람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환경이었다. 흥미롭게도 게임 참여의 경우 1980년대 오락실부터 현재까지 공동체적 특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 관람 문화는 오히려 공동체적 관람에서 개별화된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볼링 얼론’ 현상이지만 서로 다른 속도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과 볼링 얼론 개념을 토대로 KBO와 e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관람 문화 개별화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사회적 변화(공동체적 관람에서 개별화된 관람으로의 전환)가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과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미디어 환경 변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퍼트남의 볼링 얼론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이다¹²⁾. 과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대화를 주고 받으며 사회관계를 유지해온 데 반해,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TV를 보며 따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자본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퍼트남의 주장대로 TV가 사회자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TV를 통해 공통된 정보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오히려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것이다. TV뿐만 아니라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반된 것들이 많다.

12) 이재신·이영수,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2, 77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건 감소시키건, 많은 경우 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자본(온라인 사회자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¹³⁾.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한다(Putnam, 2015)¹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공동체일수록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상호 호혜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집단 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퍼트남이 제시한 대표적 사례는 볼링인데,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미국의 전체 볼링 인구는 10% 증가했지만 리그 볼링은 40% 감소했다. 이는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지만 공동체적 경험은 개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은 맥주와 피자를 나누며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일상에 대한 대화를 놓치게 된다.

특히 퍼트남은 텔레비전과 같은 기술 발전이 공동체적 참여를 감소시키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1960년대 연구에서 TV 시청 시간 증가가 미국인들의 일상 변화에서 다른 모든 변화를 압도했으며, 전자 기술이 개인 취향을 더 완전히 만족시키지만 공동체적 오락 형태와 연관된 긍정적 사회적 효과를 희생시켰다는 것이다(Putnam, 2015)¹⁵⁾. 결국 퍼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쇠퇴는 단순한 여가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결속력과 사회적 유대감 약화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가 공동체 결속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¹⁶⁾.

2) 스포츠 미디어와 관람 문화 변화

13) 이재신·이영수,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2, 62면.

14) Putnam, R.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The city reader』, 188~196, Routledge, 2015.

15) Ibid.

16) Sampson, R. J,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스포츠 중계방송의 확산은 관람 문화에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TV 중계가 도입되면서 현장 관람 문화에서 가정 내 시청 문화로 변화했는데, 구단들은 직접 관람을 대체한다는 우려로 TV 중계를 금지하기도 했다¹⁷⁾. 하지만 McCollum & McCollum(1980)에 따르면 올림픽의 경우 TV 중계로 인해 관중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¹⁸⁾, TV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이 경기장도 자주 찾는 것으로 확인되어 팬층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KBO 관련 선행연구들은 야구 관람을 주로 긍정적 문화 현상으로 접근해 왔다. 전용배·남중웅(2002)은 프로야구의 인기가 다른 프로스포츠 출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고, 이주연·이예원(2011)은 KBO가 복합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족 여가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했다²⁰⁾. 정선희(2024)는 현재 부모에서 자녀세대로 전승되는 관람 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²¹⁾.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KBO가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러한 공동체적 관람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스포츠 방송의 확대로 인해 스포츠판이 증가하게 되었지만²²⁾,

-
- 17) Demmert, H. G. (1973).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team sport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Noll, R. G. (2001). Attendance and price setting.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135, 165~207, Fize, J. L., & Bennett, R. W. (1989). The impact of college football telecasts on college football attendance. Social Science Quarterly, 70(4), 980, Kaempfer, W. H., & Pacey, P. L. (1986). Televising college football: The complementarity of attendance and viewing. Social Science Quarterly, 67(1), 176, Mawson, L. M., & Bowler, W. T. (1989). Effects of the 1984 Supreme Court ruling on the television revenues of NCAA Division I football program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3(2), 79~89.
- 18) McCollum, R. H., & McCollum, D. F. (1980). Analysis of ABC-TV coverage of the 21st Olympiad Games, Montreal.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1), 25~33.
- 19) 김종·최재원, 「한국 프로야구 중계방송이 직접관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4(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7~219, 1999.
- 20) 이주연·이예원, 「한국 야구 관람문화 변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69~198, 2011.
- 21) 정선희, 「자녀의 성장에 따른 프로야구 가족팬덤 변화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80, 한국청소년문화학회, 13~48, 2024.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 장벽이 형성될 수 있음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지규(2020)는 독점적 방송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이러한 배제가 소득 격차에서 비롯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M. Sugaya & K. Nakamura(2003)²³⁾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경쟁 상황에서 프리미엄 콘텐츠의 독점권 확보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시청자 배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²⁴⁾. 이는 스포츠 관람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층화되면서 퍼트남이 우려한 사회적 자본의 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스포츠 관련 연구들은 KBO 연구와 대조적으로 주로 개별 관람객의 심리적 요인에 집중해왔다. 관람동기와 만족도(박성은, 2024; 이지영 외, 2014; 한진옥 외, 2010; 조용찬·이뢰, 2016²⁵⁾), 몰입과 충성도(이정학 외, 2009; 김주희, 2019²⁶⁾), 서비스품질과 재관람의도(심재희·정분도, 2019; 정분도·김장호, 2019; 주진영·유창석, 2019²⁷⁾), 마케팅믹스 요인과 이용만족(최동오,

22) 김은식, 「한국야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70년대 야구 대중화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4(2), 한국학중앙연구원, 349~381, 2021.

23) M. Sugaya & K. Nakamura, 「방송 미디어 경제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4) 정지규, 한국프로야구의 TV 콘텐츠 가치에 관한 연구: 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25) 박성은, 「팬티켓기에 따른 e 스포츠 관람만족이 대회 추천의향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4(2), 한국게임학회, 2024, 25~36면. 이지영·안재웅·이상우, 「e 스포츠 관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LoL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4(3), 한국게임학회, 2014, 35~45면. 한진옥·편도영·권형일, 「e-스포츠 팬 소비동기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1), 한국체육학회, 2010, 221~229면. 조용찬·이뢰, 「e-스포츠 관중의 관람동기에 관한 척도 개발과 관람동기와 만족도와 재 관람의도 관계의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한국체육과학회, 2016, 543~556면.

26) 이정학·김종훈·이상현, 「e-스포츠 관람객 라이프스타일이 관람몰입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2), 한국체육과학회, 2009, 215~226면. 김주희, 「E 스포츠 전문화 수준이 플로우(Flow)와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LoL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9(1), 한국게임학회, 2019, 61~72면.

27) 심재희·정분도, 「e-스포츠 관람서비스품질이 관람만족과 재관람의사 및 재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0(7),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109~118면. 정분도·김장호, 「e-스포츠팀의 서비스품질요인이 관람만족과 팀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2019²⁸⁾), 만족도 판단 구조(김주호, 2020²⁹⁾) 등 개인 차원의 관람 경험 분석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차이는 두 영역이 발전한 맥락의 차이를 반영한다. KBO 연구는 집단적 관람 문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던 반면, e스포츠 연구는 상업화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개별 소비자 분석에 집중하게 되었다.

3) 현재 스포츠 관람 환경의 변화

OTT 플랫폼³⁰⁾들이 다양한 콘텐츠(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가운데, 스포츠 콘텐츠 역시 독점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피콕(Peacock)이 2024 내셔널 풋볼리그(NFL)을, 쿠팡플레이는 K리그를, 현재 티빙은 2024년 5월부터 KBO를 유료화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구독플레이션’과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각각 다중 구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구독료 연쇄 인상 현상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³¹⁾.

프로야구는 안정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OTT 사업자에게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³²⁾이다. 티

『e-비즈니스연구』 20(3),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71~83면. 주진영·유창석, 「e 스포츠의 동기와 체험경험이 관람만족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30(4), 한국소비자학회, 2019, 261~281면.

28) 최동오, 「대학생의 e-스포츠 관람이 이용만족, 애호도 및 재이용의도의 영향 관계 연구: 마케팅믹스요인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20(2),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133~144면.

29) 김주호, 「e-스포츠 소비자의 경기 관람에 대한 만족도 판단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30) 넷플릭스(Netflix), 쿠팡플레이(Coupang Play), 티빙(Tving), 디즈니플러스(Disney+) 등으로, 독점콘텐츠와 오리지널 시리즈로 인해 사람들이 특정 OTT를 가입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31) 이혁기, 「[구독 공유 플랫폼 명암] 합법과 불법 그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 『더스쿠프』, 586, 더스쿠프, 2024, 34면.

32) 노창희,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언론과법』 22(3), 한국언론법학회, 2023, 123~160면. 추동훈, 「[Business] 스포츠 스트리밍 진출 나선 OTT 게임·쇼핑 등 차세대 콘텐츠 경쟁」, 『매경력스맨』 163, 매일경제신문사, 2024, 140~143면.

빙이 2024~2026년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및 재판매권을 획득하면서 프로야구 관람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핵심은 서비스 방식의 전환으로, 네이버가 5년간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와 다르게 티빙은 유료화를 선언하여 기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³³⁾.

티빙의 유료화는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첫 본격적인 유료 중계 서비스로, 팬들은 기존 TV 구독료에 추가로 OTT 서비스 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³⁴⁾. 특히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시청하려는 팬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³⁵⁾.

직접 경기 관람에서도 유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시즌권은 좌석 등급별로 차별화된 가격(프리미엄석, 일반석, 외야석 등)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오전 예매 기회를, 일반 예매자에게는 오후 예매만을 허용하는 시간차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티켓 예매의 디지털화까지 더해지면서 고령층의 경기 접근성은 더욱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롯데자이언츠는 2024년부터 만 65세 이상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예매를 운영하며, 비록 한정적이지만 기존 3루석에서 1루석까지 확대하여 230석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³⁶⁾. 하지만 이러한 개별 구단의 노력

33) 김동규·박재호·서재열, 「프로야구 뉴미디어 시청 유료화에 따른 시청자 행동 예측」, 『한국체육과학회지』 33(3), 한국체육과학회지, 2024, 400면.

34) ibid.

35) 김승환·성옥준,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7(3), 한국지능정보사회지원원, 2020, 19~38면. 최기철·김태환·이상용,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접근의 가치추정을 이용한 정보격차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403~412, 2017. 황현정·황용석,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359~386면. 문영환·홍아름·황준석,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18(2),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33~64면.

36) MBC 뉴스, 노년층 없는 '1천만 열기'...현장 매표 열리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1094_36799.html, 롯데 자이언츠, 서울신문, '넷맹' 팬들 위해 일부 티켓 현장 판매로, <https://www.seoul.co.kr/news/sport/baseball/2024/04/16/2024>

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젊은 층은 모바일과 OTT를 통한 실시간 시청, SNS 상호작용 등 풍부한 관람 경험을 누리는 반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제한적인 TV 중계나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해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퍼트남이 우려한 사회적 자본의 계층별 분화가 스포츠 관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기술 발전이 공동체적 경험을 개별화시키고 경제적 조건에 따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⁷⁾.

이러한 변화는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행사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대표적인 대상이며, 영국·호주·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무료 지상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³⁸⁾. 업계에서는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 TV 중계를 통해 기본적인 시청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OTT 유료화는 프로야구 산업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나 케이블 TV는 전 경기를 중계하지 않아 완전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료화로 인한 접근성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³⁹⁾.

3. KBO와 e스포츠 관람 문화의 개별화 현상 분석

1) KBO

(1) 공중파 시대: 제한된 선택과 집중된 관람 경험(1980~1990년대)

0416500126

37) 정수연·이도희·유상건·최규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 (UTAUT2) 을 적용한 OTT 플랫폼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행위 연구: 쿠팡플레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7(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2, 74면.

38) 안준철, 「스포츠 중계와 K-OTT 산업의 미래 _ 스포츠 팬을 사로잡아라! 스포츠 중계, K-OTT 성장 기회 될까」, 『신문과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1~14면.

39) 노창희,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언론과법』 22(3), 한국언론법학회, 2023, 123~160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KBO 야구는 공중과 방송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었다. 1982년 리그 출범 이후 1994년까지 KBS와 MBC가 야구 중계를 담당했던 이 시기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관람 문화를 형성했다⁴⁰⁾. 평일 저녁과 주말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시청자들에게 ‘함께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⁴¹⁾.

이 시기의 특징은 선택지의 제한성이었다. 야구를 보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을 시청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야구 팬들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화면을 보며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는 퍼트남이 「볼링 얼론」에서 강조한 ‘공동체적 참여’의 전형적 사례다. 개별적 행위인 야구 시청이 집합적 경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음날 직장이나 학교에서 야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통 화제가 되었다. 친구와 가족은 물론 낯선 사람들과도 전날 경기를 통해 대화가 이어졌고, 이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졌다⁴²⁾.

실제로 1996년 이전까지 연평균 관중 수가 500만 명을 넘나들었던 것도 이러한 미디어의 집중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제한된 미디어 환경이 오히려 강력한 팬층 형성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⁴³⁾.

(2) 케이블 시대의 경제적 분화와 관람 경험의 다층화(2000-2010년대)

2000년대 들어 야구 중계 환경이 케이블 시대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분화가 일어났다. 1995년 한국스포츠TV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MBC ESPN, KBS SKY 스포츠 등이 등장하며 중계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2008년 Xports 참여로 전 경기 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시청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⁴⁴⁾.

40) 하상욱, 「한국 TV 스포츠 중계방송의 제작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1면, 2014.

41) 설민신·박두용, 「프로야구 중계방송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대학생의 특성 및 관여도에 따른 시청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3, 312면.

42)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회』 29(5), 한국방송학회, 2015, 58면.

43) 전성춘, 「한국 스포츠 관람 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면, 2009.

44) 설민신·박두용, 「프로야구 중계방송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대학생의 특성 및 관여도에 따른 시청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3, 312면.

핵심적 변화는 경제적 진입장벽의 등장이었다. 유료 케이블 TV 가입 여부에 따라 관람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심미선(2001)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케이블TV 가입 현황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97년 12월 총 252만 9천 가구(유료+무료)에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 6월 107만 2천 가구, 12월 100만 2천 가구로 줄어들었다가⁴⁵⁾, 경제 회복과 함께 유료시청 가구가 1999년 12월 179만 4천, 2000년 6월 227만 가구로 급증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20). 이는 경제적 여건이 케이블TV 접근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⁴⁶⁾

이러한 변화는 퍼트남이 논의한 사회적 자본의 성격 변화를 의미한다. 1980~90년대의 ‘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 2000년대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계층별 분화로 전환된 것이다. 정지규(2020)가 지적했듯이, 독점적 방송권으로 인해 유료방송 비가입자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고, 이것이 소득 격차와 연결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⁴⁷⁾.

채널별 차별화 전략도 관람 경험의 다양성이 가속화되었다. 단순한 경기 시청을 넘어 ‘어떤 채널에서 보는가’에 따라 관람의 질이 달라져⁴⁸⁾ 같은 야구 팬이라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관람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는 퍼트남이 우려한 ‘개별화된 경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실제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관람 방식이 완전히 분화되었다. 케이블 가입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비가입자는 제한된 공중파 중계나 라디오에 의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야구 팬층은 유지되었지만, 팬들 간의 공통된 경험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3) OTT 시대: 다층적 관람 환경의 완성 (2020년대)

2024년 티빙의 KBO 중계권 독점 계약은 관람 환경 분화를 완성시키는 결

45) 심미선, 「케이블 TV 및 인터넷 등장에 따른 지상파방송 시청행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5(2), 한국언론학회, 2001, 251면.

46) ibid.

47) 정지규, 「한국프로야구의 TV콘텐츠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5면.

48) 함은주, 「인문, 사회과학편: 스포츠중계방송 시청 시 고려요인에 따른 수용자 유형화」, 『한국체육학회지』 51(4), 한국체육학회, 2012, 33~44면.

정적 사건이었다. 티빙의 단계적 유료화 전략(3~4월 무료, 5월부터 유료)의 결과, 2024년 3~5월 일평균 이용자수(DAU)가 183만 명으로 2023년 평균 대비 38% 상승했으며, 유료 전환 이후인 5월에도 19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용자층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관람 환경 분화의 완성을 의미했다⁴⁹⁾⁵⁰⁾.

현재 KBO 팬들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야구를 경험한다. 첫째, 경기장 직접 관람자들은 복잡한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계층이나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티켓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둘째, 케이블 시청자들은 전통적인 TV 중계에 의존하지만 제한된 경기만 시청 가능하다. 셋째, OTT 시청자들은 모든 경기에 접근 가능하지만 추가 구독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분화는 퍼트남이 중시한 공동체적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9%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85.1%가 유료화로 인한 정보 불평등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이현우·오세욱, 2024). 특히 60대가 가장 부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세대 간·경험 간 인식 격차를 보여준다⁵¹⁾.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대 간 관람 경험의 격차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티켓을 예매하고,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며, 댓글과 SNS를 통한 즉각적 상호작용과 개인 맞춤형 콘텐츠 소비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반면 고령층은 복잡한 OTT 가입 절차와 모바일 예매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구단이 65세 이상을 위한 별도 현장예매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배제 현상이 심각해졌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야구 관람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 기술적 숙련도, 세대적 특성에 따라 완전히 분화된 개별적 경험이 되었다. 이는 과거 공중파 시대

49) 도준호, 「OTT의 스포츠 중계 확대와 보편적 시청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5(2),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25, 193면.

50) 같은 기간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2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다.

51) 이현우·오세욱,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와 시민 시청권 관련 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10(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17면.

에 ‘함께 보는’ 야구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따로 보는’ 야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층과 케이블 TV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서로 다른 경기를 시청하거나 아예 다른 시간에 관람하게 되어 공통 화제 형성이 어려워졌다. 또한 티켓 예매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령층이 배제되면서, 과거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세대 간 교류와 경험 전수도 단절되고 있다. 이는 퍼트남이 우려한 사회적 신뢰 약화와 참여 네트워크 해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례이다.

이는 퍼트남(Putnam)이 『볼링 얼론』에서 분석한 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퍼트남은 과거 미국인들이 볼링 리그에 참여하며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혼자서 볼링을 치는 개별적 여가 활동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⁵²⁾. 마찬가지로 한국의 프로야구 관람 문화 또한 과거에는 함께 TV를 시청하며 응원하던 공통된 집단적 경험에서, 각자의 경제적·기술적 조건에 따라 분화된 개별적 경험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선택권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팬 상호작용이 등장한 반면, 경제적·기술적·세대적 조건에 따른 접근성 격차도 심화되었다. 야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하지만, 관람 방식의 계층화를 통해 공유된 경험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e스포츠

e스포츠 관람 문화의 역사는 1980년대 오락실과 1990년대 PC방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제한적 경험이었다⁵³⁾.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야구와 달리, 게임은 아직 소수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1998년 말 한국프로게임리그 창설과 스타크래프트의 방송화가 현재와 같은 대중적 e스

52) Putnam, R. D. (201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The city reader (pp.188~196), Routledge, 5.

53) Yun, H. S., 「한국 게임의 역사 정리에 대한 고찰」 한국게임학회지, 8(1), 한국게임학회, 2011, 11~18면.

포즈 관람 문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1) 오락실 시대: 공동체적 게임 문화의 형성 (1980년대)

e스포츠의 뿌리는 1980년대 오락실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전자오락실은 부정적 사회 인식에 직면해 있었다. 어두컴컴한 동네 오락실에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저급한 놀이라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해 관련 학술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다⁵⁴⁾.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전자오락이 확산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의미했다. 기존에 운동장이나 골목에서 신체적 놀이를 즐기던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개별적인 화면을 통해 게임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놀이 문화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의 변화를 넘어 이후 게임 문화와 청소년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⁵⁵⁾.

전자오락실에서의 게임 경험은 새로운 문화적 가치 체계를 학습하고 현실 적응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⁶⁾. 당시 게이머들이 게임에 몰입하여 짧은 시간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했다는 기록은 이러한 오락실 문화의 강렬한 흡입력을 잘 보여준다⁵⁷⁾. 이러한 게임 문화는 일정한 공동체적 특성을 보였다. 승자가 계속 플레이하고 도전자가 들어오는 ‘승자독식’ 시스템, 고수의 플레이를 뒤에서 관람하며 배우는 문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용돈을 모아 오락실에 가는 집단적 여가 활동 등은 나름의 공동체적 게임 문화였다.

전자오락실은 일종의 ‘매직서클(magic circle)’로 기능하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들 간의 우연한 만남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구경하거나 도전하는 등 특유의 집단적 게임 문화가

54) 나보라, 「『게임상』의 통사적 연구: 한국 전자오락사의 이론적 고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63면.

55) 조동원, 「1970년대 말 전자오락실의 비디오 게임 놀이와 신자유주의 디지털문화의 형성」, 『과학기술학연구』 20(2), 한국과학기술학회, 2020, 176면.

56) Kocurek, C. (2012), “Coin-Drop Capitalism: Economic Lessons from the Video Game Arcade”, In Wolf, M. J. P. ed., Before the Crash: Early Video Game History, pp.187~208,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5면.

57) 장경근·강석, 『갤러그 대학의 여대생들』, 신원문화사, 1983, 226면.

형성되었다. 게임 플레이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외부 사회의 경제적 질서나 물질적 이해관계와는 분리된 독립적 공간의 성격을 지녔다⁵⁸⁾. 이는 퍼트남이 강조한 시민 참여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나름의 사회적 규범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공동체였다.

(2) PC방 시대: 네트워크 게임과 집단적 관람 문화(1990년대)

1990년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게임(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 등)이 등장하면서 PC방 중심의 새로운 게임 문화가 형성되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기 상에서 스타크래프트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PC방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 고리를 제공했다. 국민PC 정책과 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1998년 전국 100여개에 불과했던 PC방은 2년 뒤 1만 5천여개로 폭증하였다⁵⁹⁾.

하지만 PC방의 공간적 특성은 퍼트남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단일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좌석으로 분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게임 플레이의 개인화를 촉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오락실 시대의 집단적 관람 문화가 PC방에서는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오락실 시대의 집단적 관람 문화가 PC방에서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구경하기’ 문화는 PC방의 물리적 공간 제약과 개별 좌석 구조로 인해 제한되었다. 이는 퍼트남이 논의한 ‘혼자 볼링 치기(Bowling Alone)’ 현상과 유사하게,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화된 참여 형태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PC방에서의 게임 플레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머의 등장과 게임 방송의 상업화는 PC방이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잠재적 생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PC방은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58) 이수엽·채다화·박근서, 「게임 공간과 게임 플레이의 변화: 전자오락실, PC방, 모바일 게임 공간을 중심으로: 전자오락실, PC방, 모바일 게임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129면.

59) 김점섭, 「디지털게임의 사회적 상상력」, 『지성인』, 2022, 14면.

어려운 복합적 공간이다.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관계망을 창출하고, 집단적 참여 문화를 개인화하면서도 간접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층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인 미디어 시대: 미디어 다원화와 급속한 개별화 (2000년대 후반~현재)
e스포츠가 본격 발전한 2000년대는 퍼트남이 우려한 ‘사회적 자본의 쇠퇴’가 가속화된 시기라 볼 수 있다. 1998년 초고속 인터넷 도입 후 사용자가 1997년 163만 명에서 2004년 3,000만 명으로 급증하며 다양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⁶⁰⁾. 이는 KBO가 경험한 1980~90년대의 제한된 미디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특히 2010년대 1인 미디어 게임방송의 등장은 관람 문화에서 퍼트남이 강조한 ‘사회적 참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다양한 플랫폼(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에서 개인 스트리머들이 게임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집단적 참여 방식이 개별화된 네트워크 참여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제 관람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스트리머를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경기를 시청한다. 이는 퍼트남이 논의한 ‘공동체 해체’ 현상의 전형적 사례로, 같은 경기를 봐도 각자 다른 해설자, 다른 채팅 문화, 다른 커뮤니티 분위기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공통된 사회적 경험의 기반이 분화되고 있다.

팬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트리머의 해석과 반응을 통해 경기를 재해석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하지만, 이러한 소통은 각 플랫폼과 방송 채널 내의 ‘에코 챔버(echo chamber)⁶¹⁾’ 현상을 강화한다. 퍼트남이 우려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줄어들고 유사한 취향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질적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이다.

e스포츠 팬덤의 특징 역시 이러한 개별화 경향을 반영한다. 전통 스포츠의 지역연고나 프렌차이즈 기반 팬덤과 달리, e스포츠는 선수들의 잦은 이적으로 인해 구단 중심의 지속적 사회적 결속 형성이 어렵다. 대신 개별 선수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 강하며, 선수 이적 시 팬들도 함께 팀을 옮기는 유동적

60)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시대의 도래”, URL: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04_0060_0020_0030

61)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여 기존 생각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특성을 보인다⁶²⁾. 이는 전통 스포츠에서 지역 기반의 팀 충성도가 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e스포츠 팬덤의 유동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타 문화장르의 팬덤은 ‘보기(관람)’에 주로 그치는 반면, e스포츠 팬덤은 ‘하면서 보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⁶³⁾.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팬들이 프로 선수들과 동일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으며, 랜덤 매칭으로 함께 게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게임 참여 외에도 e스포츠 팬들은 다양한 형태로 게임에 몰입한다. 온라인에서 게임 전략을 논의하고, 프로 경기를 시청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소통하거나 팬 아트와 코스프레 등의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⁶⁴⁾. 특히 같은 e스포츠 경기라도 팬들은 각자 선호하는 스트리머를 통해 시청하며, 각기 다른 해설과 반응, 채팅 문화를 경험한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로 보이나, 이러한 활동들이 각자 다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분산된 참여 형태로 퍼트남이 중시한 ‘집합적 행동’이나 ‘공동체 의식’ 형성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e스포츠는 KBO가 케이블 TV 유료화로 인한 경제적 분화를 겪었다면, 무료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한 선호 분화를 경험했다는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퍼트남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취향과 선호에 따른 자발적 분화는 오히려 사회적 자본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증가했지만, 공통된 사회적 경험과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기회는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4) 현재: 태생적 개별화의 완성

현재 e스포츠는 오프라인 관람에서도 개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62) 박성은, 「팬덤계기에 따른 e 스포츠 관람만족이 대회 추천의향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4(2), 한국게임학회, 2024, 27면.

63) Kang, S. K., & Chae, H. S. (2011). A Research on e-Sports Fandom as a Cultural Performance: A Depth Interview Study. Korean Women's Assoc. Commun. Stud, 18, 5~39.

64) Newman, J. (2004). Videogames. Routledge. 박근서 외 역 (2008). <비디오게임>. 커뮤니케이션북스, 234~50면.

e야구의 집단 응원가와 다르게 e스포츠 관람자들은 개별적인 응원 도구인 치어폴(종이, 스마트폰/태블릿), 코스프레 등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e스포츠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e스포츠 팬들은 처음부터 개인화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은(2024)의 연구에 따르면, e스포츠 관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서로 다른 관람 패턴과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응원하는 게임단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향후 직접관람의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⁵⁾. 정현목(2011)은 기존의 집단적 응원 문화와 다르게 e스포츠가 개별화된 팬덤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별 게이머에 대한 개인적 애착과 충성도가 팀이나 종목 전체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통 스포츠와 차별화된 팬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⁶⁶⁾.

결과적으로 e스포츠의 관람 문화 개별화는 1980년대 오락실의 제한적 공동체 문화에서 불과 20여 년 만에 상당히 개별화된 관람 환경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e스포츠가 발전한 2000년대 이후가 이미 ‘미디어 다원화’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함께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처음부터 조성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태생적으로 개인적 특성이 강한 게임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3) 소결

KBO와 e스포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퍼트남이 제기한 볼링 얼론(Bowling Alone) 현상이 한국의 스포츠 관람 문화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영역 모두 관람자 수는 증가했지만, 공통된 관람 경험은 분화되었다. 이는 퍼트남이 지적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

65) 박성은, 「e 스포츠의 향후 직접관람의향에 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람문화 차이분석」, 『지역과문화』 11(2), 한국지역문화학회, 2024, 153~176면.

66) 정현목, 「스타 게이머 팬클럽을 통해 본 e-스포츠 팬덤의 형성과정과 특성」, 『비교문화연구』 15(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9, 74면.

지만 공동체적 경험은 개별화되었다”는 볼링 얼론의 핵심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와 양상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KBO는 30여 년에 걸친 점진적 분화를, e스포츠는 20여 년의 급속한 개별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발전한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KBO가 발전한 1980~90년대는 제한된 미디어 환경으로 ‘함께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퍼트남이 강조한 ‘공동체적 참여’와 ‘연결형 사회적 자본’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중파 시대 동안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이후 케이블과 OTT 시대의 분화가 진행되어, 여전히 야구는 ‘국민 스포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관람 방식은 경제적·기술적·세대적 조건에 따라 달라졌지만, 최소한의 공통 기반은 남아있다.

반면 e스포츠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는 이미 ‘미디어 다원화’ 시대로 ‘굳이 함께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처음부터 조성되어 있었다. 1980년대 오락실과 1990년대 PC방에서 일시적으로 공동체적 관람 문화가 존재했지만, 이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특정 집단 내의 제한적 경험이었다. 2000년대 이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관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별화시켰고, 현재 e스포츠 팬들은 각자 선호하는 스트리머를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오프라인에서도 개별적 응원 도구(치어폴)를 사용하는 등 태생적으로 개별화된 관람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축적되는데, e스포츠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시간적 기회가 부족한 채로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개별화가 진행되 ‘사회적으로 해체된 공동체’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KBO가 케이블 TV 유료화로 인한 경제적 분화를 겪었다면, e스포츠는 무료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한 선호 분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퍼트남의 ‘볼링 얼론’ 이론이 한국 상황에서도 유효하지만, 그 적용에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기술 결정론이 아니라, 기술이 도입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시대에서는 집중된 관람 문화가 충분히 성숙한 후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반면 기술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는 집중된 관람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개별화가 진행되어 사회적 자본 형성 자체가 어려웠다.

4. 결론

본 연구는 퍼트남의 볼링 얼론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KBO와 e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관람 문화 개별화 현상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두 영역 모두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지만 공동체적 경험은 개별화되었다’는 볼링 얼론 현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O와 e스포츠는 모두 ‘함께 보는’ 관람 문화에서 ‘따로 보는’ 개별화된 관람 문화로 변화했으나, 그 과정과 속도는 완전히 달랐다. KBO는 3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한 반면, e스포츠는 20여 년 만에 급속하게 개별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발전한 시대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KBO는 제한된 미디어 환경에서 ‘함께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발전하여 충분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 e스포츠는 이미 ‘미디어 다원화’ 시대에 등장하여 처음부터 개별화된 환경에서 발전했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회 차이가 현재의 차이를 만들었다. KBO는 공중과 시대의 공통 경험을 통해 분화 이후에도 공통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e스포츠는 공동체적 경험이 성숙되기 전에 개별화가 진행되어 사회적 자본 형성 자체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퍼트남의 볼링 얼론 이론이 한국의 스포츠 관람 문화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술 발전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술이 도입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미디어 기술이라도 그것이 도입되는 시점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BO와 e스포츠 사례에만 국한되어 다른 스포츠 종목(축구, 배구, 농구 등)이나 문화 영역으로의 일반화에 한계

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화 현상을 주로 사회적 자본 쇠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이 갖는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종목에 대한 후속 연구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사회의 공동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 강신규·원용진·채다희, 「메타/게임(meta/game)으로서의 ‘게임 보기’: 전자오락 구경부터 인터넷 게임방송 시청까지」, 『한국방송학회』 33(1), 한국방송학회, 2019, 5~43면.
- 김병권,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생협평론』 33,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8, 10~27면.
- 김은식, 「한국야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70년대 야구 대중화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49~381면.
- 김종·최재원, 「한국 프로야구 중계방송이 직접관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4(1),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9, 207~219면.
- 김주호, 「e-스포츠 소비자의 경기 관람에 대한 만족도 판단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주희, 「E 스포츠 전문화 수준이 플로우 (Flow) 와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LOL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9(1), 한국게임학회, 2019, 61~72면.
- 도준호, 「OTT의 스포츠 중계 확대와 보편적 시청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5(2),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25, 191~198면.
- 박근서 외 역, 『비디오게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Newman, J., Videogames, Routledge, 2004)
- 박성은, 「팬덤계기에 따른 e스포츠 관람만족이 대회 추천의향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4(2), 한국게임학회, 2024, 25~35면.
- 박성은·김진웅, 「e스포츠 시청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e스포츠 장르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2(2), 한국게임학회, 2022, 129~142면.
- 설민신·박두용, 「프로야구 중계방송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대학생의 특성 및 관여도에 따른 시청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한국사회체육학회, 2013, 311~320면.
- 심미선, 「케이블 TV 및 인터넷 등장에 따른 지상파방송 시청행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5(2), 한국언론학회, 2001, 250~283면.
- 심재희·정분도, 「e-스포츠 관람서비스품질이 관람만족과 재관람의사 및 재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0(7),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109~118면.

- 안준철, 「스포츠 중계와 K-OTT 산업의 미래_스포츠 팬을 사로잡아라! 스포츠 중계, K-OTT 성장 기회 될까」, 『신문과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1~14면.
- 우리역사넷,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시대의 도래」, 2025.
-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한국방송학회, 2015, 32~66면.
- 이수엽·채다희·박근서, 「게임 공간과 게임 플레이의 변화: 전자오락실, PC방, 모바일 게임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89~137면.
- 이재신·이영수,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2, 61~80면.
- 이정학·김중훈·이상헌, 「e-스포츠 관람객 라이프스타일이 관람몰입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2), 한국체육과학회, 2009, 215~226면.
- 이주연·이예원, 「한국 야구 관람문화 변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1, 169~198면.
- 이지영·안재웅·이상우, 「e 스포츠 관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LoL 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4(3), 한국게임학회, 2014, 35~45면.
- 이혁기, 「[구독 공유 플랫폼 명암] 합법과 불법 그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 『더스쿠프』, 더스쿠프, 586호, 2024, 32~36면.
- 이현우·오세욱,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와 시민 시청권 관련 인식」, 『미디어이슈』 10(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17면.
- 전길남·박현제·허진호·강경란, 『한국 인터넷의 역사』, 한국인터넷역사프로젝트, 2012.
- 전용배·남중웅, 「한국 프로야구 관중추이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1),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393~407면.
- 정분도·김장호, 「e-스포츠팀의 서비스품질요인이 관람만족과 팀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0(3),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71~83면.
- 정선희, 「자녀의 성장에 따른 프로야구 가족팬덤 변화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80,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24, 13~48면.
- 정수연·이도희·유상건·최규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적용한 OTT 플랫폼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행위 연구: 쿠팡플레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7(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2, 64~85면.
- 정지규, 「한국프로야구의 TV 콘텐츠 가치에 관한 연구-시청률과 시청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현목, 「스타 게이머 팬클럽을 통해 본 e-스포츠 팬덤의 형성과정과 특성」, 『비교문화연구』 15(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9, 51~95면.
- 조건진, 「스포츠팬의 스포츠 미디어 관심도가 접촉 동기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동원, 「1970년대 말 전자오락실의 비디오 게임 놀이와 신자유주의 디지털문화의 형성」, 『과학기술학연구』 20(2), 한국과학기술학회, 2020, 171~199면.
- 조용찬·이뢰, 「e-스포츠 관중의 관람동기에 관한 척도 개발과 관람동기와 만족도와 재 관람의도 관계의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한국체육학회, 2016, 543~556면.
- 주방귀·김종무, 「e-스포츠 경기 관람객의 관람동기가 관람만족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 중국 관람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7,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9, 76~85면.
- 주진영·유창석, 「e 스포츠의 동기와 체험경험이 관람만족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30(4), 한국소비자학회, 2019, 261~281면.
- 최동오, 「대학생의 e-스포츠 관람이 이용만족, 애호도 및 재이용의도의 영향 관계 연구: 마케팅믹스요인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20(2),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133~144면.
- 하상욱, 「한국 TV 스포츠 중계방송의 제작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한진옥·편도영·권형일, 「e-스포츠 팬 소비동기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1), 한국체육학회, 2010, 221~229면.
- 함은주, 「인문, 사회과학편: 스포츠중계방송 시청 시 고려요인에 따른 수용자 유형화」, 『한국체육학회지』 51(4), 한국체육학회, 2012, 33~44면.
- 황인호, 「OTT 사용자 락인 및 프라이버시 우려 완화: 서비스 다양성, 기술 지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성의 역할」,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5(5),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4, 1205~1216면.
- NordVPN, 『인터넷의 역사』, 2023.
- Yun, H. S., 「한국 게임의 역사 정리에 대한 고찰」,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8(1), 한국게임학회, 2011, 11~18면.

국외문헌

- Demmert, H. G.,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team sports, Lexington Books, 1973.
- Fiske, John,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 Lewis, The Adoring Audience:

-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Routledge, 1991, pp.30~49.
- Fizel, J. L. & Bennett, R. W., "The impact of college football telecasts on college football attendance," *Social Science Quarterly* 70(4), 1989, p.980.
- Kaempfer, W. H. & Pacey, P. L., "Televising college football: The complementarity of attendance and viewing," *Social Science Quarterly* 67(1), 1986, p.176.
- Kocurek, C., "Coin-Drop Capitalism: Economic Lessons from the Video Game Arcade," In Wolf, M. J. P. ed., *Before the Crash: Early Video Game History*,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2, pp.187~208.
- Mawson, L. M. & Bowler, W. T., "Effects of the 1984 Supreme Court ruling on the television revenues of NCAA Division I football program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3(2), 1989, pp.79~89.
- McCollum, R. H. & McCollum, D. F., "Analysis of ABC-TV coverage of the 21st Olympiad Games, Montreal,"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4(1), 1980, pp.25~33.
- Newman, J., <Videogames>, Routledge, 2004.
- Noll, R. G., "Attendance and price setting,"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135, 2001, pp.165~207.
- Putnam, R.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The city reader*, Routledge, 2015, pp.188~196.
- Sampson, R. J., *Great American city: Chicago and the enduring neighborhood effec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Abstract |

The Individualization of Sports Viewing Commun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KBO and e-Sports —

Park, Seongeun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dividualization phenomenon in viewing culture between KBO and e-sports in Korea, based on Robert Putnam's "Bowling Alone" theory. Both domains confirmed the bowling alone phenomenon where the number of viewers increased while communal experiences became individualized, however, the processes and speeds differed completely.

KBO experienced gradual individualization over 30 years in a limited media environment from the 1980s, while e-sports rapidly individualized within 20 years in the "media diversification" era of the 2000s. These differences demonstrate that KBO experienced fragmentation driven by economic conditions, while e-sports underwent voluntary fragmentation driven by prefere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while Putnam's theory is valid for explaining changes in Korean sports viewing culture, temporal context must be considered in its application.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emporal contex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al capital.

Key Words: Bowling Alone, Social Capital, Viewing Culture, Individualization, KBO, e-Sports, Media Environment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

박영민**

목 차

1. 머리말	3.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2. 이론적 배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학계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한국의 전통교육과 인성교육,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 제재로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개발·예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교양 수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인문학 수업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 인문학 수업은 참여자의 인성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학교급별·지역별 다양한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전 텍스트, 인문학, 인성교육, 교양교육, 읽기

* 이 논문은 2023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동양대학교 현암교양교육원 조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전통적 미풍양속과 도덕·윤리가 사라지고 거칠어진 사회 기풍의 폐해는 방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였다.¹⁾ 또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유하면서도 금전과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과 정신적 방향’은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 부적응 문제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행복이 결코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에서 시행한 ‘2022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초중고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 1순위로 ‘인성교육(36.3%)’, 2순위로 ‘글쓰기, 독서,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 교육(18.8%)’으로 나타났다.²⁾ 이처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인성교육³⁾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 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성이 우리의 미래’, ‘인성이 실력’이라는 말은 개인, 사회, 인류 공동체의 미래가 우리의 인성에 달려 있고, 개인의 행복한 미래와 성공적인 삶을 열어가기 위해 인성이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한국의 학벌사회를 반영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신장보다는 학력이 중시되어 대학입시를 위한 단편적·지엽적인 지식 전달에 치중하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을 육성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무의미한 단편 지식을 외우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를 되풀이하고 있다.⁴⁾ 앞으로 전개될 우리 사회가 디스토피

1) 이성흠·김진규·박영민, 「행복마을 운동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노인의 생활태도와 행복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5(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4, 452면 참조

2) 금창호, “2022 교육과정 ‘인성교육’ 강화해야···학교 밖 인정 과목 확대”, EBS 뉴스, 2021. 6. 21.

3)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행위 규범과 바람직한 덕목을 개별 학습자가 내면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4) 차윤경 외, 『교사를 위한 융복합교육론』, 학지사, 2019, 6면 참조

아(Dystopia)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토피아(Utopia)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인류의 장래는 단연코 긍정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개인지상(個人至上)의 이기주의적 가치관과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학습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인식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서도 인성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유교육⁵⁾과 일반교육⁶⁾이라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교육이란 시민 혹은 시민적 지도자가 구비해야 할 덕목·품성 및 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전통적 교육모형인 반면 일반교육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및 전공의 세분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지식 및 세계관과 가치관의 확립을 강조하는 교육모형이다.⁷⁾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함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실행이 중요하다.⁸⁾ 특히,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통해 개인의 수양 및 덕목 실천을 넘어 개인의 권리를 자각하고, 공동체 협력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를 내면화하여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교육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⁹⁾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우리 사회의 주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교육을 하고, 언행(言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인성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 소양 함양 및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자유교육'은 어떤 목적에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6) '일반교육'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구비해야 할 기본적 지식으로 전문적인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인이기에 앞서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7) 홍성연 외, 『교양교육 영역별 성과 진단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6면 참조

8) 신득렬, 『교양교육』, 겨리, 2018, 172면 참조

9) 광경화, 『대학생의 인성과 인성역량 함양』, 교육과학사, 2018, 197면 참조

이 연구에서 인성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 현대 문학 등 장르 전반에서 활용하는 개념이다.

우리 전통사회 유교문화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한 고전에 담겨 있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같은 덕목들은 수단적인 것이 아닌 목적적인 것들이었다. 즉, 고전(古典)은 신성한 지식의 보고였고, 지식으로 대변되는 확고한 권위, 시대를 초월한 절대불변의 진리와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다. 또한, 인문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 중심(humanism)의 이념을 배경으로 나타난 인간 교육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¹⁰⁾ 이처럼 고전과 인문학은 인류가 만들어 낸 정신적 유산이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중으로부터 인정된 작품이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텍스트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제재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교양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양 교과목(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수업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설계·개발·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교과목은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을 전제로 가치관 명료화를 통한 도덕성 함양과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전과 인문학’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교과목 수강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직면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사회 현상과 관련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서양의 삶의 과정에서 지혜를 제 공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영혼을 달래 주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자신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저자가 저했던 실존적 현실, 그가 속했던 사회를 음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가슴 설레는 순간들이다. 개별 학습자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접하며 선인과 현인들의 지혜를 익히고, 현재 일상의 삶에

10) 홍병선 외, 『인문학 교육 실태 분석 및 진흥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11, 1면 참조.

서 당면하게 되는 복잡다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삶의 행동양식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읽기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에 대한 내용 기록과 성찰을 통해,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견뎌야 하는 기초 소양 함양 및 인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필요성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교양 수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인문학 수업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전통교육과 미래사회의 인재상

우리는 보통 학술적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지식인으로 명명하는 습관이 있지만, 우리 역사 속 참된 지식인의 전형적 모델은 바로 ‘선비’이다. 요컨대, 선비는 ‘보편적 교양인’이자 전문적 학자이며, 동시에 자신이 학습한 것을 출선하여 몸소 행동으로 옮긴 실천가(남명, 다산, 율곡, 퇴계 선생 등)였다. 우리는 전통사회를 주도(主導)한 선비들의 ‘올곧은 정신’으로부터 대학생의 인성역량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사회의 대학 교양교육에 적용 가능한 선비정신은 ‘지행합일(知行合一), 지행병진(知行併進), 실천궁행(實踐躬行)’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전통사상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지난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¹¹⁾

대학 교양교육을 통해, 우리는 고전 텍스트 속 선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고찰하며,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11) 김호기, 『시대정신과 지식인』, 들베개, 2012, 15면 참조

삶을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의 책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양에서 만대가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사람의 세 가지 업적을 ‘삼불후(三不朽)¹²⁾’라 한다. 이는 ‘입덕(立德: 덕성을 세우는 일), 입공(立功: 공훈을 세우는 일), 입언(立言: 학설을 세우는 일)’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입덕’을 제일(第一)로 삼고 있다. 또한, ‘사람됨’의 결과를 의미하는 인격과 품격은 한 사람의 얼굴, 음성, 향기, 분위기 등을 통해 감지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여전히 한 사람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수많은 사람이 ‘삶의 품격’을 고양하는 문제와 관련된 ‘인문 정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 세태를 반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운이 기울어 가던 1895년 고종(高宗)이 내린 「교육조서(敎育詔書)」를 살펴보면, 우리의 교육관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조서의 내용에서 강조한 것은 신교육(新敎育)이 지향해야 할 기본 목표로서 첫째가 덕육(德育)이요, 둘째가 체육(體育)이요, 셋째가 지육(智育)이었다.¹³⁾ 그리고 교육적 인간상을 ‘전인적 인간(全人的 人間)’으로 설정하고 있다.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교육의 순서를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 순으로 바꾸어 놓았다.

교육 실천에서는 ‘지육(智育)’만을 강조하여,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물질문명에서 만들어진 도덕적 권태나 무관심, 자기 탐닉적(耽溺的)인 생활방식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는 개인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지식인들은 여전히 지식에만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성 함양을 소홀히 하여 중국에는 ‘기능적 지식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지능정보 시대는 개인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은 전통교육과 교육의 목적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핵심 과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전통의 회복과 교육 목적의 구현을 위해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12) 좌구명(左丘明),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4년조(二十四年條).

13) 고종(高宗),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 『고종실록(高宗實錄)』, 33권(卷).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학습한다. 미래사회에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인간다움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기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덕성(德性)을 함양하는 일이다. 대학에서 인간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바로 교양교육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 민주시민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다.

미래사회에는 인성이 한 개인의 능력이 되는 시대이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이해심과 인내, 윤리 의식과 책임’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거론되는 5가지 역량은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인간과 기계 사이를 파고들기, 인류의 문제 통찰하기, 인공지능과 협업하기, 통찰력과 상상력에 능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¹⁴⁾ 또한, 2030~2050 ‘미래 예측 보고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인재상은 ‘분석 역량, 소통 역량, 자기 주도성, 창의성, 협업역량’ 등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¹⁵⁾ 즉, 21세기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방대한 지식의 양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배경지식들을 적재적소에 융합하여 한 단계 발전된 지식,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핵심역량은 ‘공감과 의사소통역량(empathy & 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역량과 문제해결역량(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조정과 협업역량(coordination & collaboration), 창의력과 융합역량(creativity & convergence), 컴퓨팅적 사고역량(computing thinking)’이다.¹⁶⁾

2030년 이후에는 ‘경제에 관한 정보력, 신기술력, 인문학 능력’이 미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인문학이 미래산업이 근간이 될 것이다.¹⁷⁾ 미래사회는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중심, 인간중심 사회를 건인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인성에 기초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학교교육에 요청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바람직한 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분야

14) 최윤식·최현식, 『제4의 물결이 온다』, 지식노마드, 2017, 409~413면 참조.

15) 박영숙·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교보문고, 2017, 234면 참조.

16) 김영식,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미래』, 학지사, 2018, 229면 참조.

17)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2』, 지식노마드, 2014, 216면 참조.

에서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 가능한 ‘인성역량’과 ‘핵심역량’을 겸비한 인재이다. 최근 대학 교육의 학문 활동 전반에서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감적 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이 핵심역량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역량 중 인성에 기초한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선도하는 협업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양교육에서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2)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유형과 인성역량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개별 학습자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즉, 학교라는 ‘공감과 어울림의 장(場)’에서 동료 학습자 간 함께 의견을 나누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겸허히 인정하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개별 학습자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학습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는 소중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대적·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여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을 개설한 대학의 교육활동에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인성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육, 교육과목 비교육과목을 결합한 교육, 독서(고전 읽기, 인문학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인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등이 포함되며, 대학의 인성교육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⁸⁾

18) 박영미 외, 「대학 교양 인성교육의 현황 및 과제」, 『인성교육연구』 7(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인성교육연구원, 2022, 1~28면.

〈표 1〉 대학의 인성교육 유형

구분	주요 교육활동
인성 관련 전문 교과목 개설	• 각 전공 분야에 적합한 인성교육 요소를 융합하여 도덕적 가치관을 강조 • 전문적인 ‘인성 교과목’ 개설: 인성 발달과 교육, 인성 윤리학 등 • 인성과 타 학문 간 학제적 교육: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인성과 과학, 문화, 환경’ 등의 관계를 탐구
인성교육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	• 인성교육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 모든 재학생 대상 • 인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 소설, 시, 연극 등의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교과목 등 • 독서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 고전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도덕, 인격 등 문제를 고민하도록 유도, 작품 속 인물들의 인성·특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토의·토론함.
인성 관련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 도덕, 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인성교육 워크숍, 강연 및 행사 개최 • 학생의 자기 인식과 감정조절 역량 증진을 위한 감성교육 실시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교과목은 교양 기초, 교양 필수와 공통 교양 등 다양한 범위에 속한다. ‘인문 교양교육’은 소박한 의미로는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며,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인문(人文)’을 붙이든, ‘교양(敎養)’을 붙이든 교육의 본질적 의미인 ‘인간교육(人間敎育)’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¹⁹⁾

인문 교양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되는 ‘내러티브(Narrative)’는 최근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세상은 서사(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은 내러티브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내러티브는 개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야기는 말하는 과정에서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간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의 유형²⁰⁾은 다음 <표 2>와 같다.

19)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2011, 3면 참조.

20)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70면 참조.

〈표 2〉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의 유형

유형	세부 내용
다매체	• 게임, 만화, 문예, 연극, 영화, 컴퓨터, TV 뉴스·다큐멘터리·드라마
문자 매체	• 동화, 소설, 수필, 신문 기사, 인문·사회·과학 이야기로 된 서사, 자서전, 전기
음성 매체	• 구비 서사(민담, 신화, 전설), 대화, 동화·소설 구연, 라디오 뉴스·다큐멘터리·드라마, 무가, 법정 서사, 서사시, 일상 이야기, 정신 분석, 판소리

교육학 분야에서 진행된 내러티브와 관련된 주요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별로 진행된 연구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²¹⁾ 등 다수의 교과목에서 내러티브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내러티브를 이야기 구성하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내러티브는 가장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교육과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개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도덕 이야기나 문학 작품, 혹은 역사적인 사건’ 등을 활용하여 전수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주로 ‘예화(例話)와 이야기를 통한 인성교육’²²⁾이 진행되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인성교육에서 내러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 방식일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양교육을 연계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역량²³⁾은 다음 <표 3>과 같다.

21) 최인자, 「사회 정서 학습을 위한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 인성교육」,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337~360면; 백지연,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의 동향 및 특징」,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2),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4, 45~61면; 홍미화, 「사회과교육에서의 내러티브 가치」, 『사회과교육연구』 20(1),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3, 161~173면.

22) 예컨대, 『탈무드(Talmud)』나 『채근담(菜根譚)』 같은 도서는 역사적으로 내러티브 교육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텍스트로 볼 수 있다.

23)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17면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3〉 교양교육을 연계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역량

인성역량	인성 요소
공감, 수용	• 미적 공감, 심미적 수용, 타인의 입장 이해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대화, 소통 역량	•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의사소통역량
갈등, 문제 해결능력	• 갈등과 문제 인식, 해결 가능한 방안 탐색, 결정에 따른 결과 예상해 보기,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 도덕적 성찰
배려, 존중	• 관용, 봉사, 양보, 연민, 친절, 헌신
	• 자기 존중: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자기 표현, 자아 수용, 자기 통제
	• 타인 존중: 인권 존중, 타 문화에 대한 편견 갖지 않기
정의	• 공정, 규칙 준수, 준법
책임	• 성실, 신뢰, 윤리적 책임감, 자기 임무 완수, 정직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를 ‘교양·예의·품위가 있는 좋은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이자 ‘긍정적인 상호작용(공감, 포용, 나눔, 배려, 존중 등), 정의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신뢰 관계와 공동체 유대감으로 구축된 사회’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근간이자 동력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3)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미래사회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는 인성역량에 기초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양 강좌(고전, 인문학 등)가 각광받고 있다. 고전의 중요성이 사회 전 분야로 강화되면서 대학에서는 고전 읽기와 인문학 열풍에 대한 대중의 관심, 중앙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고전 읽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²⁴⁾ 특히,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전과 인문학’ 등의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24) 이국환,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43, 동남어문학회, 2017, 202면 참조.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필수교양 교과목으로 ‘고전 읽기’ 강좌를 신설한 이후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이 필수 교과목 혹은 선택 교과목으로 ‘고전 읽기’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교과명으로 고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기관의 교양 강좌(고전 읽기, 인문학 읽기)에서 인성교육과 연계한 교과목 운영 사례 관련 선행연구로는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프로그램’²⁵⁾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고전, 한문고전’을 활용한 김용재와 윤민향의 연구²⁶⁾가 주목할 만하다. 김용재는 기술과학 문명시대 인성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문고전 작품 중 『논어(論語)』와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윤민향은 고전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독서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심신 성찰과 회복탄력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방적 치유 과정’이라 강조하였다. 특히, 고전 독서교육을 연계한 인성교육 방안 제시부터 더 나아가 문학 치료 방안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가 고전과 인문학을 학습하는 것은 현시대 살아가는 인간에게 삶의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삶의 바람직한 가치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현재에도 유관한 것이어야 하며, 오늘날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독자(개별 학습자)들은 동서고금의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읽기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고전과 인문학을 학습함으로써 선인·철인·현인의 지혜를

25) 방미경, 「대학생 대상의 인문학 기반 생사학 강의를 위한 하나의 고찰」, 『인간연구』 3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9, 139~167면; 조재형·고재석, 「코로나 시대 고전 기반 온라인 인성교육 교육효과성 분석 - 성균관대학교 <성균논어>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 255~302면.

26) 김용재, 「한문고전과 인성교육 [1] -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399~441면; 윤민향,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의 치유적 접근에 관한 일고찰 -도덕윤리교과에서 『고전과 윤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2020, 165~196면.

얻어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생활 신념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1)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계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고전’이라 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는 낡은 책장 속 먼지 덮인 두꺼운 책을 떠올린다. 이러한 통념은 고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접하는 행위는 곧 인류의 문화유산과 접촉하는 행위이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독자들을 미지의 장소로 데려가서,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²⁷⁾을 제공한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작품과 자신의 이야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작품 속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성역량은 독서와 체험 간 연결을 통해 계발될 수 있으며, 독서는 우리의 작은 거울로 비유할 수 있다. 서적이라는 큰 거울에 대고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심령을 비춰주는 세상의 사물과 진리를 우리가 독서하는 작은 거울에 반사시켜 볼 줄 알아야 한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때보다 ‘전통의 재발견’이 제공하는 가치와 실천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심도 있고 절실하게 추구되어야 한다.²⁹⁾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지식정보 처리 역량, 문제해결역량,

27) 선주원, 『청소년 문학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8, 19면 참조

28) 김영수,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 역사의 아침, 2011, 217면 참조

29) 신창호, 『전통 인성교육이 해답이다』, 박영스토리, 2018, 20면 참조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인성 역량, 비판적인 사고역량, 자기 주도성 등)을 함양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가치 있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읽기를 연계한 강좌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교양 교과목이다.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38명)의 학습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고전과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교훈, 텍스트에 포함된 핵심 덕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며, 인문학이 제시하는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강생의 학습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교과목에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구성은 개별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도서 목록을 구성하였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선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수강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친숙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업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과(국어과: 국어, 독서, 문학, 교양과: 철학, 도덕과: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한문과: 한문Ⅰ, 한문Ⅱ 등) 수업 시간을 통해 한 번 정도 학습한 경험이 있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 시 개별 학습자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고전 텍스트가 원문(한문, 외국어)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번역서를 추가하였다. 둘째,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는 예로부터 전해진 기록물로서 일방적 교훈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텍스트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주제별 학습자료의 내용은 <표 4>,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와 관련 활동³⁰⁾은 <표 5>와 같다.

30) 고요한, 「내러티브, 인성, 교육의 인간학적 전일성 연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1),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8, 83~84면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4〉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주제별 학습자료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슬기로운 삶을 위한 지혜 쌓기	• 개개인의 삶에서 직면하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 사회 구성원과 사회를 향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 • 따뜻한 마음(정서)과 냉철한 비판력을 갖게 하는 내용 • 모든 삶은 서로 다르지만 삶의 문제를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게 하여, 모두 가치 있고 평등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 내용
자기 이해를 위한 자아 탐색, 자아실현	•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깊은 이해를 주는 내용 • 자신의 존재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이를 개척하며 극복해 나가는 내용

〈표 5〉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와 관련 활동

단계	관련 활동
이야기 활성화	• 경험을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질문과 동료 학습자 간 담화 • 이야기와 관련된 개별 학습자의 경험 환기와 자발적 활성화 • 관련 어휘 및 문법 학습
이야기로의 독해	• 인물 혹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 사건 내용과 의미 파악 • 해당 작품의 이야기 경험하기, 우리 삶의 이야기로 간주하기
이야기 독해	• 개별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이야기 나누기 • 해당 작품에 대한 각자의 감상 내용 나눔, 다양한 이해와 수렴 • 해당 작품에 대한 핵심 내용과 개념 등의 지식 공유
이야기와 관계 형성	•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자신의 경험 비교·대조 • 작품의 경험과 개별 학습자의 경험 사이의 점점 탐색
자기 이야기 생성, 상호 텍스트성	• 경험의 회상과 이야기 재구성, 작품과 점점에 있던 경험의 구체화 •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글(글쓰기)이나 말(발표, 토의·토론)로 표현하기 • 생성한 이야기의 나눔과 평가

<표 5>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별 학습자는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접하며, 작품에 포함된 소중한 가치와 바람직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개별 학습자는 인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아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상호소통 역량은 동료 학습자 간의 유기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의 연속성 속에서 개별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의 협업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적 교양교육의 몫은 ‘인간의 인간다움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 자신을 타인들과 동등한 종류의 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또 타인들이 자기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임을 깨닫는 자기 성찰, 자신만의 특수한 처지와 맥락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보다 공동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역량’ 등을 함양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³¹⁾ ‘훌륭한 인성’은 단순히 기억 창고에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자아의 변화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2)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교양 교과목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³²⁾ 수업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요 학습활동은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읽기, 주 차별 학습 주제와 관련된 글쓰기와 발표, 그리고 읽기 자료와 연관된 논제에 대한 토론·토의’ 등을 진행하였다. 학습 주 차별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은 읽기 자료(발췌본, 한글 번역본)와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표 6>은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31) 김영래, 『인성교육의 담론』, 학지사, 2019, 7면 참조.

32) 해당 교과목은 일반교양의 정서적 체험활동 영역에 개설되었으며, D대학에서 2024학년도 2학기에 15주간 총 38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월요일, 2-3교시) 진행하였다. 학년별 수강생 현황(소속 학과: 간호학과, 경찰범죄심리학과, 유아교육학과, 철도계열학과, 스마트건축학과, 항공IT학과)을 살펴보면, 1학년 10명, 2학년 12명, 3학년 5명, 4학년 11명이다.

〈표 6〉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주차	학습 주제, 학습자료, 주요 학습활동	방법	인성역량·핵심역량
1	• '소집단' 구성,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수업 운영, 평가 방법,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안내	강의	• 공동체 역량(소통, 협력), 의사소통역량
2 ~ 3	• 학습 주제: 삶을 바꾼 만남 -학습 자료: [발췌본] ① 김구, 『백범일지』, ³³⁾ ② 이봉창, 『옥중수기』, 『이봉창 평전』 ³⁴⁾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발표] 책을 통해 성장한 나의 독서 수기(책 나무 만들기)	강의, 발표,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존중, 책임, 포용, 협력), 의사소통역량, 자기 주도성(자기 성찰, 회복 탄력성)
4 ~ 5	• 학습 주제: 참된 진정성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라 -학습 자료: [발췌본, 한글 번역본] ① 김영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³⁵⁾ ②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³⁶⁾ ③ 김병일, 『뜻이 길을 열다』 ³⁷⁾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토의·토론] 시공을 초월한 만남,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와 재조명	강의, 토론,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존중, 책임, 포용, 협력),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자기 주도성
6 ~ 7	• 학습 주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동서양 고전 읽기(주제 통합적 읽기) -학습 자료: [발췌본, 한글 번역본] ①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³⁸⁾ ②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³⁹⁾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발표]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	강의, 발표,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배려, 존중, 책임, 포용, 협력),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자기 주도성
8	중간 평가(개인별 성과 발표 및 성과 나눔)		
9 ~ 10	• 학습 주제: 감시 체제와 프라이버시 -학습 자료: [발췌본] ① 황석영, 『오래된 정원』, ⁴⁰⁾ ② 홍성옥,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⁴¹⁾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토의·토론] 디지털 공동체 영사회의 가치와 디지털 시민성	강의, 토론,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배려, 존중, 책임, 협력),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자기 주도성
11 ~ 12	• 학습 주제: 포스트 휴먼 시대, 새로운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 -학습 자료: [발췌본, 한글 번역본] ① 김용석, 『철학정원』, ⁴²⁾ ② 카를로 콜로디, 이승수, 『피노키오의 모험』, ⁴³⁾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토의·토론] 상호 텍스트성: 인공 생명 철학,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강의, 토론,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배려, 존중, 책임, 협력),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자기 주도성
13 ~ 14	• 학습 주제: 삶의 깊이를 더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 -학습 자료: [발췌본, 한글 번역본] ① 프랑수아 트로르, 오유란, 『꾸뻬씨의 행복여행』, ⁴⁴⁾ ② 서은국, 『행복의 기원』 ⁴⁵⁾ -주요 학습 활동: [읽기, 글쓰기, 발표] 아주 보통의 하루,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와 조건은?	강의, 발표, 협력 학습	• 공동체 역량(공감, 존중, 포용, 협력), 인문학적 감성역량, 자기 주도성(자기 성찰, 회복 탄력성)
15	기말 평가(소집단별 성과 발표 및 총평)		

33) 김구, 『백범일지(白凡逸志)』, 나남, 2010.

34) 홍인근, 『이봉창 평전』, 나남, 2002.

35) 김영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36) 이황, 이재홍 편저, 『도산십이곡』, 어문학사, 2011.

<표 6>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 학습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경험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소집단별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으로써 ‘차분하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등 토의·토론 활동을 추가하여, 개별 학습자가 관련된 인성역량과 핵심역량에 대해 스스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업 만족도 분석과 성찰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교과목 마지막 시간에 진행한 수업 만족도 조사와 수강생 강의 평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제2~3주차의 학습 주제 삶을 바꾼 만남에서 활용한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의 옥중에 쓴 수기’, 제11~12주차의 학습 주제 포스트 휴먼 시대, 새로운 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서 활용한 철학자 김용석의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제13~14주차의 학습 주제 삶의 깊이를 더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서 활용한 프랑수아 룰로르의 ‘꾸삐씨의 행복여행’ 등을 적용한 교수·학습 활동에서 흥미를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인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제2주차에 나만의 서재 꾸미기의 일환으로 진행한 ‘책 나무 만들기’와 제14주차에 ‘아주 보통의 하루,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발표한 시간이 가장 유익하고 인상 깊었다고 하였다.

특히, 책 나무 만들기와 연계한 개별 학습자가 수행한 과제는 ‘나만의 서재

37) 김병일, 『뜻이 길을 열다』, 나남, 2022.

38) 니콜로 마키아벨리, 권기돈 옮김, 『군주론』, 펭귄클래식코리아, 2015.

39) 정약용, 최태웅 옮김, 『목민심서』, 고구려미디어, 2023.

40) 황석영, 『오래된 정원』, 휴이념, 2008.

41) 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42) 김용석, 『철학 정원』, 한겨레출판사, 2007.

43) 카를로 콜로디, 이승수 옮김, 『피노키오의 모험』, 비룡소, 2020.

44) 프랑수아 룰로르, 오유란 옮김, 『꾸삐씨의 행복여행』, 오래된 미래, 2004.

45) 서은국,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2024.

(독서 목록) 구성하기, 나의 독서 수기 작성하기'이다. 이 활동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한 '한 학기 한 책 읽기'를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연계한 것이다. 책 한 권이 불러들이는 다른 책들, 그 책들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또 다른 책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한층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당 과제를 부여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별 학습자는 자신이 소속된 전공 분야나 전공 분야 외에서 좋은 책 1권을 선정하여 '독서를 통한 사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자신이 선정한 책을 읽다 보면 언제나 그 책이 불러들이는 다른 책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음 <표 7>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소감과 만족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7〉 수업 참여자의 소감과 만족도 분석

구분	세부 내용
수업 참여자 A	“평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혼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기를 진행하는 습관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목(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수강을 통해 매주 여러 분야의 책도 읽고,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며, 자신에 대한 성찰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자연과 세계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수업 참여자 B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참여자 C	“내가 읽은 작품 중,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해 동료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
수업 참여자 D	“대우학자로서의 퇴계 선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평소 실천했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경(敬)’에 입각하여,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인품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신분의 고하, 남녀노소 상관 없이 자신을 먼저 낮춤으로써, 일상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수업 참여자 E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울타리’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긴장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논박에 재반박하기 어려웠지만, 신중한 사고를 거쳐 명쾌한 논리와 근거를 탐색하여 동료 학습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지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해당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과 개별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사색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읽기 자료’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료로 지정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내용에 대한 사전 읽기 요약본 공유, 사전 시청각 자료의 제작, 심화 학습을 위한 개인별·소집단별 글쓰기 활동 제작, 교수·학습 과정 중 독서 활동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인문적·인성교육적 가치를 성찰하며,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치관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극도로 불안한 현시대에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양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법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뒤 교양 교과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고전은 인문학의 보고(寶庫)이며,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익힐 때마다 새것을 알아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학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계승하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과 심화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인성이 좋은 대학생을 배출하여, 각계각층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우리 사회에 유익한 인간이 되는 예비 사회인을 배출하는 것은 현시대 대학 교양교육의 책무일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양 교과목 ‘대학생을 위한 인성 인문학’ 강좌에서 고전과 인문학 텍스트를 적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을 제시하였다. <표 6>과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 참여자는 ‘개인별 학습활동(읽기, 글쓰기)과 소집단 활동(발표, 토의·토론)’ 과정을 통해 ‘핵심역량(공동체 역량,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등)’과 ‘인성역량(공감, 배려, 존중, 포용, 소통, 책임, 협력 등)’을 강화하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건전한 인성교육, 가치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점차 사회로 확대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며, 윤리 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고등교육(예: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양대학, 연수기관 등)에서 예비 교사 양성이나 예비 사회인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인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능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교양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습 모형, 인성역량·핵심역량과 관련된 학습 자료의 선정 및 예시는 향후 유사한 교과목의 운영과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위한 현장 교수자와 연구자의 담론 형성, 후속 연구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속적·지속적인 교양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양 교과목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수업 참여자의 사전·사후 설문조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통계 수치 분석과 관련된 양적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요한, 「내러티브, 인성, 교육의 인간학적 전일성 연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1),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8, 61~89면.
- 고종(高宗),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 『고종실록(高宗實錄)』.
- 곽경화, 『대학생의 인성과 인성역량 함양』, 교육과학사, 2018.
- 금창호, “2022 교육과정 ‘인성교육’ 강화해야·학교 밖 인정 과목 확대”, EBS 뉴스, 2021. 6. 21.
- 김구, 『백범일지(白凡逸志)』, 나남, 2010.
- 김병일, 『뜻이 길을 열다』, 나남, 2022.
- 김영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 김영래, 『인성교육의 담론』, 학지사, 2019.
- 김영수,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 역사의 아침, 2011.
- 김영식,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미래』, 학지사, 2018.
- 김용석, 『철학 정원』, 한겨레출판사, 2007.
- 김용재, 「한문고전과 인성교육 [1]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399~441면.
- 김호기, 『시대정신과 지식인』, 돌베개, 2012.
- 니콜로 마키아벨리, 권기돈 옮김, 『군주론』, 팽귄클래식코리아, 2015.
- 박영미 외, 「대학 교양 인성교육의 현황 및 과제」, 『인성교육연구』 7(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인성교육연구원, 2022, 1~28면.
- 박영숙·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교보문고, 2017.
- 방미경, 「대학생 대상의 인문학 기반 생사학 강의를 위한 하나의 고찰」, 『인간연구』 3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9, 139~167면.
- 백지연,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의 동향 및 특징」,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2),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4, 45~61면.
- 서은국,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2024.
- 선주원, 『청소년 문학교육론』, 도서출판 역락, 2008.
-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2011.
- 신득렬, 『교양교육』, 겨리, 2018.
- 신창호, 『전통 인성교육이 해답이다』, 박영스토리, 2018.
-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윤민향,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의 치유적 접근에 관한 일고찰 - 도덕윤리교과에서 『고전과 윤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2020, 165~196면.
- 이국환,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읽기와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43, 동남어문학회, 2017, 199~231면.
- 이성흙·김진규·박영민, 「행복마을 운동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노인의 생활태도와 행복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5(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4, 451~473면.
- 이황, 이재홍, 『도산십이곡』, 어문학사, 2011.
-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 정약용, 최태웅 옮김, 『목민심서』, 고구려미디어, 2023.
- 조재형·고재석, 「코로나 시대 고전기반 온라인 인성교육 교육효과성 분석 - 성균관대학교 <성균논어>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 255~302면.
- 좌구명(左丘明),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차윤경 외, 『교사를 위한 융복합교육론』, 학지사, 2019.
-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2』, 지식노마드, 2014.
- 최윤식·최현식, 『제4의 물결이 온다』, 지식노마드, 2017.
- 최인자, 「사회 정서 학습을 위한 내러티브 기반 교과 융합 인성교육」,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337~360면.
- 카를로 콜로디, 이승수 옮김, 『피노키오의 모험』, 비룡소, 2020.
- 프랑수아 들로르, 오유란 옮김, 『꾸뻔씨의 행복여행』, 오래된 미래, 2004.
- 홍미화, 「사회과교육에서의 내러티브 가치」, 『사회과교육연구』 20(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161~173면.
- 홍병선 외, 『인문학 교육 실태 분석 및 진흥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11.
- 홍성연 외, 『교양교육 영역별 성과 진단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 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 홍인근, 『이봉창 평전』, 나남, 2002.
- 황석영, 『오래된 정원』, 휴이님, 2008.

| Abstract |

Personality Education Method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 With a Focus on Humanities Courses for College Students —

Park, Yo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presenting a personality education plan using texts from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Referring to the discussion of educational academia related to personality educ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tudy, the possibi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traditional Korean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and texts from classics and humanities was explored.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sis, a teaching/learning plan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was designed and illustrated as a sanction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theoretically examining the necessity and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the applicability in liberal arts classes was confirmed. Second, in the liberal arts humanities class to strengthen the personalit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teaching/learning plan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was exemplified. Conclusively, it is judged that the personality education class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has a positive effect on strengthening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competencies. As a follow-up study, to spread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using classics and humanities tex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operating participatory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various problem situations by school level and region was proposed.

Key Words: Classical Text, Humanities, Personality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Reading

이동하는 주체, 구성되는 감정*

— 조기유학 귀국 청년의 감정 서사와 사회적 맥락 —

박정하**

목 차

1. 들어가며	4. 조기유학 경험 청년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의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교차 : 계급, 인종, 언어를 중심으로
3. 연구참여자와 감정 서사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기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30대 초중반 청년 2명을 대상으로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그들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조기유학 경험 귀국 청년들의 감정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한 국과 유학국의 사회구조, 규범,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학 출발 단계에서는 국민국가 간 위계와 중상계층의 계급 재생산 전략이 영어권 국가를 향한 선망과 긍정적 감정을 구성하였다. 유학 생활 중에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비가시화된 차별로 인해 회의감과 ‘붕 떠 있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귀국 후에는 영어 실력과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라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점, 그리고 조기유학 현상을 초국가적 이동 현상으로 바라보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조기유학, 감정, 청년,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감정 서사

*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언어자본을 활용한 재외한인의 초국가적 이동 실천에 관한 연구」 (2024)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일부로 새롭게 구성한 연구이다.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박사

1. 들어가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지구촌의 형성은 수많은 사람의 영토적 횡단을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그중에서도 학업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유학생,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유학, 즉 조기유학¹⁾ 후 귀국한 청년의 사례에 주목한다. 2000년대 중후반, 조기유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였다. 주로 영어권 국가를 목적지로 하여 실행되는 조기유학은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유지 및 상승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진 가족 단위의 프로젝트이다. 동시에, 세계화에 기반한 초국가적인 이동과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기유학은 중상계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졌고, 그 결과 조기유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다(박대권·장경진 2020). 이후 전체적으로 점점 하향세를 지속하다가 2023년 현재,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5,7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4).

그러나 조기유학생의 숫자 감소는 조기유학의 이유가 소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회의 중상계층은 자녀를 조기에 유학 보내고 있다(이혜인 2024). 조기유학 비용의 상승과 조기 유학지의 다각화로 인해서 영어권 국가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가정의 계층이 오히려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을 다루되, 특히 조기유학을 경험한 당사자의 기억, 그중에서도 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를 ‘감정 서사’라고 명명하는데, 연구참여자가 삶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직접 구성하여 구술하고, 연구자는 그가 표현한 감정을 상황 및 맥락, 그리고 행위와 함께 조망함으로써 그의 삶은 물론, 그가 몸담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서사에 주목한 이유는 조기유학생과 같은 초국가적 이주자의 경우,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삶의 장면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유학의 경우, 초국가적 이동을 실행한 시기가 소위 정서적으로 민감한

1) 조기유학의 정의가 법령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이 외국의 교육 및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박대권·장경진 2020).

때인 청소년기, 즉 사춘기에 일상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조기유학생의 감정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기유학을 경험한 행위자가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구성하는 감정 서사를 훑어보면, 감정의 (재)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 및 제도, 이데올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로써 조기유학이라는 현상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정동 및 감정연구에서 감정이 사회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경향(바바렛 2007)을 따르는데, 감정이란 개인의 소유물이나 속성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와 규범, 이데올로기의 효과라는 것이다(아메드 2023). 감정은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의 관계, 즉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고 이것은 다시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순환 경제의 모습을 띤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조기유학 후 귀국한 청년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서사를 통해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기존의 연구는 조기유학생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처방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이영선·이동훈 2009; Song 2012; 박지희 2012). 조기유학 경험 귀국자가 한국을 떠나고 돌아와 생활하면서 구성되는 개인의 감정을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와 결부지어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조기유학을 경험한 귀국 청년의 감정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는 물론 유학국의 사회 규범과 구조의 작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조기유학 비용, 유학 국가의 분포, 조기유학의 목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현상이 가족,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감정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결과의 원인(바바렛 2007: 49)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이동 현상 중 조기유학 연구 흐름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과 그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함으로써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의 개진에 앞서 미리 밝혀 둘 사항은 이 연구에서는 정동과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문사회학의 장 내 정동적 전

회(affective turn) 이후 증폭된 정동 연구에서 학자에 따라 정동과 감정을 구분해서 서술하거나(마수미 2011),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는 경우(Sedgwick 2003; 아메드 2023)가 있다. 연구자는 감정과 명시적으로 구분될 만큼 정동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 연구가 실제 귀국 청년이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한 감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후자를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감정과 정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 그중에서도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자와 실제로 접촉하기에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데 적절하며, 내러티브 연구는 감정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조기유학 후 귀국한 청년들의 초국가적 이동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의 감정은 한국과 유학국의 사회 규범 및 구조,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추동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조기유학 경험 귀국자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조기유학생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도와 학술 연구도 뒤따랐지만, 조기유학의 열풍이 다소 누그러진 이후에는 시들해진 모양새다. 조기유학 관련 논문이 발표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면, 2007년~2013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74%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이보람 2019: 848).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 사회에 재진입하는 데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묘사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주로 초·중·고등 학생, 그중에서도 초등학생이 한국에서 재적응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Song(2012), 박지희(2012), 이영선·이동훈(2009)은 조기유학 후 귀국한 아동과 청소년이 미진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한국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도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조기유학 후 귀국한 성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2018; 오경자·박규리·오서진 2010; 장지영·박규리 2008)가 대부분이다. 위의 연구들 또한 귀국 대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화 적응, 그리고 진로 선택에 대해 탐색하였다. 특히 귀국 대학생은 한국의 일반 대학생과 비교하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강예지·김미연(2017)은 귀국 대학생이 대학 졸업 후 구직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한국 사회로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제한된 정보 접근 등으로 한국 학생들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민(2012)은 귀국 성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한국에 재적응할 때 학교와 직장 규칙과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장 큰 과제로 느껴졌다고 한다. 특히 언어적 혼란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새로운 정체성 수립, 정체성 혼란 등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재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조기유학생이 겪는 감정에 관한 연구로는 김도혜(2022)가 필리핀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필리핀 대학에 진학하여 장기간 머물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정동과 감정을 필리핀과 한국이라는 장소성과 연결하여 탐구한 바 있다. 필리핀은 이들에게 비교적 친밀함과 안락함을 주고, 필리핀에서 영위하는 특권적 위치로 인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는 이와 같은 정동적 반응이 부동성이라는 상태를 산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로 귀국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초국가적 주체로서 경험한 한국과 유학국의 사회구조, 규범 등과 감정이 어떻게 상호조응하고 있는지, 즉 감정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김지훈(2014)은 조기유학이 일시적인 해외 유학이 아니라, 초국가적 이주의 한 형태로 바라보아야 함을 역설한다. 조기유학생이 유학 중이나 유학 종료 후 귀국한 다음에도 이전의 사회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거나 물리적인 이동을 실행하는 등 초국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초국가적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학생은 전지구화 이후 영토국가 간 제도적이

고 심리적인 거리가 축소되는 현상과 맞물려 출현한 초국가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재외한인, 결혼이주여성 등 다른 집단에 비해 학문적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유학생 또한 초국가적 주체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실천하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의 제도와 구조, 규범 등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조기유학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한 주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이동을 통해 출신국과 유학국의 사회를 모두 경험하는 유학생은 초국가적 주체이며,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유학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 알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조기유학 후 귀국한 청소년과 성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한국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정체성과 심리적 정서의 혼란이라는 주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귀국 청년의 정서, 즉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내러티브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도 기존 연구의 담론과 공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더 나아가서 귀국 청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들이 초국가적 주체로서 느끼는 감정의 안과 밖, 즉 한국과 유학국, 또는 글로벌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작동 기제를 포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조기유학이 단지 중상계층의 지위 상승 지향 프로젝트이거나 신자유주의 시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행위(Sidhu et al. 2020)가 아니라 행위자의 감정과 연결되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임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일상이란 합리성의 세계가 아니라 감정의 세계”(정수남 2010: 53)라고 할 수 있으며, 감정은 사회구조와 개인의 행위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감정: 외부 대상과 관계하며 발생하는 효과

이 연구는 조기유학 경험 귀국자의 감정을 탐구하는 바, 감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감정의 사회성, 규범성, 신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근대 인식체계에서 정신과 이성인 육체와 감정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였

고, 감정은 이성과 분리되어 이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속해 있었다. 20세기 후반 반문화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을 위시하여 서구사회에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과 해체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감정과 육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이명호 2015: 113). 특히,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정동적 전회’ 이후 정동과 감정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테면, 정동이 개인과 사회관계, 그리고 권력의 발생과 유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마수미 2011). 또한 감정이 개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이며 역사적인 현상이기에 그것을 탐구하면 사회관계와 권력의 작동 방식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아메드 2023)이 가시화되었다. 아메드(2023)는 감정은 어떤 대상이나 존재에 내재하지 않는 사회적인 성격임을 주장한다. 바바렛(2009)도 감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고 감정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관계 자체가 변화함을 지적한다.

이처럼 감정은 개인에 국한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항상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경험”(정향진 2013: 171)이다. 감정은 항상 외부 대상과 관계하여, 대상을 지향하는 성격을 지닌다. 감정은 주체의 내부에 미리 자리하고 있던 속성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의 사회적인 속성은 규범성과 연계되는데, 아메드(2023)는 이것을 개인이 특정한 사회구조에 ‘투자’하는 이유를 그의 감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떤 사회적 형태와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주체가 규범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관계가 감정을 유발하며, 그 감정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규범을 반복하고, 특정 사회구조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의 지속에 기여하는 순환적인 성격을 띤다. 이는 감정이 사회구조와 행위자 간의 연결고리(바바렛 2007: 56)로서 사회구조라는 상황으로부터 촉발된 감정이 행위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가 규범을 반복하는 신체적인 행위를 수행하면서 물질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성 및 물질성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지점이 있다. 정정훈(2017)은 “이데올로기는 물질성을 갖는다”(알튀세르 1994)는 테제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통해 개인이 신체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물

질성을 획득함에 주목한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기본 인식인 상상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서술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실제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알튀세르 1994)이고, 알튀세르의 ‘상상’이라는 용어는 스피노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태원·홍기숙 2008).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모든 인식은 — 상상적이든 이성적이든지 — 외부 세계와의 마주침으로부터 비롯되며, 이것은 항상 인간 신체에 변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정의하는 정서(affect)와 연결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서란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용들이고, 동시에 이러한 변용들의 관념들”이다(스피노자 2007). 이데올로기 장치가 개인의 신체에 작용하면서 신체가 변용되므로 이데올로기는 정서의 차원도 포함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정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정정훈 2017).

연구자는 사회구조와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감정이 신체의 변용을 수반하며, 신체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사회 규범 즉, 이데올로기를 지속하는 수행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가졌음에 주목한다. 이것은 감정이 이데올로기의 효과이자 작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을 통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회적 맥락의 작동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감정은 어떠한 신체적 행동을 유발하는 수행적인 성격도 가진다. 그러므로 감정의 자장 안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이데올로기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행위를 추동하는지 분석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연구참여자와 감정 서사

이 연구는 조기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청년의 감정을 자료로 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이들의 내밀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그 의미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그중에서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내러티브 연구는 한 두 사람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자료로 수집하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를 다양한 전략

을 사용하여 분석한다(크레스웰 & 포스 2021: 102-104). 프랭스(Prince 1992)는 내러티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건을 하나의 구조적 전체로서 구술자가 면담자에게 전하는 보고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술자는 사건을 구성하는 상황, 행위, 행위자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관련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사건이 전체로서 구성된다. 특히 그는 이야기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찾고, 상상도 하는 것”(Prince 1992: 166)이라고 설명한다. 즉 구술자가 하나의 사건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통합된 구성체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행위가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도구나 방향, 지향성 등도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술자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되 감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감정 서사’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구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언어화, 의미화하고 전시하고 있는지, 그 해석의 이유와 지향점은 어디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의 감정이 사회구조, 규범이나 이데올로기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탐구하고, 그 감정이 어떤 신체적 수행을 유도하는지 살펴보면서 전시된 감정 이면의 배후 감정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참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중학교 때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간 뒤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편)입학한 후, 영어 강사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초중반 남성 청년 2명이다. 호진(가명)은 1990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 여름,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로 혼자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2학년까지 총 7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 토목을 전공하던 중, 한국에 돌아와 군복무를 하고 한국의 대학교 건축공학 전공으로 편입하였다. 이후 건축회사에서 1년 근무하다가 영어 강사로 진로를 바꾸어 영어 관련 전공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강사일을 하고 있다.

동현(가명)은 1995년생으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부모의 박사과정 이수로 인해 온 가족이 남아공 프레토리아(Pretoria)로 출국하였다. 이전에 동현

의 부모는 호주에서 학업을 하였고, 호주 유학 생활 중에 동현이 출생하였으며 그가 5살쯤, 가족 모두 귀국한 바 있다. 동현은 남아공에서 총 5년간 머무르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중간에 부모의 박사과정이 끝나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마지막 2년간은 혼자 유학 생활을 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로 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준비했으나 첫 번째는 불합격하였고, 재응시하여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하였다. 직장 생활 경험은 없고, 영어 과외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레스웰 & 포스(2021)의 질적 연구 과정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청소년기에 유학한 후 귀국한 청년의 감정과 사회 규범 및 이데올로기의 관계성이라는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성찰로부터 형성된 개방형 연구의 인터뷰 질문 초안을 작성하여 구체화하였다. 연구자는 지인을 통해 조기유학의 경험이 있는 귀국 청년, 호진을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동현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2023년 8월, 호진의 거주지 근처 카페에서 호진과 만나 2시간 30분 남짓 인터뷰를 하였다. 동현의 경우 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9월, 2시간 정도 인터뷰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참여자가 답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따랐고,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모든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하여 연구자가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전사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클랜딘인 & 코넬리(2007)는 내러티브 연구가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 내러티브에는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되어 있다는 점,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 그리고 공간성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홍영숙 2015).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감정을 중심에 두면서 전사 자료를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을 고려하여 감정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세부 주제로 분류한 뒤, 연구자의 해석과

통찰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시간성, 공간성을 따라 그들이 전면적으로 표현하고 의미화하는 핵심 감정, 그리고 그와 관계하는 사회성을 중심으로 감정 서사를 구성하였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서술하기로 하겠다.

4. 조기유학 귀국 청년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의 교차: 계급, 인종, 언어를 중심으로

1) 중상계층의 열망과 기대에서 피어나는 설렘과 즐거움

연구참여자 모두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중학생 때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원래는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만 가시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영어 교육을 생각하셔서가지고 저희도 같이 갔고요.(동현)

그때 이제 그냥 어머니가 제안해서 그러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제안한 건 한 중학교 때 2학년 때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중3 때 가가지고. 일단은 준비는 어머니가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하셔서가지고, 저는 그때 막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호진)

호진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미국으로의 조기유학을 추진했다고 이야기하였고, 동현 또한 부모의 박사 유학 결정으로 함께 한국을 떠나 새로운 영토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조기유학에는 전지구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가의 교육을 경험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동시에 전지구화 시대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유연한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이라는 목표도 상정된다. 이는 호진의 부모가 호진이 “한국의 대학 입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드러난

다. 하지만 ‘세계 체제’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계층 상향 이동을 꿈꾸는 목표가 지배적이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동현의 부모가 영어 교육을 고려하여 자녀들을 모두 남아공으로 데리고 간 것이 그러하다. 사실 조기유학 비용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막대하다. 예를 들어, 자녀를 미국 기숙사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억 원을 훌쩍 넘긴다(이혜인 2024). 애초에 장기간의 영어권 조기유학은 중상계층 이상의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어야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호진의 경우, 어머니가 유학원을 통해 유학을 알아보고, 1년 전에 이미 조기유학을 가 있던 지인의 가족이 있는 곳에 그를 보냈다. 김정환(2022)에 따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만 풍부한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교육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호진의 부모는 미국 유학 시작은 물론, 진행 과정에서도 교육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조기유학 현상이란 가족주의, 계층이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전지구화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발현된다(조은 2004). 선진국의 교육을 이수한 뒤 얻은 졸업장,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영어 능력은 한국 사회에서 상위층의 지표로 충분히 변별될 특질이다. 이 기대는 비단 부모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도 반영된다. 여기보다 나은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이 긍정적인 기대가 연구참여자에게도 드러난다.

호진은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조기유학을 추진했지만, 자신도 “설레고 좋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서. 음악이나 영화 쪽이나 그런 거 좋아하고 미국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서.(호진)

미국을 향한 긍정적인 느낌, 좋음은 무엇으로부터 연유한 것일까? 사회구조는 감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바바렛 2007),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형성된 국가 간 위계성이라는 사회적 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가 간 위계는 일부 국가가 세계의 자원과 부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나 있다. 이것은 해당 국가가 자신의 발전 경로로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고 그들이 따라야 할 모형이 되는 방식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하는 모습(하비 2005)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호진은 미국을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동현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남아공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을 유용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은 계층화된 국민국가 간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가,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동현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동현 또한, 남아공이라는 공간과 그곳의 사람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내내 표현하였다.

남아공은 대체적으로 거리가 깔끔해요. 아무래도 거리가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왜냐하면 거리를 잘 안 쓰니까. 쓰레기만 정리하고 거리를 잘 안 쓰니까 이쁘죠. 사람들이 매너가 있고 프렌들리하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프렌들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동현)

전체적으로 동현은 남아공에서의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 있지만 오랜 시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로 인해, 영국풍의 건물이 즐비한 ‘영국 느낌’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영국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남아공의 거리는 아프리카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거리라기보다는 영국풍의 거리, 동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그가 거주한 도시, 프레토리아는 남아공의 3대 도시로서, 거주자 중 백인 비율이 가장 높다. 남아공은 아프리카권스와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어가 활발하게 통용된다. 동현이 다닌 현지 학교에서도 모든 활동을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현에게 남아공은 영국의 흔적이 담긴 장소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여 동현이 남아공에 느끼는 좋은 감정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흔히 조기유학생의 정서를 지배한다고 보고되는 외로움과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결같이 ‘즐겁다,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

하였다. 각종 매체와 학술적인 연구에서 조기유학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이들의 구술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조기유학생의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언어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 않았다고 솔회하기도 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그들이 해외 유학 생활을 실제로 즐기면서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즐거움은 중상계층이라는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교육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호진이 홈스테이와 고등학교를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옮겨 다녔던 점, 또는 동현이 남아공에서도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쾌적한 환경을 모색하고 구축함으로써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던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주목할 점은 조기유학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중상계층의 재생산 전략이자 구별짓기의 요소라고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계급의 재생산과 구별짓기의 실패,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오판이었다고도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조기유학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의미화하여 전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복에 관한 아메드(2015)의 고찰을 상기하자면,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사실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좋다고 보는 ‘지향’ 때문이다. 이러한 지향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줄곧 유학국에서의 생활이 좋았다고 묘사하는 것에 그것을 그렇게 보고자 하는 지향성, 혹은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한결같이 유학 생활에 대해 표현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현상인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유학국이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기에,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2) 비가시화된 차별과 불현듯 기묘한 느낌

상술하였듯이 호진과 동현은 유학 생활에 대해 한목소리로 “좋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모두 “현지인과 허물없이 잘 어울렸으며, 한인 커뮤니티

와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만큼 현지 생활에 폭 잠겨, 안온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또한 이주자가 흔히 언급하는 인종차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일단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흑인, 백인, 중국인도 꽤 있고요. 저희 동네는 한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르투기스도 많았고 인디언들이 좀 많았어요. 되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사는 나라죠, 남아공이. 그리고 다양한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다양한 인종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직업을 뺏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거기서 차별이랄까 이런 거를 한 번도 당한 적 없습니다. 느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전혀 한 번도 없었어요.(동현)

동현은 단 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느낀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남아공은 ‘아파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인종 간 격차가 매우 컸던 나라이다. 백인이 아닌 인종의 거주, 이동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었던 아파트헤이트 정책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94년에야 종식되었다.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종 간 경제 격차는 여전히하고 인종차별 정책의 유산이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박병수 2024).

또한 그가 한국으로 온 계기는 유학생에게 부과되는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이다. 부모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 동현 혼자 고등학교 마지막 2년 과정을 이수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가정 형편상 무리였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남아공 대학은 외국 국적의 학생에게 내국인과 다른 등록금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 차별적인 등록금 정책을 적용하는 현실이 귀국의 이유 중 하나임을 구술하는 장면에서 이미 남아공 사회에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초국적 이주자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증언하지는 않는다. 일부 이주자는 인종차별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러했을까? 어쩌면 연구참여자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²⁾과 같은,

2)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사소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묘한 차별의 상황에 있던 것은 아닐까? 호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교 내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막 놀리는 거.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몇 명의 애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희화화시키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인 걸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애네들이 뭐라 해야 될까, 개네들이 그냥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놀리는 거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중 저를 많이 놀렸던 애가 지금도 연락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놀렸냐고 그랬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은 지금도, 제가 미국 떠난 지 거의 한 10년 됐는데도, 연락 아직도 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내가 인종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인종 가지고 이제 조크를 하는 게 되게 보편화돼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좀 너는 무슨 무슨 냄새 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으니까 이게 분명히 인종차별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 맨 처음에는 ‘인종차별 하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호진)

호진은 처음 미국의 학교에서 몇몇 남학생들로부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당시에는 그는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호진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재미있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했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인종을 소재로 상대방을 희화화하는 것은 미국의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진이 묘사하는 상황, 즉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냄새가 난다면서 놀리거나 비하하는 것은 분명 인종차별적 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인종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놀이의 한 장면이라고 긍정적으로 의미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은밀한 ‘일상적인 인종주의(everyday racism)’(Essed 1991)

차별을 일컫는다. 이것은 사회구조나 의도적인 배제, 공격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반하는 형태로 가시화되는 차별과는 사뭇 다르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인종 집단에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 모욕을 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Sue et al. 2007: 273).

이데올로기 아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보지 못하게 되었거나 스스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다고 느끼기를 지향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인종주의적 통념이 일상적인 반복으로 인해 친숙해져서 그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인종주의적 관행 및 개인의 무감각은 순환적으로 인종주의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강화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자의 의문은 호진이 그토록 즐거웠던 유학생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연구자는 그가 줄곧 표현하며 전시하던 긍정적인 정동과는 달리, 배후에는 다른 감정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귀국 행위를 추동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 이를 반증하듯, 호진이 귀국을 선택하던 시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그의 감정 서사 중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이 포착된다.

미국에 있을 때는 재미있기는 확실히 재미있었는데, 가끔 그런 이제 막 파티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다 백인들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끔 가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백인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도 아무도 절 괴롭히지도 않는데. 그런 거,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는데. 그제 언어도 다 통하고 있었고, 아시아인이라고 뭔가 구분 짓는 것도 없었고 했는데도. 그냥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다 백인 애들 막 술 마시고 있고 저 친구랑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호진)

그는 즐거운 미국 생활 중 파티에서 종종 느끼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생각의 배경에는 “다 백인들”이라는 환경이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백인들 사이에서 전혀 차별적인 요소를 느끼지 못했지만, 백인들 사이에서 “붕 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안정감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실 이것은 다소 의외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인터뷰 내내 줄곧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았고 매우 즐겁게 생활했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파티라는 가장 즐거운 사교 행사의 순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회의감에 휩싸인다. 그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이 ‘기묘한 불안정감’은 그의 귀국 행위를 추동하는 핵심 감정으로 작동한다. 또한 이 정동은 다시 귀국 후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되며 체류 행위

를 유도한다. 미국 생활에서 불현듯 찾아온 “붕 떠 있는 느낌”은 한국에서의 거주를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귀국 이후의 감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영어와 유학 경험의 자본화를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계획

호진은 4년간 학부 과정에서 토목건축을 공부하고 그 뒤 한국의 건축회사에 취직했지만, 건축일은 물론 한국 회사에 적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호진은 7년간의 미국 생활로 인해 자신이 ‘보통의 한국인’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미국 문화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나 행동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술회한다. 호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만족하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영어 교육이었다. 호진은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했기에 효능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학년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편입하고. 그때는 건축공학을 했거든요. 전공을 같은 걸로. 그리고 취업도 하고. 엔지니어로. 전공 살려서. 그냥 해보자. 그래서 한 1년인가 정도 다녔는데. 근데 안 맞았어요. 건축회사. 건축이나 한국 회사에서. 그래도 1년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내가 평균 한국 사람보다 영어는 잘하니까 영어 강사를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쪽 해오다가. 지금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강사는 밤에 하고.(호진)

호진은 자신의 영어 능력과 유학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강사 일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동현이 말하는 ‘자신감’에도 반영되어 있다. 동현은 보통 3년 특례라고 불리는 중고교과해외이수자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였다. 동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구술하였다. 이것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전역을 하고 나서 과외를 계속하면서 영어 교육 쪽으로 진로를 선택했어요. 과외를 계속하면서,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강의를 보면 내가 더 잘하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이게 가르치는 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잘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강의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의심을 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니까. 얼른 뛰어들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이 분야에 진짜로요.(동현)

동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 경험이 없고, 전역한 뒤 바로 영어 과외 강사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중이며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군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구술에서 직장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동현은 영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만족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감과 만족감은 영어 구사 능력이 유용한 문화자본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세계 및 한국의 언어 지형도에서 보았을 때 영어가 차지하는 높은 위치는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지위도 상승시킨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는 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영어 구사 능력은 한국에서 진학, 취업, 승진에서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박휴용 2006: 170)이기에, 사회적 지위 상향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자본이다. 심지어 한국에서 영어 구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최셋별 2003: 11). 언어와 사회적인 이미지는 결합하여 도상적인(iconic) 재현을 하고 이것은 해당 언어 사용 집단의 태생적인 성질로 인식되는 언어 이데올로기의 형식을 띤다(Irvine & Gal 2000: 37-39).

이처럼 유용한 문화자본인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기유학, 어학연수, 영어 과외, 학원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권 강사보다 영어 강사의 시급도 높다(박정하 2024). 여기서 눈여겨볼 또 다른 점은 단지 유창한 영어 능력만이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고 공부한 경험 그 자체가 강력한 문화자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실제적인(authentic) 영어 능력을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이들, 예컨대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영어권 국가 교포

와 유학생 등의 ‘몸값’은 일반 한국인 강사보다 높다. 호진과 동현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니까 영어, 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 영어 교육 시장에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건 엄청 큰 메리트 같아요. 일단은 첫인상에서 그냥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보다 확연히 더 선호가 되니까. 그런 거는 되게 큰 메리트 같아. (중략) 확실히 이제 미국 출신들을, 유학생들을 선호하죠. 아니면 교포인데 한국어 잘하는 교포.(호진)

호진이 구술하듯이, 한국 영어 교육 시장에서 미국 유학 경험은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호진이 오로지 만족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국적이냐 영어 구사 수준, 그리고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에 따라 영어 강사도 계층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이나 교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유학생 출신 영어 강사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된다. 또한 아무리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토목건축을 전공한 호진의 경우는 다소 불리한 위치이다. 그래서 그는 영어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도 진학하였다. 이처럼 한국 영어 교육산업에 진출한 뒤, 그는 자신의 위치에 불안함을 느끼면서 학력자본을 보충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영어의 상황이다. 다양한 영어권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계층은 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동현의 경우, 남아공에서 영어를 익혔기에 ‘남아공 영어’를 구사한다. 남아공 영어는 영국 영어를 표방하지만, 그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을뿐더러, 한국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미국 영어가 지배적이다(심영숙 2020). 동현 또한 이에 동의한다.

일단 시급 책정 같은 거는 나라에 따라서 책정이 안 되고요. 이 사람의 스펙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선호하는 건 미국일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 외의 지역에서 한 것보다. 근데 이 영어권 나라에서도 미국이 제일 선호 대상의 나라고요. 비영어권 나라는 애초에 어렵죠. 영어 회화 과외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까? 말레이시아도 영

어를 좀 쓰긴 하죠. 근데 필리핀에서 왔습니다~는 내세우기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요. 남아공도 미국에 비하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조금 있을 뿐이지. 확실히 영어, 미국이 최고죠. 미국이 최고죠. 확실히.(동현)

그렇다면 미국 영어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에서 남아공 영어를 구사하는 동현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의 ‘자신감’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어이가 없죠. 미국 발음을 선호하는 게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이티브 미국 발음이 결국에는 변화된 언어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올드 패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발음이 세계적으로 뻗쳐 나가 있다는 것. 결국에 미국이 조금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발음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도 종류가 많잖아요. 홍콩 영어 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올드패션 맞아요. 영어 발음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수준급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사회교육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사람들은 옛날 생각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발전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동현)

동현은 미국 영어, 특히 길에서 판별하기 쉬운 영역인 미국식 영어 발음을 선호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 다소 흥분된 어조로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교육 방향에 관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영어 능력이 신장하지 못한다고도 항변하였다. 동현의 분노는 카츠루(Kachru 1985)의 세계 영어와 조용한다고 볼 수 있다. 카츠루의 세계 영어 이론은 미국과 영국의 영어가 주류 언어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회의적이다. 세계 전체에서 소위 ‘정통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영어 사용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동현은 단지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에만 머물 생각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영어 인식에 분노를 느끼며 ‘세계 영어’를 지향하는 그로서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호진은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꾸준히 할 생각이라고 구술하였다. 호진과 동현은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영어 강사로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동현은 미국 영어를 선호하는 한국 내 영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한국을 떠날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영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호진과 동현의 감정, 그리고 향후 행동의 실천이 미묘하게 분화하는 지점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30대 초중반의 귀국 청년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초국가적 이동 과정에서 구성된 감정을 살펴보고, 이를 감정 서사라고 명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감정 서사를 훑아보면서 감정이 한국과 유학국의 여러 형태의 사회 규범 및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역동적으로 교차하여 조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들이 유학을 떠나고 유학국에서 적응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흐름 속에 외부 사회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였다. 그 감정은 다시 그들의 신체적 행동을 유도하고, 대상과 가까워지거나 혹은 멀어지게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국가 간 위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상계층은 부강한 국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또 해당 국가의 언어를 익혀 계층 유지 혹은 상승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품는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소위 선진국인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망을 키우고,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이 감정은 유학 생활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대상, 즉 유학국으로부터 떨어져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말로 좋았다면 과연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귀국 행위 배후에는 또 다른 감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연구자는 신나는 파티모임에서도 발견되는 회의감에

주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인종차별은 없었노라고 줄곧 강조하였지만, 비가시화된 은밀한 차별로 인해 다른 인종 사이에서 평온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안정감에 대한 희구는 그들을 다시 한국과 가까워지게끔 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뒤, 그들은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 자체는 매우 유용한 문화자본이기 때문이다.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 유지 및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감의 이면에는 언어 및 문화자본의 형성과 활용을 둘러싼 촘촘한 위계로 인해 불안감과 분노도 감지된다. 이 정동은 그들이 학력자본을 보충하는 행위, 또는 한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연결된다.

주지할 것은, 본 연구가 연구참여자의 감정과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 등 사회적인 맥락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대일 대응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황은 정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아메드 2015) 사물 및 환경과 관계를 맺는다. 감정이란 다양한 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감정과 이데올로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라기보다는 그 둘이 서로 조응하며 관계와 유대를 맺는 맥락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감정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며, 감정과 사회적 현실, 그리고 신체적 행동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했다.

어떤 감정과 대상이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은 어떤 습관, 즉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상상의) 근접성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 유학을 떠나는 것에 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가? 그것은 다분히 사회구조 및 권력관계와 연관이 깊다. 이는 미국 영어를 선호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가 달라지고 연구참여자의 위치도 변화하며, 달라진 구조적 권력 및 신분 관계에 따라 상이한 감정이 형성되어(바바렛 2007) 표현된다.

이 연구는 감정과 사회구조적 맥락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당사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처방에 초점을 맞추던 조기유학 관련 연구의 경계를 확장하였다. 또한 이주 연구에서 초국가적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주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와 경제적인 이익과 같은 합리성에 집중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감정의 사회적 맥락과 수행성 관련 연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였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연구참여자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의 세세한 결을 좀 더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더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다채로운 감정과 다층적인 사회적 맥락의 상호관계가 풍부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예지, 김미연, 「귀국 대학생의 구직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진로교육연구』 30권 3호, 한국진로교육학회, 2017, 71~90면.
- 김도혜, 「경쟁의 유예, 불안하다는 감각: 필리핀 대학을 선택한 조기 유학 청년의 부동산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5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22, 57~96면.
- 김정환, 「상징적 재생산 과정에서 예술적 소명의 사회적 구성: 프랑스 유학 청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권 3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2, 325~364면.
- 김지훈,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14, 207~251면.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제국주의』, 도서출판한울, 2005.
-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4.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가상계』, 갈무리, 2011.
- 심영숙,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ELF 특징을 중심으로」, 『중등영어교육』 13권 2호,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2020, 3~28면.
- 박대권·장경진, 「조기유학 현상 변화(2000-2016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미래교육학연구』 33권 2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47~71면.
- 박정하, 「중국 출신 한인 3세 여성의 초국가적 이동과 정착 전략에 대한 연구: 언어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3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4, 7~44면.
- 박지희, 「귀국학생을 위한 문식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효용, 「‘세계화시대의 영어학습’ 열기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사회적 기호화과정(social symbolization)의 탐색」, 『사회언어학』 14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6, 169~196면.
- 사라 아메드, 최성희 외 역, 「행복한 대상」,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시우 역, 오월의 봄, 2023.
- 심영숙, 「세계영어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응용언어학』 36권 3호, 한국응용언어학회, 2020, 99~125면.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권 2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0, 125~146면.
-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비평과 이론』 20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9면.
- 이보람, 「조기유학에 관한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843~865면.
- 이승민, 「귀국성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영선·이동훈,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권 4호, 한국상담학회, 2009, 1783~1804면.
- 장지영, 박규리, 「한국의 귀국학생들의 정체감에 관한 탐색 연구한국」, 『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권, 한국심리학회, 2008, 514~515면.
- 정수남, 「노동자의 불안·공포와 행위의 감정동학: 외환위기 이후 노동빈민에 관한 감정사회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정정훈, 「이데올로기와 어펙트, 혹은 ‘인간학적 조건’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루이 알튀세르와 브라이언 마수미 사이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90권, 문화과학사, 2017, 402~429면.
- 정향진,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46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3, 165~209면.
- 조은,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권, 비판사회학회, 2004, 148~171면.
- 존 크레스웰 & 쉐릴 포스,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 진 클랜디닌 & 마이클 코넬리, 소경희 외 역,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2007.
- 진태원·홍기숙, 「스피노자와 알튀세르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 상상계라는 쟁점」, 『근대철학』 3권 1호, 서양근대철학회, 2008, 5~46면.
- 최셋별,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실태와 영어능력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1권, 이화사회과학원, 2003, 5~21면.
- 홍영숙,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권 1호, 한국내러티

- 브교육학회, 2015, 5~21면.
- 박병수, 「‘아파트헤이트’ 종식 30년…남아공, 불평등 현실 개선은 더디기만」, 『한겨레』, 2004년 4월 28일자.
- 이혜인, 「‘수포자’ 아들, 美 유학 보냈더니…2억 버는 부부도 허리 휜다」, 『한국경제』, 2024년 5월 27일자.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2024」, <https://kess.kedi.re.kr/index> (2025년 5월 22일 검색)
-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 J.M 바바렛,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 Essed, P., *Understanding Everyday Racism: An Interdisciplinary Theory*, SAGE, 1991.
- Irvine, Judith T. & Gal, Susan, “Language Ideology and Linguistic Differentiation,” in Kroskrity, P. (eds),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cs, and Identities*,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0, pp.35~84.
- Park, E. “A case study on returnees in their university lives in Korea: Focusing on the students who had stayed with their parents in China,” *Studies on Korean Youth* 29(3), 2018. pp.5~40.
- Prince, G., *Narrative as Theme: Studies in French Ficti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2.
- Sedgwick, E.,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 Sidhu, R K., *Student Mobilities and International Education in Asia: Emotional Geographies of Knowledge Spaces*, Palgrave macmillan, 2020.
- Song, E., *A Qualitative Study of Korean Returnee Students’ Adjustment*.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Sue, D.W. et al.,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pp.271~286.

| Abstract |

Moving Subjects, Constructed Emotions : Emotional Narratives and Social Structure of Young Early Study Abroad Returnees

Park, Jungh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arratives and social contexts of two young adults in their early-to-mid 30s who experienced early study abroad and returned to Korea, using emotion-centered narrative research.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motions of these returnees extend beyond individual dimensions and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social structures, norms, and ideologies of both Korea and their host countries. At the departure stage, the globalized hierarchy among nation-states and the class reproduction strategies of the upper-middle class fostered aspirations and positive emotions toward English-speaking countries. During their study abroad experience, while they reported superficially positive experiences, they reported feelings of skepticism in interracial gatherings and a sense of “floating” due to invisible discrimination. After returning to Korea, they expresse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working as English instructors by utilizing English and experience living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as cultural capital, yet they expressed diverse and complex emotions beneath the surfa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motions are socially constructed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early study abroad phenomenon as a transnational mobility phenomenon that must be comprehended within socio-structural contexts beyond the individual dimension.

Key Words: early study abroad, emotions, youth, diaspora, transnationalism, emotional narrative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인식 차이 연구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

사용진*

목 차

1. 서론	3.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2.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 및 내용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초록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원이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원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원 집단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다문화가족원 집단 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상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두 다문화가족원 집단의 인식 수준의 차이에 근거하여, 현재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에서 정부가 보다 집중해서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정책들 그리고 반대로 과잉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A 자치단체 다문화가족센터의 이용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집단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논의한 지금까지의 국내 다문화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본 연구는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은 다문화가족원의 집단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차이에 보다 집중하여 수요자 맞춤형 그리고 차별되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다문화정책, IPA 분석, 자녀 양육, 다문화가구, 인식 조사, 다문화가구 지원

1. 서론

최근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 및 주민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구의원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¹⁾ 첫째, 2023년 다문화 혼인²⁾ 건수는 총 20,431건으로 대한민국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이며, 전년 대비 17.2%(3,003건) 증가하였다. 둘째, 2023년 다문화 출생 인원은 총 12,15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3%를 차지한다. 셋째, 2023년 전국 다문화가구³⁾ 수는 총 415,584 가구로 전년(399,396 가구) 대비 4.1% 증가하였다(16,188 가구 증가). 넷째, 2023년 대한민국 다문화 인구는 총 1,191,768명으로 전년(1,151,004명)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다섯째, 2023년 대한민국 결혼이민자 수는 총 172,899명으로 전년(167,522명) 대비 5,377명 증가하였다.

이상의 주요 다문화통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다문화 혼인 건 수, 다문화 출생 인원 수, 다문화가구 수, 다문화 인구 수, 그리고 결혼이민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상적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은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총 2,514,000명(2023년 기준)이며, 이는 전체 인구에서 대략 4.8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⁴⁾ 현 수준의 다문화가구의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대한민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1) 통계청,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2024. 8. 31.

2) 다문화 혼인은 남녀 어느 한 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가 해당됨(통계청, 2023).

3)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인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의미함(통계청, 2023).

4) 통계청 홈페이지, 2024. 8. 31.

지정되는 시점은 매우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의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률,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지역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되는 문제점과 장애 요인 등을 고려해 본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⁵⁾ 또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수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 수준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⁶⁾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매년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원이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원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원 집단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다문화가족원 집단 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상기 분석에 도출된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두 다문화가족원 집단의 인식 수준의 차이에 근거하여, 현재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에서 정부가 보다 집중해서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정책들 그리고 반대로 과잉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다문화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

5)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 2022.

6)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 2022.

내지는 성과를 논의한 연구들⁷⁾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구원의 효과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구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실무적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보다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겠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 및 내용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⁸⁾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7) 박지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3, 165~190면; 윤향희·전세경,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363~394면; 이현주·차윤경,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0, 59~90면; 조승연,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187~212면; 이진선·강영숙·오종철,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1~22면; 안선정·이현철·임지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한국가정관리학회, 2013, 77~91면; 유근환·신현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례분석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147~165면; 이성은·최경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지원서비스 정책발전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699~708면.

을 취득한 자⁹⁾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둘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간략히 설명하면,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¹⁰⁾ 동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거주하는 다문화가족원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5년 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¹¹⁾의 심의를 거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환경 분석과 실태 분석을 전국적 단위로 조사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의 주요 항목에는 다문화 가구 구성 및 특성, 결혼생활 상태,

8)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임.

9) 출생, 인지, 귀화 등을 포함함.

10)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1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 그리고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4).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현황, 경제활동 상태, 자녀 학교생활·진로·교육지원 등 다문화가구원 대상 생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는 5개년 단위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다문화 정책이 보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1) 중앙정부 차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매 5개년 마다 중·단기적 성격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실무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2023년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4개의 대과제와 각 대과제별 3~4가지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과제별로 2~3가지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표로 정리될 수 있겠다.

〈표 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과제

대과제	중과제 / 세부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①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 영유아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②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③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대과제	중과제 / 세부과제
	④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②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③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④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입국 전·입국 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②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③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기반 확대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다문화가족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강화 -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 중앙-지방 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출처: 여성가족부(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 지방자치단체 차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상기에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5년 단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환경과 정책 수요에 부합한 세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집행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물론, 다문화인구의 비중, 연령대, 가정환경(자녀 양육 여부 등), 소득 구조(맞벌이 여부 등)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일부 차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을 구축하고,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고도화와 효율적인 사업 지행을 위하여 관련 협의회 및 자문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사업집행 관련 심의 및 의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¹²⁾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A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원이다. A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인 다문화가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책(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임과 동시에 분석 레벨이다. 본 연구자가

12)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분석 대상과 설문 데이터는 본 연구자가 2023년 수행한 A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연구용역에서 수집된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민감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지역명을 밝히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A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표기함을 밝혀 둔다.

설계한 조사문항을 기반으로 A 지방자치단체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거주민 다문화가족원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진행 시기는 2023년 9월부터 10월 경이며,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본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2) 설문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은 1)인구통계학적 문항, 2)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의 개별 중요도 및 만족도 문항, 3)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종합적 만족도, 그리고 4)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에는 응답자인 다문화가족원의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자녀 양육 여부, 취업 여부, 한국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의 개별 중요도 및 만족도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대과제를 중심으로 각 대과제별 A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출하고, 최종 선정된 개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별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수준 차이를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 매우 불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A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은 개방적 질문(주관식)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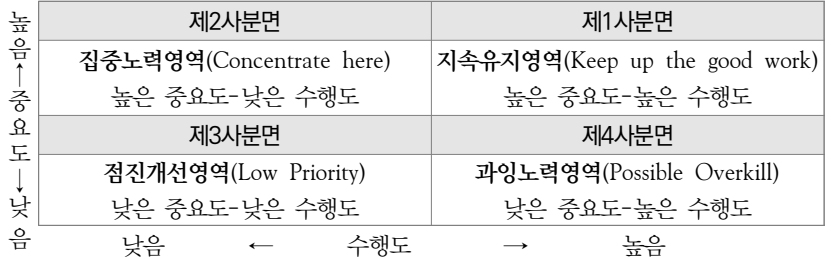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 정책수혜자인 다문화가족원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IPA)¹³⁾를 활용하였다. IPA 방법은 단위 정책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수혜자가 인식하는 각 정책별 중요도 그리고 만족도(수행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 IPA 방법은 그 시작

13) IPA는 Martilla·James(1977)의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영추진 전략 및 방향을 설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인 경영학(마케팅) 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영역인 정부의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분석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정책(사업)별 응답자의 만족도와 중요도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 각각 도출되며, 이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1사분면은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 수준이 평균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영역이며, 본 영역에 포함된 정책(사업)들은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사분면과는 정반대로, 3사분면은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이 평균 보다 모두 낮게 도출된 영역이다. 이는 정책집행자 관점에서 후순위로 정책(사업)을 조정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4사면분은 응답자의 수행도는 평균 보다 높은 반면,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사업)들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인력 및 재원 등)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사분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응답자가 인지하는 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보다 높은 반면에 만족도(수행도)는 평균 보다 낮게 도출된 것이다. 본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사업)들은 응답자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비교적 강하게 표출되는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기획 단계부터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 집행기관의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출처: (Martilla·James 1977; 소순창·이창섭·한형서 2019)

〈그림 1〉 IPA 4 사분면별 의미

4.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IPA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는 총 154명이다. 이는 불완전한 응답지와 주요 설문문항에 대한 미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인원이다. 설문응답자 대상 대부분이 여성 외국인이고 언어적 제한 및 응답 여건 등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 등과 같은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154명의 응답자 규모는 IPA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의 응답자 기초통계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본 설문의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 외국인이다. 이는 대체로 다문화가족원의 남성은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생업 활동을 하는 관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는 여성 외국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기혼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구 응답자의 비율(75.3%)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24.7%) 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 변수 관련해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나, 취업한 응답자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응답자 기초통계 현황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성	2	1.3
	여성	152	98.7
연령대	20세 미만	1	0.6
	20~30세	34	22.1
	31~40세	67	43.5
	41~50세	35	22.7
	51~60세	14	9.1
	61세 이상	3	1.9

구분		빈도(명)	비중(%)
결혼 여부	기혼	149	96.8
	미혼	5	3.2
자녀양육 여부	양육	116	75.3
	미양육	38	24.7
취업 여부	취업	83	53.9
	미취업	71	46.1
국내 거주기간	3년 미만	21	13.6
	3년 이상~5년 미만	22	14.3
	5년 이상~10년 미만	49	31.8
	10년 이상~20년 미만	51	33.1
	20년 이상	11	7.1

2) IPA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구원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원 집단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다문화가구원 집단 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 유무 여부, 특히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가정환경적 차이에 따라 동일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 및 만족도(수행도)의 인식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자녀 양육(보육, 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만족도 수준에는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집단별 인식수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 등 다문화가구원의 가정환경적 상황 차이에 따라 정책수요자 집단별 맞춤형 정책(서비스)이 수립되고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논의와 배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구원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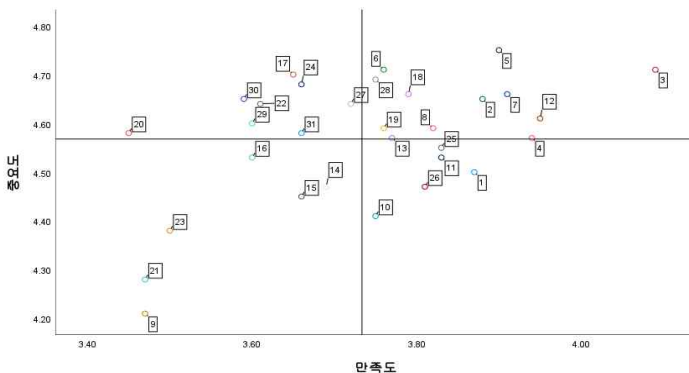
우선, 아래 <그림 2> 와 <표 3>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다문화가구 응답자의 IPA 분석 결과이다. 정책을 지속·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제1사분면에는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이중언어(언어발달) 교육 지원,

자녀학습(기초학력 향상) 지원, 자녀 학원비(학습지) 지원, 자녀 진로상담 지원, 자녀 심리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가족/심리상담), 취업프로그램 지원, 가족관계 향상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미래설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집행기관의 가장 관심있게 살펴봐야 되는 집중노력 영역인 제2사분면에는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수당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주거 지원,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상담 등), 다문화 상담·취업보조 인건비 지원, 다문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그리고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도출되었다.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 및 만족도 인식이 모두 낮게 도출된 제3사분면의 점진개선 영역에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 지원,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낮은 중요도에 비해 다문화가구원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과잉노력영역인 제4사분면에는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결혼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 온라인 번역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축제(체육대회, 캠프)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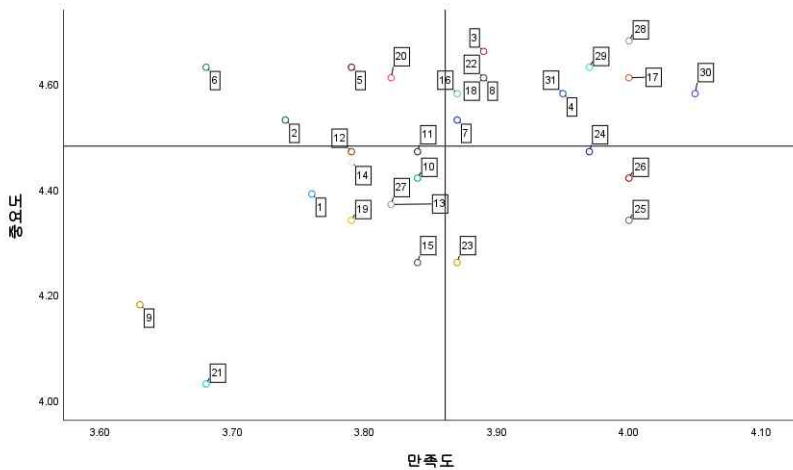


〈그림 2〉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다문화가구의 IPA 분석

〈표 3〉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다문화가구원의 IPA 분석

제2사분면: 집중노력영역 높은 중요도-낮은 수행도	제1사분면: 지속유지영역 높은 중요도-높은 수행도
①⑦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수당 지원 ②⑧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③⑨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④⑩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 지원 ⑤⑪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상담 등) ⑥⑫ 다문화 상담·취업보조 인건비 지원 ⑦⑬ 다문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⑧⑭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②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③ 이중언어(언어발달) 교육 지원 ⑤ 자녀학습(기초학력 향상) 지원 ⑥ 자녀 학원비(학습지) 지원 ⑦ 자녀 진로상담 지원 ⑧ 자녀 심리치료 지원 ⑫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적응지원 ⑬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가족/심리상담) ⑭ 취업프로그램 지원 ⑮ 가족관계 향상 지원 ⑯ 결혼이민자 미래설계 지원
제3사분면: 점진개선영역 낮은 중요도-낮은 수행도	제4사분면: 과잉노력영역 낮은 중요도-높은 수행도
⑨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지원 ⑭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⑮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 ⑯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 지원 ⑰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 ⑱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지원	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④ 결혼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 ⑩ 온라인 번역 서비스 지원 ⑪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⑮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⑯ 다문화가족 축제(체육대회, 캠프) 지원

아래 <그림 3>와 <표 4>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구 응답자의 IPA 분석 결과이다. 정책을 지속·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제1사분면에는 이중언어(언어발달) 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 자녀 진로상담 지원, 자녀 심리치료 지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수당 지원, 취업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결혼이민자 미래설계 지원, 다문화 상담·취업보조 인건비 지원, 다문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그리고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의 IPA 분석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집행기관의 가장 관심있게 살펴봐야 되는 집중노력 영역인 제2사분면에는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자녀학습(기초학력 향상) 지원, 자녀 학원비(학습지)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사업이 도출되었다.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의 중요도 및 만족도 인식이 모두 낮게 도출된 제3사분면의 점진개선 영역에는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감독 지원, 온라인 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가족/심리상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 가족관계 향상 지원,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 그리고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상담, 가족활동)사업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낮은 중요도에 비해 다문화가구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과잉노력영역인 제4사분면에는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축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표 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의 IPA 분석

제2사분면: 집중노력영역 높은 중요도-낮은 수행도	제1사분면: 지속유지영역 높은 중요도-높은 수행도
②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⑤ 자녀학습(기초학력 향상) 지원 ⑥ 자녀 학원비(학습지) 지원 ⑳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③ 이중언어(언어발달) 교육 지원 ④ 결혼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 ⑦ 자녀 진로상담 지원 ⑧ 자녀 심리치료 지원 ⑯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 지원 ⑰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수당 지원 ⑱ 취업프로그램 지원 ㉑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㉒ 결혼이민자 미래설계 지원 ㉓ 다문화 상담·취업보조 인건비 지원 ㉔ 다문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㉕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제3사분면: 점진개선영역 낮은 중요도-낮은 수행도	제4사분면: 과잉노력영역 낮은 중요도-높은 수행도
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⑨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 지원 ⑩ 온라인 번역 서비스 ⑪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⑫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적응 지원 ⑬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가족/심리상담) ⑭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⑮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 ⑯ 가족관계 향상 지원 ㉑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 ㉒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상담, 가족활동)	㉓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지원 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㉕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㉖ 다문화가족 축제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한국의 다문화가구원 수, 다문화가구원 출생 수, 다문화가구원 혼인 건 수, 외국인 거주자 수 등 다문화가구 관련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구원 수의 증가와

한국의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서의 인구환경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한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환경에 적합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의 내용과 성격은 세분화되었으며, 또한 양적으로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문화가족원의 집단적 특성과 차이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의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족원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PA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원이 인식하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로 나타난 2사분면(집중노력영역)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족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다문화가족원 집단은 결혼이주여성 자녀 양육수당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재난, 질병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상담, 가족활동 등), 다문화 상담·취업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다문화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그리고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의 사업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원 집단은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자녀학습(기초학력 향상) 지원, 자녀 학원비(학습지)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등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원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만족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이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집중노력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유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관련 이론적 연구 측면,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집행 측면에 다음과 같은 기여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족원의 집단적 차이에 따라 동일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집단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논의한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본 연구는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원의 집단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차이에 보다 집중하여 수요자 맞춤형 그리고 차별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분석 대상을 활용한 점, 응답자의 자기주관적 인식 조사만을 근거로 분석한 점, 단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 등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녀양육 여부 변수 외에 취업 여부,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인식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과 더불어, IPA 분석에서 2사분면(집중노력영역)에 포함되는 정책(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실무자 그리고 다문화가족원 대상 집중 면담 등을 통해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도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
- 박지나, 「다문화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3, 165~190면.
- 소순창·이창섭·한형서,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119~144면.
- 안선정·이현철·임지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한국가정관리학회, 2013, 77~91면.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21.
-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
- 유근환·신현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례분석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147~165면.
- 윤향희·전세경,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363~394면.
- 이성은·최경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지원 서비스 정책발전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699~708면.
- 이진선·강영숙·오종철,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1~22면.
- 이현주·차윤경,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9~90면.
- 조승연,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87~

212면.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통계청,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4.

통계청 홈페이지. 2024. 8.31.

Martilla, J. A., & James, J. C.,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1977, pp.77~79.

| Abstract |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 on Status of Child Rearing —

Sa, Yongjin

There are two main research objectives of this paper. First, it is to measure the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recognized by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between the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who are raising children and the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who are not raising children among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Second,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two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group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o raise children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polic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cus more on investing efforts among the currently implement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nd, on the contrary, policies that correspond to areas where excessive efforts are being administered are being deriv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judged that this study is contributing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domestic multicultural research that has verified and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without considering collective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household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government agencies that plan and imple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need to focus more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that differ from group to group.

Key Words: Multicultural policies, IPA analysis, Child rearing, Multicultural families, Awareness surveys,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탐색

—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따른 시설 공유 방안 —

유진영*

목 차

1. 들어가며	4.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2. 관리제도 설계 원리 분석	5.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실제
3.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	6.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단위학교(unit school)를 공동자원(common)으로 정의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공동자원(common)과 공동재(common goods)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시설 공유 정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이론적 근거 부족, 학교 구성원의 우려,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 이론을 단위학교 중심으로 분석하고, 둘째,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의 차원을 논하며 셋째,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넷째,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입각한 단위학교 시설 공동자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명확한 경계 설정,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규칙 마련, 집합적 의사결정 기구 도입, 감시 및 제재 장치 운영,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공동자원화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학교(단위학교), 시설 공유, 공동자원(common), 엘리너 오스트롬, 관리제도 설계 원리

* 전남대학교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학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필수 사회기관 중 하나이다. 또한, 초등 및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정의될 뿐 아니라, 자체적인 권한을 가진 사회 커뮤니티로써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살이(well-being)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끌어들이기도 한다.¹⁾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등 내부의 구성원이 외부 구성원 및 자연환경, 가정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더불어 교육구성원들이 나눔과 돌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변화하는 법을 배워 가정과 지역사회에 그 배움의 결과를 전하게 된다.

오늘날 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시대에 직면한 학교는 현재 ‘공동자원(communs)²⁾’으로의 위치 설정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이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a public good)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재(a common good)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³⁾

교육을 공공재와 공동재로 보는 관점에서 학교는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을 위한 공동자원이 되며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유지하고 확장하며 이용하는 장이 된다.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은 천연자원이든 인공 자원이든 잠재적 수혜자들을 자원 활용에 의한 편익에서 배제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배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원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개념에 더하여 학교는 도시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초원, 삼림,

1)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104면.

2) 비배제성(non-exclusion)과 편익감소성(subtractibility), 경쟁성(rivalry)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400면.

3)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국문판 발간사.

4)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2010, 70~71면.

물과 지하자원 등 전통적인 측면의 공동자원과 다르게 도시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은 행위자들의 이용과 활용 방법에 의해 좌우된다. 학교를 비롯한 도시의 공동자원들을 이용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이 구조화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⁵⁾

본고의 이론적 근거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자원관리론과 공동자원이론이며 일부 도시커먼즈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연구는 국내에 2010년 번역되어 처음 소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자원관리론과 공동자원론, 다중심적 접근에 관한 기초 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실제 사례에 관하여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감지된다.

먼저 도시커먼즈 이론과 관련하여 안명희·이태화(2024)는 커먼즈의 구성요소인 자원, 공동체, 제도(communing)를 중심으로 쟁점을 구체화하고 오스트롬의 커먼즈 이론 관점에서 도시커먼즈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Cecilia Melandri(2021)는 도시커먼즈를 ‘공동행위(communing)’로 파악하며 시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Sheila R. Foster & Christian Iaione (2016)은 도시를 하나의 공동자원으로 재구성하고, 공유 공간과 공공재의 협치를 법·제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시설, 도서관 등의 관리 및 공유 매커니즘 구상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장훈교(2019)는 오스트롬의 전체 학문 여정을 관통하는 다중심적 접근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현대 공동자원이 직면한 문제 지형을 고려하여 이를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최현·파이싱성(2015)은 국제적 공동자원론의 변화 양상을 주요 분석 모델의 발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행정학 등에서 시작돼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에까지 확산된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회학적 공동자원론의 연구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정영신(2016)의 연구는 오스트롬이 제안한 자원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자원과 연결된 인간들의 삶의 양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둘러싼 규범과 문화에 관해 논하고자 하였다. 마

5) 크리스티안 보르치·마르틴 콘버거, 『도시커먼즈: 도시를 다시 생각하다』, KRIHS 국토연구원, 2023, 18면.

지막으로 강은숙·김종석(2013)은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규칙 제정을 통한 극복 방안을 역설한 오스트롬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공유재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을 고찰하였다. 이 같은 다차원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 이론과 관련하여 공동자원 혹은 공동관리자원(Commons pool resources)에 관해 연구한 사례들 중 ‘단위학교’의 위치를 공동자원으로 설정하여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최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한 시설 공유⁶⁾를 통해 학교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정책 도입과 이론적 근거가 전무한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부재로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⁷⁾ 더불어 교원, 학생, 학부모로 대변되는 교육구성원들은 학생 안전의 위협과 교육활동 방해 및 침해, 공동의 활용 목표 부재와 공적 토론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관한 이론 관련 연구 자료 및 현장 연구 보고서 수집에서 출발해 단위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를 재화 분류 범주 내에 설정하여 유형화하였다. 더불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수집 및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내 설치된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여 기능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검토

6)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유’는 공유(Share)가 아닌 공동자원(common) 혹은 공동자원화(commoning)로 기술해야 하지만, 일부 문맥상 정책 현장의 실제에서 활용하는 용어를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7) 2024년 현재 전체 초·중·고 학교 수는 11,835개이다. 학교시설 공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강당과 운동장 정도를 개방하고 있다. 도서관, 주차장, 다목적실 등 공유가 가능한 유휴공간들이 많은 학교조차도 매우 보수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통계진흥원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교육기본통계』, 한국통계진흥원 2024, 4면.

8) 김중래, 「주민에 학교 개방해도 괜찮을까요」, 서울신문, 2023, 1면.

한 자료 및 이론 분석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실체에 적용할 설계 중점을 구안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교무·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인 ‘학교지원센터’와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지원센터는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인 학교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혹은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학교지원센터는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체제 구축으로 교육력을 제고하여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를 추구한다.⁹⁾ 더불어 소통·참여·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① 교육활동 지원(학교업무 최적화 사업 발굴 및 추진, 유·초·중 교육공무직 및 대체근로자 인건비 집행 등) ② 교권·법무(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 지원 등) ③ 학교 안전지원(유·초·중 중대재해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 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유·초·중 안전 점검의 날 컨설팅, 학교시설 업무 사전컨설팅 및 설계 검토, 공사감독 지원 등)이다.

두 번째 연구 대상인 단위학교는 초·중·고 각각의 개별 학교(unit school)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한 개의 학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는 교육의 실질적인 집행 단위로서 교육과정, 예산, 인사, 시설 등의 운영과 결정을 학교 자체가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단위이다.¹⁰⁾ 또한, 중앙·지방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부여받아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자율적 단위

9) 광주광역시교육청·하봉운,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가칭)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 1~2면, 45~46면, 51면, 63면.

10) 김성열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4, 320면.

이기도 하다.¹¹⁾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공유는 대부분 단위학교를 기준으로 시도되고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관리제도 설계 원리 분석

엘리너 오스트롬(2010)은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마을 공동 소유,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필리핀의 산제라 관개 공동체 등과 같은 공동자원 체계 모델들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여덟 가지 설계 원리를 마련했다.¹²⁾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오스트롬은 첫 번째 설계 원리로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동자원 자체의 경계도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¹³⁾ 이에 따라, 단위학교는 공동자원으로써 학교 관점에 입각하여 자원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호한 경우, 학교 구성원 및 사용자 모두 ‘학교라는 공공자원의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어디까지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학교는 공동자원 중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상시 머무르며 기능하는 특질을 지닌 공간이다. 외부 사용자보다 우선한 권리를 지닌 내부 사용자—어떠한 사용자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존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독특한 공동자원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공유의 물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 범주를 마련하며 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용 범

11) 김진한·신현석, 『학교경영론』, 교육과학사, 2012, 85면.

12) 이는 자연 자원만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자치 체계를 조직하고 조합을 만드는 등 도시커먼즈의 기초가 되는 활동들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공동자원 관리 제도 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56~60면.

13)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2010, 173~174면.

위¹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 부합성

두 번째 설계 원리는 자원 유량(flow variable) 단위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이 현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 노동력과 물자,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제공 규칙과도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¹⁵⁾ 단위학교는 위치와 구조, 학생·학부모 실태, 교직원 구성, 예산, 교육과정과 운영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말한 차이로 인해 운영 체계 내 기본 틀¹⁶⁾은 유사하지만 적용의 실제에서는 같지 않은 특성이 드러난다. 만약,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교시설 공유에 관한 규칙을 단일하게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단위학교가 지닌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¹⁷⁾ 이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 및 제공 규칙의 조건 부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3) 집합적 선택 장치

오스트롬은 세 번째 설계 원리로 실행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행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녀는 상호 간 또는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해 가는 개인들이 환경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잘 수정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이 원리를 채택한 공유자원 제도는 지방 수준의 규칙에서 더욱 잘 정비할 수

14) 지나치게 수요가 높을 경우,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되므로 외부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규칙, 조례,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통제 또한 요구된다.

15)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2010, 176면.

16)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사회의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수업, 교수·학습 및 평가 실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복지 지원, 학교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교육 주요 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12~15면.

17) Amanda Huron,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Urban Studies』, SAGE PUBLICATIONS LTD, 2017, 1~8면.

있었음을 예로 든다.¹⁸⁾ 이는 단위학교의 학교시설 공유 사업에서 실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직원·학생·학부모로 대변되는 학교 구성원이 규칙 개선과 수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4) 감시 활동

네 번째 설계 원리는 공동자원 체제의 현황 및 사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단속 요원이 사용자들 중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외부인을 고용한다면 사용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이는 단위학교의 사용자인데서 내부의 관찰자로서 공동자원의 명확한 사용 범위를 인지하고 안정된 상태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인 고용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책임 부여를 통해 고용된 관찰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시설 공유에 따른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점증적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

다섯 번째 설계 원리는 실행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관리자,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²⁰⁾ 대다수의 견고한 제도들에서는 외부의 권위체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감시 및 제재 활동을 행하며, 이들 체계에서 첫 번째 규칙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가벼운 수준이다. 이후 점차 높은 수준의 처벌로 나아가며 이때의 제재 조치로 발생되는 보상과 편익은 다시 내부로 환원됨으로써 네 번째 설계 원리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학교시설 공유에 있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점증

18)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2010, 177면.

19) 같은 책, 179면.

20) 같은 책, 179~189면.

적 제재 방안 수립은 가벼운 단계에서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과 규칙 이행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준다. 또한,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낮은 비용 발생에 기반한 효율적인 관리를 담보한다.

6) 갈등 해결 장치

여섯 번째 설계 원리는 사용자들 간에 혹은 사용자와 관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해결 장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오스트롬은 사용자들이 규칙을 따르고자 한다면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시설 공유에 관한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규칙을 어길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러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회피하려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 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갈등 해결 장치가 단위학교 시설 공유 과정 내 모든 분쟁을 완화 시키며 규칙을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공동자원 운영 체계에서는 개인적인 갈등 완화부터 법적인 분쟁 조정까지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칙 체계의 작동을 지원한다.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이 설계 원리는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²²⁾ 오스트롬의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를 위해 내부 합의를 통한 규칙 체계를 만들어냈다. 농업·어업·임업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 대상들이 정부 등 상위에 위치한 관리 주체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규칙에 의해 공동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했다면 규칙 체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것이다. 단위학교 시설

21) 같은 책, 2010, 189면.

22) 같은 책, 2010, 191면.

공유 관리제도 또한 학교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규칙의 운영과 수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위학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개방 구역 및 사용자 범위, 관리 규칙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실제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단위학교 관점에서 학교시설 공유 사업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자율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게 하여 지속적인 사업 참여에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마지막으로 오스트롬은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분쟁 해결, 운영 활동이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³⁾ 그녀는 스페인 우에르타의 관계인들이 서너 개의 중층적 단위로 조직화되고 전체 체계는 지방, 지역, 전국 단위의 정부 단위에 내재되어 장기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예로 든다. 이와 같이 중층적이며 정합적인 사업 단위 구축은 복잡성을 통해 공동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앞서 제시한 일곱 개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아우르며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동자원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3.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재화 분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념과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그 출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모든 자원과 재화의 기본 형태로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적 재화(private goods)이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과 이용 문제에 관련한 속성 때문에 시장에서 다수의 사적 행위자들이 공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화들이 존재한다. 이 재화들은 집합재(collective goods)

23) 같은 책, 192면.

혹은 공공재(public goods), 공동자원(common)·공동재(common goods), 사회재 등으로 불린다.²⁴⁾ 이 외에도 사적 재화와 공동재에 속하지 않는 즉, 회원제 기반으로 사용자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여 소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클럽재(club goods), 혹은 회원제로 불리는 재화가 존재한다.²⁵⁾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러한 자원들의 특징과 위치를 분석하여 네 가지의 분류 범주를 제안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완성했다.

〈표 1〉 재화 분류 범주

	배제성	비배제성
감소 (경합)	사적 재화(private goods) 음식, 옷, 가구, 자동차, 나무, 물고기, 텔레비전, 섯톱박스, 컴퓨터	공동자원·공동재 (commons, common goods) 바다, 하천, 공동목장, 공동어장, 숲, 목초지, 관개시설, 지하수, 인터넷 속도와 질, 도서관, 학교(최근 요구되는 형태)
비감소 (비경합)	클럽재·회원재(club goods) 케이블TV 방송, 유료 소프트웨어, 유료도로, 사고모임, 신문 구독,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현재 형태)	공공재(public goods) 치안, 국방, 인터넷, 일기예보, 공개 소프트웨어, 공중파 TV 방송, 햇빛, 과학지식

출처: 오스트롬(2010); 정영신(2016); 최현·파이싱성(2015)에서 재구성.

그동안 학교는 의무교육 등 정책에 따라 학령기 인구 및 교직원이 사용우선권을 지닌, 즉, 배제성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특성이 강한 비감소(비경합) 재화로 취급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라는 한정적인 대상이 우선 사용권을 갖는 회원제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그들의 사용 시간 이외에는 공동자원으로써 비배제성을 견지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원으로 변모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오스트롬의 구분법을 적용하면 학교는 기능이 유지

24)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408~409면.

25) 같은 글, 409~411면.

되는 동안 재화 분류 범주 내에서 두 가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²⁶⁾ 이에 따라 학교가 놓인 공동자원으로써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의 차원은 배제성에서 비배제성의 단계로, 본래의 비감소(비경합) 상태에서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사용자 증가로 인해 경합의 상태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도시커먼즈 이론 관점에서 다루는 오스트롬의 재화 분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자원²⁷⁾으로써 학교가 지닌 특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도시커먼즈에서는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과 같은 특정 장소들이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공유될 때 비로소 그 경제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올라간다. 즉, 이들은 어느 정도 비감소성 자원이며 소비가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재화이다.²⁸⁾ 더불어 도시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은 행위자들의 활용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원을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이 구조화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²⁹⁾ 학교 또한 도시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³⁰⁾으로

26) 오스트롬(2010), 정영신(2016), 최현·파이싱성(2015)은 재화 분류 범주 내에서 학교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클럽재·회원재(club goods)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주를 이루는 형태를 근거로 클럽재·회원재로 분류하였다. 덧붙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학교(초·중) 교육은 의무라는 점에서 공동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현재 도시커먼즈 내의 모든 인구에게 주어지는 공동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의 공동자원 개념은 사용우선권을 지닌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범위로 한정할 때, ‘그들의 공동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주민 등 외부인에게는 전적으로 개방되는 공동자원으로 볼 수 없기에 ‘회원재’로 여겨지는 상태에 놓여있다.

27) 공동자원은 공공재(public goods)와 혼용되기 쉬우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책임의 유무이다. 학교를 비롯한 공동자원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사용자의 책임이 약하거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Maurits de Jongh, 「Public Goods and the Commons: Opposites or Complements?」, 『Sage Journals』, heinonlin, 2021, 3면.

28) 크리스티안 보르치·마르틴 콘버거, 『도시커먼즈: 도시를 다시 생각하다』, KRIHS 국토연구원, 2023, 15면.

29) 같은 책, 18면.

30) 도시커먼즈 내의 재화는 사용자의 필요로 만들어지며 학교는 전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대부분의 근대국가에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커먼즈의 공동자원으로 정의할

써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성격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의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자원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불확실성과 모호함, 변동성이 강한 시대적 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³¹⁾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동자원으로써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의 차원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교육부(2023)는 공급자 중심의 학교시설 확충을 학습자 중심의 질적 공간 성능 향상으로 전환하고 예상되는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 현상 등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 중심 학교 역할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단위학교는 ‘공동자원 형태’로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분석

자본에 잠식되기 쉬운 도시의 속성상, 도시커먼즈에 속하는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학교시설 공유’³²⁾에 관한 문제는 중요성을 띠게 된다. 다만, 학교가 공동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관련 사업 전문성 결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운영 방식과 관리 방안을 따르게 한다면,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배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제3장의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에서 갖는 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제2장에

수 있다. 같은 책, 239~254면.

31)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학생수는 2023년 5,330,000명에서 2035년 3,220,000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 교육부, 2023, 1면.

32) 본고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유’는 공동자원화, 즉 commons 및 행위를 뜻하는 commoning의 의미를 우선하며 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유’는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통용되는 단어이며, 그들은 ‘공유(share)’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연구자가 추구하는 ‘공동자원으로써의 공유’와 단순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써의 공유’ 간의 괴리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점차 좁혀가야 할 문제이다.

서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기초로 한 학교시설 공유를 위해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시설 관리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학교지원센터³³⁾의 역할 및 기능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시설 공유는 단위학교의 인력과 사업 역량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단위학교는 단순히 공간과 시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유 과정 중에 시설 관리 및 안전 책임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에 단위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연계 한다면 학교시설의 공동자원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지원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발굴하며 지원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³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한 부서로 설치된 유형, 편제상으로는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지원 정책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된 유형, 별도 조직이나 기관을 두지 않고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학교 지원 정책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형, 직속기관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표 2〉 학교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교무 업무 지원	- 강사 인력풀 운영(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강사 적기 채용 지원) - 기간제 교원 인력풀 운영(경력 및 자격 등 상시 현행화) - 교원 호봉 승급 업무(호봉 승급 및 자료 검증) - 교원 호봉 재확정 업무 지원(호봉 재확정표 작성 지원) -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분쟁 조정, 법률 지원, 치유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외부강사

33) 지역마다 명칭은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센터, 교육시설지원센터, 학교교육지원센터,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지원단 등으로 다양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하봉운,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가칭)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 39~91면.

34) 김지연 외, 「202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심층기능진단 보고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14~93면.

	선정 지원) - 현장체험학습 지원(산하기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차량 계약)
	행정 업무 지원 - 학교시설 관리 지원(배수로 정비, 학교 숲 조성, 비기록물 파쇄, 관리 장비 대여, 차량 지원) - 시설 법정 용역 계약 업무 지원(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정용역 계약 및 비용 정산) -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지원(위탁 및 기기 대여) -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관리 지원(소독 및 정기 시설 검사) -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지원(채용, 용역 계약 등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 지원) -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나이스 급여 교육 및 컨설팅) - 지방공무원(공무직) 보조(대체) 인력 채용 지원(인력풀 운영) -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 업무 - 교과서 배부 업무(학생 교과용 도서 배부 인력 지원)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하봉운(2022);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2023)에서 재구성.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표 2>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력, 재정, 시설 제공을 통해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축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학교의 업무를 타 조직과 기관으로 조정하는 이관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본질로 회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는 학교지원센터의 특성과 다음의 역할에서 학교시설 공동자원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시설 공유를 위한 기초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조직 체계 내 행정업무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 관리 지원, 시설 법정 용역 계약 업무 지원, 학교 안전 관련 업무 지원, 환경 관리 지원 등의 업무 구조화를 통해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업무와 유사성이 높은 학교시설 공유 사업 관련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범위 확대는 업무 과중에 관한 우려에 따라 적절한 역할 구조화와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인력 지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로부터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책무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시설 공유를 위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성장 지원 등 교육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시설 공유 사업의 안착 가능성을 높인다.³⁵⁾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학교지원센터·단위학교 간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중간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학교시설 공유 사업의 진행에서 단위학교는 시설 관리 및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교육청은 법령 및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연계되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해야 하는 법령 검토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양방향적 소통의 역할을 할 중간자가 필요하다.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공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시스템으로는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협의체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5.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실제

앞선 논의에서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 이론 분석과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 및 재화 분류 범주 내의

35) 시·도 교육청은 정기적으로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단위학교들의 공통 업무 중 지원이 가능하면서도 지원에 따른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하봉운,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가칭) 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 87면.

차원을 알아보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분석을 토대로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논의를 토대로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입각한 단위학교 시설 공동자원화의 실제 방안을 넓은 범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³⁶⁾

본고에서 설정한 학교시설 공동자원화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 공동자원화 사업은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들의 삶에 관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있으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학교지원센터-단위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공동자원으로써의 학교에 대한 명확한 경계 구분과 이에 따른 감시 활동 전개, 점증적 제재 조치와 갈등 해결 장치의 마련과 실행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더불어 해결하는 학교시설 공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는 사업 기반 조성 및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단위학교가 지닌 조건에 부합하며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현장맞춤형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는 협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집합적 선택 장치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시설 공유를 위한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구상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표 3〉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설계 중점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환경 조성 - 학교시설 관리 홈페이지 고도화 실시 - 사업 간 중복 최소화 및 연계 강화 - 디지털 기반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 이용 대상과 범위를 담은 기초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학교시설 공유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마련된 시설 운영 주체 명확화

36) 본 장에서 다루는 8가지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와 시설 공유의 실제에서는 각각의 원리가 명확한 경계 구분이 없을 수 있으며, 하나의 추진과제가 하나의 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각적인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교하라』, 갈무리, 2015, 59면.

37) 범죄예방디자인은 감시(surveillance)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 공동체 강화(community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 부합성	-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침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규칙 수립 - 사용자 대상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학교 공유 시설 현행화 자원 지도 제작 및 보급 - 사업 여건에 맞춘 과정 평가지표 개발 - 업무담당자와 시설 사용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 구성 및 활용 -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환류 및 누적 관리
3) 집합적 선택 장치	- 다채널 협력 체계 구축 - 협의 정례화 방안 마련 - 정책 지원단 운영 - 전문가를 통한 상시 컨설팅 제공 - 법률지원단을 통한 자문 제공
4) 감시 활동	- 기존 학교 인력의 역할 변화 및 처우 개선 - 외부적 관찰자 고용 및 지원인력 배치 - 감시 활동에 관한 규정 정비 - 인력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 지원 -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³⁷⁾ 반영 학교시설 개선 - 인공지능 기반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 모션 인식 출입 및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5) 점증적 제재 조치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본적인 조치 마련 - 단위학교 중심의 제재 조치 추가 마련 및 일부 규칙 수정 - 부정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와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병행 사용 - 점증적 제재 조치에 따라 감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방안 마련
6) 갈등 해결 장치	- 단위학교 내 ‘학교 공유 시설 운영위원회’ 협의체 구성 - 학교지원센터 등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운영 기초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제공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실시 - 단위학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증거 기반 사업 계획 수립 -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단위학교 자체 운영제도 구안 방안 마련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상호협력을 통한 단계별 계획 수립 · 1단계(1년 차): 시범 운영, 데이터 및 사례 수집,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2단계(2년 차): 확대 운영,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즉각 수정 보완(애자일 방식 채택) · 3단계(3년 차): 운영 안정화, 우수사례집 보급 및 모니터링, 운영의 질 제고

위 <표 3>과 같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를 위해서는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학생·교직원·지역 주민이 모두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과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 규칙을 마련해 교육활동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집합적 선택 장치를 두어 지속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시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AI 기반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문제 발생 시 점층적 제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 규칙 준수를 유도하며, 선의의 규칙 위반자와의 갈등은 단위학교 내 구성된 시설 운영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지원센터 등 여러 층위가 협력하는 중층적 사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운영-확대 운영-안정화의 단계별 추진으로 운영의 질을 높인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초 매뉴얼과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하고, 수요조사와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계는 학교시설을 공동자원으로 재구조화해 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역

building) 등 3요소로 정리되며 기본 원리와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와 관련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범죄 또는 불안감을 예방하고 저감시키는 맞춤형 전략이다.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cpted.kr): CPTED의 이해』 참조

사회 내 커뮤니티 자원으로써 기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6. 나가며

지난 150년에 걸쳐 건축가와 공공보건 전문가, 철학자, 공무원, 교육자,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얻은 교육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학교 건물과 교실 같은 물질적 형태를 떠먼저 대중적 공교육이라는 특별한 사회기관이 되었다.³⁸⁾ 더불어 최근 학교는 학생·교사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의 보장과 지역 중심 커뮤니티로써 문화·체육·자치 등과 관련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이처럼 학교는 ‘공동자원의 형태’로 도시커먼즈 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론에서 일부 한계로 지적된 사항, 즉, 공동자원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행동 및 사고 양태, 인간과 자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특질,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과한 점과 정치를 배제하고 연구한 점은 공교육 체제 내에 있는 ‘학교시설 공유’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³⁹⁾ 그렇기에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가 지닌 단점은 오히려 학교시설 공유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한계’가 된다. 학교는 공적 영역에 속해있으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자원으로 활용되며 교육구성원(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우선 활용이 담보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8)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109면.

39) 공동자원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행동 및 사고 양태와 인간과 자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특질에 관한 고민은 앞서 언급한 제3장 공동자원으로써의 학교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의 차원에 따르면 후순위로 밀려난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권을 지닌 공동자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양상과 학교문화에 관해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기반한 학교 자치 형태 분석과 같은 다른 범주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는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최근의 시도들도 벗어나 있는 상태이며 학생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 등 정치 원리에 대해서 교육하되 교원의 ‘정치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따른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했다. 먼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에서의 차원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공유(share)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사용권을 지닌 교육구성원(학생, 교직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회원제적 특성을 지닌 공동자원(common)으로 그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기능 및 운영에 관해 분석하여 단위학교 대상의 단순한 교무 및 행정업무 지원 기관으로써가 아닌 학교시설 공동자원화 가능성을 확장하는 가교로써 기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적으로 규칙이 지녀야 할 특성을 새롭게 포함한 단위학교 시설 공동자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론에서 실제에 이르는 방대한 연구를 짧은 논의 안에 압축함으로써 논리적인 비약과 성급게 짜인 부분이 존재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더하여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재구조화와 조직 개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공유는 자칫 상명하달식의 사업으로 단위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우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학교지원센터의 교육행정 권한 이양과 위임, 조직 개편,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이익 구조를 분석하여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이르는 사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동자원적 관점에서 단위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논의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5장의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실제에서는 이론적 근거에 따른 논리적 방안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여 제안에만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교육행정 영역에서 보다 세부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보다 깊고 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강은숙·김종석,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한국행정논집』 25(2), 한국정부학회, 2013, 531~555면.
- 강은숙·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 교육부 교육시설과, 2023.
-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
- 광주광역시교육청·하봉운,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가칭)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업무 안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023.
- 김민희·김지연·나민주·박상완·박소영·이정미·장덕호·오혜근,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혁신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 김성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4.
- 김중래, 「주민에 학교 개방해도 괜찮을까요」, 서울신문, 2023.
- 김지연·나민주·박상완·박성민·박소영·오혜근·이다현·이상철·이호준·장덕호, 「202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심층기능진단 보고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 김진한·신현석, 『학교경영론』, 교육과학사, 2012.
-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 서현아, 뉴스브릿지-60년 금기 ‘교사 정치기본권’ 실현가능성은, EBS, 2025.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616296/H?eduNewsYn=&utm_source=chatgpt.com
-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2010.
- 안명희·이태화, 「오스트롬의 커먼즈 이론 관점에서 들여다본 도시커먼즈의 재해석」, 『공간과 사회』 34(1), 한국공간환경학회, 2024, 151~198면.
- 이현경·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 장훈교, 「엘리너 오스트롬의 ‘다중심적 접근’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와 이론』 35,

- 한국이론사회학회, 2019, 101~137면.
- 정남식, 「남해 다랭이 논 의 협력적 관리원칙 연구: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원칙을 중심으로」 37(2),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2019, 53~74면.
- 정영신,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ECO』, 2014, 205~214면.
-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2016, 399~442면.
- 최현·파이싱성,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8, 한울엠플러스, 2015, 166~198면.
- 크리스티안 보르치(Christian Borch)·마르틴 콘버거(Martin Kornberger), 『도시커먼즈: 도시를 다시 생각하다』, KRIHS 국토연구원, 2023.
- 한국통계진흥원, 『교육기본통계: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24, 통계청.
- Amanda Huron,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Urban Studies』, 2017, pp.1~8.
- Cecilia Melandri, 「Commoning the city: From imagining alternative futures to co-producing them」, 『Urban Studies』, 2021, pp.481~497.
- Foster & Iaione, 「Ostrom in the Cit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Urban Commons」, 『the nature of cities』, 2017.
- Maurits de Jongh, 「Public Goods and the Commons: Opposites or Complements?」, 『Sage Journals』, 2021, pp.1~27.
- Sheila R. Foster & Christian Iaione,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 Policy Review』, 2016, pp.282~307.

| Abstract |

School Facilities as Commons

— Applying Elinor Ostrom's Design Principles —

Yu, Jin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commu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ased on Elinor Ostrom's design principles for managing institutions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defining unit schools as commons. In contemporary society, schools are expected to function not only as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as central hubs of local communities, fulfilling their roles as commons and common goods. However, existing policies on school facility sharing face significant limitations, including the lack of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cooperative systems between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concerns among school stakeholders,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ystematic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Ostrom's design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unit schools, discusses the categorization of schools within the commons framework, evaluates the role of school support centers in facilitating facility sharing, and proposes a strategy for communalizing school facilities in alignment with Ostrom's principles. Findings highlight that clearly defined boundaries, locally adapted rules, collective decision-making mechanisms, monitoring and sanctioning systems, and conflict-resolu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for revitalizing the communal use of school facilitie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expand and sustain effective communal management of school facilities.

Key Words: Unit School, Commons, Facility Sharing, Elinor Ostrom, Design Principles for Managing Institutions

감정의 정치학으로 읽는 K-드라마 가족극

— <폭삭 속았수다>의 서사와 수용의 권력 구조 —

이은희*

목 차

1. 서론	2-2. 감정의 정치성과 가족 서사
2. 내적 서사에서 사회적 수용으로 확장되는 감정정치	2-3. 수용자 감정 조율과 권력의 내면화
2-1.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애순 중심의 3세대 여성 서사 분석	3.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K-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사례로 감정의 정치학이 가족 서사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 드라마는 표면적으로 주체적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가족극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감정 윤리의 내면화를 통해 구조적 위계와 젠더 억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서사적 장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인공 애순은 ‘요망진 반향아’라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수동적 위치에 놓이며, 감정 억제와 타인에 대한 헌신을 통해 수동적 여성상을 재현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감정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직된 윤리적 명령이자 권력 정당화 수단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감동’이라는 감정 코드는 희생과 침묵, 인내를 정서적 윤리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위계 구조를 자연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드라마 외부의 수용 환경 분석을 통해, 비판적 시각이 ‘정 없는 사람’, ‘감정 결여로 간주하는 감정적 문화 규범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동의 공유를 통한 정서적 합의 형성이 시청자의 감정적 주체성을 제한하는 정서 통제 장치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 한양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대중문화시나리오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K-드라마에서 ‘감동’이 단순히 긍정적 정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 연구에서 감정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의 윤리화 과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감정의 정치학, K-드라마, 가족 서사, 젠더 위계, 사라 아메드, 감동, 정서 통제

1. 서론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극은 오랫동안 중심적 장르로 기능해 왔으며,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가족극과 멜로드라마의 경계가 중첩되기 시작했다. 이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사랑이 뭐길래> (MBC, 1992)이다.¹⁾ 이 작품은 전통적 가족극의 세대 간 갈등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연애와 욕망, 혼전임신, 부부 갈등, 시댁 갈등 등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적극 전면화함으로써 가족 이데올로기와 사적 감정의 긴장이 동시에 전개되는 서사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아들과 딸> (MBC, 1992~1993)과 같은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며, 특히 여성 인물의 욕망과 독립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²⁾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2017, KBS2),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2020, KBS2),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2019~2020, KBS2), 모두 다양한 장르의 종편 드라마의 활약,³⁾ OTT의 비약적 발전⁴⁾이라는 위기 속에서 최고 시청률 30%대를 넘기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1)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Vol.22 No.-[200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2) 윤진석, 「드라마 여성 캐릭터 변천사 - 70년대~2000년대 -」, 『에브리뉴스』, 2015.04.15. <https://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5>

3) 김관규, 「방송계 판을 뒤흔든 종편...시청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매일경제』, 2014. 7.4. <https://m.mk.co.kr/amp/6160189>

4) 최영호, 「국민 10명 중 8명 OTT 본다... TV 시청자는 감소」, 『MADTIMES』, 2025.1.2.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22730>

가족극이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장르적 소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드라마는 시대의 아픔을 감성적으로 포착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과 세대 간 화해, 침묵과 감내의 미학을 담아내며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청자의 소구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만나 폭발한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오애순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는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세대 간 갈등과 또래 간 관계를 교차적으로 서사화하며, 전통 가족극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확장한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한국 가족드라마의 반복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 애초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기획, 제작된 K-드라마이기 때문이다.

K-드라마(K-Drama)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아우른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작품들로 로맨스, 범죄, 스릴러, 판타지, 역사극 등 다양한 장르적 변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 및 해외 시청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⁵⁾ 이들 K-드라마는 비교적 짧은 편수(보통 12~16부작)와 빠른 전개, 감각적인 연출을 특징으로 하며, ‘선택된 가족’이나 동료, 친구, 연인 관계와 같은 현대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갈등, 초현실적 상상력 등 보다 다층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며 글로벌 보편성에 호소한다.

Steve Choe는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한국적 정서를 체화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감정적 간극(affective interlude)’ 개념⁶⁾을 제시하며, 이를 K-드라마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감정적 체험을 구성하는 핵심적 서사 전략으로 규정한다. 그는 K-드라마의 본질이 바로 시청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순간에 있다고 분석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뚜렷이 드러

5) 배기형·김치형,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Vol.-No.25』,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6) Steve Choe, “Melos in the World of K-Drama,” *Korea Europe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ics*, No. 3,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chool of Cinema.*, 2022.

난다. 그 결과,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왓챠피디아 HOT 10'에 따르면, 16부작인 <폭삭 속았수다>는 5부 공개 이후인 2025년 3월 2주 차부터 4월 1주 차까지 4주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왓챠피디아 HOT 10순위를 집계한 이래 최초이다.⁷⁾ 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의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론티에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TV 시리즈 전체 5위에 오르기도 했다.⁸⁾

본 연구는 <폭삭 속았수다>가 한국의 전통적 가족 서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감정적 간극(affective interlude)'을 성공적으로 재현한 K-드라마라는 점에서 왜 지금도 대중은 이러한 가족극에 감동하고, 구조적 위계와 정서적 억압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한국적 문화 맥락에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물론 이러한 감동이 단순히 감정적 공명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감동의 출발은 1950~80년대 한국근대화기의 사회상을 재현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의지에 기인한다. 더불어 그간 위와 같은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제주라는 지역과 가난한 해녀 집단⁹⁾을 조명하고 있다는 희소성도 그 이유가 된다. 또한 스타의 이미지와 캐릭터의 결합이 시청자의 몰입을 극대화한다는 면에서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아이유, 박보검이 극중인물의 도덕성과 겹쳐지며 감동을 유발하기도 한다.¹¹⁾ 세밀한 고증과 대규모 세트, 소품의 정교한 재현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시청자의 몰입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시청자들은 작품 속 서사나 젠더 재현의 한계에 대한

7) 김기중, 「'폭삭 속았수다' 4주 연속 1위 '최장 기록', 왓챠 순위」, 『서울신문』, 2025.4.4.
<https://www.seoul.co.kr/news/life/movie/2025/04/04/20250404500064>

8) 박진영, 「'폭삭 속았수다', 전 세계 올렸다. 글로벌 5위 흥행」, 『조이뉴스24』, 2025.3.17.
<https://www.joynews24.com/view/1823661>

9) 고훈,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연극영화과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10) 오유정, 「제주 해녀의 미디어 재현에 관한 서사 분석 : TV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성차 및 타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언론홍보학과 학위논문(박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

11) 정규수, 『스타시스템 |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42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해녀였던 어머니의 죽음 이후 소꿉친구와의 결혼, 시댁 살이, 자녀 양육, 딸 양금명과의 세대 간 갈등과 화해는 기존 여성 서사의 재현이기 때문이다. 애순의 삶은 주체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수동적 생존의 반복으로 그려지며, 부모의 헌신은 자녀의 욕망을 억제하는 윤리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는 김수아¹²⁾가 지적한 ‘한국 드라마 여성 주인공의 능동성 환상’ 문제와 직결되며, 홍지아¹³⁾의 모성 이데올로기 연구에서 제시된 희생 서사 구조의 반복일 뿐이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일부 시청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들 소수 담론으로 한정되고, 전체적인 대중적 수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감정적 감동이 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무비판적 대중적 감동은 정서적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적 억압과 위계, 정서적 통제라는 문제의식을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내포한다. 주류 가족극은 감동과 화해의 정서 코드로 인해 구조적 불평등과 젠더 위계에 대한 비판을 약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서의 가족 서사는 오랜 시간 동안 ‘희생’과 ‘화해’, ‘정서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부모의 헌신은 사회적 미덕으로 정당화되는 대표적 도상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닝의 장편소설 『변화 마을 이야기』를 전통적인 ‘가족’ 서사를 따르며, 전통적 성별 역할에 충실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를 증명하는 배도임, 임가연의 연구가 그렇다.¹⁴⁾ 이러한 연구에서 가족 서사는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반복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감정 중심의 정서나 눈물, 침묵의 미학이 더해질 경우 대중의 감상적인 수용 과정 속에서 비판이 흐려지곤 했다.

반면 대중문화 수용 연구에서는 감정의 역할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2) 김수아,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주체들 - 디지털 미디어 시대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Vol.19 No.1, 한국여성연구소, 2019.

13) 홍지아, 「TV 드라마에 나타난 모성 재현의 서사 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Vol.23 No.6, 한국방송학회, 2009.

14) 배도임, 임가연, 「테닝의 장편소설 『변화 마을 이야기』의 ‘가족 서사’ 읽기」, 『중국지식 네트워크』 Vol.24,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4.

김근호는 ‘반전’이란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미적 특성은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학적 반응이라는 가설을 세워 김유정 소설을 분석하였다.¹⁵⁾ 김현주는 이광수의 『무정(無情)』을 대상으로 하여 1910년대에 ‘개인’과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관념의 형성에 ‘감정’, 특히 ‘동정(同情)’의 논리가 개입한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⁶⁾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논의가 감정의 ‘효과’나 ‘정서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을 뿐 감정 그 자체가 어떻게 권력과 윤리의 언어로 작동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감정의 정치학(Cultural Politics of Emotion)’을 기반으로 진행된 분석은 국내외 소설 작품에 국한되어 있다. 이다온¹⁷⁾은 1930년대 신여성 작가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정치성을, ‘주체(우리)’와 ‘타자(너)’를 구별하는 문화정치의 관점에서 감정의 정치적 수행성을 강조한 사라 아메드의 이론을 토대로, 여성 인물들이 드러내는 감정의 양상을 재평가했다. 김혜윤¹⁸⁾은 ‘감정의 문화정치’를 이론적 틀로 삼아 혐오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N. K. 제미신(N. K. Jemisin)의 『부서진 대지』 삼부작(The Broken Earth TrilogY) 중 첫 번째 작품인 『다섯 번째 계절』(The Fifth Season)을 분석하였다. 이선진¹⁹⁾은 ‘감정의 사회성 모델’을 분석 틀의 일부로 삼아 사파이어의 소설 『푸쉬』(1996)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프레스셔스의 억압과 역능(力能) 갖추기에 관한 이야기의 감정적 차원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K-콘텐츠를 대상으로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15) 김근호, 「김유정 소설에서의 반전과 감정의 정치학」, 『한중인문학연구』, Vol.55 No.-[2017], 『한중인문학회』, 2017.

16) 김현주, 「1910년대 개인, 민족의 구성과 감정의 정치학 - 이광수의 <무정(無情)>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N/A)』, Vol.0 No.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7) 이다온, 「1930년대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정치성: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감정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Vol.-No.74, 한국현대유럽철학회, 2024.

18) 김혜윤, 「감정과 차별의 이데올로기: N. 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의 억압 구조 분석」, 『비평과 이론』, Vol.30 No.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5.

19) 이선진, 「감정의 정치학 - 사파이어의 <푸쉬>」, 『영미연구』, Vol.44 No.-[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8.

이 이론은 감정을 단순한 개인적 반응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통되는 ‘윤리적 명령’으로 파악한다. 감정이 무엇을 정당화하고 무엇을 은폐하며, 어떤 감정만을 승인하는지를 질문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내부의 서사 구조는 물론, 수용 환경 전반에 작동하는 감정의 권력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한 여성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가족 중심 드라마이지만, 그 내면에는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관계를 조직하고 갈등을 은폐하며, 정서적 수용을 강제하는지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감정 장치들이 작동한다. 이 드라마는 가족 내 갈등, 세대 간 단절, 젠더 권력의 비대칭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그 서사적 긴장감은 감정적 화해와 서정적 영상미를 통해 완충되며, 시청자는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수용한다. 사회적 위계와 권력관계, 억압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이라는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장치를 통해 그것들을 조율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메드의 감정 정치학 이론과 한국의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그리고 여성 서사 재현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드라마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감정 정치를 증명하는데 있다. 드라마 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주체적 여성 서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동적 여성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비판적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연출과 영상장치를 통해 감정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드라마 외적으로는 이러한 드라마에 비판적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부정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담론적 분위기 또한 감정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드라마 외부에서 작동하는 감정 정치의 일환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감정 정치의 작동 방식이 <폭삭 속았수다>의 모든 수용자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작품이 보여주는 가족 간 애정, 희생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인생 서사의 진정성을 근거로 가족제도에 대한 성찰적 해

석을 제시한다. 또한 창작자의 서사적 의도가 반드시 젠더 위계의 유지나 억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현하려 한 시도로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처럼 수용자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감정의 정치 역시 항상 권력 유지 논리로만 작동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본 연구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중심으로 감정 정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구조적 위계와 억압이 정서적 동의 속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감정에 대한 비판적 독해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2. 내적 서사에서 사회적 수용으로 확장되는 감정정치

1)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애순 중심의 3세대 여성 서사 분석

오늘날 드라마 서사에서 ‘주체적인 여성’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여성’이란 ‘자기 통치(self-government)’로서의 자율성, 전통적·남성 중심적 자율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주장하는 인물²⁰⁾로서 심지어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조차 ‘센 언니’로 대변되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주요 인기 요인으로 삼고 있다.²¹⁾ CNN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예로 들며, “K-드라마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맞서거나, 여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여성상’이 빈번히 등장한다고 분석했다.²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20) Catriona Mackenzie,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 Pr on Demand*, 2000.

21) 정재현, 「지상파 장르물, 여성 서사, 퀴어」 - 2024 드라마의 경향과 트렌드, 『씨네21』, 2024. 12. 20. https://cine21.com/news/view/?mag_id=106617

22) Hahna Yoon, “The rise of the K-drama heroine,” CNN, 2023. 1. 14.,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korean-dramas-changing-representation-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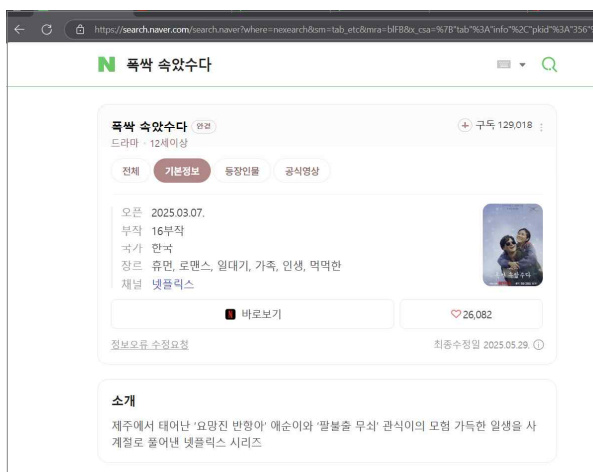


그림 1. 포털사이트 네이버 <폭삭 속았수다> 소개 페이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요망진²³⁾ 반항아” 애순의 일생을 제주도라는 지역성과 함께 사계절에 걸쳐 풀어내는 여성 중심 서사로 소개되었다. 이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한 수용 욕구와 맞물려 화제성을 얻었다. <폭삭 속았수다>의 가장 강력한 감동 동력은 3세대 여성 인물인 광례-애순-금명으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적 여성 서사에 있다. 각 인물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전환기에서 여성으로 살아간 경험과 그로 인한 갈등, 선택,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구현한다. 어머니 광례는 해녀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헌신적 여성상으로, 헌신과 모성을 통해 공동체적 정서를 재현하는 동시에, 재혼이라는 주체적 선택을 통해 전통 여성상 내에서 균열을 내는 인물이다.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그녀의 삶은 가족 중심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자기 삶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통과 근대의 교차점’에 선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중간 세대인 애순은 어머니 세대의 정서적·도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제약 속에서 수동성과 능동성 사이를 오가는 ‘근대적 모순’을 내면화한 여성상이다. 그녀는 관식과의 관계에서 가부장제의 틀을 거부하지도, 완전

23) 제주 방언으로 ‘아무지다, 똑소리 난다’라는 의미이다.

히 벗어나지도 못한 채 존재하지만, 관식의 실천적 선택에 부응하며 조심스럽게 변화해 간다. 전통과 포스트 근대 사이에서 경계에 놓인 ‘이행기의 여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금명은 이러한 모순의 계보를 자각하며 단절하고자 하는 세대이다. 그는 억압적 가부장제와 빈곤의 대물림을 인식하고, 독립과 자아실현을 향한 내적 투쟁을 감내함으로써 포스트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해 나간다. 금명은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가 감당한 희생의 구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며, 자율성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지향하는 딸의 형상을 제시한다. 그녀의 서사는 단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여성 주체의 세대 간 연속성과 단절성을 교차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장치이자, 드라마 전체의 윤리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심축이 된다.

세 인물의 삶과 선택은 전통-근대-포스트 근대 여성상이 수직적·선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고 교차되며 갈등하는 문화적 지층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부장적 질서를 내면화하거나 거부하고, 생존과 돌봄, 자율성과 관계 맺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구성한다. 하지만 <폭삭 속았수다>가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한국 여성사의 감정 구조와 시대적 지향이 교차하는 정동적情動的 연대기로 읽힐 수 있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인공인 애순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 작품이 제시하는 여성 주체성은 표면적 표방에 그칠 뿐, 실질적 주도성과 자율성은 반복적으로 타자에게 의존하거나 상실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드라마 초반부에서 어린 애순은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그녀의 양육 환경은 광례의 결단에 따라 바뀌며, 이후의 삶 역시 새아버지의 약속에 종속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가족 부양이라는 현실 속에서 선택의 여지는 줄어든다. 상업 활동조차 애순이 아닌 관식이 주도하며, 주체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다. 애순의 삶은 반복적으로 남성 또는 타인의 결단과 선택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관식과의 도피, 시집살이, 자녀 양육 등 주요 국면마다 애순은 울부짖고 반응할 뿐, 결정권을 갖고 움직이는 인물은 주변의 타자들이다. 드라마는 간혹 애순의 분

노나 도발(예: 실세 계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장면)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는 종종 구조적 억압에 대한 실질적 저항이라기보다 감정적 일탈로 처리되며, 시청자에게 ‘통쾌함’보다는 ‘무력함’을 각인시킨다.

특히 극 중반 이후 애순의 서사는 모성 중심의 자기희생 서사로 급격히 전환된다. 자녀를 위한 희생, 가난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구조, 자식을 위한 분노의 침묵은 모두 과거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현신적인 어머니의 재현이다. 결국 애순은 “주체적 여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가족 내 여성의 확장된 상징에 머문다. 물론, 드라마는 애순이 마침내 시집을 출간하는 결말로 나아가며 일종의 자기 서사의 복권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 또한 타인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며 그마저도 ‘보상적 장치’에 가깝다.

이러한 모순적 서사에도 불구하고 점차 비평적 감수성이 강화되고 있는 동시대 시청자들이 유독 이 작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감정의 정치성과 가족 서사

사라 아메드는 감정을 ‘사회적으로 흘러 다니는(circulating)’ 힘으로 보며, 감정이 특정 대상이나 관계에 부착됨으로써 사랑, 희생, 연민, 두려움, 혐오 등의 감정이 규범적 판단의 기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²⁴⁾ 이러한 감정의 분포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윤리적 질서를 구성하며, 권력과 위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정착시킨다.

특히 가족극은 이러한 감정 정치의 메커니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르로, 부모의 희생, 자녀의 효도, 세대 간 화해와 같은 감정적 코드를 통해 가족 질서의 정당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개인의 자율적 반응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조직된 윤리적 실천으로 기능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범화하고, 시청자는 이러한 감정 질서를 내면화함으로써 구조적 위계나 억압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24)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43~44면.

아메드가 지적했듯 감정은 단순히 감각되는 차원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실천으로 작동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로 희생과 침묵, 감내를 정당화하며, 시청자 역시 그 질서를 긍정하고 수호하는 감정적 주체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문학에 대한 애순의 오랜 꿈은 그녀의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지만 시 쓰기는 정서적 위안으로만 머무르며 주체적 전략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모친 광례의 죽음 역시 애순에게 중요한 정서적 전환점이지만, 그녀의 능동적 선택보다는 갑작스러운 상실에 따른 생존적 반응이다. 어머니의 부재는 여성으로서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강제하며, 이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이뤄진 수동적 삶의 이행이다. 결혼 또한 당시 여성에게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의 필연적 순응이었다. 작은아버지 집에서 얹혀살며 받았던 압박을 피하고자 관식과 부산으로 도피한 애순은 결혼 후 시댁과 가난, 가족 내 갈등을 관리하는 조정자이자 돌봄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의 수행이며, 그녀의 주체성을 희석하는 과정일 뿐이다. 장사를 시작하고 배를 소유하는 일 역시 이웃과 조모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노년에 출간한 시집은 표면적 자아실현으로 보이나, 실제로 딸과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적으로 의존적인 성취이다.

애순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 아들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조차도 애순이 삶의 방향을 재편하거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 침묵과 감내를 강조하며, 한국적 모성의 내면화를 전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사라 아메드가 말한 감정의 ‘정서적 방향성(affective orientation)’이 시청자에게 집중되며, 금명과 은명은 물론 시청자 모두가 애순의 침묵과 희생을 ‘이해’하고 ‘감탄’하게 되는 감정 윤리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다.

아메드는 감정이 개인에게 내재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통되는 매개물이며,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향하는 정서적 방향을 통해 ‘우리’와 ‘타자’를 구분 짓는 경계선을 형성한다고 본다.²⁵⁾ 장년 애순이 가족을 위해

2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20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은 이러한 감정 정치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 감정은 그녀 개인의 내면적 상태로만 제시되지 않고, 자녀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시청자의 연민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이처럼 감정은 특정 대상(부모)에게 방향성을 집중시키며, ‘이해하는 자녀’와 ‘이기적인 자녀’를 구분하는 정서적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구성한다.

이후 애순의 희생은 관식과 더해지며 ‘부모’라는 인물에 전이된다. 애순과 관식은 헌신적이고 따뜻한 부모로 묘사되지만, 이들의 실제 양육 방식은 자녀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금명이 부당한 시댁 요구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 저항 대신 무탈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며 종속적 여성 역할을 암묵적으로 강화한다. 둘째 아들 은명에게는 표면적으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통제와 폭력적 질책을 통해 은명의 자존감을 저하한다. 부모의 차별적 태도는 금명에게는 죄책감을, 은명에게는 열등감과 무력감을 안겨준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감정적 회피를 유도하는 행위는 부모의 희생을 빌미로 자녀들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유도한다.

그 결과, 금명은 공부와 사회적 성공을 통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만, 그 성취가 부모의 자부심을 대리적으로 실현하는 도구가 되며 정서적 착취와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반면 은명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기대 속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반복되는 질책과 인정 욕구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금명과 은명은 각각 ‘성공한 자녀’와 ‘문제적 자녀’로 규정되며, 부모의 감정 서사 안에서 독립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심리적 대리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서사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감동적인 가족드라마로 소비되는 양상은 단순히 서사 전개나 인물 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작품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분위기와 감각적 배경이 시청자의 해석과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 Choe가 말한 ‘감정적 간극(affective interlude)’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는 대체로 서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춘 채, 슬로모션, 클로즈업, 배경 음악 등의 연출을 통해 감정을 시각화하고, 시청자의 정서적 리듬을 드라마의 흐름

과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K-드라마 특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²⁶⁾고 보았다.

<꼭꼭 속았수다>는 정확히 그 보법을 같이한다. 반복적으로 대사 대신 음악이 함께 깔리는 정지된 순간을 보여주어 서사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감정이 연장되며 시청자와 감정이 동기화되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 시청자의 감정이 드라마의 흐름에 맞춰 흐르도록 ‘리듬’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회상 장면(플래시백), 느린 편집, 클로즈업, OST 등 감정적 몰입 장치가 복합 작용한다. 가장 큰 감정적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명의 죽음 시퀀스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6화에서 감독은 동명의 죽음을 맞이한 애순과 관식의 비통한 울음소리 대신에 짧은 절규와 음악으로 채운다. 그리고 16화에 그 죽음을 대하는 애순 부부의 역사 시퀀스에서 또한 적극적인 슬로모션과 배경 음악 등을 활용해 감정을 극한으로 끌고 간다. 이러한 연출은 감정의 분출이 아닌 억제된 정서를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애순의 감정에 정서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더불어 ‘제주’라는 이질적 공간성과 자연주의적 연출을 통해 서사의 감정적 밀도를 높인다. 바다, 바람, 고즈넉한 마을 풍경은 인물들의 고통과 갈등을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덮어 감정적 동요를 완화한다. 또한 향수를 자극하고, 시대적 고난과 가족 서사의 결합을 통해 감정적 진정성과 순수성을 강조한다. 결국 제주라는 지역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의 불편한 지점을 은폐하고 감정적 타협을 정당화하는 적극적 장치로 작동한다. 풍경 중심의 연출과 향수를 자극하는 과거 공간 재현은, 감정적 안정과 정서적 동질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판적 성찰을 무력화하고, 감정의 정치학이 지적하는 권력 구조의 은폐에 이바지한다.²⁷⁾

이러한 ‘풍경의 감성’은 시청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인물 간의 갈등이나 가족 내 모순을 구조적 문제로 보기보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기보다는 향수에 감응하며, 감정의 동일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26) Steve Choe, 앞의 논문, 9면.

27) 사라 아메드, 앞의 책, 5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드라마가 구축하는 감정적 공명은 단순한 연민이나 감동을 넘어 가족 이데올로기를 정서적으로 재생산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서정적 풍경과 감정 과잉의 미장센 속에서 심리적 정화를 유도하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a)에서 제시된 카타르시스(catharsis) 개념과도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연민(ἔλεος)과 두려움(φόβος)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화(catharsis)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²⁸⁾고 보았다. 여기서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고조된 감정의 체험과 해소를 통해 개인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윤리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인물들의 고통을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삶의 운명’이라는 정서적 틀 안에서 감정적 해소가 우선되며, 불편한 현실은 심미적 경험을 통해 순화된다. 즉,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적 정화는 비판적 거리를 무력화하며, 시청자가 기존 질서에 정서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작용으로 기능한다. 이로써 작품은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 내 착취와 억압의 문제를 정서적 화해라는 이름으로 봉합한다.

3) 수용자 감정 조율과 권력의 내면화

그럼에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방영 이후 세대 간의 정서적 공감을 끌어내며, 대중문화 담론에서 감동적이고 따뜻한 가족 서사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젊은 시청자들은 금명과 은명의 시선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 자립의 어려움, 심리적 갈등을 공유하고, 중장년층은 오애순과 양관식의 삶을 통해 희생과 인내, 그리고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되돌아본다. 특히 기성 세대는 오애순과 관식의 인물상을 통해 자신들의 헌신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정서적 공간을 얻는다. 이들의 삶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자 ‘가족을 위한 최선’으로 소비되며, 비판적 성찰보다는 감정적 동일시를 촉진한다. 그 결과 부모의 헌신과 가족의 의미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며, 시청자에게

28) 아리스토텔레스, 박문जे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현대지성, 2021, 26면.

‘감동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정서적 윤리를 제시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눈물과 침묵, 깊은 애정으로 포장되는데, 이는 감정적 정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수용된다. 이때의 감정은 이 드라마에서 비판적 사유의 동력을 차단하고, ‘감동’이라는 이름 아래 시청자를 서사의 질서에 감정적으로 종속시키는 정치적 작용체로 기능한다.

감정은 단지 서사 내 인물 간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감정의 방향성(orientation), 순환(circulation), 점착성(stickiness)을 통해 감정 윤리를 고정화하는 역할을 한다.²⁹⁾ 애순과 관식으로 대표되는 ‘착한 부모’는 한국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적 도상으로, 감정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이 서사는 부모의 헌신과 침묵, 절제된 감정을 통해 가족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며, 자녀의 감정과 선택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죄책감을 각인시키는 권위의 체계로 기능한다. 애순과 관식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분출되기보다 억눌리고, 침묵과 시선, 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되며, 오히려 더욱 강한 감정적 파동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온다. 결국 이 억제된 감정은 ‘희생의 감동’이라는 서사 형식으로 재현되고 소비되며, 시청자는 이 감정 코드에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위계를 비판하지 않고 내면화하게 된다.

부모의 침묵과 헌신은 감정적으로 도덕성과 미덕이라는 정서적 가치와 결합되며,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반발이나 고통보다 부모의 인내에 더 깊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로써 감정은 윤리적 판단을 선행하고, 자녀의 비판이나 거리두기를 ‘정 없는 행동’이나 ‘배은망덕’으로 낙인찍게 만드는 감정적 위계 구조를 형성한다. 실제로 오애순과 관식의 양육 방식이나 가족 내 갈등이 지닌 구조적 폭력성은 비판적으로 성찰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서적 수용 속에서 이해되고 넘어가게 된다. 이는 감정적 공감과 위로의 체험이 문제의식의 확산보다 우선되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자녀가 겪는 갈등보다 부모의 인내에 더 큰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29) 사라 아메드, 앞의 책, 78~79면.

‘감정 도치’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감정의 도치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감정이 비판적 감정을 압도하고 대체하는 현상으로, 문화적 정서 구조에서 특정 감정을 윤리적으로 승인된 감정으로 만들고 그 외 감정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감정이 어떻게 통제되고 윤리화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부모의 헌신은 절대화되고, 자녀는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고정된다. 사라 아메드가 말하는 감정이 사회적 질서를 재생산하고 정서적 위계를 고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정서적 흐름 속에서 자녀 세대 역시 금명과 은명이 느끼는 혼란과 상처를 공유하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서사를 연민과 죄책감 속에서 수용하게 된다. 부모의 헌신은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자녀의 주체성 침해는 ‘사랑’이라는 감정적 언어로 정당화된다. 갈등은 ‘말보다는 마음’, ‘책임보다는 정’이라는 한국적 정서의 미덕으로 순화되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흐릿하게 수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공명이 종종 가족 내 착취 구조를 은폐하고, 기존 가족 이데올로기³⁰⁾를 정서적 이상화의 방식으로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감정의 동일시를 통해 비판적 거리를 상실하게 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기존 가족 질서를 정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폭삭 속았수다>의 대중적 수용 양상은 단일한 해석이나 보편적 정서 반응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한 층위를 지닌다. 본 드라마에 대한 수용 반응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 뉴스 댓글, 시청자 게시판, 커뮤니티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며, 각 플랫폼은 고유한 집단 규범과 감정 표현 방식의 문법을 갖는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채널 등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에서는 ‘폭풍 오열’, ‘다 울고 간다’와 같은 표현이 정서적 모범 사례로 빠르게 확산되며, 감정 반응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³¹⁾ 일부 블로그와

30) 문선영, 「[문선영의 문화톡톡]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둔 누군가의 이야기: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르몽드』, 2020. 8. 3., https://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5&utm_source=chatgpt.com

31) 심리로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팬들 반응 모음」, 『티스토리』, 2025. 5. 29., <https://mbookstory.tistory.com/93>

후기 기반 플랫폼에서는 비판적 서사 읽기가 병존³²⁾³³⁾하지만 ‘감동에 재를 뿌린다’는 식의 비판과 함께 비공감 클릭, 댓글 공격 등의 방식으로 주변화되기 쉽다.

정서적 수용의 ‘동형화’ 현상은 SNS 실시간 반응, 블로그 후기, 실트 해시태그 등의 공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폭삭 속았수다_감동”과 같은 해시태그³⁴⁾는 감정을 정형화하며, ‘울지 않으면 사이코패스’³⁵⁾식의 표현은 감동예의 동조를 사실상 감정 규범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이처럼 감정 표현은 자발적 반응이라기보다, 집단적으로 승인된 감정의 반복 수행으로 유도되며, ‘감정 챌린지’³⁶⁾는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용 장의 구조는 결국 감정의 규범화, 정서적 정합성의 생산과 유포, 이전에 대한 배제 구조를 동반한다. 감동하지 못하는 감정은 ‘비정상’으로 명명되거나 공감 결여로 낙인찍히며, 나아가 자녀 세대의 문제 제기조차도 ‘불효’로 전환되는 도치 구조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폭삭 속았수다>를 둘러싼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공감의 연결망이 아닌, 사회적으로 승인된 감정의 정치적 수행장으로 기능하며, 대중적 해석의 장 안에서 ‘무엇이 느껴져야 하는가’를 암묵적으로 규율한다.

이러한 반응은 시청자의 감정이 비판보다 공감과 수용을 선택하게 되는 감정 윤리가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서사에 균열을 제기하려는 시도는 정서적 합의로부터 이탈한 행위로 여겨진다. 이 감정적 명령에 응답하지 않거나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는 태도는 ‘공감 능

32) 천세곡, 「내 인생드라마에서 탈락한 ‘폭삭 속았구다」, 『브런치 스토리』, 2025. 3. 30. <https://brunch.co.kr/@721eb20a1d19472/406>

33) 김순애, 「제주 사람인 엄마, ‘폭삭 속았수다’ 1화보고 포기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5. 4. 20.,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115343

34) 오동진, 「전세계가 열광하고 ‘눈물’...‘폭삭 속았수다’ 흥행비결 4가지」, 『한국경제』, 2025. 4. 15., <https://news.nate.com/view/20250415n08922>

35) 응원단어린이, 「[질문 폭삭 속았수다 이게 정말 슬퍼요???], 『러닝 갤러리』, 2025. 3. 2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unning&no=611884>

36) 인천광역시 서구, 「마음기록함 챌린지 시리즈」, 『서구 TV』, 2025.04. <https://www.youtube.com/shorts/AkJHMM0PRTTE>

력 부족' 혹은 '정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과 마주하게 된다. 시청자는 '공감할 줄 아는 관객'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수행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정서 합의가 빠르게 형성되면,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대안적 해석은 정당성을 잃기 쉬우며, 감정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는 '다수의 감정적 질서'에서 배제되기 쉽다. 감정은 여론과 해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며, 대중이 동일한 정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견은 공감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변화된다. 감정의 집단적 동조는 <오징어 게임 1>(2021), <기생충>(2019), <헤어질 결심>(2022) 등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겪어온 '명작의 전제 조건으로 감정적 열광이 요구되는 구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³⁷⁾ 작품의 서사적 구조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비판하려는 시도는 종종 '감상에 재를 뿌리는 행위'로 간주하며, 감정이 먼저 작동하고 사고는 그 뒤를 따르는 형태의 정서 우선적 수용 방식이 문화 담론의 중심이 된다.

이 같은 정서적 합의는 시청자의 주체성을 점진적으로 소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감정이 단지 개인의 공감이나 감동의 차원을 넘어, '무엇을 느껴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암묵적 규범을 형성할 때, 감정 반응은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규율된 수용 태도의 수행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상태는 감정적 수동화(emotional passivation)로 이어지며, 감정이 본래 지닌 사회적·정치적 비판성을 거세하고 단지 위로와 안정감의 기능으로만 소비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시청자는 더 이상 질문하거나 해석하고 논쟁하는 문화적 주체가 아니라, 정해진 감동의 언어를 반복하고 확인하는 감정의 중계자로 변모한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감정의 정치학은 문화 전체의 해석과 생산 구조를 잠식하며, 비판적 담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복합적 해석과 감정의 다층적 반응이 공존해야 할 문화의 장은 하나의 정서적 규범 아래 통합되며, 문화 민주주의의 기반은 약화

37) Mei Mingxue Nan orcid logo, "Squid Game: The Hall of Screens in the Age of Platform Cosmopolitanism," *Harvard University* 2023.08.01. https://journals.publishing.umich.edu/gs/article/id/4156/?utm_source=chatgpt.com

된다. 감정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 또한 이 지점에서 더욱 커진다.

3. 결론

본 논문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정서적 동일시를 유도하는 가족 서사를 통해 폭넓은 정서적 공명을 이끌어 낸 동시에, 그 이면에서 감정이 어떻게 구조적 위계와 문화적 윤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감정의 정치학’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 작품이 서사 속에서 여성 인물의 수동성과 가족제도 내 위계를 정서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의 감정 반응까지 조직하며 특정한 감정 윤리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드라마는 부모의 희생과 침묵을 중심으로 한 ‘착한 부모’ 도상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며, 자녀의 주체적 감정이나 비판적 저항을 쉽게 ‘불효’ 또는 ‘이해 부족’으로 환원시킨다. 이러한 정서적 서사는 비판의 가능성을 감정 중심의 수용 서사로 전환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모 세대의 정서적 권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녀 세대의 감정적 자율성과 해석 주체성을 약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작품은 제주라는 이질적 공간성과 풍경 중심의 서정적 영상미를 활용하여, 구조적 폭력이나 젠더 권력의 문제를 심미적 감정으로 포장하고 정화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과 연결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모순을 잠재우는 서사 전략으로 기능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구조적 문제를 ‘공감’과 ‘이해’라는 감정의 언어로 수용하게 만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이 단지 서사 속 인물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의 수용자에게도 감정적 동조와 정서적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감정은 시청자의 해석 자유와 주체성을 규율하며, 특정한 정서 반응이 ‘공감 능력’, ‘도덕성’, ‘문화 시민성’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속에서 감정의 윤리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서적 동화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감정 경험이나 가족 내 화해로 환원시키는 탈정치화를 초래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감정의 정치학이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을 은폐하고 완화하는 문화적 진통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폭삭 속았수다>는 오애순이라는 여성 인물의 삶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개인의 운명과 모성의 숭고함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만든다. 또한 세대 간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은 결국 ‘부모의 사랑’이라는 감정적 절대성 앞에서 타협되고 봉합되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두되는 세대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적 동조와 윤리화를 왜 경계해야 하는지를 묻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문화의 감동 서사는 단순히 정서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을 넘어, 특정한 감정을 ‘올바른 반응’으로 규범화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이나 해석은 주변화되거나 무력화된다. 시청자는 작품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반응하도록 유도되며, 이러한 정서적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게 ‘공감 능력의 결여’나 ‘냉소적 태도’, ‘예민한 문제 제기’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 결과 문화적 다원성과 해석의 자율성은 위축되고, 감정은 비판적 사유의 동력이 아니라 정서적 순응의 도구로 전락한다. 사라 아메드가 지적했듯, 감정이 개인의 자율적 반응이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감정’의 수행으로 전환될 때, 그것은 해방의 언어가 아닌 통제의 언어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정은 문화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대중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권력관계를 은폐하거나 강화하는 작용체로 기능한다. 특히 <폭삭 속았수다>처럼 깊은 감동과 보편적 지지를 얻은 작품일수록, 그 서사에 내재된 젠더 권력이나 가족제도 내 위계, 감정적 통제의 구조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정서적 틀 안에 은폐되기 쉽다. 그 결과, 서사의 불균형이나 억압적 구조는 ‘정서적 일치’와 ‘감정의 동일시’라는 언어로 치환되며, 정치적 논의는 비판적 사유 대신 정서적 동의로 대체된다.

오늘날 감정은 공적 담론의 핵심 매개로 작동하며, 감동의 언어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문화 환경 속에서 감정의 정치학은 단순한 이론 적용을 넘어, 대중문화 비평에 필수적인 분석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의 설계는 수용자에게 특정한 정서 반응만을 승인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문화적 해석 주체로서 시청자의 자율성을 점차 침식시킨다. 감정은 이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덕목’으로 규정된 수행 과제가 되며, 그 수행 여부는 사회적 평가와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결국 <폭삭 속았수다>는 감정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조율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감정적 정화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감정의 권위를 문화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감정의 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감정의 윤리화 아래 은폐된 권력 작동을 포착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서적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가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폭삭 속았수다>는 바로 이러한 감정의 정치학이 외부 수용 환경까지 연장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 대중문화에서 감정이 윤리적 질서와 권력의 도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오히려 이 작품은 동시대 정서적 요구에 정교하게 호응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감정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효력을 역으로 증명해 준다.

감정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작품일수록, 그것이 당대 대중의 정서적 욕망과 시대적 감각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가를 방증하는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폭삭 속았수다>는 한국 현대사의 단층을 개인의 삶과 가족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정서적으로는 깊은 위로를 제공했고, 서사적으로는 세대 간 간극을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중문화가 이룩한 성취로 평가되어야 한다.

감정의 정치학은 콘텐츠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정서의 구성 방식과 권력의 흐름을 해명함으로써 대중문화가 시대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하나의 해석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삭 속았수다>를 감상하거나 분석할 때, 그것이 만든 감동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감정이 조직되고 동원되는 방식, 그리고 그 정서적 구조가 수용자의 주체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대중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자, 정서적 성취를 이루어낸 창작자들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존중의 방식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임상춘 각본, 김원석 연출, <폭삭 속았수다>, 팬엔터테인먼트, 바람픽처스 제작, 2025.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2023.

2. 2차 자료

고훈,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연극영화과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김관규, 「방송계 판을 뒤흔든 종편… 시청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매일경제』, 2014. 7. 4., <https://m.mk.co.kr/amp/6160189>

김기중, 「'폭삭 속았수다' 4주 연속 1위 '최장 기록' 왓차 순위」, 『서울신문』, 2025. 4. 4., <https://www.seoul.co.kr/news/life/movie/2025/04/04/20250404500064>

김근호, 「김유정 소설에서의 반전과 감정의 정치학」, 『한중인문학연구』, Vol.55, No.-[2017], 한중인문학회, 2017.

김수아,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주체들 - 디지털 미디어 시대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Vol.19, No.1, 한국여성연구소, 2019.

김순애, 「제주 사람인 엄마, '폭삭 속았수다' 1화보고 포기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5.04.20.,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115343

김현주, 「1910년대 개인, 민족의 구성과 감정의 정치학 -이광수의 <무정(無情)>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N/A)』, Vol.-No.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김혜윤, 「감정과 차별의 이데올로기: N. 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의 억압 구조 분석」, 『비평과 이론』, Vol.30 No.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5.

문선영, 「[문선영의 문화톡톡]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둔 누군가의 이야기: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르몽드』, 2020.08.03., https://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5&utm_source=chatgpt.com

박진영, 「'폭삭 속았수다', 전 세계 올렸다. 글로벌 5위 흥행」, 『조이뉴스 24』, 2025. 3. 17., <https://www.joynews24.com/view/1823661>

배기형·김치형,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Vol.-

- No.25』,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 배도임, 임가연, 「테닝의 장편소설 『변화 마을 이야기』의 ‘가족 서사’ 읽기」, 『중국지식네트워크』 Vol.24,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4.
- 심리로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팬들 반응 모음」, 『티스토리』, 2025. 5. 29., <https://mbookstory.tistory.com/93>
- 아리스토텔레스, 박문재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현대지성, 2021, 26면.
- 오동진, 「전세계가 열광하고 ‘눈물’ … ‘폭삭 속았수다’ 흥행비결 4가지」. 『한국경제』, 2025. 4. 15., <https://news.nate.com/view/20250415n08922>
- 오유정, 「제주 해녀의 미디어 재현에 관한 서사 분석: TV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성차 및 타지의 시선을 중심으로」, 『언론홍보학과 학위논문(박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
- 윤진석, 「드라마 여성 캐릭터 변천사, -70년대~2000년대-」, 『에브리뉴스』, 2015. 4. 15., <https://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5>
- 응원단어린이, 「[질문] 폭삭 속았수다 이게 정말 슬퍼요??」, 『디씨인사이드』, 2025. 3. 2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unning&no=611884>
- 이다은, 「1930년대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정치성: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감정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Vol.-No.74, 한국현대유럽철학회, 2024.
- 이선진, 「감정의 정치학 - 사파이어의 <푸쉬>」, 『영미연구』 Vol.44, No.-[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8.
-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Vol.22 No.-[200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음기록함 챌린지 시리즈」, 『서구TV』, 2025. 4., <https://www.youtube.com/shorts/AkJHMM0PRTE>
- 정규수, 『스타시스템 |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42면.
- 정재현, 「‘지상파 장르물, 여성 서사, 퀴어’ - 2024 드라마의 경향과 트렌드」, 『씨네21』, 2024. 12. 20. https://cine21.com/news/view/?mag_id=106617
- 천세곡, 「내 인생드라마에서 탈락한 ‘폭삭 속았구다」, 『브런치 스토리』, 2025.03.30., <https://brunch.co.kr/@721eb20a1d19472/406>
- 최영호, 「국민 10명 중 8명 OTT 본다. TV 시청자는 감소」, 『MADTIMES』, 2025. 1. 2.,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22730>

- 홍지아, 「TV 드라마에 나타난 모성 재현의 서사 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Vol.23 No.6, 한국방송학회, 2009.
- Catriona Mackenzie,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 Pr on Demand*, 2000.
- Hahna Yoon, “The rise of the K-drama heroine”, *CNN*, 2023. 1. 14.,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korean-dramas-changing-representation-women>
- Mei Mingxue Nan orcid logo, “Squid Game: The Hall of Screens in the Age of Platform Cosmopolitanism”, *Harvard University* 2023. 8. 1., https://journals.publishing.umich.edu/gs/article/id/4156/?utm_source=chatgpt.com
- Steve Choe, “Melos in the World of K-Drama”, *Korea Europe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ics*, No. 3,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chool of Cinema*, 2022.

| Abstract |

K-Drama Family Dramas through the Lens
of the Politics of Emotions
— Power Structures in the Narrative and Reception
of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

Lee, Eunhe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tics of emotions operates within family narratives in the K-drama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I've Been Completely Fooled), utilizing Sara Ahmed's theoretical framework.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drama is superficially presented as a touching family story highlighting an independent woman's life, it actually contains narrative devices that conceal and justify structural hierarchies and gender oppression through the reproduction of traditional family ideology and the internalization of emotional ethics. Despite being characterized as a "rebellious troublemaker," the protagonist Ae-soon is repeatedly positioned passively at crucial moments, reproducing traditional feminine ideals through emotional restraint and devotion to others. This narrative structure demonstrates that emotions function not merely as psychological responses, but as socially organized ethical imperatives and means of legitimizing power. The emotional code of "being moved" particularly serves to naturalize social inequality and gender hierarchical structures by sanctioning sacrifice, silence, and endurance as emotional ethics.

Analysis of the reception environment outside the drama confirms emotional cultural norms where critical perspectives are readily dismissed as "heartless" or "emotionally deficient." This suggests that the formation of emotional consensus through shared sentiment operates as an emotional control mechanism that constrains viewers' emotional subjectiv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being moved" in K-dramas can function not simply as positive emotion but as a political apparatus that justifies structural inequal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ly analyzing the role of emotions in popular culture research and examining the social effects produced by the ethicalization of emotions.

Key Words : politics of emotions, K-drama, family narrative, gender hierarchy, Sara Ahmed, sentiment, emotional control

수의 만들기를 통해 본 삶과 죽음의 창발적 얽힘*

— 다알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정종민**

목 차

1. 들어가는 글	4. 창발적 얽힘의 조응적·회절적 탐색
2. 추론에서 정동적 조응과 얽힘의 윤리로	5. 맺음말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국문초록

삶에 있어서 죽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관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금기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에 대한 인류학적 응답으로 이 연구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수의 만들기’를 통해 삶과 죽음이 창발적으로 얽히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팀 잉골드의 ‘조응’과 캐린 바라드의 ‘회절’ 개념을 적용하여, 수의 만들기가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기억과 얽히고설키며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제시한다. 더불어 수의 제작자에게 자신이 맞이할 미래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상실의 감정을 넘어 과거의 기억, 현재의 죽어감, 미래의 기대가 얽히면서 생성하는 정동적 경험으로 다가옴을 밝힌다. 나아가 수의 만들기는 산자가 삶을 위해 수행하는 예술적 실천으로서 죽음을 새롭게 세공하는 현장이자 ‘창발적 죽음’의 공론장을 제공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 삶·죽음, 예술 활동, 회절, 창발적 얽힘, 조응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389). 또한 이 논문은 2025년 1월 11일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포스트휴먼 이후’의 역사적 전망>에서 “얽히고설킨 삶·죽음에 대한 회절적 탐색”과 2025년 5월 16일 한국시각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시각문화와 사회적 상상력>에서 “삶·죽음의 창발적 얽힘으로서 수의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글로벌다이스포라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대화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금기”시하고, “불안”하고, “불편”해 한다.¹⁾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존엄한 죽음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역설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죽음관리정치”에 동원되어 위축되고 극히 불평등하게 주어진다.²⁾ 노령부부 가족이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 현실은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각자도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회 문제로 바라볼 것을 진중하게 요청한다.³⁾

이러한 진단에 대한 인류학적 응답으로서 나는 2024년 (주)예술약방(이하 예술약방)⁴⁾이 진행한 ‘나를 위한 수의 만들기’(이하 수의 만들기)에 참여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수의 제작자에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지금 참여자의 말, 감정, 기억, 느낌, 상상, 작품 속에 더욱 생생하게 달라붙어 공명했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살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죽음의 바느질”을 다른 식구들이 볼까 봐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1~2시간씩 했다. 수의로 입을 것이기에 죽고 나면 모를 일인데도, 수의를 디자인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옷감을 골라 염색하고 재단하고 바느질을 했다. 이들이 수의를 만드는 과정은 ‘수의를 마련하면 무병장수한다.’라는 오래된 믿음만으로는

1) 이재원·김지원·김태석·김철민, 「한국인의 죽음 관련 의사소통 및 죽음 관련 가치관 확산 정도에 대한 조사」,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9(3), 대한가정의학회, 2019, 308면.

2) 김분선,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철학탐구』 57, 중앙철학연구회, 2020, 189면; 최혜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낮설게 보기: 죽음의 통치성과 은폐된 욕구」, 『보건사회연구』 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7면.

3) 송병기, 『각자도사 사회』, 어크로스, 2023, 25면.

4) (주)예술약방은 2022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치유를 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독거 어르신, 아동, 장애인, 이주민, 여성, 아픈 몸 등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는 도대체 어떤 힘이 참여자의 삶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죽음처럼 수의 만들기에 매달리도록 하는지 궁금했다. 이들이 수의 제작 과정에서 마주했던 동료들, 낯선 재료, 표현 기법과 환경이 서로 얽히면서 작동하는 힘을 빼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배치가 뿔어내는 힘은 때론 엄청난 창발적 발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실망스러운 ‘실패’로 귀결되는 등 수의는 창작 과정을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였다. 한마디로 죽음과 삶이 창발적으로 얽혀가는 과정이었다.

수의 만들기가 진행될수록 죽음의 의미와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한 색깔과 이미지로, 옷감의 재질 또한 광목천에서 옥양목과 실크 등 강도의 차이를 만들며 끊임없이 변했다. 인간과 비인간, 의미와 물질 간의 마주침 과정에서 조용하며 유동하는 정동(affect)의 힘과 흐름으로서 창발적 얽힘이 나타났다. 즉, 수의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구현하거나 예술을 통한 치유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의 제작 과정에서 소환되고 전유된 개인의 기억과 기대를 기반으로 한 삶과 죽음의 얽힘,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참여와 연루를 통해 서로 정동하고 엮이는 포스트휴먼적 “함께-되기(becoming-with)”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였다.⁵⁾

이 점에서 팀 잉골드(Tim Ingold)의 관계적·과정적 접근⁶⁾은 기존의 죽음·죽어감과 관련된 의례적 실천을 구조화된 정적인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얽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조응(correspondence) 개념은 죽음 또는 죽음 의례가 단순히 경계 지워진 현상이 아니라 질병, 결혼, 노동, 재생산, 건강 같은 일상의 다양한 세속적 경험과 얽혀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징적·의미론적 해석이나 설명을 넘어 응답하고 감응하는 정동적 삶으로의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회를 추동하였다.⁷⁾

한마디로 이 연구는 잉골드⁸⁾의 주장처럼 완성품에서 제작자의 목적과 의

5) 도나 J. 해러웨이(저), 최유미(역),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2022, 374면.

6) Ingold, Tim.,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Routledge, 2000.

7) 팀 잉골드(저), 김현우(역), 『조응』, 가망서사, 2024a.

8) Ingold, Tim., “Art and Anthropology for a Sustainable world,” *Journal of the Royal*

도를 밝히기 위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묻는 “추출” 작업을 포기한다. 이 글에서는 수의 직조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얽히며 공동 생성하는 여정을 보여줄 것이다. 빈 종이 위에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 기억, 느낌, 감각, 상상을 적는 것에서 시작해서 펜, 크레파스, 파스텔, 수채물감, 염료로 표현하고, 종이에서 면직물, 비단으로 옷감의 소재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어지고, 끊기거나, 잊히는 생성의 선들의 향연에 “조응”하고 “응답”하는 행위의 궤적을 밝히는 작업이다.⁹⁾ 그리고 이러한 얽힘에 관한 기술과 분석은 인간 주체를 탈중심화하고 기존에 주변화했던 “물질적·담론적” 조우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과 인간너머 존재의 “포스트휴먼 수행성”이 갖는 윤리적·존재론적·인식론적 관계성을 탐색한다.¹⁰⁾

2. 추론에서 정동적 조응과 얽힘의 윤리로

수의 제작 과정은 구상에서 제작, 감상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작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히려 예술 작업은 끊임없이 인간과 비인간들이 얽히고 응답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였다. 이 점에서 나는 잉골드의 만들기 과정에서 강조한 조응에 주목하였다.¹¹⁾ 잉골드는 완성된 작품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거꾸로” 추론하는 알프레드 겔(Alfred Gell)의 예술 행위자성¹²⁾을 비판하면서 작품이 구상되고 만들어지는지는 과정을 따라가는 “형태-부여” 방식의 접근을 제안한다.¹³⁾ 즉 창발적 행위자성을 읽는 방식은 결과물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Anthropological Institute, 25(4), 2019, p.663.

9) Ingold, Tim., “On Human Correspondenc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3(1), 2016, p.14.

10) Barad, Karen.,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28(3), 2003, p.801.;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p.168.

11) Ingold, Tim. *Making: Anthropology, Archaeology, Art and Architecture*, Taylor & Francis, 2013.

12) Gell, Alfred.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Clarendon, 1998.

선행 조건과 과정을 검토하여 창작자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추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품 형태를 만드는 물질의 힘과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¹⁴⁾ 이미 완성된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상태(being)가 아니라 생성 중인(becoming)” 수의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¹⁵⁾

이런 점에서 잉골드는 인간 혹은 비인간 행위소라는 불박인 교점(node)으로 구성된 네트워크(network) 모델을 거부했다. 수의를 예로 들면 작품은 완성된 인공물이라는 고정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동하는 선(line)들의 매듭들(knots), 즉 재료의 선, 기억의 선, 감정의 선, 몸짓의 선들이 구상, 제작, 완성, 감상에까지 엮이고 풀어지고 끊어지고 조용하고 조율되는 흐름이라는 “그물망(meshwork)” 속에 존재한다.¹⁶⁾ 따라서 인간의 행위, 재료, 감정, 기억, 몸짓 등의 얽힘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술 활동이라는 목표 지향적이며 의도적 개입을 넘어 삶과 죽음이 서로 응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생성의 리듬을 밝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작업장의 사물-기술-환경에 조용하며 조율하는 창작자의 움직임 속에서 수의로 성장해 가는 방식, 즉 “행로(wayfaring)”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간과 비인간,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 이들 사이의 정동의 흔적과 그 흐름을 규명하는 작업이다.¹⁷⁾

한편 이러한 잉골드의 관계적·과정적 접근은 수의 만들기라는 전통-예술의 재현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예측적인 생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캐런 바라드(Karen Barad)¹⁸⁾의 “회절(diffraction)”과 공명한다. 고정된 대상의 재현이나 정체성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간섭무늬처럼 마주치는 관계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며 생성하는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잉골드의 조용 개념처럼 ‘되기(becoming)’

13) Ingold, Tim.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Routledge, 2011, p.215.

14) Ibid., p.216.

15) 팀 잉골드, 2024a. 31면.

16) 팀 잉골드(저), 김지혜(역), 『라인스』, 포도밭, 2024b, 170면; 팀 잉골드(저),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역),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이비, 2024c.

17) 잉골드, 2024b, p.54.

18) Barad, Karen., “On Touching — 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Differences* 23, 2012, p.218; “Diffracting Diffraction: Cutting Together-Apart,” *Parallax* 20(3), 2014.

의 인식론적·존재론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내가 회절에 주목한 이유는 되기 즉 생성의 과정이 결코 균일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선택과 배제가 연루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의 만들기를 예로 들면 회절적 관점에서 재료의 감촉, 손의 움직임, 작업장의 분위기, 소환되는 기억은 따로 떨어져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엮이고 얹히는 과정에서 감지되고 정동하는 함께 되기의 행위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수의는 전통·예술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reflection)하는 매체가 아니며 종이, 파스텔, 손, 분위기 등과 같이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개별 요소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의 만들기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특정한 물질적·담론적 얹힘을 생성하는 “장치(apparatus)”로서 행위가 실재를 구현하는 현장이 된다.¹⁹⁾

바라드는 이러한 행위적 실재론(agency realism)을 비결정적·불확실적·비확정적 “현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²⁰⁾ 이때 현상은 인간 중심의 사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서 “물의 빚기(mattering, 物議)”를 통해 공동 구성되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¹⁾ 그리고 이러한 인간-사물-기술-환경이 서로 얹히면서 공동 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내부 - 작용(intra - action)”이라는 신조어를 제안한다.²²⁾ 즉, 내부-작용이라는 “행위적 절단(agential cut)”을 통해 실체의 속성과 존재적·의미적 경계가 명확해지며, 현상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²³⁾

행위적 절단이 수행되는 바로 이 지점, 나는 바라드의 윤리적 감수성을 발견한다. 실제로 수의 제작은 잉골드가 강조하듯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정동을 통한 조응뿐만 아니라 행위적 절단을 통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포함했다. 다시 말하면 조응은 다양한 참여와 연루를 포함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다른 가능성을 선택 혹은 배제하는 행위적 절단이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바

19) Barad, 2007, p.141.

20) Barad, 2014, p.168.

21) 이지선,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빚기: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시대와 철학』 9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1, 239~244면.

22) Barad, 2007, p.361.

23) Ibid., p.334.

라드는 이 행위가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고 배제하고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생성하고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물의 빗기의 윤리”를 요청한다.²⁴⁾ 한마디로 바라드의 회절적 실천은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존재 그 자체의 속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 곧 내부 – 작용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것, 존재하는 것, 아는 것(ethico – onto – epistemological)의 분리 불가능함을 보여준다.²⁵⁾

요약하면 조용적·회절적 실천은 거꾸로 읽기를 통한 재현 모델을 선형적 존재에 기반을 둔 인과적·추론적 도식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응답하며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포스트휴먼 실천으로 정향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과 비인간 모두 행위성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며, 유동적인 경계를 지닌 열린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래서 수의 제작 과정의 생성하는 수많은 얽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참여자와 삶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직조 과정에서 전파되는 어떤 힘의 흐름으로서 조용의 궤적과 차이의 얽힘의 윤리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수의가 될 가능성,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생성적·관계적·윤리적 현장을 드러내는 정동적 문화기술지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024년 여름 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별별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약방이 진행하는 ‘예술과 함께하는 웰다잉 교육’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의 기억이 스며든 메모리얼 테이블 꾸미기’와 ‘수의 만들기’로 구성되었다. 나는 ‘좋은 죽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예술 실험이라는 점에서 ‘수의 만들기’ 프로젝트에 보조 운영자로 참여하였다.

예술약방 대표와 사무팀장 그리고 내가 운영팀을 이뤘다. 우리는 2024년

24) Ibid., p.30.

25) Ibid., p.381.

8월부터 10월 사이 민속학자, 예술가, 종이 수의 제작자, 도슨트(docent)와 함께 사전 준비로 6회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 만들기 프로그램의 구체화했으며, 동시에 참여자를 모집했다. 최종 참여자는 <표 1>과 같으며, 1인 가구나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의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 나비활동가²⁶⁾들이 다수 참여했다.

〈표 1〉 수의 만들기 참여자

참가자			운영팀		
별칭	성별	직업	별칭	성별	직업
원숭이날다 ※	여	나비활동가	대지를품은태양	여	예술치료사
금빛마마 ※	여	나비활동가	웰다잉	남	사무장
요조숙녀 ※	여	나비활동가	9988234	남	연구자
가을해	여	나비활동가			
귀여운마틸다 ※	여	나비활동가			
커피향기여인	여	나비활동가			
태양처럼빛나다	여	나비활동가			
다알리아 ※	여	연극인			

※ 표시는 수의를 완성한 사람을 의미한다.

수의 만들기는 주 1회 월요일,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매주 재료와 주제를 달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수의에 적용할 표현 양식과 기법, 옷감 소재, 색깔 등을 결정했다. 바느질을 하기 전까지 매주 명상하기-만들기-글쓰기-읽기-나누기를 반복하였다. 먼저 ‘명상하기’는 잠깐의 멈춤과 침묵을 통해 참여자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날 할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이었다. 보통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죽음에 관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런 다음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했다. 다양한 예술 재료를 활용해서 수의를 제작하는 ‘만들기’와

26) ‘내(넌)과 비(움) 활동가’의 약자로 2024년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민관 협력 자원 활동가이다.

매주 새롭게 제작한 작품과 대화를 나누며 성찰하는 ‘글쓰기’ 시간이 이어졌다. ‘읽기’에는 자발적 참여와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전제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읽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작업을 돌아보며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나누기’에는 ‘명상하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싱잉 볼(singing bowl) 소리에 맞춰 현실로 돌아와 각자의 소회를 나누었다.

수의 만들기는 10월에 시작해서 파스텔화, 습식 수채화, 염색, 바느질에 이르기까지 예정했던 8회를 넘어 10회까지 연장되었으며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마무리 바느질 작업은 2025년 2월에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수의는 종이에서 천으로, 비단으로, 그리고 죽어서 남이 입혀줄 옷에서 집에서 밤마다 입을 수 있는 잠옷으로 다양하게 변해갔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다른 참여자의 삶과 죽음의 태도와 작품을 관찰하고 응답하면서 자신만의 수의를 만들어갔다. 다음의 <표 2>는 각 회차 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2> 수의 만들기 세부 활동

회	주제	내용	장소
1	내면 표현하기	글쓰기, 파스텔 실험	동구청
2	내면 표현하기	글쓰기, 습식 수채화 실험	동구청
3	내면 표현하기	인체모형 본뜨기	예술약방
4	인체모형 만들기	인체모형 색칠하기	예술약방
5	염색하기	염색 실험	예술약방
6	수의 만들기	옷감 자르기, 염색하기	예술약방
7	수의 만들기	염색하기, 흙질하기	예술약방
8	수의 만들기	재단하기, 흙질하기	예술약방
9	수의 만들기	바느질하기	예술약방
10	수의 만들기	바느질하기	예술약방

처음 2주 동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였으나, 협소한 장소와 사용 시간 제약에 따라 예술약방 스튜디오로 옮겼다. 모든 프로그램

은 예술치료사가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며, 나는 영상 촬영을 담당하였고 참여 관찰 내용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상 대화는 현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 상황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현장 노트, 영상 자료, 수의 제작 과정에서 나온 글, 그림, 그 밖에 사전 워크숍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를 텍스트로 바꾸는 단계에서 참여자의 글, 그림, 심층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서사를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트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마주침과 정동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 나는 수의 만들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비인간 혹은 사회적·물질적 마주침을 재현하는 것을 포기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어떤 재현도 절대로 순수한 적이 없었으며, 포착하려는 순간 늘 미끄러져 다른 것들과 섞여 오염되거나 또 다른 얽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을 단일한 감정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힘들었다. 어떨 때는 가슴 뭉클하게 저며 오며, 다른 때는 눈시울이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의 꼬퉁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생성하고 발전하는 정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전통적인’ 인류학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예술과 함께 하는 창발적·협력적·윤리적인 연구를 고민했다. 죽음 연구는 필연적으로 삶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의 연결 그 자체나 공존의 증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삶으로 초대하여 전유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수의라는 전통과 예술의 포스트휴먼 얽힘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관계들, 신체들, 강도의 힘들이 만들어내는 조응과 회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동에 주목하였다.²⁷⁾

한편, 개별 참여자들은 영상 기록 및 수의를 만드는 동안 나눴던 대화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심층 면접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죽음과 관련된 대화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쉽

27) 정종민 「스마트 기저귀와 인지증(치매) 돌봄: 정동적 기술적 접촉의 연결 (불)가능성, 『생명연구』 73, 생명문화연구소, 2024, 143면.

지 않은 실천이라는 점과 연구자의 연령과 젠더의 다름으로 인한 위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인류학자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거리를 두며 (tangential)” 참여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의 구성요소로서 제작자와 함께 실험을 공동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²⁹⁾ 최종 심층 면접에는 다알리아와 금빛마마만 참여했다. 여기에서는 심층 면접과 완성된 수의의 온라인 전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다알리아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4. 창발적 얽힘의 조응적·회절적 탐색

1) 파스텔과 수채물감을 적용한 생동하는 표현들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나 기대도 각기 달랐다. 어릴 적 화장실 선반 위에 놓였던 할아버지의 오동나무 관과 수의를 보고 자랐던 커피향기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는 수의 만들기에 두려움과 호기심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웰다잉 교육을 받았던 나비활동가들은 수의가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수의 만들기가 바느질 과정이라 생각했지, 파스텔, 습식 수채화, 염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첫날 탁자 위에는 다양한 느낌말과 생각말이 적힌 종이크ard, 사인펜, 파스텔, 색종이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종이크ard를 참조하며 죽음에 대한 단상을 적었고 이 중에서 단어 하나를 골라서 그 단어와 연결된 감정, 기억, 느낌, 이미지를 구상하고 파스텔로 표현했다. 다알리아는 <그림 1>이 보여주듯이 때로는 손이 가는 대로 낙서를 하듯이 그려보고, 음악 소리에 맞게 흐름을 타며 색을 칠했다. 좀 더 힘을 주거나 빼며 파스텔을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색깔을 겹쳐서 칠하기도 하고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무대 위에

28)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1988.

29) Ingold, 2019, p.662.

서 춤추듯 여행하는 사람들에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휘몰아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려보기도 했다. 생각의 흐름에 따라 종이를 바꿔 작업을 이어 나갔다. 좀 더 진하게 덧칠하거나 그림 자체를 희미하게 변색시키기도 했다. 미리 무엇을 그려야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림 1〉 다알리아의 파스텔화

다알리아가 종이에 파스텔을 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았다. 파스텔 그리기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재료의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했지만, 파스텔을 연필처럼 세우거나 붓처럼 옆으로 기울여 칠했을 때 그리고 가루로 만든 후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번짐의 효과를 만들었을 때나 물과 섞었을 때의 그림의 질감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분명한 건 재료의 특성, 손의 움직임, 머릿속의 구상들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여 모남 없이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뭉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의-되기’라는 점이다. 마치 매 순간 바람의 곁에 응답하며 연을 날리듯,³⁰⁾ 다알리아는

30) Ingold, 2011, pp.214~217.

자신의 마음, 종이, 파스텔을 마주하면서 생성하는 우연의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상징적 기호를 넘어 재료의 물질성과 신체를 통해 체험하는 감각의 참여에 조용하며 새로운 생성의 선이 쏟아져 나왔다. 이 과정은 단 한 번도 동일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었고 어떤 완성된 결말에 이르기보다는 즉흥적·관계적·창발적 얽힘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다알리아는 파스텔 실험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작품을 보며 그림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과 자신이 그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

“인생에 속아준다. 인생 생각보다 재밌다. 많은 일과 기억과 추억 속에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부엌으로 가서 내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일정을 소화해 내려 하루를 기획한다. 마지못해 깨었던 상쾌하게 기다린 아침을 맞이했던 사람이든 누구나 하루 24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 죽고 사는 일에서도 문제 될 게 뭣이란 말인가! 나는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났고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레 난 살아있으니 사는 거다. 인생이 뭐 별건가! 이래도 저래도 속아보며 내일도 눈을 떠보자. 사랑과 자기애와 인류애로. 나대로 내 멋대로.”

다알리아에게 파스텔화는 완성된 작품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 촉감, 질감으로 지각된 것으로 재료와 창작자의 의도 사이의 끊임없는 조율과 조율의 실천이었다. 재료와 주제를 달리하며 그가 수행했던 실험은 단순히 예술치료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흉내 내는 작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작업에 취약한 자신을 노출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열린 자세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재료를 사용하는 데 알아두어야 할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화되는 말, 소환되는 기억, 촉발하는 감정과 느낌은 예상치 못한 창발적 얽힘으로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다알리아가 “인생에 속아준다.”라고 말한 것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몸짓이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세계에 던져진 파스텔 및 종이와 얽혀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다알리아의 삶의 자세였다. “나대로 내 멋대로”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iteration)”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찾고 색을 입히면서 차이를 생산하는 “순력(itineration, 巡歷)”에 주목함을 의미했다.³¹⁾

2회차 활동은 습식 수채화였다. 먼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억, 감정, 느낌, 표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물을 잔뜩 묻힌 종이 위에 색을 채워가면서 자신을 표현했다. 습식 수채화는 물의 양에 따른 번짐과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얼마나 빨리 어떤 강도와 어느 방향에서 말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사실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몇 번의 시도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또한 한 장에 1만 원이 넘는 아르쉬 수채화지의 가격은 ‘아마추어 예술가’였던 참여자 모두를 위축시킬 만큼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이나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작업은 창작의 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 — 첫 출산의 기억으로 자궁 속의 태아가 꿈틀거리는 생명의 움직임을 표상하려고 보라색, 연두색, 노란색, 초록색을 선택한 요조숙녀, 아침에 싫은 소리를 했던 남편을 기억하며 자신이 좋아하던 색으로 시작했다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색으로 바꾼 마틸다 등 — 과도 끈끈하게 연결되거나 회절하였다. 다알리아는 호수공원에서 뜨개질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던 순간을 회상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종이 위에 나무, 호수, 새, 공원에 색을 칠하고 호수 위에 비치는 푸른 하늘로 뻗어나가는 가지 위에서 하늘거리는 새들과 초록의 자아를 그렸다.

“푸른 곳에서 초록하게 있었다. 앉아서 다양한 색깔의 실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잊히지 않은 것은 눈앞에는 호수가 역시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푸른 호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 새소리와 나로부터 나온 실 감는 소리에 세월이 간다. 죽고 사는 문제 외에 더 큰 문제는 없다는 나의 신념은 그래서 바뀌었는가? 아닌가? ... 가뭇한 새들이 머릿속과 가슴속을 헤집고 다니다 다른 나무로 날아가는 것이라.”

31) Ingold, 2011, p.216.



〈그림 2〉 다알리아의 습식 수채화

파스텔화와 마찬가지로 습식수채화도 다알리아의 삶과 긴밀하게 조응하며 발전하였다.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 물감, 물통, 종이의 어우러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때론 과감하게 물을 더 쏟아보기도 하고 물감을 더 두텁게 칠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물기를 머금은 붓으로 칠해보기도 했다. 이는 물, 빛, 공기가 좁은 틈을 지날 때 생성하는 간섭무늬처럼 예측하기 어려웠고 할 때마다 생동하는 차이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물질인 재료가 마주치는 우연을 즐겼다. 어느 정도 물과 물감의 농도와 밀도에 익숙해지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 감정, 느낌을 떠올리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주형에 씻물을 붙는 작업이 아니라 다소 “실험적”이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의 결과에 대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었다.³²⁾ 그러면서 다알리아는 푸른 잔디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뜨개질하고 있는 초록이 된 자신을 표현했다.

요약하면 다알리아에게 파스텔화와 습식수채화는 종이, 물, 수채물감, 헤어

32) Ingold, 2019, p.661.

드라이기, 손뿐만 아니라 가격, 죽음 단상, 감각, 감정, 기억 등이 얹히면서 생성하는 함께 되기로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파스텔, 수채물감, 물, 종이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식의 수집자가 되기보다는 관계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드라이기와 작품과의 거리, 드라이기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때론 미세하게 때론 과격하게 번지는 물질성을 허용하고 ‘듣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이성을 넘어 미세한 정동을 통해 전해지는 알아차림을 겹겹히 받아들이고, 즉흥적으로 출현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했다. 이런 점에서 다알리아의 삶은 재료와 따로 존재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와 재료의 물질성에 따른 움직임과 서로 얹히면서 내부-작용이라는 행위적 절단을 통해 차이의 패턴을 생성하는 현상이었다.³³⁾ 한마디로 그것은 존재의 내면에서 울리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관한 삶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료의 물질성을 알아차리고 소통하며 어우러져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었다. 이러한 주의 기울임과 알아차림을 통한 함께 만들기는 염색작업으로도 이어졌다.

2) 신체 본뜨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

인체 모형을 그리고 채색하는 것은 수의를 만들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어떤 모습과 색깔로 기억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작업이었다. 하얀색으로 제작되는 전통 수의에서 벗어나 머리모양에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을 붙일 것인가 펴 것인가, 가르마를 한쪽으로 할 것인지 뒤로 넘길 것인지, 어떤 온기의 색깔로 남을 것인지 행위적 절단을 수행해야 했다. 이는 죽음 그 이후를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기는 것이 아니라 표정, 자세, 수의 옷감, 색깔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상상하고 채색하는 작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창작자 스스로 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행위적 절단의 윤리적 무게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알리아는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돈하자는 주위의 의견을 뿌리쳤다. 풀어헤쳐진 자연 그대로의 머리모양을 살렸고, 평소 좋아하던 복장과 색을 적용했다. 그리고 퇴비가 되어 한 줌 흙으로 사라질 자신의 몸을 먹고 자라는, 아

33) Barad, 2007.

니 이미 한 몸이 된 나무와 식물의 잔뿌리를 그렸다. 아니 보이지 않을 뿐
처음부터 풀과 나무는 자기 삶의 그물망에 얽혀있음을 표현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길. 유언은 단 한마디,
‘너로 살아라!’ 누구든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소망이 있다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질량 불변이니 무언가로
환생하겠지만 인간의 고통의 바다를 다시 경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니
말이다. 주변 내 지인들께 감사하다. 엉망진창인 내 주변에서 사느라 애
썼다. OOO(다알리아) 그리고 또한 당신들도 애썼다. 슬픔이나 미련도
없다. 원 없이 살다 간다!! 잘 살다 간다.”



〈그림 3〉 다알리아의 신체 본뜨기

신체 본뜨기는 한 번의 작업으로 완성할 수 없었고 한 번에 자아를 표현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붓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다
알리아가 서서히 나타났다. 다른 어떤 참여자의 인체 모형 채색화वाद도 비슷
하지 않았다. 초록이 되어가는 다알리아의 “존재의 되기”(the becoming of
being)를 목격하는 순간이었다.³⁴⁾ 이것은 태초부터 서로 달리 존재하는 세계

의 존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체 모형을 채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의 그림과 비교하고 관찰하고 서로 나누는 말, 느낌, 소감에 응답하면서 중첩되어 섞이거나 확장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었다. 바라드는 이를 “함께-떨어져서 자르기(cutting together-apart)”,³⁵⁾ 즉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한하고 끝없이 차별화하는 같은 세계에서 함께 여행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역설했다.³⁶⁾

다알리아의 예술적 특이성은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에서 더 도드라졌다. “슬픔도 미련도 없이 잘 살다 간다.”라는 말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다가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말이 아니었다. 다알리아는 우주에서 고통의 총량이 불변한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비인간, 즉 퇴비가 되길 소망했다. 더불어 남의 인생을 흉내 내지 말고 주어진 세계에 조응하며 제 몫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알리아의 ‘소박한’ 인생관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흔들며 세계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다알리아는 수의 만들기를 전통의 계승과 장수라는 욕망의 기호를 반영하는 매체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좋은 죽음’을 창출하는 장치라는 의미에서 예술 작업을 경계 지어진 공간에서 수행하는 실험이 아니라 ‘좋은 죽음’을 함께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윤리적·미학적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파스텔, 붓, 물감, 종이 위의 글들과 소감을 따라가면서 조우하는 다알리아의 인체 모형 채색화는 죽음을 마주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 것을 요청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것은 겔이 언급한 “귀추하기(abducting)”³⁷⁾를 통해 창작자의 의도나 동기를 확인하고 행위성을 밝히는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다알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개별 생애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다만 예술 활동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다알리아의 인체 모형은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얹히면서

34) Ingold, 2019, p.609.

35) Barad, 2014, p.176.

36) Ingold, 2019, p.609.

37) Gell, 1998, p.14.

함께 구성하는 존재의 함께 되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생성 중인 작품이 추동하는 호기심을 통해 다알리아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완성된 작품에서 과거로 회귀하여 창작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추출의 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응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에서 느끼는 힘이자 실천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3) 실수조차 함께하는 염색하기

<그림 4>는 다알리아가 염색한 수의 옷감이다. 다알리아는 염색과정에서 초록 염료를 옆질러 하얀 천을 오염시켰다. 옷감의 한가운데라 자르거나 덮을 수도 없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다알리아는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해하며 그의 붓과 바느질의 궤적을 따라갔다. 다알리아가 초록 얼룩을 지우려고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동안 그가 수정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그림 4〉 다알리아의 수의 옷감 염색

2025년 1월 수의를 완성한 후 심층 면담 과정에서 나는 그에게 얼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물었다. 다알리아는 수정하고자 몇 번 시도했지만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애달픔과 수많은 후회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듯이 초록색 얼룩이 가슴에 맺힌 “흉터”처럼 보여 그대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고통이고, 고통을 겪어야만 인생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실수라는 “우연마저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처럼 얹힌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진중하고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응답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나의 가슴에 몽클하게 다가와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달라붙은 정동으로 새겨졌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의 생애가 궁금해서 바느질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생애를 묻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행로를 이어갔다.

다알리아에게 죽음은 느닷없이 다가오고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황망하게 가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연극무대의 삶을 꿈꾸던 시절, 그는 20대 청춘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오빠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다. 미혼이었던 오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상주로 함께했던 며칠 사이 부모는 급격히 “노인”이 되어 버렸다. 하루를 멀다하고 오빠의 죽음을 두고 부부싸움을 했던 양친은 별거를 선언했다. 이후 엄마는 2번의 뇌졸중에 이은 혈관성 치매, 섬망, 파킨슨병으로 인한 근육통까지 겹치면서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한다며 아버지는 “최초의 자유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엄마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엄마는 시간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곤 했다. 마지막 몇 년은 와상환자로 계셨기에 어떤 요양보호사는 엄마를 만나절도 돌보지 못했다. 다인실의 요양시설에서 “아휴! 팔자하고는...” 하며 동정하듯 훑어보는 시선을 모른 척 하며 지내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를 돌봤던 9년 동안 다알리아는 무려 5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를 새롭게 찾아야 했다. 다알리아는 대구에서 연극캠프를 진행할 때도, 지리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에도 엄마를 돌보기 위해 수시로 황급히 광주로 돌아와야만 했다.

병실을 옮길 때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던 연로한 아버지는 ‘가짜’ 환자

로 엄마 침대 옆을 차지하고 엄마를 간호하면서 ‘진짜로’ 폐가 굳어가는 병을 얻었다. 몇 달 후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시겠단 결단을 내릴 무렵 심정지로 “황망하게” 돌아가셨다.

엄마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었다. 엄마는 9년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엄마를 보낸 2016년, 9년의 가족 돌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알리아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얻었다. 연극인에게 치명적인 무대 공포증도 함께 찾아왔다. 엄마가 떠나던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응급상황을 연락받은 이후 모르는 전화번호만 보면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를 잘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2025년은 조금 나아졌을까! 구순이 된 시아버지는 말기 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경증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국악을 전공한 큰딸과 영화를 만드는 아들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느라 제 살길이 더 바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알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계획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연극 공연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해진 일을 할 수 없었다. 다알리아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가사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일”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대신에 예고 없이 떠난 오빠, 아버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신의 의지나 계획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을 피하지 않고 조용하며 “즐기면서”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이성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합리화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식으로 조율하며 살아내는 삶의 지혜였다.

“삶은 태어나는 순간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니 녹녹치 않다. 그러나 정말 죽고 사는 것 말고 별일 아닐 순 없지 않은가! 긴 시절의 시작을 알리는 애 우는 소리들,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다. 극한의 고통도 이틀이 되지 않는다. 내 고통도 천지 빛깔이거늘 난 그렇게 타고났나 보다.”

돌이켜 보니 어쩌면 다알리아는 옷감을 염색하던 날 이미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장례식에 방문한 분들을 위해 오빠라면 말했음직한 내용을 복사해서 오신 분들께 나눠줬다. 납골당을 찾은 사람에게는 노트를 비치해 두어 오빠와 나누지 못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수의 만들기를 통해 다알리아는 홀연히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끼리 “뭐라도 하나” 공유할 수 있고 망자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도록 수의와 함께 글과 그림을 남기는 행위적 절단을 수행했다. 미래를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다알리아다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윤리적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실수조차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며 새로운 창발적 엄힘으로 엮고자 했던 그의 말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다알리아가 좋아한다는 장기하의 노래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별일’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천지 빗깁”의 고통을 수놓고 싶은 그의 마음은 그가 입을 수의에도 공명하였다.

요약하면 다알리아가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 ‘멋진’ 수의를 만들겠다는 꿈이나 희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무계획적으로 살고자 하고 애써 계획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도 삶의 회피도 아니었다. 인생에 실패했거나 실격당한 자의 고통이나 후회도 아니었다. 오히려 비극과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불안, 초조함,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엄습하는 부정한 감정에 응답하고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려는 정동적 표현이었다. 겉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수의 만드는 일을 “별일”로 자신만의 색깔로 꾸며가며 따로 또 함께 삶을 살아내는 수행적 실천이었다. 다알리아는 누구보다도 변화하는 상황에 무덤덤한 듯하지만, 치열하게 마주하고, 조율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었다.

4) 공유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하기로서 바느질

순조롭게 마무리될까 싶었던 수의 만들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실질적인 죽음의 위기로 다가왔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참가자들은 2024년 12·3 비상 계엄령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쉽게 잡들 수 없었다. 요조숙녀는 계엄군의 군화발 소리에 몸이 움찔거리던 소름 돋는 경험을 다시 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은 줄 알았던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2024년 12월 한밤중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목소리조차 떨렸고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금빛마마도 44년 전의 광주가 반복되는 듯 오싹거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살 만큼 산 나이라고 겉으론 말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다알리아 역시 모르는 전화번호가 올릴 때처럼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1980년 5월을 다시 겪을 생각에 몸서리쳤다.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지만, 비극은 반복될 수 있음을 또다시 몸소 체험한 것이다.

다행히 참여자들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다시 모였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지나갈 수 없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대지를 품은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웃으로 멋을 부렸고 선물로 사 온 간식을 나누며 분위기를 돋우려 애썼다. 그렇지만 예술치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비상계엄으로 예술치료사의 멋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갈 뻔했다며 마냥 편안하게 웃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날 아침 참여자 몸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것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진 공기뿐만이 아니었다. 그 공기는 비상계엄 당일의 협박들, 감정들, 소환된 5·18 기억들과 함께 언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신체적 응답들까지 포함하는 어떤 소름 돋는 정동적 분위기³⁸⁾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성과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이러한 체화된 정동은 쉽게 재현하기도 어려웠다. 그날의 일화를 기술하는데 이성, 감정, 기억, 희망뿐만 아니라 총, 피, 군화발 소리, 최루탄 냄새 등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열린 얽힘을 구성하는데 정동적 분위기를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38) Anderson, Ben.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2009.

쉽게 언어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몸을 통해 존재한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러한 형태 없는 체화된 경험들이 추동하는 분위기는 현실에서 달아나려는 무기력함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5·18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은 또다시 마주했던 죽음의 공포라는 폭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해체되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쓰이지 않을 역사, 기억되지 못할 사람들의 신체 기억이라는 이중의 억압 때문에 드러난 분열된 자아는 역사가 되지 못한 비-역사적 주체의 절멸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고 인지하기도 어렵지만, 각자의 몸이 기억하고 체화된 정동 그 자체를 어떻게든 공유하고 표현하려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수의 만들기 바느질은 다시 소환된 오월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안타깝게도 비상계엄령의 트라우마는 쉽게 잊히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더디기만 했다. 2024년 12월 14일 금남로에서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승리’라는 대형 현수막 아래에서 우연히 다알리아를 만났다. 다알리아는 매주 집회에 나오는 듯했다. 그 시간 동안 바느질을 했다면 수의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함께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다알리아의 실존적 고민이 있었다. 2014년 다알리아는 자녀와 비슷한 포레인 학생들의 죽음을 보고 동시대를 사는 어머니로서 세월호 참사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자원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얻은 후 비행기를 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도 갔다. 다알리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한 손님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은 늘 일상에서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존재하였으며 매일 매일 죽어감에 어떤 삶의 의미를 남기느냐가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알리아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에도 아무런 공통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엮히면서 애도와 상실이라는 고통의 연대가 이루어짐을 목격했다. 수의 만들기 동안 다알리아의 여정은 전혀 공통점이 없거나 연결 지점이 없을 것 같은 12·3 비상계엄과 12·29 제주항공 참사와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동시에 다

알리아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고 다른 목적을 갖고 참여한 사람들이 수의 만들기로 엮이면서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동료로서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필연을 실감했다.

2025년 1월, 수의를 완성한 후 만났던 다알리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수선한 상황에도 매우 질서정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인생 뭐 있겠어요! 닥치면 부딪히면서 사는 거죠.” 이 말은 아무런 연이 없던 사람들이 나비활동가로 그리고 수의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4개월 동안 죽음을 어떻게 삶으로 받아들이는지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다른 때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통해 체화한 죽어감의 정동적 표현이었다. 그것은 폭력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던 1980년 5월의 모습과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공포로 움짱달짝 못 하는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빠와 부모의 죽음과 연이은 자신의 회복 불가능한 질병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삶의 소리였다. 다알리아에게 그것은 알폰소 링기스³⁹⁾가 말하듯 “가능성들로 생각(되는)하는 것들은 타자들이 (다알리아에게) 남긴 가능성들”임을 알아채는 것이었으며, “타자들의 타자성에 내재된 타자”를 알아보고 함께 거주하기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다알리아에게 수의는 도래하는 죽음을 미리 당겨 전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와 씨름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오늘을 함께 나누고 연결하며 좋은 삶이 되도록 분투했다. 무엇보다 파스텔, 수채물감, 염색, 그리고 바느질 등 다종의 인간 너머 신체들과 조우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잘되지 않음을 성찰하며 “세상에 뭐든지 우연히 없듯이 그냥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어감”을 수행했다.

다알리아가 죽음과 죽어감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와 흔적, 타인의 무너진 가능성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자 태도였다. 바느질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듯 그녀에겐 타인의 삶도 자신의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는 타자의 삶을 단순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

39) 알폰소 링기스(저), 김성균(역),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바다출판사, 2013, 247~248면.

이었다. 이는 타자의 삶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존재론적 요청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정동적 실천이었다. 타인의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취사선택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서조차 쉽게 인지하지 못했던 비가시적이고 때로는 언어 바깥에 머물러 쉽게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을 포착하고 응답하는 윤리적 감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바느질, 비상계엄, 제주공항 참사가 연결되어 공명하며 진동하는 이유이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 수의 제작은 머릿속에 짜인 계획에 순응하며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최선의 방식을 찾는 “끝없는 과정”이었다.⁴⁰⁾ 매 순간의 선택과 실수는 다른 길로 갈라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그 어떤 방법도 다른 방법보다 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길이 없는 실험의 연속이었다. 당연히 수의 만들기를 통해 “알고, 생각하고, 측정하고, 이론화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세계 내 그리고 세계의 일부로서 내부-작용의 물질적 실천”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⁴¹⁾ 그래서 수의 만들기에 대한 분석은 영킨 선들을 잘라 그 국면을 해체하여 재조립하거나 완성된 수의를 바탕으로 제작자의 의도나 설계도를 추론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수의 제작을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작품과 기술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외부와 단절되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궤적을 기술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수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 움직이는 행로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삶의 망(web of life)”, 즉 “삶, 성장, 움직임의 얽히고설킨 선들의 그물망”을 밝히는 작업이었다.⁴²⁾ 동시에 창작자, 연구자, 세상이 마주치며 생성하는 몸들의 미세한 강도의 움직임과 리듬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으며, 수의 만드는 현장에서 습득하고 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는 작업이

40) Harding, Sue-Ann., “‘Becoming Knowledgeable’: Ingold’s ‘Wayfaring’ and the ‘Art of Translation’ as a Politics of Difference,” *The Translator* 27(4), 2021, p.605.

41) Barad, 2007, p.90.

42) Ingold, 2011, p.63.

었다.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활동해왔던 다알리아에게 파스텔, 수채물감, 염료 같은 재료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죽음에 관한 내면의 울림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다양한 예술표현 기법은 예술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단순히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파스텔, 붓, 물감, 염료를 칠하고 만지고 떨어뜨리는 일은 어떨 때는 ‘치명적으로’ 당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나 지난 한 주간의 일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회절하며 새로운 패턴의 선으로 성장하였다. 당일 작업 환경의 조건, 예를 들어 어두운 조명과 클래식 음악은 작업의 집중도를 높여 주기도 했으나 바느질할 때는 오히려 방해되었다. 중요한 것은 다알리아에게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의를 만드는 작업이 생존의 문제이든 ‘아차’하는 실수로 얼룩진 수의에 대한 즉흥적 대응에 관한 문제이든 상관없이 매 순간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었다.⁴³⁾

다알리아는 마무리 작업에서 가슴에 흉터처럼 맺힌 초록색 얼룩을 고통이라는 ‘영광의 상처’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기 불편한 ‘흉’으로 보일 것을 염려해서 옷감의 배면으로 사용했다. 이 또한 얼룩을 통해 경험하는 우연의 생성과 성장의 행로일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황망한 죽음 앞에 취약성이 노출되었던 다알리아에게 찾아온 뜻밖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는 자신의 수의 만들기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연대로 확산됨을 보여주었다. 바라드가 주장하듯이 책임이 “타자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면 “자신의-피부-속에-타자를-갖는 타자성의 모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윤리, 세계-형성의 윤리”를 실천한 것이다.⁴⁴⁾ 잉골드가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끝이 없는 “행로의 실천”이며, 그 여행의 궤적을 따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너머 환경에 대해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것과 연결되는 대

43) Harding, 2021, p.605.

44) Barad, 2007, p.392.

목이다.⁴⁵⁾

결론적으로 실험적인 수의 만들기는 현장성, 수행성, 가변성, 잠재성뿐만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관계적·과정적으로 생성하고 성장하는 수의는 단순히 장례식에 필요한 의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하기를 통해 치유뿐만 아니라 월다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따로 또 함께 만들어가는 공통장이었다. 그리고 전통과 예술을 접목한 이 실험은 단순한 전통의 재해석을 넘어 재창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수의 제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상, 감정, 기억, 느낌이 얹히는 과정에서 이 실험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월 광주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절대공동체”⁴⁶⁾가 느낀한 정동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의를 통해 참여자의 일상에 초대된 죽음은 죽은자와 산자 혹은 삶과 죽음을 넘어 “마음으로 상(喪)”⁴⁷⁾을 치러보는 예술 활동으로 승화되어 창발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수의 만들기는 삶 이후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공동거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공통장이었다. 수의는 망자의 기억과 자신의 죽어감과 관련된 일상의 경험이 기술-사물-환경과 얹히면서 응답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삶과 죽음을 한데 묶음으로써 분리할 수 없는 동시 발생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분리되고 통치되는 부조리를 역설하고자 “삶·죽음”이라는 가운뎃점을 활용한 서보경의 표현에 동의한다.⁴⁸⁾

이 연구에서 특별히 내가 바라드의 회절적 실천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하다. 다알리아의 얼룩을 처리한 방식, 탄핵 집회 참석, 제주항공참사에 대한 애도를 통한 연대 활동 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인간-재료-기술-환경 간의 정동적 응답으로 요약되는 잉골드의 조용적 실천에 상보적으로 작동하는 윤리적

45) Ingold, 2011, p.149.

46)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 오월의봄, 2012.

47) 이수유, 「마음으로 입는 상복: 심상(心喪)의 개념과 애도의 자격」, 『역사민속학』 65, 한국역사민속학회, 2023, 76면.

48)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211면.

실천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다알리아가 수많은 수행적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수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행위적 절단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회절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연구는 수의를 완성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참여를 포기한 참여자의 또 다른 방향으로의 물의 빗기를 기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분선,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철학탐구』 57, 중앙철학연구회, 2020, 163~199면.
- 도나 J. 해러웨이(저), 최유미(역),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2022.
-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 송병기, 『각자도사 사회』, 어크로스, 2023.
- 알폰소 링기스(제), 김성균(역),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바다출판사, 2013.
- 이수유, 「마음으로 입는 상복: 심상(心喪)의 개념과 애도의 자격」, 『역사민속학』 65, 한국역사민속학회, 2023, 71~99면.
- 이재원·김지원·김태석·김철민, 「한국인의 죽음 관련 의사소통 및 죽음 관련 가치관 확산 정도에 대한 조사」,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9(3), 대한가정의학회, 2019, 303~310면.
- 이지선, 「물질과 의미의 물의(物議) 빚기: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시대와 철학』 9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1, 233~260면.
- 정종민, 「스마트 기저귀와 인지증(치매) 돌봄: 정동적 기술적 접촉의 연결 (불)가능성」, 『생명연구』 73, 생명문화연구소, 2024, 139~168면.
- 팀 잉골드(저), 김현우(역), 『조음』, 가망서사, 2024a.
- 팀 잉골드(저), 김지혜(역), 『라인스』, 포도밭, 2024b.
- 팀 잉골드(저),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역),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이비, 2024c.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 의 삶과 진실』, 오월의봄, 2012.
- 최혜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낫설게 보기: 죽음의 통치성과 은폐된 욕구」, 『보건사회연구』 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6~27면.
- Anderson, Ben.,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2009, pp.77~81.
- Barad, Karen.,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28(3), 2003, pp.801~831.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 Barad, Karen., "On Touching—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Differences*

- 23, 2012, pp.206~223.
- Barad, Karen., "Diffracting Diffraction: Cutting Together-Apart," *Parallax* 20(3), 2014, pp.168~187.
- Gell, Alfred.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1998.
-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1988, pp.575~599.
- Harding, Sue-Ann., "'Becoming Knowledgeable': Ingold's 'Wayfaring' and the 'Art of Translation' as a Politics of Difference," *The Translator* 27(4), 2021, pp.351~367.
- Ingold, Tim.,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2000.
- Ingold, Tim.,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2011.
- Ingold, Tim., *Making: Anthropology, Archaeology, Art and Architecture*, London: Taylor & Francis, 2013.
- Ingold, Tim., "On Human Correspondenc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3(1), 2016, pp.9~27.
- Ingold, Tim., "Art and Anthropology for a Sustainable world,"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5(4), 2019, pp.659~675.

| Abstract |

The Creative Entanglement of Life and Death
Through Shroud Making :
Focusing on the Case of Dahlia

Jeong, Jongmin

Despite its significance in life, both for the individual and their social circles, death remains a challenging topic in everyday conversation due to prevailing cultural taboos. This study aims to show the creative intertwining of life and death through ‘shroud making’ organized by a local arts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applying Tim Ingold’s notion of correspondence and Karen Barad’s concept of diffr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hroud-making is not a single, completed event, but an ongoing process that intertwines with one’s own life memories and moves between life and death. In doing so, it reveals that for the shroud maker, the upcoming death is not a emotion of fear or loss, but an affective experience generated by the intertwining of past memories, present dying, and future expectations.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shroud-making is an artistic practice performed by the living for life, constituting a site of (re) crafting death, and providing a public forum for “creative death”.

Key Words: life-death, art practice, diffraction, creative entanglement, correspondence

무리디야 디아스포라의 테랑가(Teranga) 실천에 관한 연구*

— 종교적 환대, 의례적 송금,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

진소영**

목 차

1. 머리말	4. 이론적 함의 : 무리디야의 환대 실천과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아스포라 : 유럽의 무리디야 네트워크와 테랑가	친족 및 공동체 개념의 재구성
3. 의례화된 환대로서의 송금: 무리드 재정 실천과 테랑가의 도덕경제	5. 결론

■ 국문초록

본 고에서는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기원한 무리디야(Mouridiyya)라는 수피 교단이 테랑가(Teranga)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의 환대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가족 및 공동체의 개념을 변용시키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무리디야에서 테랑가는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종교적 의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혈연에 국한되지 않는 도덕적 연대와 영적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더욱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확산되어 있는 유럽의 무리디야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는 다히라(dahira)라고 불리는 공동체를 통해 테랑가에 기초한 상호부조나 종교적 의례가 제도화되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초국가적 연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리디야의 테랑가 실천이 종교 윤리, 경제활동, 이동(移動)과 정주(定住)의 맥락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재구성에 기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서아프리카, 수피즘, 무리디야, 디아스포라, 테랑가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1643)

**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주다문화연구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21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와 초국가적 이주는 전통적인 ‘가족’과 ‘커뮤니티’의 정의를 변용시켜 왔다. 경계를 넘는 이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출현은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인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의 가족과 지역 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확장된 가족(extended family)’,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개념은 유럽과 미국의 틀과 경험에 한정되어 이론화되어 왔다.¹⁾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이주(移住) 측면에서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이주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²⁾ 비서구적이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가족 및 커뮤니티 개념의 형성과 그 관계성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전역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초국가적 종교공동체로 발전한 서아프리카 이슬람 수피(Sufi Islam) 교단인 ‘무리디야(Tariqa Mouridiyya)’가 유럽 전역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하고 재구성해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리디야는 19세기 후반 셰이크 아마두 밤바(Cheikh Ahmadou Bamba; 1853~1927)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후 서아프리카, 특히 세네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피 이슬람 종파 중 하나가 되었다.³⁾ 오늘날 무리디야는 종교적 행위의 존속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등에서 초국적 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견고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⁴⁾

1) Massey, Douglas S.,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93): 431~466., Kofman, Eleonore, et al.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2005., Thomas, William Isaac, and Florian Znaniecki.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A classic work in immigration histo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6.

2) Zalta, Anja, and Primož Krašovec, “Black (and) Christian? New Systemic Racism and the ‘Refugee’ as a Depersonalised Category of Surplus: A Case Study of Tunisian Attitudes towards Sub-Saharan Africans,” *Religions* 15.7, 2024, p.1.

3) Oxford Analytica, “Senegal Sufi orders will avoid political endorsement,” *Emerald Expert Briefings oxaan-db*, 2022, p.296.

무리디아 공동체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손님, 순례자,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대와 환대를 강조하는 도덕적 의무인 ‘테랑가(Teranga)’를 기초로 한다.

서아프리카의 월로프(wolof) 문화에서 테랑가는 단순히 관대함(generosity)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뜻하며, 문화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윤리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테랑가는 세네갈 사회에서 오랜 기간 민중의 일상에 기여해 왔다.⁵⁾ 이러한 문화적 배경 위에 무리디아 교단이 형성되면서 테랑가는 단순히 문화적 가치의 의미를 넘어 구조화된 ‘종교적 의무’로 변모했다. 이에 지금도 무리디아는 테랑가를 영적 가르침,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종교적 실천으로 통합하여 사람들의 삶에 접목하고 있다.⁶⁾

이처럼 무리디아 교단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 확대하는 가운데,⁷⁾ 테랑가는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무리디아의 성지인 투바(Touba)를 포함하여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와 같은 서구의 대도시에서도 무리디아 공동체는 테랑가를 통해 연대를 육성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혈연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종교 순례 행사인 ‘그랜드 마갈(Grand Magal)’에는 다양한 지역과 민족 배경을 가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세네갈의 투바로 몰려드는데,⁸⁾ 이때 투바 주민들은 이들에게 사적인 가족 공간을 공유 공동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의 물리적, 사회적 경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대된 무리디아 공동체의 규모와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서는 무

4) Kaag, Mayke, “Faithful Journeys: Unpacking the Religious Luggage of Senegalese Murid Migrants in Europe,” *Islamic Africa* 14(1), 2022, p.83.

5) Oni, Domenico Arena, “Dialogue islamo-chrétien en Afrique Une expérience missionnaire,” *Cahiers des Religions Africaines* 5(9), 2024, p.92.

6) Oni, Domenico Arena, “Dialogue islamo-chrétien en Afrique Une expérience missionnaire,” *Cahiers des Religions Africaines* 5.9, 2024, p.92.

7) Firebrace, William, *Marseille mix*. MIT Press, 2022, p.52.

8) Abbou, Tahar, “The Pilgrimage to the Grand Magal in Tūbā, Senegal,”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10(4), 2022, p.3.

리디아의 테랑가가 가족 및 공동체 소속에 대한 정의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리디아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랜드 마갈로 인한 경제적 영향, 초국적 무역 네트워크에 집중해 왔고,⁹⁾ 반대로, 테랑가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서술적 문화 연구나 인류학적 틀 안에만 머물러 있어,¹⁰⁾ 이러한 관행이 사회적 유대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 무리디아 교단의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행동 양상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테랑가(teranga)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영적 공동체로 전환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현행 학술 문헌에서 유럽의 무리디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유지의 주체로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서사들이 테랑가의 초국가적 공동체 유지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경제학 및 이주 연구에서 무리디아 교단의 송금과 자선기금이 단순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또는 테랑가에 근거한 의례적인 상호부조 행위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적 해석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관한 이론적 모델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아스포라 : 유럽의 무리디아 네트워크와 테랑가

이슬람에서 공동체 개념은 역사적으로 혈연 중심의 유대보다는 신앙 중심

9) Abbou, Tahar, "The Pilgrimage to the Grand Magal in Tūbā, Senegal,"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10(4), 2022, 3~10., Sow, Papa, "Bagassu Turkii: Senegalese Transnational E-commerce and Social Networks between Dakar and Istanbul," *Turkish Journal of African Studies* 2(1), 2025, 67~83.

10) Riley, Emily Jenan, *Terànga and the art of hospitality: Engendering the nation, politics, and religion in Dakar, Senegal*.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의 공동체(움마, Umma)를 중시해 왔다.¹¹⁾ 이는 ‘이슬람 형제애(brotherhood)’라는 특유의 전통 이념에 따라 혈연에 기초한 가족의 정의를 초월하는 것이다. 꾸란(Quran) 및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 Hadith) 등 고전 이슬람 문헌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관계가 혈통적 유대를 넘어선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세네갈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무리디야 형제애가 테랑가를 어떻게 실천하고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하겠다. 세네갈의 고유문화와 전통, 그리고 이슬람 윤리에 뿌리를 둔 무리디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이슬람의 이상적인 연대와 영적 친족관계를 제도화된 형태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Mamadou Diouf, Bruno Riccio, Fallou Ngom의 민족지적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¹³⁾ 무리디야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이슬람 환대의 이념을 구현하고 성공한 교단의 한 가지 예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무리디야 커뮤니티인 다히라(dahira)¹⁴⁾에서는 공동생활을 통해 환대가 체계적으로 실천되고 있으

11) 안신,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과 평화-한국전쟁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2(2), 한국종교학회, 2022, p.44.

12) 꾸란 49장 10절에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 사이를 화해 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영길의 『꾸란주해』에 의하면 이슬람의 형제애는 믿음을 바탕으로 둔 이슬람 사회의 가장 큰 힘으로 해석하고 있다(최영길, 『꾸란주해』 세창출판사, 2016, p.658.). 또한, 이슬람의 가장 권위있는 하디스 모음집 중 하나인 사히흐 알 부카리에는 “무슬림은 무슬림의 형제이다. ...” 라고 명시되어 무슬림 간의 관계는 혈연적 친족이 아니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연대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bī al-Ṭayyib Muḥammad Ṣiddīq ibn Ḥasan al-Qinnūjī al-Bukhārī, *al-Sirāj al-Wahhāj fī Kashf Maʿālib Ṣaḥīḥ Muslim li-l-Ḥafīẓ al-Mundhirī*, ed. Aḥmad Farīd al-Maʿrūdī, Beirut: Dār al-Kutub al-ʿIlmiyyah, 2004, p.372.).

13) Diouf, Mamadou, and Steven Rendall, “The Senegalese Murid trade diaspora and the making of a vernacular cosmopolitanism,” *Public culture* 12.3 (2000): 679~702., Diouf, Mamadou, and Mara Leichtman, eds., *New perspectives on Islam in Senegal: conversion, migration, wealth, power, and femininity*. Springer, 2009., Riccio, Bruno, “Transnational Mouridism and the Afro Muslim Critique of Ital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5 (2004): 929~944., Ngom, Fallou. *Muslims beyond the Arab world: The odyssey of ajami and the Muridiyya*.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4) 다히라는 무리디야 수피 교단 내에서 형성된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이며, 지역 사회

며, 그 구조는 교단의 신자인 탈리베(talibe)¹⁵⁾가 종교적·윤리적 의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슬람 형제애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명확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리디야의 ‘환대 실천’은 테랑가의 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된다. 테랑가는 세네갈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유되고 강조되어 온 타인에 대한 관용과 환대의 덕목으로, 무리디야는 이를 종교적 규범과 결합하여 더욱 구체화하였다.¹⁶⁾ 즉, 탈리베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봉사 행위와 상호 돌봄은 단순히 교단의 내부 규율에 머물지 않고, 세네갈의 환대라는 가치를 이슬람의 윤리적 실천으로 승화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무리디야가 형성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히라는, 무리디야 교단이 전통 문화가치와 종교적 가르침을 결합해 글로벌 디아스포라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¹⁸⁾ 여전히 무리디야의 신자인 탈리베들은 다히라에서 이슬람 윤리에 입각한 테랑가를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리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 이주해 온 신자에게 식사와 숙박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취업, 교육, 비자 신청 등 실무적인 지원을 통해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¹⁹⁾ 아

혹은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정기적인 종교 활동, 상호부조, 교육, 송금, 공동체 행사를 수행한다.

15) 탈리베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에서 유래 되었고, 무리디야 수피 교단에서는 이러한 탈리베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신자이자 수행자이며, 동시에 영적인 스승인 마라부(Marabout)와의 관계에서 수피 윤리와 실천을 내면화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16) Gasparetti, Fedora, “Relying on Teranga: Senegalese migrants to Italy and their children left behind,” *Autrepart* 5758.1, 2011, pp.221~222.

17) Beth Buggenhagen, *Muslim families in global Senegal*,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p.93.

18) 다히라는 무리디야 교단에 국한된 공동체이다(Gueye 2003: 621).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등의 대도시에는 무리디야 종파 외에도 티자니아(Tariqa Tijaniyya)와 까디리야(Tariqa Qadiriyya) 등의 수피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들 각 공동체는 별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Seesemann 2010: 611). 따라서 다히라는 서아프리카 무슬림 디아스포라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무리디야 종파에 한정된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올려 정기적인 기도회와 종교 연구 모임을 통해 신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상호부조를 유지하기 위한 다히라 내에서의 자금 모으기 활동 또한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활동은 무리디아 종파가 표방하는 이슬람 형제애의 이념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무리디아의 ‘환대 실천’은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독자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무리디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종교적 의무와 문화적으로 내면화된 테랑가를 결합함으로써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사회적 결속력, 경제적 안정성,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아프리카 이슬람형 사회 자본 모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의 무리디아 공동체는 새로운 이주자에게 주거 및 취업처 확보를 지원하고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등 기존 구성원과 신규 이주자 간의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테랑가와 이슬람 형제애가 결합된 무리디아의 구조가 초국가적 네트워크에서 이주자의 통합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주민 공동체는 비공식적인 복지 제공자로서 이주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주거, 고용 기회의 제공 및 실질적인 통합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되곤 한다.²⁰⁾ 다히라 또한 이슬람 형제애에 뿌리를 두고 환대를 기반으로 기능하는 종교적 네트워크가 공적인 국가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교적 및 문화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때때로 배타성이나 외부 사회와의 한정적인 통합이라는 측면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일이 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체는 초국

19) Beth Bugenhagen, *Muslim families in global Senegal*,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p.93.

20) Koç, h.a.l.i.l., and Göksel Göker, “Examining the Religious and Ethno-Cultural Practices of Immigrants in the Framework of Solidarity Networks the Case of Senegalese Mourides in İstanbul,” *Africana-İñönü Üniversitesi Afrika Araştırmaları Dergisi* 2(2), 2022, p.57.

21) Levy, André, “Diasporas and Religious Identities: Insights fro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Religions* 15(11), 2024, 1381(p.2).

가적인 사회관계 자본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문화, 종교적으로 내재화된 현대의 윤리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유럽 내 무리디야 디아스포라는 정통이슬람 형제애 이념을 현대적 형태로 구현해 왔기에 무리디야 공동체는 테랑가라는 문화를 실천, 제도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이슬람 공동체로의 귀속 개념을 크게 확장하고, 나아가 초국가적 이동 및 디아스포라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슬람 윤리가 이주자의 적응, 사회적 결속,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3. 의례화된 현대로서의 송금: 무리드 재정 실천과 테랑가의 도덕경제

이주자의 송금은 오늘날 이주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필요성, 가계 소득, 혹은 초국가적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히, 모국이 개발도상국일 경우, 디아스포라의 송금은 모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²⁾ 이는 모국에 잔류하는 이민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디야 공동체의 송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종교적·윤리적·례적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와 보살핌 정신을 나타내는 테랑가는 종교적 의무, 공동체적 연대, 그리고 도덕적 상호부조라는 명목으로 무리디야의 송금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종래의 경제학, 인류학, 정책 관련 문헌을 참조하면서 무리디야 디아스포라에서의 송금 및 자선적 실천이 어떻게 테랑가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초국가적 공동체 유지의 핵심적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인류학 및 사회학 문헌에서는 무리디야 디아스포라 공동체 간의 송금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Beth Buggenhagen, Bruno Riccio 등의 연구자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유럽의 무리디야

22) Anh, Dang Nguyen, "Enhanc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migrant remittances and diaspora: the case of Viet Nam,"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20.3, 2006, 115.

디아스포라 송금을 바라카(baraka: 신의 축복), 키드마(khidma: 봉사, 종교 지도자나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행위), 사다카(sadaqah: 자선)와 같은 종교적 의례로 설명하고 있다.²³⁾ 또한, 송금자 본인도 이를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²⁴⁾ 이러한 의미에서 송금은 가족 부양이나 생활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무리디야 교리 및 공동체 윤리에 근거한 의례적 헌신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실천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은 ‘다히라(dahira)’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다히라는 종교 활동뿐 아니라 집단 송금, 공동모금, 상호부조기금 운영 같은 종교적 실천을 통해 테랑가의 윤리를 구체화하는 조직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투바(Touba)에서 개최되는 그랜드 마갈(Grand Magal) 순례와 같은 주요 종교행사에는 무리디야 디아스포라에서 대규모 자금이 송금되어 가족 단위의 지원을 넘어 투바의 대중을 위한 식사 제공, 교통수단 제공, 모스크 보수, 꾸란 학교 및 병원 운영 등 공공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²⁵⁾ 이러한 집단 송금은 경제적 지원의 영역을 넘어 초국가적인 자카트(zakat: 의무적 자선세)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신앙과 환대의 윤리가 재정 실천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 국제통화기금(IMF 2023)과 같은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세네갈이 가장 많은 송금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그중 무리디야 구성원이 밀집한 투바 및 디우르벨 지역이 주요 수혜자임을 언급하고 있다.²⁶⁾ 특히, 이주자의 송금이 수출과 수입보다 GDP 및 대

23) Buggenhagen, Beth Anne, “Prophets and Profits: Gendered and Generational Visions of Wealth and Value in Senegalese Murid Households,” *Journal of religion in Africa* 31.4, 2001, pp.373~401., Riccio, Bruno, “From ‘ethnic group’ to ‘transnational community’? Senegalese migrants’ ambivalent experiences and multiple trajector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2001, pp.583~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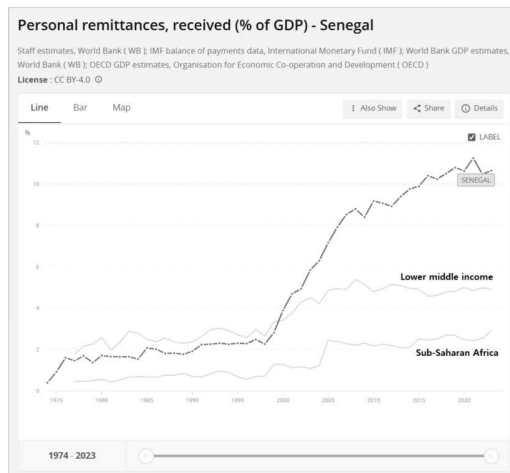
24) Gifford, Paul, “Religio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Senegal,” *African Affairs* 115.461 (2016): 688~709.

25) Kaag, Mayke, “Faithful journeys: Unpacking the religious luggage of Senegalese Murid migrants in Europe,” *Islamic Africa* 14.1 2022, p.94.

26) De Heusch, Félicien, and Thomas Lacroix, “Negotiating moral authority for body repatriation:

외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문헌은 송금의 종교적·윤리적 행위를 간과하고 주로 경제적 수치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Cruz(2020: 83)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네갈 이민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왓츠앱과 같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앱을 이용해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그림 1> 세계은행이 제공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세네갈 송금 수입은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증가하여, 온라인 송금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1974년부터 2023년까지 세네갈의 송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저소득 국가 보다 송금 의존도가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세네갈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308.5억달러 였고, 그 중 10.6%가 개인 송금으로 집계되었다는 수치를 보면, 공식적으로 송금이 약 3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금융 수치이며, 친구나 공동체를 통한 전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송금 총액은 공식 수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세네갈의 GDP 대비 개인 송금 수량액

출처: World Bank

The case of Senegalese migration,” *Interventions* 26.1 (2024), p.9.

27)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untry Report* No. 23/432, December 2023, p.50.

무리디아 공동체의 송금 관행은 자국과 커뮤니티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송금이 단순히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도덕적 연대와 종교적 윤리를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로 전환될 때, 이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가족 구조인 확장된 가족 개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리디아의 사례는 도덕경제론(moral economy),²⁸⁾ 유사 친족관계(fictive kinship),²⁹⁾ 그리고 종교적 커뮤니티 형성에 따른 학제 간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무리디아 디아스포라 송금과 자선 실천은 테랑가 윤리에 깊이 뿌리내린 환대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종교적 의례를 재생산하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4. 이론적 함의: 무리디아의 환대 실천과 친족 및 공동체 개념의 재구성

지금까지 본 연구는 무리디아 공동체가 실천하는 종교적 윤리와 테랑가가 어떻게 디아스포라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송금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및 공동체 개념을 확장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무리디아 사례가 초국가적 범주 아래 친족의 개념과 환대 윤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장하는지에 관해 그 이론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분석한 무리디아의 종교 문헌에서 친족은 주로 혈연과 생물학적 유대

28) 도덕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단순히 이익 추구하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공정성, 정의 등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양자 보호, 생계 유지, 상호부조와 같은 것이 핵심 가치로 여겨진다(홍성욱,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창비, 2001, pp.122~124.).

29) 유사 친족관계란 실제 혈연이나 혼인과 같은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회적으로 친족처럼 행동하는 관계를 의미한다(Chatters, Linda M., Robert Joseph Taylor, and Rukmalie Jayakody, "Fictive kinship relations in black extended famili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5(3), 1994, p.298.).

에 기초한다고 보는 서구 중심의 개념(Talcott Parsons, George Murdock)과는 다르게 친족관계를 영적, 윤리적 연대의 한 형태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확장된 친족의 개념은 생물학적 관련성 없이 개인과 집단이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유사 친족관계(fictive kinship)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arsten, Schneider, Sahlins과 같은 학자들은 친족관계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는데, 무리디야의 사례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배경이 되며, 종교 윤리가 공유된 종교적 신념, 도덕적 의무, 환대 관행을 통해 친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리디야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종종 세속적인 시각(Bourdieu, Putnam)에서 분석되는 ‘사회적 자본’이 종교적 틀 내부에 깊이 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무리디야의 다히라(dahira)는 단순히 종교 커뮤니티에 그치지 않고 환대(teranga)를 중심적 가치로 하는 종교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테랑가의 윤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국가적 연대를 조직화하고 지속시키고 있으며, 종교적 윤리가 사회관계 자본의 창출원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무리디야 공동체에서의 송금은 경제행위라는 통념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다. 송금은 단지 가게 보완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며,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귀속을 보여주는 의례적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해는 경제사회학, 종교인류학, 이주 연구 등 학제 영역을 넘나드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실천마저 도덕 경제론(moral economy)의 일부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무리디야에서의 송금 실천은 공동체 내의 정체성 및 연대 구축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개념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리디야에서의 ‘실천적 환대’는 환대의 윤리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한다. Emmanuel Levinas, Jacques Derrida, Marcel Mauss 등의 논의는 서양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환대를 추상적 윤리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무리디야에서의 테랑가는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있는 실천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환대가 단순한 타인에 대한 이상적 개방이 아니라 실제 종교적 규범 및 사회제도를 통해 수행되는 윤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환대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무리디야에서의 확장된 친족 및 환대의 개념은 현대의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에 대해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교 윤리에 기반한 공동체 네트워크가 이민의 통합 및 사회적 결속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무리디야의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컨대 무리디야에서의 테랑가 제도화는 친족, 공동체, 환대 윤리 그리고 이민 및 이주 이론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언설을 풍부하게 재구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리디야의 종교 문헌, 디아스포라에서의 실천, 그리고 송금 활동이 어떻게 ‘가족’ 및 ‘커뮤니티’의 경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종교 윤리와 문화 실천이 현대의 초국가적 이동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를 재창조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했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리디야 교단 전통에 있어서 테랑가의 윤리가 신학적 언설, 디아스포라의 실천, 의례화된 경제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및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변용시켜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무리디야의 종교적 실천이 혈연에 기반한 친족관계를 넘어 재구성되고, 환대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로 제시됨으로써 월경적인 공동체의 연대 및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무리디야의 종교 문헌이 테랑가를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신성한 종교적 의무로 격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관해서는 학술적 및 정책적 문헌을 바탕으로 유럽의 무리디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테랑가를 통해 얼마나 사회관계 자본을 창출 유지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다히라(dahira)는 테랑가를 실천의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의 결속, 상호부조, 신뢰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자율적 복

지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무리디야 디아스포라가 테랑가를 종교적 문화적 자산으로 전락화하고 이민의 사회통합과 종교적 정체성 유지를 양립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 질문에 관해서는 무리디야 디아스포라에 있어서의 송금이 단순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의례화된 환대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송금은 종교적·도덕적 의미를 내포한 행위로, 무리디야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부조, 연대, 소속감을 재확인하는 수행적 실천이다. 이는 종교 윤리 및 공동체 윤리가 경제적 실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례로써 이론적 틀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무리디야에서의 환대 실천은 친족, 공동체 그리고 초국가적 이동에 관한 기존 이론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리디야의 사례는 종교적 윤리와 전통적 문화 실천이 어떻게 세속적이고 서양 중심적인 틀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종교적 헌신과 윤리적 의무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연하고 견고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리디야 공동체에서의 테랑가 실천은 현대의 초국가적 이동 사회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적 환대가 어떻게 경제적 실천, 공동체의 유지 및 연대의 구축을 통합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여 현대의 종교와 문화 실천이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제적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bbou, Tahar, “The Pilgrimage to the Grand Magal in Tūbā, Senegal,”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10.4 (2022a): 3.
- Anh, Dang Nguyen, “Enhancing the Development Impact of Migrant Remittances and Diaspora: The Case of Viet Nam,”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20.3 (2006): 111~22.
- Bayo, Saiba, “The Charnegroes: Black Africans and the Ontological Conflict in Catalonia,” *Social Sciences*10.7 (2021): 257.
- Buggenhagen, Beth Anne, “Prophets and Profits: Gendered and Generational Visions of Wealth and Value in Senegalese Murid Households1,” *Journal of religion in Africa*31.4 (2001): 373~401.
- Chatters, Linda M., Robert Joseph Taylor, and Rukmalie Jayakody, “Fictive Kinship Relations in Black Extended Famili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25.3 (1994): 297~312.
- Cruz, Nélida Murguía, “Glottopolitical Interventions and Virtuality in Spanish Language Teaching for Senegalese Immigrants during the Pandemic (Buenos Aires, 2020~2021),” *Language, Migration and Multilingualism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79.
- De Heusch, Félicien, and Thomas Lacroix, “Negotiating moral authority for body repatriation: The case of Senegalese migration,” *Interventions* 26.1 (2024): 70~90.
- Diouf, Mamadou, and Mara Leichtman, *New Perspectives on Islam in Senegal: Conversion, Migration, Wealth, Power, and Femininity*. Springer, 2009.
- Diouf, Mamadou, and Steven Rendall, “The Senegalese Murid Trade Diaspora and the Making of a Vernacular Cosmopolitanism,” *Public culture*12.3 (2000): 679~702.
- Firebrace, William, *Marseille Mix*. MIT Press, 2022.
- Gasparetti, Fedora, “Food and Migration.”
- Gasparetti, Fedora, “Relying on Teranga: Senegalese Migrants to Italy and their Children Left Behind,” *Autrepart*5758.1 (2011): 215~32.
- Gueye, Cheikh, “New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by Muslim

- Mourides in Senegal,”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30.98 (2003): 609~625.
- Hasan, Muhammad Siddiq (Nawab Bhopal), and Ahmad ibn Farid ibn Ahmad Mazidi, *Al-Sirāj al-Wahhāj fī Kashf Maṭālib Muslim ibn al-Ḥajjāj: Sharḥ Mukhtaṣar Ṣaḥīḥ Muslim li-l-Ḥafīẓ al-Mundhirī*. Dār al-Kutub al-‘Ilmiyyah, 2004.
- Heil, Tilmann, “Interweaving the Fabric of Urban Infrastructure: Senegalese City-Making in Rio De Janeir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5.1 (2021a): 133~49.
- Heil, Tilmann, “Interweaving the Fabric of Urban Infrastructure: Senegalese City-Making in Rio De Janeir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5.1 (2021b): 133~49.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untry Report No. 23/432*, December 2023, p.50.
- Kaag, Mayke, “Faithful Journeys: Unpacking the Religious Luggage of Senegalese Murid Migrants in Europe,” *Islamic Africa* 14.1 (2022): 79~97.
- Koç, HALİL, and Göksel Göker, “Examining the Religious and Ethno-Cultural Practices of Immigrants in the Framework of Solidarity Networks the Case of Senegalese Mourides in Istanbul,” *Africana-İñönü Üniversitesi Afrika Araştırmaları Dergisi* 2.2 (2022).
- Kofman, Eleonore, et al.,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2005.
- MONE, MUSLIM FAMILIES IN GLOBAL SENEGAL, “Muslim Families in Global Senegal Money Takes Care of Shame Pdf.”
- Oxford Analytica, “Senegal Sufi Orders Will Avoid Political Endorsement,” *Emerald Expert Briefings*.oxan-db (2022).
- Riccio, Bruno, “From ‘ethnic Group’ to ‘transnational Community’? Senegalese Migrants’ Ambivalent Experiences and Multiple Trajector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2001): 583~99.
- Riccio, Bruno, “Transnational Mouridism and the Afro-Muslim Critique of Ital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5 (2004): 929~44.
- Riley, Emily Jenan, *Teranga and the Art of Hospitality: Engendering the Nation, Politics, and Religion in Dakar, Senegal*.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 Seesemann, Rüdiger, "Sufism in West Africa," *Religion Compass* 4.10 (2010): 606~614.
- Sow, Papa, "Bagassu Turkii: Senegalese Transnational E-Commerce and Social Networks between Dakar and Istanbul," *Turkish Journal of African Studies* 2.1 (2025): 67~83.
- Thomas, William Isaac, and Florian Znaniecki,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A Classic Work in Immigration Histo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6.
-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TRF.PWKR.DT.GD.ZS?contextual=aggregate&end=2023&locations=SN&start=1974&view=chart> 검색일 2025년 7월 15일
- 안신,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과 평화-한국전쟁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2(2), 한국종교학회, 2022, 33~54면.
- 최영길, 『꾸란 주해』, 세창출판사, 2010.

| Abstract |

A Study on Teranga Practices in the Mouridiyya Diaspora

Jin, Soyou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uridiyya Sufi order, which originated in Senegal, West Africa, reinterprets the West African hospitality culture called Teranga and transforms the concepts of family and community. In the Mouridiyya, Teranga is not simply a cultural practice, but also has a profound influence on religious obligations based on faith, and is a core value that supports moral solidarity and spiritual relationships that are not limited to blood relations. Furthermore, in the European Mouridiyya diaspora communities spread across France, Italy, and Spain, mutual aid and religious rituals based on Teranga are institutionalized through communities called Dahira,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maintenance of transnational solidar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how the Mouridiyya's Teranga practice intersects with religious ethic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ntext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and contributes to the reconstruction of family and community.

Key Words: West Africa, Sufism, Mouridiyya, Diaspora, Teranga

지역에서 ‘완벽한’ 엄마로 살아가기*

— J지역 40대 전업주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장미**·추주희***

목 차

1. 서론	4. 지역 전업주부의 모성 실천과 일상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결론
3. 연구방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J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전업주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집중적 모성 실천과 젠더불평등의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했으며,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전업주부가 되었다. 본 연구는 5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업주부들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집중적 모성 실천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그 실천이 사회적 기대와 경제적 제약의 교차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조정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 성취와 돌봄의 질을 통해 전업주부로서의 노동 가치를 입증하고, 이러한 기여를 가족 내 ‘공정한 분담’이라는 담론 속에서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젠더분업 구조의 내면화를 동반하며, 모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재생산하는 이중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들은 자녀에게 성평등 가치관을 전이하려는 모성 실천을 통해 기존 젠더 질서에 균열을 시도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화된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업주부라는 위치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계층적 조건과 지역적 맥락,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형성된 젠더 실천임을 드러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도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4120240315019).

** 주저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낸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순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삶의 양상을 조명한다.

주제어 : 가족, 전업주부, 집중적 모성, 성별분업, 돌봄

1. 서론

최근 사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의 엄마들을 패러디한 ‘도치맘’ 캐릭터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패러디는 대치동 엄마들의 패션, 말투, 교육 태도 등을 희화화하며, 특히 네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제이미’에게 따뜻한 말투로 교육하면서도 하루 종일 학원에 데려가는 ‘학원 라이딩’ 일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과 중상류층 여성의 모성 수행 방식을 풍자한다. 이러한 ‘도치맘’ 유형의 어머니상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왔다. 드라마 <시크릿 마더> (2018, SBS)와 <스카이 캐슬> (2018, JTBC)에서도 중상류층 여성이 자녀를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일원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서사 속 ‘엄마’는 외주화할 수 없는 고비용·고감정의 돌봄노동을 감당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들의 집중적 모성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노동 강도가 집약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¹⁾

샤론 헤이즈(1996)는 『모성의 문화적 모순』(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에서, 현대 사회에서 집중적 모성 이념의 중요성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녀는 모성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고, 특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모성 규범이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성 스타일을 수용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²⁾ 그러나 이러한 모성 규범은 여성에게 끊임없는 사회적 평가와

1) 황진미, 「의사가 전업주부를 해?...‘차정숙’이 보여주는 경력단절의 늪」, 『한겨레신문』, 2023년 4월 29일, 문화면 참조.

2) 샤론 헤이즈(1996)는 이를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집중적 모성은 미국의 지배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중심적이고, 전문가의 지도에 따르는 고비용이 드는 엄마노릇(mothering)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녀 양육과 발달의 일차적 책임자로 자리매김되며, 자신의 삶보다 자녀의 필요를

갑시를 초래하여 모성 전략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더욱 심화시킨다.³⁾

나아가 이러한 집중적 모성은 계급, 인종, 지역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실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단일하고 보편적인 모성 이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규범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모성 이념을 수용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이 분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업주부'라는 제도화된 위치는 모성 수행의 방식과 범위를 계층적으로 구분짓는 핵심 매개로 작용한다.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집중적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에 놓인 여성들은 이러한 이념을 수용하더라도 실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모성 전략을 구성하게 된다.⁴⁾

더 나아가, 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 또한 이러한 젠더화된 모성 규범이 재구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노동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성 중심적인 경향이 강해,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⁵⁾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여성이 결혼·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중단' 이

우선시하도록 요구받는다. Hays, S,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1996.

- 3) Henderson, A., Harmon, S., & Newman, H, "The price mothers pay, even when they are not buying it: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idealized motherhood," *Sex Roles* 74(11-12), 2016, pp.512~526. Kim jihoon and Sumie Okazaki, "Short-Term 'Intensive Mothering' on a Budget: Working Mothers of Korean Children Studying Abroad in Southeast Asia," *Asian Women* 33(3), 2017, pp.111~139.

- 4) 이 같은 계층적 차이는 대중문화 속 여성 재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속 중상류층 전업주부가 집중적 모성을 '과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은 집중적 모성과 전통적 성역할 사이에서 균열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완전히 수용하지도, 집중적 모성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지도 못한 채, 사회적 평가와 구조적 제약 속에서 모성과 노동의 모순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 5) 추주희·이희정,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전공계열과 전공 선택 지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32(3), 한국문화사회학회, 2024, 123~125면.

후 돌봄 전업'이라는 경로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J지역의 고용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J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2.6%로 전국 평균 38.3%를 상회하여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높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내부 비정규직 비율은 59.9%로 남성 40.1% 대비 19.8% 격차를 보이며,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약 6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집중과 남성 대비 약 65% 수준에 머무르는 여성 임금 구조로 인해 성별 임금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⁶⁾ 이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질적 성평등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결혼 이후 취업을 중단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며, 이 선택은 종종 합리적이고 '평등한' 가족 전략이라는 서사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서사는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화된 책임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문화적 메커니즘을 재생산한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선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정당화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이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과정에서 집중적 모성 이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전업주부라는 지위가 지역사회 내에서 젠더불평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모성 수행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이 젠더, 계층, 지역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맞물려 구성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족 내 성별 권력과 모성 수행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3월 7일자 참조.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결혼과 가족생활의 패러다임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 특히 맞벌이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구성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부부가 경제적 책임과 가사·돌봄 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성평등한 가치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⁷⁾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해소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가정 내 역할 수행의 현실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다.⁸⁾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재편은 오히려 전업주부의 역할과 정체성에 새로운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돌봄노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업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⁹⁾ 특히 한 가구의 생계를 남성의 소득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소득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성별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인 중산층 가족 모델은 변화하였고, 오늘날에는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야만 중산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신중산층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전업주부의 역할을 병행하거나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경제적 기여와 돌봄노동이라는 중첩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가족 내 헌신적 역할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

7)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8.2%에 달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의 경우 56.8%가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2024년 6월 18일 참조.

8) 실제 시간 사용 자료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7분, 남성은 54분으로, 여성의 부담이 현저히 크다. 남성이 외벌이를 할 경우에도 가사노동 시간은 거의 동일하며, 여성은 오히려 5시간 41분에 달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년 7월 30일 참조.

9) 김은희, 1997; 오하영, 2005; 문현아, 2008; 조은, 2008; 배은경, 2009; 박혜경, 2010; 황정숙·황성희, 2019; 이아승, 2020.

10) 김은희, 「신중산층의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접근』, 집문당, 1997, 235~271면.

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부들은 자기 계발과 가족 책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¹¹⁾ 이러한 긴장은 때로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의 재강화로, 혹은 모성 경험의 긍정적 재해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²⁾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업주부는 단순히 집안일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 교육, 가족 건강관리, 대외적 관계 조율 등 가족의 사회적 삶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가사노동'까지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성별 분업이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전업주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 권력'의 근거가 된다.¹³⁾ 즉, 전업주부는 단순한 종속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으며,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과 돌봄노동, 자녀 교육, 재정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적 권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¹⁴⁾ 하지만 이러한 내부 권력과 별개로, 여성의 취업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업주부는 점점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¹⁵⁾ 상층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업주부가 점점 '계급적 특권'으로 간주되며,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업주부의 사회적 위치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의 유급노동이 일반화된 오늘날 전업주부는 변화하는 가족 및 젠더 질서 속에서 경계적 위치에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기혼여성들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결혼 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성과 직업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경우가 많다.

11)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한국여성학회, 2010, 127~158면.

12) 신경아, 「한국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13) 오하영, 「2000년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 -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191면.

14) 조형, 「도시중산층 전업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여성학』 13(2), 한국여성학회, 1997, 226~227면.

15) 신경아,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한국여성학회, 2014, 182면.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합리적’이고 ‘자발적’ 선택으로 정당화한다. 이는 전업주부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전통적 여성성에 의해 지지 받는 동시에, 성평등적 가치와 유급노동의 보편화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승인과 자기서사의 균열을 경험하게 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¹⁶⁾

기혼여성들은 점점 더 성평등한 가족 문화와 공정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과 소득 수준의 향상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¹⁷⁾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의 일정 수준 성평등이 진전되었음에도,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변화—특히 ‘젠더 수행(doing gender)’과 ‘젠더 의식(gender consciousness)’의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 젠더 관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일상적 상호작용과 담론 환경 속에서 권력과 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이다.¹⁸⁾ 따라서 여성들의 모성 구성 전략은 가부장적 가족 및 사회 구조 안에서 성별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유지하거나 저항하는 양가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날 젠더 질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관점이 된다.

윙(Wong)과 다밍거(Daminger)는 현대 결혼에서 부부가 평등하고 상호적이라고 믿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를 ‘상호성의 신화(Mutuality Myth)’라고 개념화하며,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른 권력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부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분석한다.¹⁹⁾ 즉, 평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믿음과 달리, 여성은 돌봄노동의 주된 담당자이자 남성의 결정을 보조하는 조력자로 기능하

16) 황정숙, 「중산층 전업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과 모성 재구성에 관한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1(4),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 245~275면.

17) 이명진·부수현, 「중년부부의 갈등인식 정도, 갈등해결전략, 책임분담에 따른 군집유형 비교: 부부권력, 결혼만족과 스트레스의 차이」,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6(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50면.

18) Sullivan, O, “Changing gender practices within the household: A theoretical perspective,” *Gender & Society* 18(2), 2004, pp.207~222.

19) Wong, J. S., & Daminger, A, “The myth of mutuality: Decision-making, marital power, and the persistence of gender inequality,” *Gender & Society* 38(2), 2024, pp.157~186.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상적 실천을 통해 전통적인 젠더 역할은 여전히 은밀히 재생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자발적 선택’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의 불평등 구조를 은연중에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전업주부의 정체성과 역할을 둘러싼 현상은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상호성’이라는 신화를 통해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글은,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전업주부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것이 가족 내 젠더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상호성 신화’ 개념을 활용하여, 표면적으로 평등해 보이는 부부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 내재된 젠더 분업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전업주부와 집중적 모성

‘주부’는 단순히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젠더화된(gendered) 지위를 나타낸다.²⁰⁾ 박혜경(2010: 128)은 ‘주부’가 기혼여성과 가사노동자의 위치를 결합한 성구분된(sexed)·가족화된(familied) 용어임을 지적하며, 이는 여성을 ‘가족 내 책임자’라는 지위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키는 언어적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업주부’라는 표현은 가족 내 모든 일을 전일제로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업군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호한 경계 위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은 ‘비가시화된 직업’으로 취급된다.²¹⁾

특히 한국의 전업주부상은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산층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핵심 매개로 작동하며,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부에 고정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가족임금’을 전제로 한 핵가족 모델은 일부 계층에게만 가능한

20) 박혜경, 앞의 논문, 128면.

21) 신나리, 「맞벌이면 같이 해야지... 전업주부는요?」, 『오마이뉴스』, 2018년 3월 20일 참조.

22)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153~157면.

이상이었다. 다수의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함께 생계보조자 역할을 병행하였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이중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²³⁾ 결국 전업주부 역할은 계급적 특권으로서 기능했으며,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가족모델이 급격히 해체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새로운 가족 규범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재정의 요구를 동반하였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hood)'이라는 문화적 기준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헤이즈(Hays, 1996)는 집중적 모성을 어머니가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양육 방식으로 정의하며,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어머니는 자녀와 내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연적' 양육 능력을 갖춘 존재로 간주된다. 둘째,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시간, 에너지, 물질적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하며, 최신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 양육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므로, 어머니는 경력과 자기실현보다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상화된 모성 이데올로기는 계층적, 인종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내 저소득층 및 소수 인종 어머니들이 이러한 이상적 모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했다.²⁴⁾ 이는 집중적 모성이 단일한 여성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특정 계층과 인종을 기준으로 한 배제의 논리임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도 집중적 모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주로 중산층 이상 여성에게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모성과 자아실현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착한 어머니' 이데올로기가 자녀의 성공과 가족의 품격을 여성의 돌봄 역량에 전가함으로써, 여성들이 자발적 돌봄 수행자이자 가족 이데올로기의 담지자로 기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²⁵⁾ 또한 더불어 한국의 고학력 기혼여성은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에 위치하면서도 자녀

23) 배은경, 「『경제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47면.

24) Dow, 2016; Dembosky et al., 2024 참조.

25) 배은경, 앞의논문, 39~82면.

양육과 교육을 위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업주부 연구는 주로 중산층 전업주부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²⁶⁾ 이는 모성과 돌봄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집중적 모성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과 자기 규제를 요구하는 규범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어머니’로 주체화하게 만든다. 전업주부 여성들의 돌봄 실천은 종종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사회적 규범과 감정노동, 훈육의 결과로 구성된 행위이다. 이 수행은 여성 주체를 ‘좋은 어머니’로 규정하는 동시에, 모성과 여성성에 대한 통제를 내면화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수행은 단순히 규범의 내면화나 복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성들은 돌봄을 통해 자아를 구성하고, 규범을 재해석하거나 균열내는 나름의 전략을 수행한다. 돌봄은 권력, 규범, 주체성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는 순응과 저항, 욕망과 불안, 자율성과 규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 여성들의 성별화된 돌봄 실천을 분석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젠더 권력이 어떻게 재생산되거나 균열되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이며, 여성 주체가 젠더 질서 속에서 위치를 구성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기도 하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글은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과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전업주부를 선택하여 지속하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의미화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업주부로서의 만족도와 가족 내 성별분업 구조가 어떻게 지역이

26) 박혜경, 2008, 신경아, 1997, 이재경, 2004, 황정숙, 2021.

라는 공간적 층위를 통해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40대 전업주부 5명이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이 맞물려 일을 그만둔 뒤 한 명을 제외하고(차정숙씨) 추가 취업 경험 없이 여성들이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를 특정한 연령대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한국의 여성노동 공급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M자 곡선'에서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30대에 급격히 하락한 뒤 자녀의 양육이나 경력 단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면서 상승 시기와 생애 경로가 맞아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 육아부담이 줄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재취업에 대한 진로 욕구와 전업주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전업주부의 경험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 참여자는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으면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이들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 또는 참여자의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반구조화된 질문방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는 선형적인 범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화 대화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즉흥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복합적인 특성들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²⁷⁾ 연구자의 공통된 질문 체계 위에서 각 참여자의 경험과 서사 흐름을 고려해 질문의 순서와 깊이를 조정하여 탐색적 대화를 이어갔다. 주로 전업주부를 하게 된 계기와 동기,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치 인식,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배분 방식,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견해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대화 내용은 모두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전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했다.

27)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120면.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가구 월소득은 약 300만원에서 450만원(4대 보험 등 공제 후 실소득) 수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소득 기준으로는 4인 가구 중 위소득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파트 소유 등 자산 구성,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생활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중산층 하위 범주에 위치한다. 또한 자녀 교육 및 모성 수행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화자본의 활용 양상을 고려할 때, 중산층적 가치와 실천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가명	나이	학력	결혼 연령	결혼 기간	전업 주부 기간	자녀성별 (학년)	결혼 전 직장경력	남편 직업	가구 월소득
1	이수임	48	대졸	34세	14년	14년	아들(초6) 아들(초2)	시민 활동가 법무사 사무실 (10년)	생산직	300~ 350만원
2	노승혜	46	대졸	29세	17년	16년	아들(중3) 딸(초5)	영어학원 강사 (6년)	보험 설계사	350~ 400만원
3	진진희	44	대졸	30세	14년	13년	딸(초6) 아들(초5)	텔레 마케터 (10년)	은행	350~ 400만원
4	한서진	41	대졸	29세	12년	12년	딸(초5) 딸(초2)	수학학원 강사 (6년)	생산직	400~ 450만원
5	차정숙	49	대졸	32세	17년	17년	딸(중3) 아들(중1)	과학학원 강사 (7년)	영업직	400~ 450만원

사례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성장하였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결혼퇴직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결혼 이후에도 경력 지속이 가능해진 세대이고, 졸업정원제로 대학생 인구가 늘면서 대졸여성의 취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기이기도 하다.²⁸⁾ 동시에 이들은 1990년대 한국 여성주의 운동이 대중적 차원으로 확장되던 시기에 청소년을 보낸 세대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담론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직업선택의 다양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이 세대 여성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적 성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풍요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가족 내에서의 여성 역할과 사회적 참여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겪는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광역시 또는 인근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후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적게는 6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직업 간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로 경험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결혼 이전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경험했으며, 결혼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2010년대 여성 초혼 평균 연령이 28세(통계청, 2012)²⁹⁾에 비해 다소 늦은 편에 속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계기로 전업주부가 된 이수임씨와 차정숙씨, 육아휴직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전업주부로 전환한 노승혜씨와 진진희씨, 임신을 계기로 퇴직한 한서진씨로 나뉘며, 모두 일정 기간 노동경험을 거친 후 전업화된 공통된 경로를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령기 자녀 두 명을 양육 중이다. 배우자들은 주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에도 동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모성과 가

28) 이정희,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98~300면.

29) 통계청, 「2011 혼인·이혼 통계」, 2012년 4월 19일 참조.

정생활을 실천해 왔다. 이들은 비교적 낮은 가구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와 지역적 정착성, 중산층적 모성 실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지역에서의 전업주부성과 집중적 모성 수행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결혼 기간은 12년에서 17년에 이르며, 결혼 후에도 지역 이동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지역 전업주부들의 모성 실천과 일상

1) 전업주부 선택의 전략성: 젠더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대응

(1) '일하면 더 억울하다': 전업주부의 전략적 수용

여성들이 맞벌이와 함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현실은 이중 부담을 초래하며, 전업주부로의 전환이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가족 내 젠더 분업이 실질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남편들이 가사나 육아 분담에는 소극적인 반면, 아내가 생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부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드러났다. 실제로 전북 지역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56분인 반면, 남성은 59분에 그친다.³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에 달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급 노동 이후 이중 부담과 일상적 '시간 빈곤'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남편들이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편들은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파트타임 경제활동을 하길 바라며, 생계에는 기여하되 돌봄노동에서는 자유롭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일과 가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맞벌이보다 전업주부의 위치를 택하게 된다. 이는 남편들의 부담한 이중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업주부를 주체적인 선택이자 저항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수임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정작 가사와 돌봄노동은 회피한다고 말한다.

30)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 209면.

이수임: 나도 이제 10년을 살아봤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골수 보수 이게 고정된 게 있잖아요. 역할이 강한 거죠.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분담을 하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건 굴뚝같지만 실질적으로 하여튼 본인이 그걸 싫어해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그렇게 분담이 안 될거예요. 나의 타협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몫을 안 하니까 이 집에 대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성들은 남편이 유급노동만을 수행하는 반면, 자신에게는 돌봄노동과 경제 보조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느낀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일제보다 파트타임 근로를 권하는 태도는, 생계에 일정한 기여는 기대하면서도 돌봄 분담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J지역과 같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돌봄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으로 여성의 일·가족 병행 곤란이 아동들의 방과 후·틈새 시간 공백과 중첩되어 조부모 의존, 비공식 사교육,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등 사적 해결 전략으로 유지되어왔다.³¹⁾ 이러한 공적 인프라의 결핍은 가족 내부, 특히 여성에게 '보충 돌봄 시간'으로 전가되면서 시간 빈곤 심화와 경력 중단이라는 효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가족 내 역할 협상, 직장 제도의 유연성 등 구조적 조건은 상호작용하며 여성의 고용 유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부담함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전업주부의 위치를 현실적인 전략으로 선택한다. 이는 단지 전통적 성역할에 순응한 결과가 아니라,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야기하는 부담함을 회피하려는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성별분업 구조를 '공평한 분담'으로 재해석하면서 전업주부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공평함'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여성이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업이라는 인식에 기반하며, 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로 이어진다.

31) 이주연·황미진,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 탐색-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70~73면.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젠더화된 노동의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잉(Wynn)과 다밍거(Daminger)가 지적한 ‘상호성 신화(the myth of reciprocity)’는 이와 같은 환상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신화는 가족 내 노동 분담이 자발적이고 공정한 교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은폐한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머무르면서 ‘그나마 공평하다’고 느끼는 인식 역시, 남성의 돌봄 회피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내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가족 내 젠더 분업이 상호적인 교환이라는 허구적 내러티브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성별화된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2) ‘순종적인 워킹맘’ 비판과 전업주부의 재해석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가사와 돌봄은 아내의 몫으로 남겨두는 남편들의 현실적인 태도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는 남편이, 돌봄은 자신이 맡는 방식으로 ‘공평한 분담’의 균형을 시도한다. 이는 남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암묵적 불만이자,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가 여성에게 이중의 책임, 즉 경제활동과 가사·돌봄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결국 책임과 희생이 여성에게만 편중된다고 이들은 느낀다. 여성들은 남편의 이중적 기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역이용해 삶의 부담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을 택한다. 노승혜씨는 맞벌이를 할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분업 구조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승혜: 당연히 밖에 나가서 똑같은 시간 일하고 오면 집안일은 똑같이 나눠져야 될 텐데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앞뒤로 하면 되지 왜 시간이 없냐는 식의 반응은 이 사람은 내가 일하면 여전히 집안일은 다 내 몫이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워킹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녀는 전업주부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지만, 적어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전통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것이 아니라, 가사와 돌봄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덜 부담한’ 대안으로 전업주부를 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단지 성별분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젠더불평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공평한 분담’이라 재해석하는 것은 현실적 갈등을 피하고, 구조적 모순을 일정 부분 감내하려는 ‘간파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의 불공정을 모르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간파한 상태에서 취하는 현실적 대응이자 생존 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논리는 때때로 맞벌이 여성들을 ‘순종적인 위경맘’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 현모양처가 순종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젠더 분업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성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이 가끔 “혼자 버니까 힘들다”, “요즘은 같이 벌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은근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남편은 집안일 분담 의지는 없으면서 경제적 책임은 함께 나누길 원한다는 점에서 불만과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변 남성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맞벌이를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 아닌, 남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조’로 전략시킨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노승혜: 전업주부는 서로 부담이 덜한 거 한 가지씩만 하면 되니까 말아서 딱 맞벌이 하면 피 튀기죠. 서로가 미를 게 뻔하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좀 순종적인 여자들이면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과 육아가 내 일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담을 시키려고는 안 해요. **이건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근데 내가 일을 했으면 이것도 분담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나마 지금이 공평하지.** (저자강조)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있을 때 남편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남편에게 돌봄 분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남편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역할 분담을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여성이 독박 돌봄노동을 감수하게 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차정숙: 항상 하숙집이죠. 너무 피곤하니까 본인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숙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옛날 과거에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왕처럼 대접을 하셨는데 자기도(결혼을 하면)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심해서 (저자강조)

여성들은 남편의 돌봄노동 회피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강하게 문제화하기보다 ‘이해 가능한 범위 내의 불공정’으로 수용하며 일상의 갈등을 조율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 내 젠더 권력의 구조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보다, 그 틈에서 최소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결국, 전업주부로 남는다는 선택은 여성들이 단순히 보수적인 성역할을 내면화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공정하지 않은 조건에서 맞벌이를 선택하기보다는, ‘덜 불공정한 전업주부’라는 위치를 통해 나름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는 가시적 저항이 아니라 일상의 타협과 계산 속에서 형성되는 미시적 실천으로, 전통적 규범을 활용해 자신들의 현실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다.

2) 전업주부 역할의 합리화: 젠더 분업의 내면화와 돌봄노동의 재의미화

(1) 실용적 판단으로서 전업주부화: 가족 안정성과 돌봄 효율의 논리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별다른 상호 협의 없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 전에 학원강사, 텔레마케

터, 사무직 등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 반면, 남편들은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입을 보장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가정 내 돌봄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낳는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육아를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유익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수입이 더 높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맡는 것이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역 내 여성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급여가 적은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구직 여부는 개인의 성취나 자아실현보다 가족경제에의 기여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으며, 이는 전업주부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여성의 전업화는 가족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재해석하며, 성별분업의 불평등이 경제적 실리로 합리화된다. 전업주부의 선택을 돌봄노동에 경제적·정서적 가치를 부여하여 가족의 지출을 절감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수임씨는 “급여가 얼마 안되는 아르바이트 보다 아이들의 활동이 더 가치있다”고 평가한다.

이수임: 계산을 해보면 급여가 얼마 받는 아르바이트로 그 시간을 빼서 직장을 다니는 거 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급여가 그 정도가 될까. 또 아이들 그 시간에 또 맞추려면 나 혼자 종종거려야 될 거고 이득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아이들 마을 방과후 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고 이게 더 가치있지 않나

여성 노동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종사자 5~29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체와 비정규직 부분에서 발생하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년 사이 38.6%에서 47.3%로 상승해 성별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격차는 단지 임금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임금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는 구조적 패턴으로 이어지며, 이른바 ‘모성패널

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²⁾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모두 결혼과 임신·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통계 자료와도 일치한다. 전북 지역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통계에 따르면 '육아'가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이다. 이어서 결혼(23.4%)과 임신·출산(16.8%)이 주요 사유로 나타나고 있어, 돌봄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지속적 고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³³⁾

결국 여성들은 안정적인 돌봄 지원 체계의 부재 속에서 육아로 인해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고 있으며, 이는 전업주 부로의 전환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보다는 제약된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경력단절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가 어렵다는 인식 역시 이러한 판단을 더욱 강화시켰다.

여성들은 가족경제, 자녀 돌봄, 자아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며, 전업 주부의 역할을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성과 돌봄의 효율성을 고려한 실용적 판단이었다. 나아가 전업 선택은 돌봄노동의 불평등을 구조적 쟁점 문제로 보기보다, 가족이 처한 조건 속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으로 정당화되며, 집중적 모성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 경제적 기여로서의 돌봄: 인정과 역설 사이

가족 내에서 전통적인 성별분업 구조는 갈등과 협상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여성은 가사와 돌봄을 책임지는 '내부 노동자'로, 남성은 경제적 소득을 책임지는 '외부 노동자'로 역할 분리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상의 균형을 도모하려 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그동안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역할로 당연히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족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저평가되어왔다고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여성의 돌봄노동은 무급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32) 신경아,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 '젠더 갈등'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여성학논집』 41(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4, 64~65면.

33)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 2024, 75면.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돌봄노동을 가볍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고자 노력을 해왔다. 한서진은 남편이 “팔자 좋게 논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부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서진: 처음에는 신랑이 보통의 남자들이 너는 팔자 좋게 그리고 막 논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신랑하고 좀 다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정을 얘기하고 나니 신랑도 너도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너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다툼은 없어졌거든요.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 온 거에 대해서 저도 배려를 해주고 있고 이제 신랑도 제가 집안일 힘들다고 토로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로 한 이후로부터는 서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편한 관계가 되면서 지금 일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서진은 초기에는 남편의 무시 섞인 인식에 불만을 느꼈지만, 집안일의 어려움과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이해와 인정의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전업주부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재설정하고, 배우자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을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돌봄노동과 유급노동을 서로 다른 ‘역할’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남편은 가사 분담 요청을 제한적으로 수용했고, 여성은 여전히 전적으로 가사·돌봄을 책임지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평등한 재분배보다는 성역할 규범의 재구성으로서 성별분업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자신의 돌봄노동을 금전적 수치로 환산함으로써 유급노동과의 동등성을 주장했다. 진진희씨는 자신의 하루 노동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과거 직장 월급과 “얼추 비슷하다”고 느꼈고, 이를 통해 전업주부의 노동이 가족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의미화했다. 가사·돌봄노동은 무임금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자산’이라는 정당화로 이어진다.

진진희: 집에서 이만큼 케어를 못해주면 온전히 밖에서 그 일을 마음 편히 이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엄마가 여기서부터 다 해줘야 여기도 마음 편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맞벌이가 아니고 전업주부다 보니까 뭐 별이도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럼 그만큼 엄마가 더 애한테 투자해야 되는 학원 보내는 대신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전부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해주니까 신랑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와 같은 경제적 환산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하고 재평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동시에 돌봄노동을 교환 가능한 노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성별분업의 구조를 고착화하는 이중적 효과도 있다. 돌봄이 가족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가 강화될수록, 그 노동이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기존 구조가 오히려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상당수는 저임금·불안정한 과거 노동 경험과 현재의 돌봄비용을 비교해 볼 때, 전업주부로 남는 것이 가족 전체에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의미화하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으려 했다. 이는 갈등을 해소하고 선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별화된 역할 구조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돌봄노동은 인간의 삶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가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젠더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³⁴⁾ 배우자 간 상호 존중과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평등한 재구성이 아닌 상호보완적 분업의 유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여성들의 전업주부 경험에 대한 긍정성은 전통적 성역할 분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남편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시도는, 결국 남성 중심의 노동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34) 윤자영, 「사회재생산 패러다임과 젠더 정의」, 『여/성이론』 3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11~27면.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3) 전업주부의 성취와 젠더 질서의 재생산

(1) “살 만해서 부럽다?”: 지역 맥락 속 전업주부의 계급적 역설

지역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일은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모순된 계급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여유롭다”, “부럽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살아가는 조건은 이러한 시선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수도권에 비해 노동시장이 협소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지역의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전업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를 뜻하기보다, 오히려 불안정한 가족경제 속에서의 절약과 긴축의 전략을 요구한다.

전업주부를 선택한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살림 전략을 실천한다. 노승혜씨는 학원을 보내는 대신 문화센터나 영어체험센터 등 무료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이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자가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절약과 관리의 노동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한다. 사교육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드는 구조 속에서, 만약 자신이 이런 지출을 감당하려 했다면 결국 일을 해야 했을 것이며, 이는 다시 돌봄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설명한다.

노승혜: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자가 좋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남편이 잘 버나 보다 하는데 이긴 좀 억울합니다. 내가 뭐 돈을 안 쓰는 대신 문화센터 수업 보내고 학원 보냈으면 100만원 이상은 들겠지. 적어도 그 돈은 학원비 거의 다 쓰고 남는 게 없어 마이너스야(...) 신랑도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해. 학원비 안 나가잖아. 다 영어체험센터 보내고 무료니까 내가 다 애들 픽업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현실은 전업주부가 곧 경제적 여유와 선택의 결과라는 통념에 균열을 낸다. 실제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경험은 개인이 처한 자원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며, 특히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중산층 전업주부 모델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별도의 외부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 교육과 가족 소비 전반을 총괄하는 ‘가계관리자’로 주체화되며, 그 결과 여성들은 건축의 기술을 동원해 가계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정은 단순한 고통이나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다. 이는 지역이라는 구조적 맥락, 제한된 자원,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업주부들이 경험하는 계급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 자녀교육과 성취 중심 모성: 학력자본의 전이와 개인 책임의 내면화

지역의 고학력 전업주부들은 과거 청년 시절 축적한 학력자본을 자녀의 교육에 전이하며, 이를 통해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은 사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공공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는 것을 전업주부로서의 ‘성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의 모성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서의 만족감을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성에서 찾기도 하지만, 특히 자녀의 성취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심리적 보상을 얻고 있었다. 특히, 자녀교육은 가족 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를 가시화하는 핵심적 지점으로 기능한다. 진진희씨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로 “아이들의 성적이 잘 나와야 집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한다.

진진희: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 애한테 공부 공부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나도 집에서 이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 주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이런 거다 하고 인식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내 노동의 어떻게 보면 성과가 아이의 성적도 있다. 아이가 너무 마르거나 똥똥하거나 그런 것도 모든 게 건강도 마찬가지 가족들의 모든 게 포함이라고 보면 돼요.

그는 자녀의 성적이 단순히 개인의 학업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것”이라는 식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성과를 요구받는 과업이 된다. 이는 자녀의 성적만이 아니라, 자녀의 외모와 건강까지도 모두 전업주부의 돌봄성으로 간주되는 과잉책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전업주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그 결과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센터나 공공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결혼 전 학원 강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직접 지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녀의 성적을 단지 자녀 개인의 결과로 보지 않고, 가족 전체의 성과이자 전업주부 자신의 성취로 해석한다. 이는 곧 자녀교육이 전업주부의 ‘성과 중심 모성’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단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녀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것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러한 모성 실천은 신자유주의 담론이 강조하는 개인 책임과 성과 중심 가치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성은 자녀의 학업 성적은 물론 건강, 정서, 일상생활 전반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는 돌봄노동의 정서적·관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지역의 고용 불안정성과 자원 부족은 이러한 부담을 심화시키며, 전업주부의 노동 강도를 한층 높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녀의 성취를 통해 가족 내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구성하며 자긍심을 형성한다. 나아가, 제한된 사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에 가까운 가족 문화를 형성하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 자녀의 성장을 전업주부로서의 ‘성과’로 인식하는 모성 실천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강화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자아실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이 축적한 학력자본을 자녀 교육에 투입하며, 모성과 성취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모색하는 이중적 존재

35) 박주연, 「『코로나 시대』의 성별화된 돌봄노동과 부모 노릇」, 『한국여성학』 33(4). 한국여성학회, 2022, 195~227면.

로 자리 잡는다.

(3) “엄마가 밥 차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모성의 교육적 확장과 성별질서의 재생산

여성들은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내 문화와 규범을 재편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내에서 성별분업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돌봄노동이 자녀들에게 전통적인 성규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편들은 이미 내면화된 성규범으로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이에 이들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밥 차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들은 남편에게는 가족 내 기존에 형성된 규범을 해체하기 위해 대화나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성적향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까지 책임지며 모성 실천의 영역을 넓힌다. 그 과정에서 당장 변화는 어렵더라도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들이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손하나 까닥 안하는” 행동에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이러한 모성 실천은 단순히 자신들이 돌봄제공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요구하면서, 돌봄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이수임: 나는 아들들한테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려고 엄마가 밥차리는게 당연하게 아니다 같이 해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손하나 까닥 안하는거 보고 화도 많고. 제가 근데 그런 존중이 또 있어야 이게 평등한 어떤 좀 공평한 어떤 그런 부분이 문화가 이루어지려면 존중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 역할이라서 하는게 아니라 남자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10년동안 얘기해도 안 바뀌. 나도 아들들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수임씨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변화의 어려움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준다. 남편

세대는 이미 성역할을 내면화하고 있어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참여자들은, 자녀 세대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적 변화의 기대를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진지희: 남편은 말해야 도와주고.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설거지 해 아빠 청소기 좀 돌려 왜 엄마만 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도 이거는 “너네들이 공평하게 이제 계속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제가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라서 둘 다한테 얘기를 해요. 당장 지금 세대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아래 세대들이 바뀌는 거니까. 내가 이제 똑같이 어차피 남자의 그런 구분은 없다. 같이 하는 일이다 하면서 교육을 해요.

이처럼 여성들은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희망하며 모성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가사·돌봄노동의 주체로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성평등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모성 실천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아이러니를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전업주부들은 지역에서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학력자본과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녀교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성을 실천하고 있다. 자녀의 성취와 가족의 안정, 성평등 가치의 전이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며, 가족 내 영향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실천은 전업주부의 정체성과 노동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 여전히 돌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구조를 반복·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긍심과 영향력의 원천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성별분업 질서를 재생산하는 젠더화된 실천이기도 하다. 이는 전업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젠더불평등 구조를 은연중에 공고히 하는 이중적 효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가족 내 성별 권력과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전업주부의 모성 수행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지역성과 계급성이 결합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복잡적이고 억압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지역 중하위 계층에 속한 다섯 명의 전업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전업의 선택과 수행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집중적 모성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적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공정한 역할 분담’이라는 논리를 통한 전통적 젠더 질서를 재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남편에게 과도하게 요구되는 이중노동, 즉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여성들은 성별분업 구조에서 맞벌이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성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업을 효율적 분업이자 ‘공정한 선택’으로 재해석한다. 이는 겉으로는 성역할에서 탈젠더화된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젠더 질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들은 젠더평등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가족 생존과 기능 유지를 위해 비평등한 역할 분담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등주의적 이상과 실제 실천 간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러한 괴리는 Daminger (2021)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평등을 지향하는 커플조차 전통적 가사 분담을 유지하는 “탈젠더화된 과정이 젠더화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³⁶⁾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자율적 의미 부여와 함께, 모성 이데올로기의 자기 재생산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을 단순한 가사책임이 아닌 정서적·교육적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적 활동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가족 내 영향력과 존재 가치를 재정립한다. 특히 지역의 제한된 자원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여성들은 자녀의 교육 성과와 가정의 안정을 전업주부로서의

36) Daminger, A, “De-gendered Processes, Gendered Outcomes: How Egalitarian Couples Make Sense of Non-egalitarian Household Practi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5(5), 2021, pp.806~829.

주요 성취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력 자본과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돌봄을 '성과 있는 노동'으로 의미화하려는 경향이 포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실천은 능동적 모성 수행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위치를 가족 내부에 고정시키고,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돌봄의 가치를 강조할수록, 여성의 역할은 더욱 가정에 한정되며 전업주부의 삶은 기존의 성별분업 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셋째, 전업주부의 삶은 지역의 제한된 기회 구조 속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정당화된다. 여성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자신의 노동시장 경험을 토대로 유급노동보다 전업주부의 삶이 가족 전체의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돌봄노동을 남편의 유급노동과 '동등한 기여'로 간주하며, 가족의 안정과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태도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여전히 여성의 삶을 가족 내부에 고정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특히 여성의 전업 역할이 '개인의 선택'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은,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 차별과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 논의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은 가시적 인정과 자긍심을 가져오지만,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의 돌봄노동이 높게 평가될수록 책임은 더욱 여성에게 집중되고, 남성의 참여는 정체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심화된다. 특히 참여자들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전업 역할을 '공평한 분업'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이중성을 드러냈으며, 이는 가족 내 성별 권력 구조의 재편을 어렵게 만드는 상징적 장벽으로 작동한다.

한편, 이러한 젠더 분업 구조는 가족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불평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가 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여성 노동력은 경력단절, 시간제 전환 등 구조화된 모성 비용에 따라 저임금·비정규직에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단순한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오히려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집중 직종의 임금 평가체계 개편과 성별 직종 분리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³⁷⁾

결과적으로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을 ‘가치 있는 역할’로 이상화하는 접근은 결국 성별분업을 고정시키고, 공사 분리의 경계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돌봄 책임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킨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를 가로막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전업주부의 마지막 세대”(차정숙)로 전망하며, 남성 생계부양 중심의 분업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었다. 나아가 성별 분업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사 영역에서의 젠더평등은 불균형한 방식으로 진전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족 내 성별 권력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이 돌봄 책임을 공유하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향한 실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화하고, 여성에게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중하위 계층의 기혼여성이 전업주부의 지위를 선택·유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젠더 질서를 분석하고, 지역성과 계급성이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성별분업 체계가 여전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조건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한된 참여자 수로 인해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계층적·세대적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족 내 상호작용 속에서 젠더화된 돌봄노동이 어떻게 협상되고 유지되는지를 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7) 조수철·김영미, 「한국 노동시장 내 직종의 여성화와 성별 임금격차: 가치절하 기제의 성별화된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26(3),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283~322면.

■ 참고문헌

- 김은희, 「신중산층의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접근』, 집문당, 1997, 235~271.
- 김이선·박경숙,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 『경제와 사회』 122, 비관사회학회, 2019, 138~170면.
- 박소진,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43~81면.
- 박주연, 「'코로나 시대'의 성별화된 돌봄노동과 부모 노릇」, 『한국여성학』 33(4), 한국여성학회, 2022, 195~227면.
-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 가족의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혜경,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한국여성학회, 2009, 5~33면.
-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한국여성학회, 2010, 127~158면.
- 배은경, 「'경제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층의 교차」, 『페미니즘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39~82면.
- 신경아, 「한국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박혜경,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한국여성학회, 2014, 153~187면.
- 박혜경,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 '젠더 갈등'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여성학논집』 41(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4, 64~65면.
- 신나리, 「맞벌이면 같이 해야지... 전업주부는요?」, 『오마이뉴스』, 2018년 3월 20일.
- 심영희,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시간문화와 여성: 대입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회, 1996, 1~41면.
- 오하영, 「2000년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 -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167~195면.
- 이정희,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98~300면.

- 이주연·황미진,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 탐색 - 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70~73면.
- 윤자영, 「사회재생산 패러다임과 젠더 정의」, 『여/성이론』 3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11~27면.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120면.
- 이명신·부수현, 「중년부부의 갈등인식 정도, 갈등해결전략, 책임분담에 따른 군집유형 비교: 부부권력, 결혼만족과 스트레스의 차이」,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6(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43~80면.
- 이민경, 「중산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한국교육사회학회, 2007, 159~181면.
- 이아승, 「신자유주의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 전업주부의 돌봄노동 가치 인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문화』 32(3), 한국가족학회, 2020, 54~77면.
- 이재경,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82~117면.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142~175면.
-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 2024.
- 조수철·김영미, 「한국 노동시장 내 직종의 여성화와 성별 임금격차: 가치절하 기제의 성별화된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26(3),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283~322면.
- 조형, 「도시중산층 전업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여성학』 13(2), 한국여성학회, 1997, 200~239면.
- 추주희·이희정,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전공계열과 전공 선택 지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32(3), 한국문화사회학회, 2024, 103~142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3월 7일자 참조.
- 통계청,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2024년 6월 18일.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020년 7월 30일.

- 통계청, 「2011 혼인·이혼 통계」, 2012년 4월 19일.
- 황성희, 「중소도시 중산층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 지원 문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2), 한국교육사회학회, 2014, 277~303면.
- 황정숙, 「중산층 전업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과 모성 재구성에 관한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1(4),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 245~275면.
- 황정숙·황성희(2019), 「전업어머니의 모성 수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행위자성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6(2), 한국학부모학회, 2019, 79~100면.
- 황진미, 「의사가 전업주부를 해?...‘차정숙’이 보여주는 경력단절의 늪」, 『한겨레신문』, 2023년 4월 29일.
- Catherine Verniers, Virginie Bonnot, Yvette Assilaméhou-Kunz, “Intensive mothering and the perpetuation of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a mixed methods research,” *Acta Psychologica*, Volume 227, 202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1691822001299>
- Cucchiara, M., & Steinbugler, A. C., “The books made you feel bad”: Expert advice and maternal anxiety in the early 21st century. *Sociological Forum* 36(4), 2021, pp.939~961. <https://doi.org/10.1111/socf.12748>
- Daminger, A, “De-gendered Processes, Gendered Outcomes: How Egalitarian Couples Make Sense of Non-egalitarian Household Practi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5(5), 2021, pp.806~829.
- Dembosky, J. W., Heckert, D. A., Boser, S., & Migyanka, J. M, “Shouldering the burden: Intensive mothering and autism,” *Family Relations* 73(2), 2024, pp.807~825. <https://doi.org/10.1111/fare.12943>
- Dernberger, B. N., & Pepin, J. R, “Gender flexibility, but not equality: Young adults’ division of labor preferences,” *Sociological Science* 7(1), 2020, pp.36~56.
- Hays, S.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1996.
- Henderson, A., Harmon, S., & Newman, H, “The price mothers pay, even when they are not buying it: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idealized motherhood,” *Sex Roles* 74(11-12), 2016, pp.512~526. <https://doi.org/10.1007/s11199-015-0534-5>
- Kim jihoon and Sumie Okazaki, “Short-Term ‘Intensive Mothering’ on a Budget:

Working Mothers of Korean Children Studying Abroad in Southeast Asia,”
Asian Women 33(3), 2017, pp.111~139.

Sullivan, O, “Changing gender practices within the household: A theoretical
perspective,” *Gender & Society* 18(2), 2004, pp.207~222.

Wong, J. S., & Daminger, A, “The myth of mutuality: Decision-making, marital
power, and the persistence of gender inequality,” *Gender & Society* 38(2),
2024, pp.157~186.

| Abstract |

Striving to Be the ‘Perfect’ Mom on the Margins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tay-at-Home Mothers in Their 40s in Region J —

Choi, Jangmi · Choo, Joohee

This study explores the lived experiences of stay-at-home mothers in their 40s in Region J, focusing on how they practice intensive mothering and navigate gendered structural inequalities. Growing up ami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 policies, the participants chose stay-at-home motherhood after marriage — less as a nod to tradition and more as a strategic response to economic and gendered constraints in their local contexts.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traditional gender roles, their choices reflect active strategies to cope with unequal domestic labor and limited job opportunitie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married women, this qualitative study examines how they internalize and enact the ideals of the “perfect mother” while interpreting their unpaid labor as a rational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rough the notion of “fair division.” However, such rationalization often reinforces gendered divisions of labor and sustains social norms regulating femininity and motherhood. While striving to instill egalitarian gender values in their children, these women continue to bear the primary burden of care work. Stay-at-home motherhood emerges not as a purely individual choice, but as a gendered practice shaped by broader forces — class, region, and cultural expectations. This study sheds light on how women actively negotiate these forces while managing family life and maternal identity in contemporary Korea.

Key Words : Family, Stay-at-Home Mothers, Intensive Motherhood, Gendered Division of Labor, Care Work

| 서평 |

랜든 핸콕, 크리스토퍼 미첼, 『평화지대』, 한국문화사 2025.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평화

강의혁*

『평화지대』(*Zones of Peace*)는 전쟁이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안에서 폭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랜든 핸콕(Landon Hancock)과 크리스토퍼 미첼(Christopher Mitchell)이 엮은 이 책은 사례 연구와 이론적 틀의 접목을 통해 이러한 “평화 지대”가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는지를 분석한다. 보통 ‘위로부터의 개입’이 주가 되는 전통적인 분쟁 해결 접근법에 도전하며, 폭력의 영향을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의 분석, 특히 이 평화의 공간이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핵심 전제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것은 분쟁 지역 안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폭력이 만연한 넓은 지역 속에서도 상대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섬”과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평화 지대는 정부나 국제기구의 개입처럼, 위로부터의 정치적 과정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공동체 규범, 그리고 그 지역에 고유한 사회정치적 역학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이 책은 이러한 공간들을 분석함으로써 평화와 분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 책의 맨 앞장과 맨 뒷장은 다양한 평화지대의 사례 분석에서 비롯된 통찰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 책의 몸통 부분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평화지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통을 이루는 다양한 사례들에서는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통적인 패턴과 맥락적 요인을 밝히는 데 기여하며, 1장과 맨 마지막 장은 각각 평화지대의 기초적인 이론 및 책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서 추출된 평화지대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엘살바도르의 분쟁 후 평화지대다. 엘살바도르의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라 코오르디나도라>(라 코오르디나도라 데 코뮤니다데스 데 바호 렘파 이 라 바히라 데 후이킬리스코)는 2000년 이전에 86개 공동체로 성장했고, 이들 공동체가 창립한 NGO인 맨크로브 협회는 각 공동체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책임을 맡는다. 이 협회는 공동체 조직화, 재난 대응 및 예방, 주민 참여, 친환경 개발, 그리고 평화문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특히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평화지대(LZP/Local Zone of Peace)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된다. 엘살바도르 지역평화지대의 특징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지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며, 이 지역평화지대를 가장 강력하게 견인하는 것이 바로 평화문화 프로그램이다.

평화문화 프로그램에서는 평화에 대한 지식 교육, 평화교육, 분쟁 전환 방법, 조직화 및 참여 촉진 방법, 긍정적 사회변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실천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대화와 성찰 모임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사회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대화, 교육, 정보, 태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폭력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빈곤 퇴치, 교육,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추상적 논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자리 부족, 극심한 빈속 속에서의 생존 문제, 갱단으로부터의 폭력, 공권력에 의한 차별과 같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개발하였다. 예컨대 갱단 가입의 대안으로 ‘빛 청소년 예술 프로젝트’(Rays of Light Youth Art Project)나 ‘아디오스 타투’(Adios Tattoos)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

회 재통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 인쇄서비스, 인터넷 제공의 역할을 하는 망그로브 사이버카페(Mangrove Cybercafe) 프로그램이나 주민 자립을 촉진하고 정보 확산을 도모하는 망그로브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라 코오르디나도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개발이나 재난 대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 이 조직이 얼마나 민중들에 삶에 천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빈곤과 부패와 같은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을 직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평화지대에 주목한다.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 주민들의 삶과 결합되면서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평화지대를 통한 연대의 경험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거시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분쟁 전환 및 평화 구축 방법 등—의 활용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연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엘살바도르의 예 말고도 이 책은 필리핀, 페루, 구 유고슬라비아, 수단 등의 다양한 지역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 정체성, 통치 구조, 외부 행위자의 역할 등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다양한 맥락과 서로 다른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서로 다른 예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평화 지대가 단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 도덕적 비전, 생존을 위한 실용적 판단 등을 통해 지속적 실천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평화 지대의 이해가 분쟁 해결 이론과 평화 구축 실천 양자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방식이 국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의존하는 반면, 평화 지대 접근법은 풀뿌리 차원의 자율성과 ‘아래로부터의 평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국가차원에서 한 번에 완성되는 분쟁 해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공동체 스스로가 집단 행동과 회복력을 통

해 평화의 미시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헨콕과 미첼은 평화 지대를 단지 예외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 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단위이자 일상적 실천의 방법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 마디로 평화지대는 평화를 열망하는 공동체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그 실천의 방법이자 언어다. 『평화지대』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 보는 개념에 도전하며, 평화는 유지와 협상, 공동체 참여가 필요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결국, 『평화지대』는 평화학에 개념적 기여를 하는 동시에, 풀뿌리 평화 활동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서사에 도전하며, 분쟁 속에서도 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 바. 심사료는 없으며, 게재료는 전임 10만원, 교내연구비 20만원, 교외(연구재단 등)연구비 30만원이다.
- 사. 학회지 면수를 기준으로 30면 초과시 초과된 면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

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2일 수정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학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 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

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

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04. 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김청우(부경대), 김형주(전남대) 박미선(전남대), 신선혜(호남대), 이현재(서울시립대), 정미선(전남대), 최대희(전남대), 한우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하현정(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설배환(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양순자(전남대), 김태완(전남대), 강의혁(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 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익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종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의송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황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9.)

특별기고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종구 | 정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맛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3.)

일반논문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2016)에 대하여

김종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종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

위민호·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

홍성호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최영진 | 일반계고등학교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가족과 커뮤니티』 8집 (2023. 7.)

기획특집: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정란 |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홍양희 |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반논문

진서금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정천구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양소영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김덕삼·이경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서평

정미선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9집 (2024. 1.)

민무속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김병인 |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류명옥 |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유해인 | <황릉동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황지현 |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김주원·강의혁 |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민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김란영·주승섭·엄윤정·류도향 |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김나경·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최마티·신지원 |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김덕삼·이경자 |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 Issue

황인호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평

한우리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10집 (2024. 7.)

기획특집: 미래 커뮤니티를 그리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커뮤니티의 진화

- 박미선·신항수 |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가족 담론의 변화: 1·2학년 사회과 교과서 및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대현·이유나 | 비(이성애)혼 게이커뮤니티의 명암
김순남·나영정 | 키워생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천으로서의 돌봄: 게이 남성을 중심으로
최대희 | 자기조직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알린스키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구상의 출현 배경과 의미
류도향 | 초개인화시대,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양성방안 연구

일반논문

- 정천구 | <진정사효선쌍미>의 서사적 특성과 효선 재해석
김동연 | <부여노정기>에 나타난 연안 이씨의 다층적 공간 인식과 여행 인식
최은주 | 玉川 趙德鄰의 親族 관련 祭文에 나타난 애도방식과 의미
김종수 | 유의(儒醫) 석봉(石峰) 김병태(金柄泰) 가문의 대택(大宅) 경영
김동규 | 레비나스에게 가족의 의미: 『전체성과 무한』 4부 C “번식성” 및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대한 한 가지 해석
우양호 |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의 균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공무원과 회사원의 비교
윤선숙·조유영 |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숙경 | 노인 돌봄의 특징과 현실, 정책의 전환: 지역공동체 디지털 돌봄을 위하여

서평

김재민 | ‘잃어버린’ 모성과 상실의 트라우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족과 커뮤니티』 11집 (2025. 1.)

기획특집: 복합위기의 시대 이주, 노동, 그리고 공동체의 대응

김경학 | 국내 고려인 청년 이주자의 민족집단 내 결혼

박아름·강혁민 | 복합위기 시대 로컬평화의 실천양식: 리빙랩 기반 대학교육

이기연 | 코로나19 경험이 인도 도시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이주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 현안을 중심으로

최대희 | 노동운동과 교회에 대한 알린스키의 태도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일반논문

류명옥 |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결핍과 죽음의 이면적 의미

한의승 | 玄谷 趙緯韓 漢詩 研究 -挽詩를 중심으로

김정녀 | 19세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 휘절 양상과 의미: <李花實傳>과 <吳後姜傳>을
중심으로

안서현 |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 우생 관념과 우생학적 시간성: 이견영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김남석 | <별에서 온 그대>에 반영된 가족 제도의 혼종성과 여성 주체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김 의 | 畢柳鵲의 『斷食善終』에 나타난 타이완의 단식 존엄사 논의

박영민 | 가족 서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D대학을 중심으로

박주희 | 만화 게임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연결 요인: 마음교육과의 연계 분석

서평

강소희 | 공동성과 취약성 위에서 ‘감염’을 사유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
- 박미선 외, [연구총서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 Elsa Dolin 외, [연구총서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 Uma Krishnan 외, [연구총서4] 가족커뮤니티와 다성적주체론, 한국문화사, 2024. 2. 23.
-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한의승 외, [국가전략총서4] 가족커뮤니티 윤리와 가족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 31.
- 류도향 외, [국가전략총서5]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8. 30.
- 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6] 귀어한 가족커뮤니티에 대한 상상과 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8. 30.
- 박미선 외, [국가전략총서7] 경계를 넘어선 가족커뮤니티의 미래,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4. 28.
-

2. 번역총서

-
- Tony Blackshe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
- Lodger Pries 지음, 최대희·장영숙 옮김, [번역총서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4] 기억의 윤리, 한국문화사, 2023. 6. 19.
-
- 岡野八代 지음, 이수진·박경희 옮김, [번역총서5] 가족 — 새로운 「친밀권」을 찾아서, 한국문화사, 2023. 9. 27.
-
- 许琪 지음, 장복동·최만원 옮김, [번역총서6] 계승과 변천·현대 중국 가정의 구조와 가정 양로, 한국문화사, 2024. 11. 13.
-
- Cesare Casarino·Antonio Negri 지음, 강의혁·박선아·한우리 옮김, [번역총서7] 공통예찬, 한국문화사, 2025. 3. 31.
-
- Richard Kearney 지음, 김연민·김은혜 옮김, [번역총서8] 터치,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다, 한국문화사, 2025. 2. 21.
-
- Landon Hancock·Christopher Mitchell 지음, 강의혁·박선아 옮김, [번역총서9] 평화지대, 한국문화사, 2025. 4. 30.
-
- Tobias Meier 외 지음, 김일두 외 옮김,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이란 무엇인가?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2. 28.
-
- Loretta Pyles 지음, 김희송 외 옮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 글로벌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 2025. 2. 28.
-

3. 시민문화총서

-
-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
-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
-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
-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

4.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2]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총서3]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2. 28.

가족과 커뮤니티 (제12집) FAMILY AND COMMUNITY

발 행 일: 2025년 7월 31일

발 행 인: 정미라

발 행 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인 쇄 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062-530-0571~5

팩 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p.co.kr>

E-mail: cnup0571@hanmail.net

이 학술지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5S1A6B5A02004223)